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2023. 11. 8.(수) - 11. 10.(금)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5A홀 / 321~326회의실



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관계의 인문학: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

The Humanities of Relationships:

Toward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주최



주관



후원



추진기관



PROGRAM CONTENTS

프로그램 일정표

4

프로그램 세부일정표

6

주제 소개

30

강연자 소개

34

기조강연

37

분과회의 세션 1

93

- 1-1 소통의 토대 탐구하기
- 1-2 소통과 연대의 폭 넓히기
- 1-3 디지털 시대의 문화 연대
- 1-4 AI 빅뱅 시대, 확장 인문학을 제안한다
- 1-5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보는 <한일연대>
- 1-6 뇌, 생명, 문화: 공감의 지위에 대한 학제적 접근

분과회의 세션 2

119

- 2-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 2-2 놀이와 예술
- 2-3 관계 맺기, 균형과 조화
- 2-4 인공지능과 공진화하는 세계들
- 2-5 연대를 향한 실천적 성찰

분과회의 세션 3

141

- 3-1 문학 연구의 미래: AI,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상호매체성
- 3-2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 3-3 인간과 기계, 양립과 호혜
- 3-4 전쟁 그리고 타자(others)에 대한 적대와 환대
- 3-5 종교미술의 기능: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 3-6 나와 타자, 공존과 상생

분과회의 세션 4

171

- 4-1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 4-2 동아시아 문화 공감
- 4-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 4-4 이동과 결합, 새로운 발견
- 4-5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세션: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제도 현황
- 4-6 부산특별세션: 이동과 전환의 부산

분과회의 세션 5

207

- 5-1 신진연구자세션: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모색
- 5-2 신진연구자세션: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

분과회의 세션 6

217

- 6-1 신진연구자세션: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 철학
- 6-2 신진연구자세션: 역사 낚설게 보기
- 6-3 연대하는 '외부'들: '바깥'에서 만난 그들
- 6-4 공감과 상상력
-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 6-6 냉전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연대: 재역사화에서 평화운동으로

Program Schedule	5
Program Details	18
Concept Note	32
Speaker Introduction	35
Keynote Lecture	37
Parallel Session 1	93
1 - 1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1 - 2 Broadening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1 - 3 Cultural Solidarity in the Digital Age	
1 - 4 Proposing an Expanded Humanities in the Age of the AI Big Bang	
1 - 5 <Korea-Japan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imacy' and 'Publicness'	
1 - 6 Brain, Life, and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atus of Empathy	
Parallel Session 2	119
2 - 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e	
2 - 2 Play and Art	
2 - 3 Building Relationships, Balance, and Harmony	
2 -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evolving Worlds	
2 - 5 Practical Reflections on Solidarity	
Parallel Session 3	141
3 - 1 The Future of Literary Studies: AI, Digital Media, and Intermediality	
3 - 2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	
3 - 3 Human and Machine : Compatibility and Reciprocity	

3 - 4 War and Hostility & Hospitality to Others	
3 - 5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3 - 6 Me and the Othe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Parallel Session 4 **171**

4 - 1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	
4 - 2 Cultural Empathy in East Asia	
4 - 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in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4 - 4 Moving, Combining, and Discovering	
4 - 5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HSS)]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 - 6 [Busan City Session] Busan in Movement and Transition	

Parallel Session 5 **207**

5 - 1 [Young Researchers Session] Multifaceted Explor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5 - 2 [Young Researchers Sessi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Parallel Session 6 **217**

6 - 1 [Young Researchers Session] Philosophy of Art in the Posthuman Age	
6 - 2 [Young Researchers Session] Refreshed Perspectives into History	
6 - 3 The 'Outsiders' in Solidarity : Those Who Met on the 'Outside'	
6 - 4 Empathy and Imagination	
6 - 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6 - 6 Cold War Memories and Post-memorial Solidarity : From Rehistoricization to Peace Movements	

PROGRAM SCHEDULE

2023. 11. 08 Wed. DAY 1

09:00~09:30	등록
09:30~11:30	<div>분과회의 세션 1</div> <div>1-1 · 321호 1-2 · 322호 1-3 · 323호 1-4 · 324호 1-5 · 325호 1-6 · 326호</div>
11:30~11:50	휴식
11:50~12:30	<div>기조강연 1 · 5A</div> <div>백영서 Baik, Youngseo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div>
12:30~13:30	오찬
13:30~14:00	<div>개회식 및 문화행사 · 5A</div> <div>* 개회식 사전 축하공연은 13:00 시작</div>
14:00~15:00	<div>전체 기조강연 · 5A</div> <div>자크 오몽 Jacques Aumont 이미지의 인간적 힘</div>
15:00~15:30	휴식
15:30~17:30	<div>분과회의 세션 2</div> <div>2-1 · 321호 2-2 · 322호 2-3 · 323호 2-4 · 324호 2-5 · 325호</div>

2023. 11. 09 Thu. DAY 2

09:00~09:30	등록
09:30~11:30	<div>분과회의 세션 3</div> <div>3-1 · 321호 3-2 · 322호 3-3 · 323호 3-4 · 324호 3-5 · 325호 3-6 · 326호</div>
11:30~11:50	휴식
11:50~12:30	<div>기조강연 2 · 5A</div> <div>마이크 김 Mike Kim AI 스타트업 : 기회와 도전 과제</div>
12:30~13:30	오찬
13:30~15:30	<div>분과회의 세션 4</div> <div>4-1 · 321호 4-2 · 322호 4-3 · 323호 4-4 · 324호 4-5 · 325호 4-6 · 326호</div>
15:30~16:00	휴식
16:00~18:00	<div>분과회의 세션 5</div> <div>5-1 · 321호 5-2 · 322호</div>

2023. 11. 10 Fri. DAY 3

09:00~09:30	등록
09:30~11:30	<div>분과회의 세션 6</div> <div>6-1 · 321호 6-2 · 322호 6-3 · 323호 6-4 · 324호 6-5 · 325호 6-6 · 326호</div>
11:30~11:50	휴식
11:50~12:30	<div>기조강연 3 · 5A</div> <div>커스틴 말름케르 Kirsten Malmkjær 언어, 번역 그리고 공감</div>
12:30~13:30	오찬
13:30~14:30	<div>부산특별세션 초청강연 · 5A</div> <div>나 건 Ken Nah 부산의 도시적 자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div>
14:30~15:00	휴식
15:00~15:30	폐회식 · 5A

2023. 11. 08 Wed. DAY 1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1
	1 - 1 · room 321 1 - 2 · room 322 1 - 3 · room 323 1 - 4 · room 324 1 - 5 · room 325 1 - 6 · room 326
11:30~11:50	Break
11:50~12:30	Keynote Lecture 1 · 5A Baik, Youngseo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12:30~13:30	Lunch
13:30~14:00	Opening Ceremony and Cultural Events · 5A *The pre-opening ceremony performance will start at 13:00
14:00~15:00	Plenary Keynote Lecture · 5A Jacques Aumont The Human Powers of Images
15:00~15:30	Break
15:30~17:30	Parallel Session 2
	2 - 1 · room 321 2 - 2 · room 322 2 - 3 · room 323 2 - 4 · room 324 2 - 5 · room 325

2023. 11. 09 Thu. DAY 2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3
	3 - 1 · room 321 3 - 2 · room 322 3 - 3 · room 323 3 - 4 · room 324 3 - 5 · room 325 3 - 6 · room 326
11:30~11:50	Break
11:50~12:30	Keynote Lecture 2 · 5A Mike Kim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2:30~13:30	Lunch
13:30~15:30	Parallel Session 4
	4 - 1 · room 321 4 - 2 · room 322 4 - 3 · room 323 4 - 4 · room 324 4 - 5 · room 325 4 - 6 · room 326
15:30~16:00	Break
16:00~18:00	Parallel Session 5
	5 - 1 · room 321 5 - 2 · room 322

2023. 11. 10 Fri. DAY 3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6
	6 - 1 · room 321 6 - 2 · room 322 6 - 3 · room 323 6 - 4 · room 324 6 - 5 · room 325 6 - 6 · room 326
11:30~11:50	Break
11:50~12:30	Keynote Lecture 3 · 5A Kirsten Malmkjær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12:30~13:30	Lunch
13:30~14:30	Invited Lecture · 5A Ken Nah Humanistic Approach to the Urban Assets of Busan
14:30~15:00	Break
15:00~15:30	Closing Ceremony · 5A

PROGRAM DETAILS

2023. 11. 08 Wed. DAY 1

09:00~09:30 등록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1

321호

1-1 소통의 토대 탐구하기

사회 장은주 영산대학교

- 발표
1. **Nam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Facilitating Constructive Social Discourse : A Role of Religiosity
 2. **홍유빈** 경성대학교
중국 고전을 통해 살펴본 '상호 존중'으로서의 소통 양상 -당대(唐代)에 편찬된《군서치요(群書治要)》를 중심으로-
 3. **유연희** 연세대학교
소통을 위한 이성의 사용 : 칸트의 "건강한 지성의 세 가지 준칙"을 바탕으로
 4. **백규원** 소르본대학교
소통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현상학적 조건 : 미셸 앙리의 삶의 현상학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 신하윤 이화여자대학교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322호

1-2 소통과 연대의 폭 넓히기

사회 윤옥 부산대학교

- 발표
1. **Jérémie Eyssette** Chosun University
Conserving or Conversing with Africa? : France's Heritage Policies and (Neo)Colonial Legacies
 2. **Rimma Tangalycheva** St Petersburg University
Gender Relations in Women's Cinema in Russia and South Korea : Feminist Shift
 3. **Olga Fedorenko**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izens' Opinion Ads on the Seoul Metro : Communicating Minority Opinions to Build Solidarity
 4. **Xiaojun Ding** Xi'an Jiaotong University
Hyper-Individualiz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Building Solidarity through Philosophical-Practice-Facilitated Communication

토론 박정규 강릉원주대학교 안지현 서울대학교

323호

1-3 디지털 시대의 문화 연대

사회 민세희 Praxis ai

- 발표
1. **Antonius R. Pujo Purnomo** Universitas Airlangga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Gotong Royong During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A Survey Among the Young Generations
 2. **최희영** 노던일리노이대학교
전통공연계의 젠더 경계 뛰어넘기: 그 노력과 한계
 3. **김지연** 세명대학교
소소하지만 확실한 디지털 일상의 '서사력': 재미와 소통, 연결감 - 소셜미디어를 통한 밈, 엽, 밋(글) 놀이를 중심으로 -

토론 이재학 고려대학교 허윤 부경대학교

2023. 11. 08 Wed. DAY 1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1
324호	1-4 AI 빅뱅 시대, 확장 인문학을 제안한다 <p>사회 김선옥 송실대학교</p> <p>발표 1. 김만권 경희대학교 양극화 시대의 '디지털 능력주의'</p> <p>2. 김재인 경희대학교 확장된 문해력과 인문학의 재정의</p> <p>3. 김시천 송실대학교 인공지능의 신화와 철학: 동양철학의 '몸'에서 본 인공지능 담론</p> <p>4. 김지은 경희대학교 인공지능 시대, 젠더 프리즘: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자동성에 담긴 성차별</p> <p>5. 송경호 연세대학교 인공지능과 정치: 철인왕, 공리주의 머신, 그리고 샤머니즘</p> <p>토론 정원섭 경남대학교 송성수 부산대학교</p>
325호	1-5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보는 <한일연대> <p>사회 정병호 고려대학교</p> <p>발표 1. 현무암 홉카이도 대학교 전후보상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p> <p>2. 김명주 도시샤여자대학교 전후보상운동과정에서의 지원자와 피해자의 교류와 연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사례로</p> <p>3. 김 성 삿포로대학교 친밀권에서 본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 배상청구소송의 전개와 시민운동: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밝히는 모임'의 활동에 주목하여</p> <p>4. 조경희 성공회대학교 재일/여성 디아스포라의 신체와 정동: '한일연대'의 탈중심화를 위한 시론</p> <p>토론 임상민 동의대학교 한정균 동의대학교</p>
326호	1-6 뇌, 생명, 문화: 공감의 지위에 대한 학제적 접근 <p>사회 신유정 전북대학교</p> <p>발표 1. 전 철 한신대학교 포스트휴머니즘과 공감의 종교</p> <p>2.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뇌과학에서 바라본 공감의 체험</p> <p>3. 송기원 연세대학교 인간은 세포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생명의 존재 조건인 소통과 협력, 자기 절제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고찰</p> <p>4. 김태연 송실대학교 우리는 어떠한 '공감'을 추구하는가?: '공감' 개념에 관한 역사적 고찰</p> <p>토론 박인철 경희대학교 이재영 한동대학교</p>
11:30~11:50	휴식

PROGRAM DETAILS

2023. 11. 08 Wed. DAY 1

11:50~12:30	기조강연 1
5A홀	<p>사회 김승욱 충북대학교</p> <p>백영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p>
12:30~13:30	오찬
13:30~14:00	개회식 및 문화행사
14:00~15:00	전체 기조강연
5A홀	<p>사회 안지현 서울대학교</p> <p>자크 오펜 소르본 누벨 대학교 미학 명예교수 The Human Powers of Images</p>
15:00~15:30	휴식
15:30~17:30	분과회의 세션 2
321호	<p>2 - 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p> <p>사회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p> <p>발표 1. 이정은 동아대학교 한국 지방박물관의 공존과 상생 방향성 모색 : ICOM의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중심으로</p> <p>2. Anna Woodham King's College Museums and Climate Change : How can museums contribute to climate action?</p> <p>3. Will Buckingham Parami University Philoxenia in the Museum</p> <p>4. 홍지석 단국대학교 기술매체와 예술의 상생 : 1980년대~1990년대 한국 미디어아트 담론의 갈래와 쟁점</p> <p>토론 김정선 동아대학교 국성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p>
322호	<p>2 - 2 놀이와 예술</p> <p>사회 권만우 경성대학교</p> <p>발표 1. 장희권 계명대학교 이 시대의 "빨간 페터"는 누구인가? - 재현과 동화에 관해</p> <p>2. Benjamin M. Han University of Georgia Between Korea and the Americas : The Land of Humans and the Diasporic Imaginary</p> <p>3. 홍민기 Studio MIN.ARCHI 장소의 형성과 건축적 상상력 : Erlangen市の 우생학 실험시설의 역사적 보존사례를 중심으로</p> <p>4. Takayuki Yokota-Murakami Osaka University Is Music Universal? -- On Mutual Understanding, Empathy, and their Problematics</p> <p>토론 김기수 동아대학교 박용준 인디고서원</p>

2023. 11. 08 Wed. DAY 1

15:30~17:30

분과회의 세션 2

323호

2 - 3 관계 맺기, 균형과 조화

사회 조창오 부산대학교

- 발표
1. **Bongrae Seok** Alvernia University
Co-Existence and Harmony : Non-Linear Dynamics of Social Interaction
 2. **Andy Hamilton** Durham University
The Nature of Trad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3. **Minji Lee** Montclair State University
Co-existence Through the Balance : Medieval Micro/Macrocosm in European Medicine and Religion
 4. **Seogkwang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lato, Aristotle and Coexistence in Empathy towards Things

토론 Eric Wesley Stalions 경상국립대학교 류지석 부산대학교

324호

2 - 4 인공지능과 공진화하는 세계들

사회 김성택 경북대학교

- 발표
1. **이동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의 움벨트와 동물
 2. **김종갑** 건국대학교
ChatGPT와 글쓰기 : 글을 쓰는 인간 주체가 있는가?
 3. **정혜윤** 명지대학교
AI 예술과의 공존 : AI예술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4. **이영의** 동국대학교
인간과 공생 가능한 윤리적 로봇

토론 권영우 고려대학교 이찬규 중앙대학교

325호

2 - 5 연대를 향한 실천적 성찰

사회 김영우 인제대학교

- 발표
1. **나희량** 부경대학교
'효용'을 넘어 '존재'를 위한 화폐 : 인문학적 성찰과 적용 가능성 연구
 2. **안지영** 인제대학교
평화를 현재로 만드는 과정 : 갈등이 반갑고 협력이 즐거운 '회복적 공감대화'
 3. **오하나** 전남대학교
정치적 노동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 -아렌트와 네그리를 중심으로-
 4. **송향경** 성신여자대학교
아이 돌봄의 위기와 돌봄 연대의 양상 - 영화 <미생>과 <Lost, Found>를 중심으로

토론 조광제 (사)철학아카데미 황희경 경희대학교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09:00~09:30 등록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3

321호

3 - 1 문학 연구의 미래: AI,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상호매체성

사회 김주성 단국대학교

- 발표
1. **Youngmin Kim** Dongguk University
A Proposal for Digital World Literature:
The Convergence of Digital Humanities, Literature,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2. **Qinglong Peng**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o Comparative Literatur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3. **Alex Gil** Yale University
What is Literatur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4. **Beate Schirmacher** Linnaeus University
Beyond Books and Texts : The intermedial relationships of literature in a digital world
 5. **Dennis Yi Tenene, C** Columbia University
An Introduction to Machine Literature

토론 김희진 경북대학교 윤미선 순천향대학교

322호

3 - 2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사회 유원준 영남대학교

- 발표
1. **Xenia Zeiler** University of Helsinki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sian Videogaming
 2. **Gregory P. Griev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Gaming the Apocalypse : Fallout 3 and Ludic Evil
 3. **Kerstin Radde-Antweiler** University of Bremen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in Gaming Discussion Forums
 4. **Martin Roth** Ritsumeikan University, Stuttgart Media University
Platform-mediated play in Death Stranding

토론 김상우 게임미술비평가 정세라 더 스트림

323호

3 - 3 인간과 기계, 양립과 호혜

사회 한호 아주대학교

- 발표
1. **Hyungrae Noh** Sunchon National University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Moral Agency
 2. **Kang-Kook Lee** Ritsumeikan University
Shared Prosperity in the Era of AI
 3. **이유경** 서울대학교
인류는 다른 종과 연대할 수 있는가? : 『진이, 지니』에 나타난 인간과 보노보 사이의 공감을 중심으로
 4. **Park Yeons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Evolution of Human and AI in Producing Artworks

토론 김지호 경북대학교 최지수 한양대학교

2023. 11. 09 Thu. DAY 2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3
324호	3 - 4 전쟁 그리고 타자(others)에 대한 적대와 환대 <p>사회 정대훈 부산대학교</p> <p>발표 1. 김상수 육군사관학교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적대와 환대의 개념적 고찰: 도덕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p> <p>2. 조은영 육군사관학교 적(敵)이 없는 전쟁은 가능한가? - 맹자(孟子) 의전론(義戰論)을 중심으로 -</p> <p>3. 서동하 육군사관학교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한 환대 불가능의 가능성 모색</p> <p>4. 이영주 육군사관학교 공존불가능성을 횡단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예로</p> <p>5. 문현영 육군사관학교 '우리'안의 타자, 여군: 미래전투원은 (탈)젠더화 될 것인가?</p> <p>토론 김지훈 부산대학교 김주희 부경대학교</p>
325호	3 - 5 종교미술의 기능: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p>사회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p> <p>발표 1. 강희정 서강대학교 상생을 위한 소통의 문자: 주문, 상징, 그리고 미술</p> <p>2. 양은경 부산대학교 마조 신앙의 확산: 해상 안전과 해양공동체의 융합 그리고 상생</p> <p>3. 한유나 서울대학교 순례여행을 위한 공감적 소통: 15-16세기 독일어권 <사도들의 이별> 도상</p> <p>4. 이승희 순천대학교 조선후기 종교의 소통: 관우신앙과 유불도교 신앙의 통합</p> <p>5. 송은석 동국대학교 신라의 전통 厝葬과 불교 造塔 신앙의 결합: 전 황복사 사리함기의 "厝" 기록 검토</p> <p>토론 한정호 동국대학교 신광희 동국대학교</p>
326호	3 - 6 나와 타자, 공존과 상생 <p>사회 류재한 전남대학교</p> <p>발표 1. 최의숙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소통·공감을 위하여: 인간과 공간이 갖는 문화의 공존과 상생</p> <p>2. 강지훈 부산외국어대학교 디지털 지도를 통해 보는 공존과 상생의 지중해 역사 -중세 르네상스를 중심으로-</p> <p>3. 신은경 우석대학교 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개의 공존 양상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p> <p>4. 현남숙 성균관대학교 비인간 존재자들과 함께, 어떻게 세계를 알아가야 하는가? - 포스트휴먼 지식을 위한 몇몇 시도들</p> <p>토론 손일수 부산대학교 전성현 동아대학교</p>
11:30~11:50	휴식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11:50~12:30

기조강연 2

5A홀

사회 황소연 강원대학교

마이크 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한국 총괄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2:30~13:30

오찬

13:30~15:30

분과회의 세션 4

321호

4 - 1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사회 남송우 고신대학교

- 발표
1. 우동현 한국과학기술원
소통의 도구로서 디지털 역사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그 비용
 2. 정서현 한국과학기술원
읽는 사람과 AI시대의 문학 교육 : 인문 커먼즈를 위하여
 3. 김동우 한국과학기술원
철학과 디지털인문학

토론 김주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형주 중앙대학교

322호

4 - 2 동아시아 문화 공감

사회 하영삼 경성대학교

- 발표
1. 정창훈 동국대학교
동시대 한국 소설 속 '일본'과의 마주침 : '한/일' 관계를 넘어 '개인들'의 유대를 상상하기
 2. Yeogeun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eyond Boundaries through Empathy : Reflections on Teaching K-pop Culture
 3. 신대곤 한국암각화학회
암각화로 본 공감과 소통의 세계관 -중앙아시아 이식콜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4. 신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조면호(1803-1887)의 수석 감상과 石交 : 교환, 교유, 그리고 교감

토론 김창경 부경대학교 이효원 인하대학교

323호

4 - 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사회 Justin Joh 부산외국어대학교

- 발표
1. 이종찬 열대학연구소
지구의 한쪽 허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콩고 생태계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찾아서 -
 2. Taeheok L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ploring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Tracing the Origins of the Anthropocene through Amazon's features and Presenting Alternative Approaches
 3. 조흥국 부산대학교
식민주의의 영향 : 동남아시아의 빈곤화와 환경 파괴
 4. Leo Zulu Michigan State University
Cooking Energy, Poverty and Climate Change in Sub-Saharan Africa : Experiences from Malawi

토론 박정원 경희대학교 윤유석 경희대학교

2023. 11. 09 Thu. DAY 2

13:30~15:30	분과회의 세션 4
324호	4 - 4 이동과 결합, 새로운 발견 사회 유성호 한양대학교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Jiwon Kim Daejin University Korean Diaspora during Japanese Occupation: A Study on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1923) 2. 최은주 건국대학교 난민·이주 쟁점에서 어휘 전이 경로 연구의 인문학적 의의 3. 하민수 서울대학교 다문화 학생과 소통, 공감, 공존하기: 다문화 학교 STEM 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4. 김은정 경남대학교 한국문학은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토론 나민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민정 부산대학교
325호	4 - 5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세션 :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제도 현황 사회 류동춘 서강대학교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승욱 충북대학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인문학 지원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 이준규 부산대학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부산지역위원장 지역소재 대학의 인문사회 현황 - 부산을 중심으로 - 3. 민진영 전남대학교 해외 인문사회 학술진흥 정책 4. 위행복 한양대학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 인문사회 학술진흥의 필요성과 대책 토론 이보고 부경대학교 전효정 동아대학교 백승진 경상국립대학교 박종렬 전남대학교
326호	4 - 6 부산특별세션 : 이동과 전환의 부산 사회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혁 경성대학교 21세기 부산, 이민자 도시의 문화적 비전 2.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부산과 해외도시의 초국경 협력 사례 비교 3. 서광덕 부경대학교 해역네트워크 속의 부산, 그出入의 역사 4. 홍순권 동아대학교 일제강점기 인구 이동에 따른 부산 부의 성장과 도시 문제 토론 이재혁(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오재환 부산연구원 김창수 부경대학교 하세봉 한국해양대학교 차철욱 부산대학교
15:30~16:00	휴식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16:00~18:00

분과회의 세션 5

321호

5 - 1 신진연구자세션 :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모색

사회 박진 동의대학교

- 발표
1. 최금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통합관점에서 시민인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 인문학강사의 활동 중심으로
 2. 백우인 감리교신학대학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에 관한 고찰 - 미하일 바흐친을 중심으로
 3. 정희재 고려대학교
시대에 따른 가족 대화의 변화 양상 : 1990년대와 2020년대의 드라마 비교를 중심으로 (공동저자 : 신지영)

토론 강지연 창원대학교 채영희 부경대학교

322호

5 - 2 신진연구자세션 :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

사회 김민희 부산외국어대학교

- 발표
1. 한혜원 이화여자대학교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2. 정은혜 단국대학교
웹소설 창작에서의 인간-기계 협력
 3. 서재인 계원예술대학교
낭만적 해프닝과 오토피아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NPC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4. 박한하 순천향대학교
물질화 과정으로서의 인공지능 글쓰기 : <뤼튼>의 톨, 챗봇 만들기 기능을 중심으로

토론 임보람 강원대학교 박창희 경성대학교

2023. 11. 10 Fri. DAY 3

09:00~09:30

등록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6

321호

6 - 1 신진연구자세션 :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 철학

사회 김대중 강원대학교

- 발표
1. **윤주한** 대구대학교
인공지능은 예술 감상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2. **이다민** 서울대학교
가상현실은 공감 기계인가?
 3. **임수영** 서울대학교
창의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 덕으로서의 창의성 비판
 4. **황현동** 서울대학교
상상과 떠올리기

토론 김승호 동아대학교 장 원 홍익대학교

322호

6 - 2 신진연구자세션 : 역사 낚설게 보기

사회 이종봉 부산대학교

- 발표
1. **황유나** 이화여자대학교
권력 집단의 확대 양상 : 순조대(1800~1834) 정경(正卿).아경(亞卿) 발탁 관행
 2. **이희재** 이화여자대학교
"力道朝鮮"의 명암 : 일제강점기 역도의 발전과 力의 주체 전환
 3. **송하연** 이화여자대학교
친일경찰과 민주경찰 사이 : 해방 직후 여자경찰(女子警察)의 재현 양상
 4. **남기정** 이화여자대학교
갈등의 시기, 평화통일의 추진 : 국회의 통일문제 연구기관 설립 논의와 국토통일원 창립(1964~1969)

토론 양홍숙 부산대학교 신상원 부경대학교

323호

6 - 3 연대하는 '외부'들 : '바깥'에서 만난 그들

사회 오세정 충북대학교

- 발표
1. **엄태웅** 고려대학교
<배비장전>의 낮은 목소리 : 궤절의 이면에 숨어 있는 소통과 연대의 가치
 2. **정제호** 한국교통대학교
최척의 꿈, 김영철의 현실 : 혐오를 넘어서는 소통과 연대의 디아스포라
 3. **신호림** 안동대학교
<삼공본풀이>와 환대의 서사학 : 타자, 폭력, 포용의 관점에서
 4. **이승은** 고려대학교
소화(笑話)의 웃음, 그들만의 유대와 공감의 기록

토론 서유석 경상국립대학교 정용건 강원대학교

PROGRAM DETAILS

2023. 11. 10 Fri. DAY 3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6

324호

6-4 공감과 상상력

사회 심혜련 전북대학교

- 발표
1. 이무영 전남대학교
이상한 나라의 데카르트 : 공감 없는 철학의 탄생
 2. 이정호 상명대학교
감정 이입과 의미 결정의 과정 : 퍼스의 관점에서
 3. 윤종숙 홍콩중문대학교
K-Culture에서 소통으로 : 한류와 함께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
 4. 김병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공감의 본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 맹자와 흄의 논의를 중심으로

토론 김기성 전남대학교 이현재 서울시립대학교

325호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사회 류시현 광주교육대학교

- 발표
1. 김진희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 민권운동의 산실 하이랜더 포크스쿨 :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2. 전진성 부산교육대학교
역사와 인권 :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위한 이론
 3.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1970년대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와 글로벌 연대 : 조지 오글 목사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명운동을 중심으로
 4. 황병주 국사편찬위원회
해방 이후 민권과 인권의 정치적 상상력
 5. 임종명 전남대학교
종전/해방 직후 남한과 인민의 경쟁 그리고 그 폐색(閉塞)

토론 노경덕 서울대학교 정일영 서강대학교

326호

6-6 냉전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연대 : 재역사화에서 평화운동으로

사회 장세진 한림대학교

- 발표
1. 김려실 부산대학교
서발턴의 한국전쟁 기억과 포스트기억 : 일본군'위안부'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2. 이시성 부산대학교
대구 10월 항쟁의 포스트기억 생산의 조건
 3. 류영욱 부산대학교
부산 입국 베트남 난민 기억의 한계와 가능성 - 비공식 기록과 문학을 통한 기억 재현
 4. 양수민 부산대학교
베트남전쟁과 포스트기억 생산 -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이길보라, 2020)을 중심으로

토론 조선정 서울대학교 허선에 금오공과대학교

11:30~11:50

휴식

2023. 11. 10 Fri. DAY 3

11:50~12:30	기조강연 3
5A홀	<p>사회 최진실 계명대학교</p> <hr/> <p>커스틴 말름케르 레스터 대학교 번역학 명예교수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p>
12:30~13:30	오찬
13:30~14:30	부산특별세션 초청강연
5A홀	<p>나 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부산의 도시적 자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p>
14:30~15:00	휴식
15:00~15:30	폐회식

PROGRAM DETAILS

2023. 11. 08 Wed. DAY 1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1

Room 321 1 - 1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Moderator **Eun-Joo Chang** Youngsan University

- Presenter
- 1. Nami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ispital
Facilitating Constructive Social Discourse : A Role of Religiosity
 - 2. Hong, You-bin** Kyungsoong University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s 'mutual respect' examined through Chinese classics
 - 3. Yeonhee Yu** Yonsei University
The Use of Practical Reason for Communication : Based on Immanuel Kant's "Critique of Judgement"
 - 4. BAIK Gyuwon** Sorbonne Université
Phenomenological Conditions of Community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 : A Discussion on Michel Henry's Phenomenology of Life

Discussant **Shin, Hayoon** Ewha Womans University **Park, Jung-Ha** SungKyunKwan University

Room 322 1 - 2 Broadening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Moderator **Yoon, W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
- 1. Jérémie Eyssette** Chosun University
Conserving or Conversing with Africa? : France's Heritage Policies and (Neo)Colonial Legacies
 - 2. Rimma Tangalycheva** St Petersburg University
Gender Relations in Women's Cinema in Russia and South Korea : Feminist Shift
 - 3. Olga Fedorenko** Seoul National University
Citizens' Opinion Ads on the Seoul Metro : Communicating Minority Opinions to Build Solidarity
 - 4. Xiaojun Ding** Xi'an Jiaotong University
Hyper-Individualiz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Building Solidarity through Philosophical-Practice-Facilitated Communication

Discussant **Jeongkyu Park**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Jee Hyun An** Seoul National University

Room 323 1 - 3 Cultural Solidarity in the Digital Age

Moderator **Sey Min** Praxis ai

- Presenter
- 1. Antonius R. Pujo Purnomo** Universitas Airlangga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Gotong Royong During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 A Survey Among the Young Generations
 - 2. Heeyoung Choi**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rossing the Gender Boundaries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 Its Efforts and Limits
 - 3. JI YEON KIM** Semyung University
Small but distinct power of digital narrative : fun, communication, and the feeling of connection – focus on the digital play with memes, apps, and online comments through the social media

Discussant **Jaehak Lee** Korea University **Heo, Y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23. 11. 08 Wed. DAY 1

09:30~11:30	Parallel Session 1
Room 324	1 - 4 Proposing an Expanded Humanities in the Age of the AI Big Bang <hr/> <p>Moderator Kim, Seon-Wook Soong Si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ankwon Kim Kyung Hee University Digital Abilityism in a Polarized Era 2. Kim Jae-Yin Kyung Hee University Extended Literacy and Redefinition of Humanities 3. Kim, Si-Cheon Soong Sil University Myth and Philosophy in AI 4. Kim Jieun Kyung Hee University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der Prism :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Biases and Automativity of Algorithms 5. Kyungho Song Yonsei University AI and Politics : Philosopher King, Utilitarian Machines, and Shamanism <hr/> <p>Discussant Wonsup Jung Kyungnam University Sungsoo Song Pusan National University</p>
Room 325	1 - 5 <Korea-Japan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imacy' and 'Publicness' <hr/> <p>Moderator Jung, Byeong-Ho Korea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Mooam Hyun Hokkaido University A Narrative Approach to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2. MYEONGJU KIM Doshisha Women's College of Liberal Arts Exchanges and Solidarity between Applicants and Victims during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 A Case Study of the 'Group Supporting the Board of Officials 3. Makoto Kanemitsu Sapporo University The Development of Compensation Claims Lawsuits for Korean Victims of the Asia-Pacific War from an Intimate Perspective, and Civic Movement 4. Cho Kyunghee Sungkonghoe University Body and the Affect of Zainichi Korean Women : An Essay for Decentralization of 'Korea-Japan Solidarity' Discourse <hr/> <p>Discussant Lim Sang Min Dong-Eui University HAN JUNGKYUN Dong-Eui University</p>
Room 326	1 - 6 Brain, Life, and Culture :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atus of Empathy <hr/> <p>Moderator Youjung Shin Jeonbuk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hun Chul Hanshin University Post-Humanism and Religion of Empathy 2. JEONG, JAE-SEUNG KAIST Empathy Experience in Brain Science 3. Kiwon Song Yonsei University Are Humans Better Than Cells? : Microscopic and Macroscopic Reflections on the Conditions of Life - On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Self-Restraint 4. Taeyeon Kim Soong Sil University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gonggam ≡ empathy' <hr/> <p>Discussant Park, In-Cheol Kyung Hee University Jaeyoung Lee Handong Global University</p>
11:30~11:50	Break

PROGRAM DETAILS

2023. 11. 08 Wed. DAY 1

11:50~12:30	Keynote Lecture 1	
Hall 5A	Moderator	Kim, Seungwoo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Baik, Youngseo Honorar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12:30~13:30	Lunch	
13:30~14:00	Opening Ceremony and Cultural Events	
14:00~15:00	Plenary Keynote Lecture	
Hall 5A	Moderator	Jee Hyun An Seoul National University
		Jacques Aumont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Human Powers of Images
15:00~15:30	Break	
15:30~17:30	Parallel Session 2	
Room 321	2 - 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 - 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e	
	Moderator	Kang, Yunju Kyung Hee Cyber University
	Presenter	1. Lee Jeong Eun Dong-A University Exploring the Coexistence and Synergistic Direction of Local Museums in South Korea 2. Anna Woodham King's College Museums and Climate Change : How can museums contribute to climate action? 3. Will Buckingham Parami University Philoxenia in the Museum 4. HONG JISUK Dankook University Co-prosperity of Technology Media and Art : The Sections and Issues of Korean Media Art Discourse from the 1980s to the 1990s
	Discussant	Kim, Jung-Sun Dong-A University Kook Sungha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Room 322	2 - 2 Play and Art	
	Moderator	Kwon, Mahn-Woo Kyungseong University
	Presenter	1. Jang Hee Kwon Keimyung University Who is the "Red Peter" of this era? - About representation and assimilation. 2. Benjamin M. Han University of Georgia Between Korea and the Americas : The Land of Humans and the Diasporic Imaginary 3. Mingi Hong Studio MIN.ARCHI The Formation of Places and Architectural Imagination : A Case Study on the Historical Conservation of Eugenics Facilities in Erlangen City 4. Takayuki Yokota-Murakami Osaka University Is Music Universal? -- On Mutual Understanding, Empathy, and their Problematics
	Discussant	KIM KI SOO Dong-A University PARK YONGJUN INDIGO SEOWON

2023. 11. 08 Wed. DAY 1

15:30~17:30	Parallel Session 2
Room 323	2 - 3 Building Relationships, Balance, and Harmony <p>Moderator Chang Oh Cho Pusan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ongrae Seok Alvernia University Co-Existence and Harmony : Non-Linear Dynamics of Social Interaction 2. Andy Hamilton Durham University The Nature of Trad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3. MinJi Lee Montclair State University Co-existence Through the Balance : Medieval Micro/Macrocosm in European Medicine and Religion 4. Seogkwang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lato, Aristotle and Coexistence in Empathy towards Things <hr/> <p>Discussant Eric Wesley Stalion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YU, Ji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p>
Room 324	2 - 4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evolving Worlds <p>Moderator Sungtaek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Yi, Dong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I's Um Belt and Animals 2. Kim, Jonggab Konkuk University ChatGPT and Writing : Is there a human subject behind writing? 3. Hye-yeon Chung Myongji University Coexistence with AI Art : What to Expect from AI Art 4. Young E. Rhee Dongguk University Ethical robots that can coexist with humans <hr/> <p>Discussant Young Woo Kwon Korea University Lee, Chan Kyu Chung-Ang University</p>
Room 325	2 - 5 Practical Reflections on Solidarity <p>Moderator Kim Young Woo Inje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HEERYANG R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oney for 'Existence' beyond 'Utility' : Humanistic Reflection and Applicability 2. Ahn Ji Young Inje University The process of making peace into the present : 'Restorative Empathy Dialogue' where conflict is welcome and cooperation is enjoyable 3. Hana Oh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through the Political Labor 4. SONG XIANGQ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Crisis in child care and aspects of caring solidarity-Focusing on the movies Missing and Lost, Found <hr/> <p>Discussant Cho, Kwang-dje Academy of Philosoph Hwang Hee Kyung Kyung Hee University</p>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3

Room 321

3 - 1 The Future of Literary Studies : AI, Digital Media, and Intermediality

Moderator **Jooseong Kim** Dankook University

- Presenter
- 1. Youngmin Kim** Dongguk University
A Proposal for Digital World Literature :
The Convergence of Digital Humanities, Literature,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 2. Qinglong Peng**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o Comparative Literatur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3. Alex Gil** Yale University
What is Literatur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4. Beate Schirmacher** Linnaeus University
Beyond Books and Texts : The intermedial relationships of literature in a digital world
 - 5. Dennis Yi Tenene, C** Columbia University
An Introduction to Machine Literature

Discussant **Heejin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isun Yun** Soonchunhyang University

Room 322

3 - 2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

Moderator **Yoo Won Joon** Yeungnam University

- Presenter
- 1. Xenia Zeiler** University of Helsinki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sian Videogaming
 - 2. Gregory P. Griev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Gaming the Apocalypse : Fallout 3 and Ludic Evil
 - 3. Kerstin Radde-Antweiler** University of Bremen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in Gaming Discussion Forums
 - 4. Martin Roth** Ritsumeikan University, Stuttgart Media University
Platform-mediated play in Death Stranding

Discussant **Sang Woo Kim** Game Art Critic **Sera Jung** THE STREAM

Room 323

3 - 3 Human and Machine : Compatibility and Reciprocity

Moderator **Han, Ho** Ajou University

- Presenter
- 1. Hyungrae Noh**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Moral Agency
 - 2. Kang-Kook Lee** Ritsumeikan University
Shared Prosperity in the Era of AI
 - 3. LEE, YOU-KY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an Humans Stand in Solidarity with Other Species? : An Analysis of Empathy between Humans and Bonobos in Jeong You Jeong's <Jini, Jinny>
 - 4. Park Yeonsook**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Evolution of Human and AI in Producing Artworks

Discussant **Kim, Gh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OI Jisoo** Hanyang University

2023. 11. 09 Thu. DAY 2

09:30~11:30	Parallel Session 3
Room 324	3 - 4 War and Hostility & Hospitality to Others <hr/> <p>Moderator Jung Daehun Pusan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angsu Kim Korea Military Academy A Conceptual Consideration of Hostility and Hospitality towards Autonomous Weapon Systems : Towards a Concept of Moral Agents 2. Eunyoung Cho Korea Military Academy Is it possible to have a war without enemies? : Focusing on Mencious' thought of Uijeon(義戰) 3. DONG-HA SEO Korea Military Academy An Exploration on the Possibility of Non-hospitality on Shakespeare's 『Coriolanus』 4. Youngju Lee Korea Military Academy A Reflection on Humans crossing 'Non'-coexistence : An Example on the Ukrainian War Refugee 5. Hyunyoung Moon Korea Military Academy The 'Other' among 'Us', Female Soldiers : Will the Future Comabatants be De-gendered? <hr/> <p>Discussant Jihoon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Joo H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p>
Room 325	3 - 5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hr/> <p>Moderator Heo Hyeong Uk National Museum of Korea</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Kang, Heejeung Sogang University Script of Communication for Coexistence : Incantation, Symbol, and Art 2. Yang Eun Gyeng Pusan National University Wide spread of Mazuism : Ocean safety and Coexistence, Concord 3. Yu Na Han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of Sympathy for Pilgrimages : The Iconography of the Separation of the Apostles in Fifteenth- and Sixteenth-century German Speaking Lands 4. Lee, Seunghui Sunchon National University Religious Communic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Guan Yu beliefs and Integration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eliefs 5. Song, Unsok Dongguk University The combination of temporary burial rite and building a pagoda on it after all funeral services at the Temple known as Hwangboksa in Gyeongju : Examining the "曆" record on the reliquary <hr/> <p>Discussant Han Joung Ho Dongguk University Shin Kwanghee Dongguk University</p>
Room 326	3 - 6 Me and the Othe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hr/> <p>Moderator Ryu Jae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Oui Suk CHOI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The Humanity of Relationships :Towards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2. Kang Jihoo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editerranean history of coexistence and win-win seen through a digital map - Focused on the Medieval Renaissance- 3. SHIN, Eunkyung Woosuk University Coexistential Aspect of Humans and Dogs Viewed From Literature - Based on the Comparison of Premodern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4. Hyun Nam-Sook Sungkyunkwan University How Should We Get to Know the World With Non-human Critters? - Some Cases to the Possibility of Posthuman Knowledge <hr/> <p>Discussant Ilsu Sohn Pusan National University JEON SUNG HYUN Dong-A University</p>
11:30~11:50	Break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11:50~12:30

Keynote Lecture 2

Hall 5A

Moderator Hwang So-Y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Mike Kim Head of Google for Startups APAC & Korea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2:30~13:30

Lunch

13:30~15:30

Parallel Session 4

Room 321

4 - 1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

Moderator Nam, Song Wo Kosin University

- Presenter**
- 1. Donghyun Woo** KAIST
Digital Histo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Tools of Communication, and their Costs
 - 2. Jung, Seohyon** KAIST
Literary Education and the Reader in the Age of AI : Towards a Humanities Commons
 - 3. Dongwoo Kim** KAIST
Philosophy and Digital Humanities

Discussant Joo-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Hyeongjoo Kim Chung-Ang University

Room 322

4 - 2 Cultural Empathy in East Asia

Moderator HA YOUNGSA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
- 1. Jeong Changhoon** Dongguk University
Encounter with "Japa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Imagining the bond between "individuals" beyond "Korea-Japan" relations
 - 2. Yeogeun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eyond Boundaries through Empathy : Reflections on Teaching K-pop Culture
 - 3. Shin Dae Gon** Korea Petroglyphs Research Association
The Worldview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Rock Paintings - From Central Asia's Issyk Kul to Taehwa River in Ulsan
 - 4. Shin Jeongso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o Myeonho (1803-1887) and his Connoisseurship of Miniature Rocks : A Focus on Multiple Readings of Stone-exchange

Discussant KIM CHANG GYEO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LEE HYO WON Inha University

Room 323

4 - 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in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Moderator Justin Jo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esenter**
- 1. LEE Jongchan** The Institute for Planetary Tropical Studies
Recovering the Planetary-Ecological System in the Congo Basin : Towards Korean-Congolese Cooperation
 - 2. Taeheok L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ploring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Tracing the Origins of the Anthropocene through Amazon's features and Presenting Alternative Approaches
 - 3. Cho Hungguk** Pusan National University
Impacts of Colonialism : Impoverishment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Southeast Asia
 - 4. Leo Zulu** Michigan State University
Cooking Energy, Poverty and Climate Change in Sub-Saharan Africa : Experiences from Malawi

Discussant Jungwon Park Kyung Hee University Yun Yu Seok Kyung Hee University

2023. 11. 09 Thu. DAY 2

13:30~15:30	Parallel Session 4
Room 324	4 - 4 Moving, Combining, and Discovering <p>Moderator Sungho Yoo Hanyang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Jiwon Kim Daejin University Korean Diaspora during Japanese Occupation : A Study on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1923) Eunjo Choi Konkuk University Humanities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Meaning Shift of Vocabulary Words in Refugee and Migration Issues Minsu Ha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cating, Empathizing, and Coexisting with Multicultural Students : Reflections on STEM Education Needs in Multicultural Schools Kim Eunjung Kyungnam University How Does Korean Literature Understand Dementia <hr/> <p>Discussant Na Min G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in-jeong Seo Pusan National University</p>
Room 325	4 - 5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HSS)]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Moderator Ryu Dongchoon Sogang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Kim, Seungwook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Humanities Association of Korea A Review of the Problems of Support Policy for Humanities Lee Jun-Kyu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ocieties Current Status of Humanities and Society of Local Universities - Focusing on Busan- Jinyoung M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olicy of Promoting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Abroad Wee, Hangbok Hanyang University,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ocieties Necessity and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r/> <p>Discussant Lee Bogo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eon, Hyo-Jeong Dong-A University Seung Jin Bae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ARK, JOONG RYE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p>
Room 326	4 - 6 [Busan City Session] Busan in Movement and Transition <p>Moderator YOON Yong S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Khang Hyuk Kyungsung University Immigrant City Busan : New Cultural Vision of 21th century Woo Yang Ho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f Sea Port Cities Networks of Busan and Foreign Cities Seo Kwang Deo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in the Sea Region Network, The History of Its Incoming and Outgoing Hong, Soon Kwon Dong-A University Korean labor's emmigration to Japan and the urban problems in Bus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hr/> <p>Discussant Jae Hyuk Le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H JAEHW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Kim Chang Soo Pukyong National University Ha Sae-Bong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Cha, Chul Wook Pusan National University</p>
15:30~16:00	Break

PROGRAM DETAILS

2023. 11. 09 Thu. **DAY 2**

16:00~18:00

Parallel Session 5

Room 321

5 - 1 [Young Researchers Session] Multifaceted Explor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Moderator **Park Jin** Dong-Eui University

- Presenter
- 1. Choi Guemhee** Daegu Catholic University
A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citizen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humanities instructors
 - 2. Baek Woo In**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A Study on the Grotesque in the Movie "Guardians of the Galaxy 3" - Centered on Mikhail Bakhtin
 - 3. Heejae Jeong** Korea University
Changes in family conversations over time
- Focusing on comparison of k-dramas in the 1990s and 2020s (Co-authors Shin Ji Young)

Discussant **Kang Jiye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e, Young-H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oom 322

5 - 2 [Young Researchers Sessi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Moderator **Kim, Min Ho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resenter
- 1. Hyewon Han** Ewha Womans University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 2. Eunhye Chung** Dankook University
Human-Machine Cooperation in Web Fiction Creation
 - 3. Jane Seo**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Romantic Happening and Autopia
 - 4. Hanha Park** Soonchunhyang University
AI Writing as a Materialization Process : Focusing on the Tools and Chatbot Creation of <wrtn>

Discussant **Im, Bo-Ra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ark Changhee** Kyungsung University

2023. 11. 10 Fri. DAY 3

09:00~09:30	Registration
09:30~11:30	Parallel Session 6
Room 321	6 - 1 [Young Researchers Session] Philosophy of Art in the Posthuman Age <p>Moderator Dae-Joong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Yoon, Juhan Deagu University Can AI Appreciate Art? Yee, Da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Virtual Reality an Empathy Machine? Suyeong, Lim Seoul National University How can Creativity be Defined? : A Criticism on Creativity as a Virtue Hyuendong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magining and Entertaining <hr/> <p>Discussant Kim, Seung-Ho Dong-A University Chang, Won Hongik University</p>
Room 322	6 - 2 [Young Researchers Session] Refreshed Perspectives into History <p>Moderator Lee, Jong-Bong Pusan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HWANG YOUNA Ewha Womans University The Expansion of the Core Power Group : Appointing Public Officials to the Positions of Jeonggyeong and A-gy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1800-1834) Lee Hee Jae Ewha Womans University The Dual Nature of "Weightlifting Joseon" : The Development of Weightlifting and the Shift in the Agent of Pow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yeon Song Ewha Womans University Between 'Pro-Japanese Police' and 'Democratic Police' : Perceptions of Female Police Office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Nam Gi Joung Ewha Womans University Advocating for Peaceful Unification in the Period of Conflict : Discussions of the Korean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 (1964-1969) <hr/> <p>Discussant YANG, HEUNG S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gwon Shin Pukyong National University</p>
Room 323	6 - 3 The 'Outsiders' in Solidarity : Those Who Met on the 'Outside' <p>Moderator Oh, Seje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p> <hr/> <p>Present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Eom Tae-ung Korea University Baebijangjeon's low voice :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hidden behind getting into trouble Jeong, Jeh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Chio Cheok's Dreams, Kim Young-chul's Reality : Diaspora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beyond hatred Shin, Horim Andong National University "Samgong-bonpuri" and the Narrative of Hospitality : In terms of Other, Violence, and Embrace Lee Seung-eun Korea University Laughter in Humorous Stories, A Record of their own Bonds and Empathy <hr/> <p>Discussant Seo, Youseok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hung Yong-gun Kangwon National University</p>

PROGRAM DETAILS

2023. 11. 10 Fri. **DAY 3**

09:30~11:30

Parallel Session 6

Room 324

6 - 4 Empathy and Imagination

Moderator **Shim, Hae-Ryu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
- 1. Lee Muyou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scartes in Wonderland : The Birth of Philosophy without Sympathy
 - 2. Tim Cheongho Lee** Sangmyung University
The Process of Empathy and Meaning : A Peircean Eerspective
 - 3. Jong Sook Yun**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From K-Culture to Communication : On Students who Learned Korean with Korean Wave
 - 4. Byoungjae Kim** DGIST
The Nature of Empathy and a More Civil Society

Discussant **KI SUNG K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yun-Jae Lee** University of Seoul

Room 325

6 - 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Moderator **Si-hyun Ryu**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resenter
- 1. Jin Hee Kim** Kyung Hee Cyber University
Highlander Folk School, The Cradl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30s-1940s.
 - 2. Chun, Jin-Sung**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istory and Human Rights : A Historical Theory of the "People Without History"
 - 3. Sang rok Le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uman Rights Issues and Global Solidarity in South Korea in 1970s
 - 4. Hwang, Byoungjoo**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 Political Imagination of Civil and Human Rights After Liberation
 - 5. Chongmyong 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Competitions among Inmin(인민) and Their Closures in Post-War and -Liberation South Korea

Discussant **Kyung Deok Roh**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 Ilyeong** Sogang University

Room 326

6 - 6 Cold War Memories and Post-memorial Solidarity : From Rehistoricization to Peace Movements

Moderator **Chang Sei-Jin** Hallym University

- Presenter
- 1. Ryeosil Kim** Pusan National University
Subaltern's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Postmemory : Focusing on the memories of the Comfort Women
 - 2. Siseong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onditions of Post-Memory Production in Daegu October Uprising
 - 3. Ryu, Young-w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Vietnamese Refugees entering Busan- Reproduction of Memory through Unofficial Records and Works of Literature
 - 4. Yang sumin** Pusan National University
Vietnam War and Post-Memory Production - Focusing on the documentary "The War of Memory" (Lee Gil Bora, 2020)

Discussant **Cho Son-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n-ae Heo**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11:30~11:50

Break

2023. 11. 10 Fri. DAY 3

11:50~12:30	Keynote Lecture 3
Hall 5A	<p>Moderator Choi Jinsil Keimyung University</p> <hr/> <p>Kirsten Malmkjaer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icester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p>
12:30~13:30	Lunch
13:30~14:30	Invited Lecture
Hall 5A	<p>Ken Nah Professor at Hongik University International Design school for Advanced Studies Humanistic Approach to the Urban Assets of Busan</p>
14:30~15:00	Break
15:00~15:30	Closing Ceremony

주제 소개

Concept Note

대주제

관계의 인문학 : 소통 · 공존 · 공감을 위하여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삶의 내용 또한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회를 이루면서 타자와의 결합을 추구하고 회귀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타자와의 내적 교감과 교류를 지향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병리 현상의 증가, 세대·성별·계층·문화 간 갈등의 증폭을 겪고 있으며, 각종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에 초개인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관계의 단절과 개인의 고립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며 대면의 만남과 접촉, 이동은 제한되었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고립은 심화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증오·혐오 현상이 세계로 확장하였다.

이에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한 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인간·비인간·자연을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 문화 정립이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타자와의 소통과 연대, 공존과 상생, 공감과 화합이 필요한 시대이다. 타자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름을 인정하는 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소통을 통한 공감'은 나를 타자의 위치로 옮겨 나와 타자 간의 긴밀한 유대와 결합을 맺게 하는 고귀한 감정이다. 공감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류의 공존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덕목이라면 공감력 함양은 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소통을 통한 공감 능력의 계발을 위해 인문학은 어떤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인가?

타자에 대한 혐오나 적대감, 전 세계적인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데에 인문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통, 공존,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인문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종주의를 포함한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인문학이 사회통합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세계시민 교육에서 인문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성찰할 때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실천을 추동하는 데에 인문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 시대, 소통, 공존, 공감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사유를 근간으로 한 인문학의 역할이 확장되고 심화되길 소망한다.

제1중주제

소통을 통해 연대로

인문학은 팬데믹 이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단절과 혐오와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소통을 통해 연대로 나아갈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타자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세계적 차원의 인종주의,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미시 권력에 의한 차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성 회복을 위한 인문학의 접근은 무엇이며,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시민 교육을 시행할 때 인문학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절과 갈등의 문제를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젠더 간, 학문 간 경계 짓기의 현상으로 파악하여 경계를 허물기 위한 탈경계의 인문학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문학적 성찰과 사유의 도구인 말과 글이 인간의 영역에서 기술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말과 글을 통한 인문학적 성찰과 사유의 시효가 남아있는 것인지, 인간이 말과 글을 통해 소통하며 연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 것인지,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 성찰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다양한 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영역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융합적 접근도 환영할 만한 일일 것이다.

제2중주제

공존과 상생

우리는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타자는 나 아닌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른 사람, 동물, 식물, 자연, 기계, 우주가 모두 타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비대면 등의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대두되면서 이제 양자 관계가 아니라 3자 이상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먹고, 기르고, 바라보는 식물이 기후 문제와 연결되면 인간과 식물의 관계도 자연생태계 차원의 문제로 확대된다. 한편으로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 식용 동물의 대량 생산과 대량 도살이 이루어지면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윤리적 성찰도 요구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계가 인간화하거나 인공반려화하면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만 한다.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서로 살리면 함께 있을 수 있다. 상생과 공존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찾는 대안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인간과 바이러스의 관계,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서 공존과 상생의 길을 인문학에서 찾고자 한다.

제3중주제

공감을 통한 화합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통의 부재, 차별과 배제, 배척과 혐오 등이 난무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타자와의 공감이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서로 공감함으로써 함께 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공감을 위한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은 타자와의 정서적 교감이자 동질성 인식이다. 공감은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이라면 한편으로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이념, 종교, 인종, 계층 간의 갈등을 초월하여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촉매 역할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놀이와 예술'이다. 또한 놀이와 예술의 기반이 되는 '상상력'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집착을 넘어서서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자유로운 상상력은 예술로 이어지고 예술을 통해 우리는 타자와 세계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다. 놀이와 예술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과 인간을 조건 없이 하나로 결합하게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공감, 상상력, 그리고 놀이와 예술은 나와 타자가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유의 근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상상력의 발현인 놀이와 예술은 인간 간의 소통과 공감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며, 관계 맺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 소개

Concept Note

Main Theme

**The Humanities of Relationships:
Toward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Human beings exist in relationships. Human nature desires and seeks union with others in society, thus leading human beings to pursue inner communion and exchanges with others. Presently, however, we are facing an increasing number of personal and social pathologies, and deepening divisions among generations, genders, classes and cultures. With the advent of the 21st century, we are witnessing an acceleration of hyper-personalization, and the disconnection of relationships and the isolation of individuals have worsened. In particular, during the pandemic, face-to-face meetings, contacts and movements have been restricted, exacerbating the disconnect and isolation of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the meanwhile, various forms of hatred and intolerance have spread globally.

Our time calls for an establishment of a renewed culture of relationships based on individual autonomy, inclusive of humans, non-humans and nature. Above all, this era calls for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s well as empathy and unity. In order to co-exist with the 'Other,' we need to communicate and acknowledge our differences. Also, 'empathy built through communication' enables bonding and unity with others by putting oneself in another's place. If empathy is a virtue that can restore humanity and promote human co-existence and harmony, then cultivating empathy is an important task for humanity. What solutions can the humanities offer to develop empathy through communication?

The humaniti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aking steps toward a united human community, overcoming hatred, hostility, global conflicts and crises. At a fundamental level, we need to think about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fostering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More specifically, we can think about how the humanities can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policies related to social integration in order to eliminate racism and all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It is also time to reflect on the specific role that the humanities can play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integration and solidarity.

What role should the humanities play in solving social problems and promoting a new praxis? This is the question that we would like to address. We hope that the role of the humanities enabling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will be expanded and deepened.

Sub-theme 1 Toward Solidarity through Communication

The humanities should fundamentally analyze the problems of disconnection, hatred and conflict that the mankind faces after the pandemic, and seek solutions to move toward solidarity through communication. In order to overcome hatred and hostility against others, racism at the global level, and discrimination by micro-power operating at various levels, we can consider the humanities' approach to restoring otherness and the role of the humanities in implemen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concrete policies. If the problem of disconnection and conflict can be understood as a phenomenon of drawing boundaries among regions, classes, generations, genders and disciplines then, it may be possible to seek, once again, trans-boundary humanities to break down these barrier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he tools of humanistic reflection and thought, speech and writing, are shifting from the realm of humans to the realm of technology. It may be time to fundamentally reflect on whether or not it is still possible for humans to communicate and connect through speech and writing and what it means to change the world through humanistic imaginatio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ould be welcome, not only in terms of the various disciplines within the humanities, but also in terms of active communication with other disciplines outside the humanities.

Sub-theme 2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e live in a time when we need to ask again how we should relate to others. Others include everything that is not myself. Other people, animals, plants, nature, machines and the universe are all 'others.' COVID-19 has given rise to new ways of relating to each other, whether in person or virtually, and we now have to consider more than just bilateral relationships. When the vegetables and plants that we consume or grow are linked to climate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plants is extended to the level of the natural ecosystem. The introduction of pets into the family, on the one hand and the mass production and mass slaughter of animals for food, on the other, require deep ethical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machines must be fundamentally redefined if machines such as AI and robots are to be humanized or artificially companionable. We need a new paradigm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on-human others. We can co-exist if we save each other. The paradigm of co-prosperity and co-existence is the alternative we are looking for. We seek a wa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n the humaniti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umans and viruses, humans and animals, humans and plants, humans and nature and humans and machines.

Sub-theme 3 Unity through Empathy

Empathy for others is urgently called for now more than ever, to overcome the lack of communication,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stracism and hatred that pervade our society. We should be able to feel the joy of being together through empathy, while acknowledging our differences. Emotional communion with others and the recognition of similarity are important foundations for building harmonious relationships. Empathy is an innate human ability, but it can also be developed with some effort. It is "play and the art" that serve as an opportunity to empathize with each other and act as a catalyst transcending conflicts between ideologies, religions, races and classes. Imaginat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play and art, enables humans to have a free and open mind to embrace others beyond their own selfish desires and attachments. Imagination leads to art, and through art, we can deeply empathize with others and the world. Play and art are a beautiful way of life that, in a free state, unconditionally unites humans and brings them into harmony with each other. Empathy, imagination, play and art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the thinking that allows for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others. Play and art, as expressions of the imagination, will enable communication and empathy between humans and provide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 meaning and role of relationships.

강연자 소개

Speaker Introduction



자크 오몽

소르본 누벨 대학교 미학 명예교수

2019년 발잔 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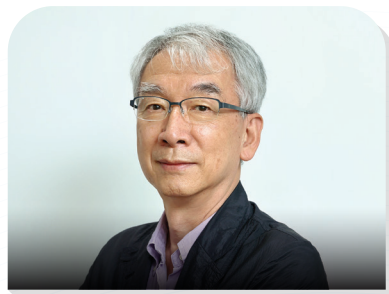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교수 역임

전체 기조강연, 5A홀

2023. 11. 8(수), 14:00~15:00

이미지의 인간적 힘

The Human Powers of Images



백영서

연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 현대중국학회 및 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

하버드-옌칭(Harvard-Yenching)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기조강연 1, 5A홀

2023. 11. 8(수), 11:50~12:30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마이크 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시아 태평양 총괄, 한국 총괄

'배달의 민족' 기업 개발 수석 이사 역임

LinkedIn, Monster Worldwide, Inc. 및 Zynga 사업 개발 매니저 역임

기조강연 2, 5A홀

2023. 11. 9(목), 11:50~12:30

AI 스타트업 : 기회와 도전 과제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커스틴 말름케르

레스터 대학교 번역학 명예교수

전 캠브릿지 대학교 강의

전 버밍햄, 미들섹스 공립대학교 강의

기조강연 3, 5A홀

2023. 11. 10 (금), 11:50~12:30

언어, 번역 그리고 공감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Jacques Aumont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Department of Aesthetics)

2019 : Awarded with Balzan Prize

Professor of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Beaux-Arts

Plenary Keynote Lecture, 5A Hall

2023. 11. 08 Wed. 14:00~15:00

The Human Powers of Images



Mike Kim

Head of Google for Startups APAC & Korea

Senior Director of Corporate Development for Baedal
Minjok (*Korea's largest mobile food ordering app)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for LinkedIn,
Monster Worldwide, Zynga

Keynote Lecture 2, 5A Hall

2023. 11. 9 Thu. 11:50~12:30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Baik, Youngseo

Honorary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Studies of Modern Chinese History

Visiting Researcher of Harvard-Yenching Institute

Keynote Lecture 1, 5A Hall

2023. 11. 08 Wed. 11:50~12:30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Kirsten Malmkjær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icester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Former Professor at Cambridge University &
Middlesex University

Former Professor at University of Birmingham

Keynote Lecture 3, 5A Hall

2023. 11. 10 Fri. 11:50~12:30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전체 기조강연 Plenary Keynote Lecture

5A홀

자크 오몽 | Jacques Aumont

이미지의 인간적 힘

The Human Powers of Images

기조강연 1 Keynote Lecture 1

5A홀

백영서 | Baik, Youngseo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기조강연 2 Keynote Lecture 2

5A홀

마이크 김 | Mike Kim

AI 스타트업 : 기회와 도전 과제

AI Startups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기조강연 3 Keynote Lecture 3

5A홀

커스틴 말름케르 | Kirsten Malmkjær

언어, 번역 그리고 공감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KEYNOTE LECTUR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이미지의 인간적 힘

The Human Powers of Images

자크 오몽 Jacques Aumont
소르본 누벨 대학교 미학 명예교수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human powers of images

How an image gets to me



What happens when you look at this photograph(*Fig. 1*)?

You see, as I do, five people of different ages, from toddler to old lady. Five human beings looking at you, with different expressions on their faces, from a frank smile to concern. Before knowing anything about these people, you are affected by their presence, by their expressions and postures, to which your body reacts: you feel a definite empathy.

If we try to find out a little more, we shall learn that this photograph represents refugees from the North of Korea, and was taken in Busan around 1953, by an American soldier.

Armed with this information, we shall see this photo differently: I have read and heard many accounts of the hard lives of these refugees, and to my first spontaneous reaction to their presence is now added a knowledge – historical, objective and, likewise, human. This image, along with the many others taken by the photographer, teaches me something, communicates something to me. I felt empathy, and perhaps even compassion, when I discovered it; I can now think, for example, about the millions of other refugees in the world today. This will take me beyond a mere sentimental reaction, and make me consider general, political and humanistic questions.

And then, like all images, this one does not just record a fragment of the visible at a given moment. It opens onto an unspeakable, an invisible, that passes through and beyond it. These are human beings, my fellows in humanity, and my projection and understanding are easy and natural. Even so, the image reminds me that I live in a world made up of beings and forces that I cannot fully penetrate, because my human knowledge is limited (not least by language, which encloses everything in words). As we shall see, an image also opens us up, if we use it well, to an apprehension of our co-existence with the world, including the non-human, living and non-living.

We have just rediscovered, once more, that images, all images, have a power. This has been known for a long time, at least intuitively; all the artists and craftsmen who have produced them were well aware that their images were going to have notable effects on their viewers: they were made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Whether these effects were social, personal, psychic, or even thought of as supernatural, they are the fruit of a long experience of images, which is that of the whole of

humanity. We know a little better today how the image in general can act on all these levels: intellectual, emotional, magical, juridical, religious, social, and so on¹⁾.

The image as a constructor of society

I shall start with the most obvious: the social dimension of images. For thousands of years, image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construction of human societies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ties. It may have been a small group, as in the case of parietal images, since in the caves where they are found, only the initiated penetrated. On the contrary, it may have been a multitude, as in the case of religious images, which by definition target all the faithful, i.e., the greatest possible number; or, of course, in the case of fictional films, potentially mobilizing vast crowds.

In their great variety, images have defined communities of use, differing from one society to another, and have also helped to define communities of vision. This is why they only take on their full meaning when related to the context in which they were conceived, and to the time and place in which they were first disseminated. Religious painting, which in Europe has long represented the vast majority of images displayed to the public eye, has always been destined to be exhibited in a consecrated place. Titian's *Assumption of the Virgin* (1515-18, **Fig. 2**) is reproduced in numerous works on the history of painting, but it was originally designed to be seen on the altar of a church, dedicated precisely to the Virgin Mary (**Fig. 3**). Similarly, Japanese painted scrolls were traditionally designed to be seen while not held in the hand, but displayed in the *tokonoma*, a domestic setting of sacred origin. In the same way, an image of Ganesh, or an African mask, will only make sense during ritual ceremonies, which are also sacred in essence.



Even popular and profane images have their own domain of circulation, which makes them relevant and comprehensible. Today, we are perfectly accustomed to the existence of the moving-image works we call films, but the social (and in part, psychological) conditions for viewing them have changed enormously over their century-long existence. The basic device, imitated from the theatrical one, has been preponderant since the 1910s, but it has undergone many changes: until the 1930s, not all spectators were necessarily seated; in the 1950s and in the USA, one could go and see them in one's car, at the drive-in; and for several decades now, we have been able to see them at home, then anywhere, on a smartphone. In a more limited but comparable way, comics and *manga* presuppose a medium of distribution, as was already the case, in a more limited way, with one of their ancestors, *ukiyo-e*. All images circulate in a certain milieu, and in return, they consolidate that milieu.

One of the most massive consequences of globalization has been to make this correspondence between images and their context less apparent, and sometimes downright illegible, by allowing them to circulate without limits. Today, I can see as much as I like, and on an equal footing, works that were once rare and precious, known only to specialists, such as a Kwakiutl mask (**Fig. 4**) or an archaic *kouros* statue (**Fig. 5**). But it will be in museum exhibitions, or at auctions - in other words, in the realm of artistic and cultural merchandise. And, of course, I shall be seeing them, more and more easily, in reproduction, at least on the Internet. This is one of today's major issues, which has two sides, one negative, the other positive.



1) David Freedberg, *The Power of Ima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Georges Didi-Huberman, *Devant l'image*, Paris, Éditions de Minuit, 1990; Michael Fried, *Absorption and Theatrica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See also Gombrich, *The Image and the Eye*, Oxford, Phaidon Press, 1982.

The problematic, negative consequence of this circulation of images is that it cuts them off from their native soil, which explains them and gives them their effectiveness, and takes them into an indefinite whole where potentially everything is equal, at the risk of losing the sense of their original social resonance. This mask places a humanoid face inside a bird's head: if it is closed, I see the bird; if it is open (which only happens during a ritual reserved for initiates), I discover that this bird is protecting a human, or perhaps that it *is* a human, or, equivalent to a human. This is the principle of all primitive religions, which are interested in the presence of spirits in the human world. Certainly, such message was not addressed to a 21st-century world citizen²). The same applies to the *kouros*. Its meaning and purpose are less well known, and we don't know whether, at the time of its production (some 2500 or 2600 years ago), it was a votive statue or a funerary monument; some archaeologists even think it was a figure of the god Apollo³). But all of this is part of the same religious and ritual purpose, and the people who produced and used it hoped to see spirits in it too. Seen in a museum, on the pages of a catalog or on Wikipedia, these images can communicate something of their plastic power to me, or of their success as art objects. Cultural reference, in the full sense of the word, tends to be lost.

On the other hand - and this is the positive side - we have begun to understand, and are learning more and more each day, that an image is a major tool of communication within the innumerable human groups that populate the planet. Some of these groups have produced works that have achieved great visibility, such as Greco-Roman statuary, Christian iconography, Buddhist statuary, Chinese or Middle Eastern calligraphy. Other groups remained little-known for a long time, but we now know that they, like the others, produced an iconography: the image is a human cultural asset, not specific to any particular civilization, however brilliant⁴). Matching this mask to this statue would have been seen, a century ago, as a joke or a provocation. We know now that it is not: they are both images, powerful as are images, and both endowed with the same power of communication and social bonding. It is just that they have different histories and backgrounds, which define their communicative power.

Images and the communication challenge

Images are thus one of the two key instruments of communication in human society (the other being, of course, verbal language). I would like to add two more concrete observations here, concerning the ways in which images are present in society and their fundamental role in intersubjective communication. On the one hand, if the image propagates certain values, ideas and propositions within a social milieu, it can only do so through the intermediary of a more or less complex apparatus, whose status is obviously social.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se dispositives are always, in themselves, in relation to the collectivity that has promoted them, they generally leave the choice between seeing collectively or seeing individually. In other words: an image can only communicate something that is acceptable and comprehensible within a given milieu, and it does so through personal devices and dispositions that are created by that same milieu.

A very clear example of what an apparatus is is the cinema. Firstly, because it promoted one that is still in use today: the film theater. This is not an original device, since it takes its main features from two 19th-century European and North American social practices, bourgeois theater and music hall. But cinema's power of diffusion has made this spectatorial model a kind of self-evident fact of life for generations, and has spread it around the world (including to countries that produce few films). Today, the film theater is a social phenomenon recognized as such, to which studies and documentaries are devoted - all the more so as, since the change in the spectatorial *habitus* due to the Covid pandemic and to the development of streaming, it appears as a cultural trait already linked to the past, and seriously threatened with disappearance or radical transformation.

Films can now be seen in *ad hoc* theaters, but also on home screens and on the all-purpose devices we carry in our poc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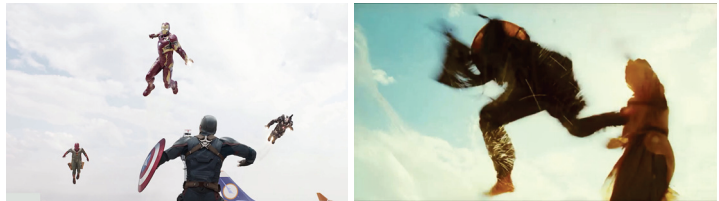
2) Franz Boas, *The Kwakiutl of Vancouver Island*, Leyde-New York, Brill-Stechert, 1909 ; Claude Lévi-Strauss, *La Voie des masques*, Genève, Albert Skira, 1975.

3) Gisela M. A. Richter, *Kouroi, Archaic Greek Youths,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Kouros type in Greek sculpture*, Phaidon press, 1970.

4) Hans Belting, *An Anthropology of Images. Picture, Medium, Bod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Philippe Descola, *Les Formes du visible*, Paris, Éditions du Seuil, 2021.

I do not think cinema as it existed fifty or sixty years ago, with the screening of the week's news, a short film and the main film, exists anywhere any more. Nevertheless, "seeing a film" remains an experience which, even on a cell phone or iPad on the train, summons me as a social subject. This is because cinema has not been based on a single device, but on several. What we call film criticism, which includes newspaper articles and radio and TV interviews, has over the decades created a phenomenon that is also widespread, at least in certain sections of society: cinephilia. Today, as was the case sixty years ago, there are networks of cinephiles, united by common tastes or interests, who will prefer to see this or that type of film, and will judge them according to their own reactions, of course (including empathy, to which I shall come), but also and above all, according to the prescriptions of their cinephile milieu.

Take, for example, these two film scenes (**Fig. 6 and 7**) : at first glance, they look quite similar. However, they are in fact aimed at very different communities of connoisseurs. The first will appeal only to fans of blockbusters from the Marvel "universe", in which



superheroes with supernatural powers are shown spending their time in violent acts in the name of a questionable justice. The second is taken from a film whose director is known for his formally audacious work and sophisticated images, appreciated above all by aesthetically inclined fans. Thus, these two scenes, which are analogous in terms of their subject matter, will give rise to discussions of a very different nature and scope, in circuits that in no way overlap: a good example of what an apparatus is, when we do not reduce it to its material components.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here, but I would like to mention two, of a very different nature. For some thirty or forty years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photographic "visiting card" (**Fig. 8**) was widely used for social purposes. Today, business cards are exchanged from person to person, but originally they were used to let someone know that you had visited them in their absence: you left it with the servant who opened the door, and they gave it to their employer. In principle, a photograph was not essential, but this illustration of an identity document added a touch of realism and almost truthfulness, which was much appreciated. Of course, this only worked if there was agreement on the value of these small documents, and within an elaborate system (formal home visits, the existence of a domestic service, codes of politeness, etc.); what is more, the high price of these photo blocks restricted their use to the *chic* circles of the big capitals.



of the big capitals.

In a completely different spirit, the Turin Shroud, a piece of cloth bearing the almost photographic imprint of a human body (mythically supposed to be that of Jesus Christ after his burial), is shown only on the rarest of occasions; in the past, for religious purposes, now for scientific ones. Having been exhibited to small groups of the faithful, convinced in advance of the miraculous reality of its origin, it is now being examined by specialists, who have, among other things, determined its age (it dates from around the 14th century) and are seeking to discover its exact origin. In either case, this image, widespread by postcards, the popular press and reproduction, was present at the heart of socially defined groups that still exist in the age of the smartphone. Simply put, these are virtually invisible groups, welded together by a shared determination and belief (religious for some, scientific for others).

I would like to end with a final observation about the image as a tool for communication: there are images that can be seen collectively, and others that can be viewed alone. We have just seen this *à propos* of cinema, a collective art and spectacle *par excellence*, which for a good century extended the form of spectacle originally proposed by the Lumière Cinematograph, enriching it with ever more powerful institution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advertising firms), increasingly refined techniques and organization of work (clear separation of trades, from scriptwriter to editor, constant progress in

equipment), and ever more numerous spectators.⁵⁾

Cinema is potentially reverting, at least for a sizeable part of its audience, to a pre-Lumière model, that of Edison and his kinetoscope: a solitary spectator, who sees moving images in a machine that only he or she can watch. Does this mean the end of spectator gatherings and the temporal community they embodied? Not quite, as we have seen, for the cinema century has created habits and fostered and consolidated group experiences that endure beyond technical change. But this remains a fundamental question: is communication (and empathy, to which we shall now turn) of the same nature in a theater where I am seated, subjected to the flow of the film I cannot control, and sharing my reactions with strangers, or in front of a device I can manipulate as I please, and which only sends me back to myself? Capillary distribution is mass distribution, more so than distribution via specialized channels as in the 20th century. But it also isolates the receiver (the viewer), who has to rely more on his or her own experience and knowledge to communicate through images.

I have insisted on the case of cinema, because it is exemplary in terms of apparatus, but the question arises more broadly, and more bluntly, in relation to all the increasingly uncontrolled images circulating on the networks. One of the most acute problems of our time is the real challenge posed by image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now have an existence almost analogous to that of images produced by the traditional means of photography and cinema. We can still distinguish between them fairly easily, but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is distinction can only be made by a specialized algorithm. Each and every one of us is aware of the dangers: the multiplication of fakes, the loss of credibility of images, the disappearance of any reliable horizon of truth.

It is too early to say what answer mankind will find to this vital and urgent question. We can, however, remain relatively optimistic. The question of the illusion produced by images is an old one, which has arisen countless times in the history of representations. On various occasions, images have been accused of deceiving their recipients by making them mistake an artifact, produced by human hands, for a natural, real phenomenon, object or event. There has even been a pictorial genre, still practiced today, called *trompe-l'œil*, which aims, as its name suggests, to subject us to an illusion. The reception of images, communication with and through images, has always presupposed an important knowledge, more or less conscious, which enables us not to confuse the artifact mimicking vision with vision itself. A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esses, so does our knowledge of it, and we can only hope that this will enable us to continue to make humane use of images, and to use them again and again to communicate.

The horizon of empathy

Let us look again at the image with which we started. We know a little more about it now: the circumstances of its making, the photographer's aim, its probable circulation as a news photograph, and more broadly, what it was meant to communicate. Yet if I look at it again, despite all this knowledge, I still feel with the same force the surge of empathy that reached me. I see that smiling father, that grimacing mother, that worried grandmother. I do not know what overall impression to retain: relaxation or anguish? A deliberate pose for the photographer, or a spontaneous attitude? But my body does not need so much reasoning, it projects itself, spontaneously - and differently for each of us. Such is the law of empathy: it imposes itself, it does not ask for my opinion. And such is the effect of the image: it freezes and reinforces empathy, choosing once and for all what, in a real scene, can touch, and 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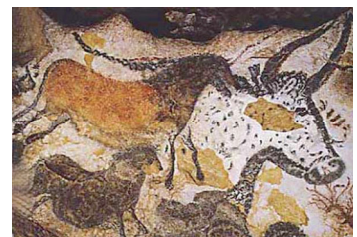
The idea of empathy, in its current form, was proposed a century and a half ago, notably, in the context of questions about the action of images. It was a German academic, Robert Vischer, who coined this notion under the name of *Einfühlung*⁶⁾. Under this name, he meant a psychological process by which the object or being that is observed is linked to the observer's own

5) Thomas Schatz, *The Genius of the System*, New York, Pantheon Books, 1988 ; Francis Bordat & Michel Etcheverry, *Cent ans d'aller au cinéma*,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1995.

6) In his doctoral dissertation, published in 1873 under the title *Über das optische Formgefühl. Ein Beitrag zur Ästhetik* [About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 Leipzig, Hermann Credner.

feelings, spontaneously and before any intervention of thought or reflection. Vischer's work was in the field of aesthetics, and he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works of art of his day (painting and sculpture). But this theoretical approach was later taken up and ampl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⁷⁾, and saw empathy as a fundamental process in the direct understanding of expressive phenomena. According to Theodor Lipps, empathy is defined as inner participation in another's experience, through "imagined imitation". It is an initial, involuntary and even uncontrollable reaction, which forms the basis for subsequent relationships, both intellectual and emotional. Empathy, then, is what enables understanding of others, as much or more than exchange by symbolic means (such as language), and is what underpins psychic relational phenomena such as sympathy or compassion. According to this conception, still in force one hundred and fifty years later in psychology, neither personal knowledge nor affect towards others is possible without empathy, the primary manifestation of co-participation in humanity.

It is easy to see why images, with their inherent power of immediate presence, are an ideal site for the emergence of empathy - in a way that is more indirect than in human-to-human communication, but just as powerful. A striking example is our relationship with cave paintings. These drawings, made twenty or thirty thousand years ago, are not our contemporaries; we know almost nothing about their authors and we know little about what they were after (even if, today, a consensus seems to have been reached on their ritual and shamanic nature⁸⁾). And yet, even when seen in reproduction, they "speak", reaching out to us, producing an intense reaction. The lionesses in the Chauvet cave (**Fig. 9**) do not look threatening, but attentive, concentrated and serious. The aurochs in the Lascaux cave (**Fig. 10**), of which only the bust can be seen, seems to float magically above the small herd of horses; they are, literally, an apparition (a spirit, perhaps). Even more rudimentary images, such as "negative hands", reach us across the millennia, even though we do not know what they mean. These images do not communicate with us, but they touch us immediately. We feel a primitive empathy, which perhaps does not lead to any affect because there is not much communication possible, but which nevertheless remains their first effect on us.



The communicative function of the image was aimed at man as a member of society; empathy targets him as a subject endowed with a psyche. As a result, its scope and power are broader, and also more difficult to encompass rigorously: like all psychological phenomena, it is unique to each individual, and cannot be sh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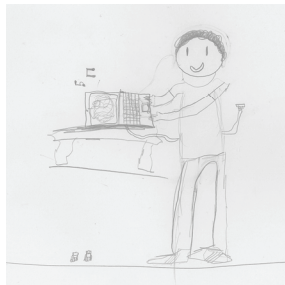
In their social function and personal value, images generally aim to do three things: representing a model in a way that is sufficiently analogous for it to be recognized; in this way, ensuring its existence, and even, in a sense, making it present even though absent; and finally, endowing it with an expressive capacity. Representation and resemblance, the effect of presence, expressiveness: three inseparable subjective effects, which have justified the importance attached to images (to the point, at certain points in history, of wanting to ban them). Presence convinces us of the reality of an experience; resemblance involves a certain cultural knowledge of what an image is; expression is the emotional accompaniment.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is threefold effect of the image applies universally, far beyond the realm of artistic, scientific or media images: children's drawings, caricatures, popular engravings, all sorts of images reach us in the same way as images of art, religion or science.

Of course, the emotionality of the image does not mean that it is immune to the laws of communication. As we saw with the

7) Theodor Lipps, « *Das Wissen von fremden Ichen [The knowledge of foreign Ies]* », in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Band 1. W. Engelmann, Leipzig 1907 ; Robin Curtis, Gertrud Koch (Hsg): *Einführung. Zu Geschichte und Gegenwart eines ästhetischen Konzepts [Empathy. On the History and Present of an Aesthetic Concept]*. München 2008 ; Susan Lanzoni: *Empathy: A History*. Yale University, New Have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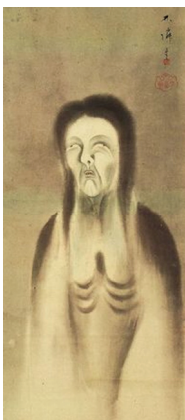
8) André Leroi-Gourhan, *Préhistoire de l'art occidental*, Paris, Mazenod, 1965 ; Jean Clottes, *Pourquoi l'art préhistorique ?*, Paris, Gallimard, 2011 ; J. Clottes & David Lewis-Williams, *Shamans of Prehistory*, Harry N. Abrams, 2010 ; James L. Pearson, *Shamanism and the Ancient Mind. A Cognitive Approach to Archaeology*, AltaMira Press, 2002

image of the refugees, if I know their story, I feel no less empathy, but I can translate it in a more communicable (and, perhaps, socially useful) way. But empathy with an image does not abolish the need for a certain degree of cultural knowledge, enabling me to identify precisely what it represents. In this child's drawing (Fig. 11), I shall not recognize a laptop if I have never seen one. Similarly, if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the Afro-American rite of Candomblé, practiced in Brazil and Nigeria, I will not be able to see in these statues (Fig. 12) the *orixá* spirits they materialize without ambiguity for the cult participants.



The image looks like something, about which it conveys information. I can only know what it looks like and benefit from this information if I have mastered certain codes, specific to a social group, whether vast (a large part of humanity has now seen portable computers) or small (the Candomblé cult is very particular). But in all cases, *Einfühlung*, empathy with the image, is that feeling - the causality of which remains difficult to explain, even in 2023 - which accentuates the effect of presence, and makes us sensitive to expressiveness; which makes us *feel* the images and project ourselves into them. Besides, even if I am missing some of the necessary information, I shall always feel a flow of empathy, positive or negative. To feel the state of mind of the young draughtsman or the magic of the aurochs requires minimal knowledge, and in front of the Brazilian statues, without knowing anything about their religious use, I will experience a spontaneous reaction, depending on my personal history.

In particular, we have the innate power to read what we receive as a feeling in the image of a human being, and even more so in an image of their face. This is the very heart of the empathic phenomenon: any image of a human being produces in the viewer, and in his or her own body, a small shock that makes us feel that we are "putting ourselves in the other person's shoes", that we share their affects. We may be mistaken, we may not fully grasp what is intentionally expressed by this human being or by his or her imag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miling, crying and lamenting, hand gestures and body posture, is highly variable from one human group to another, as can be seen in the often discriminatory stereotypes. In a not so distant past, Westerners had a prejudice that read Asian smiles as deceit, disguising their feelings. A little more information is all it takes to understand that this is a matter of mastering one's reactions, a value highly prized in ideological currents such as Confucianism. Information, fortunately, has become more accurate - but the smile remains a smile, and it invariably reaches each subject according to what he or she is.



The power of human appearances and their images to immediately capture the emotional part of the brain has been enormously used by beliefs in some beyond of the sensible. The demons of Christian painting or Hindu statuary, the "masks of disease" of certain African civilizations, the ghosts of Japanese imagery (Fig. 13), all use direct channels to communicate to me, mutely, a form of pain or horror. In a minor mode, this has been the choice of many fantasy universes over the last half-century, notably in the world of gaming and its derivatives, where menacing or tortured figures deliberately play on the automatism of our sensory and emotional reactions.

An art as realistic as portraiture, which represents human appearance *par excellence*, has very largely been an art of empathy. The portrait must resemble the model visually, but only an empathetic impulse can persuade us that it resembles them morally. To achieve this, there is nothing to stop the creator of the image, if not from faking it, then at least from using sensory amplification techniques. A famous portrait of Winston Churchill, when he was preoccupied with vital decisions he had to make during the war, was taken by the photographer, Yousuf Karsh, by playing on surprise: no sooner had the statesman entered the room than Karsh took his cigar out of his mouth; Churchill showed his displeasure, and it is this angry expression that we see. Empathy is, as we can see from this example, irrepressible but ambiguous: we see an irritated man, but we also see him worried, as we project onto his image

what we know of the dangers he faced in 1941.



This is even clearer with painted portraits. This self-portrait (**Fig. 14**) reaches out to us almost like the Japanese demon we just saw: we cannot tell what the model is feeling, but we are drawn into the image, and it colors us with a feeling that is not our own, and which for most of us is probably dysphoric. Photographic images first amazed us with their faithful reproduction of appearances. Today, like hand-made images, they are above all vectors of emotion, to the extent that some photographs have become veritable icons, precisely because of their irresistible empathic power. Such is the case

of Dorothea Lange's famous *Migrant Mother*, taken in 1936 as part of the FSA's photography program during the American recession. A little later, it was the case of *Napalm Girl*, photographed in 1963 in Viet-Nam while her back was burned by a napalm bomb. Both of these photos were used extensively for militant causes, in support of expropriated farm workers in one case, and in opposition to the war in the other. However, their effectiveness as political tools relied heavily on the enormous outpouring of empathy they inevitably aroused - as did, in a less univocal way, the photo of the Busanese refugees with which I started.

A final word. The empathy produced by images is a remarkable power which, if recognized and harnessed, can play a major role in consolidating social relations and interpersonal closeness. However, the speed with which images circulate and are created nowadays has given rise to a new world, in which the emotional increasingly threatens to take precedence over the rational, replacing understanding and, by extension, solidarity. Empathy never fails to reach us from an image, but this does not mean anything about the reality, or even less, the truth, of what it shows. To put it bluntly, a fake is just as empathetic as a truthful image (and often even more so, since it aims to win over the viewer without offering any opportunity for reflection). It is therefore essential, once again, to distinguish empathy from its potential consequences in terms of sentiments (sympathy, compassion), and not to confuse the emotional sphere with the intellectual and communicational sphere. The former confirms that we are indeed human, but it is the latter that enables us to enter into useful relationships with our fellow human beings.

Images and the non-human

Over the centuries and all around the globe, the concept of the image has varied enormously, as we have seen. It has always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the formation of knowledge and the solidification of social bonds, and has always demonstrated a great capacity for producing empathy. What has varied most in the way it has been understood and used is undoubtedly its indirect connection with the essence of the world that shelters and surrounds us.

How does the human relate to the non-human? Historically, humanity has followed two competing and often antagonistic paths: that of science, and that of belief. The former represents a patient, lengthy, never-ending search for objecti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man at its heart, since it is they who conduct this search, judge it and provide the means to continue it. The second, whether ritualized or not, represents an *a priori* submission to unknown forces, to which we generally give names, properties and, often, visible appearances; at the center, there is not man, but these higher powers, divinities or spirits, who have decided the shape and fate of the world, and whose message we can only endeavor to h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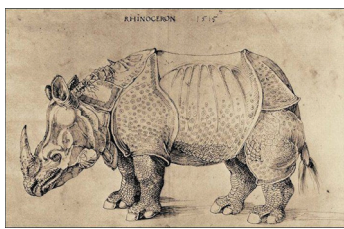
These two avenues were present in the images from the outset. We have seen this in images drawn in caves, which are at times astonishingly accurate visually, but whose conceivable purpose could only be magical (or fetishistic). Such images are our contemporaries, as their first discoverers clearly felt⁹⁾: they speak to us immediately, in terms of knowledge and apprehension of the real world, but also in terms of empathy (to be taken here in a very broad sense, including reference to what we call art¹⁰⁾). Similar things could be said of just about any set of images belonging to any given culture. The scientific

9) In France : Henri Breuil, *Quatre cents siècles d'art pariétal : les cavernes ornées de l'Âge du Renne*, Montignac, Centre d'Études et de documentation préhistoriques, 1952.

on the one hand, the supernatural and spiritual on the other: we always find these two opposing and complementary ways of approaching the enigma of the non-human world. Needless to say, we are not quite out of the woods yet, and despite the technical revolutions of the third millennium, our images continue to focus on the human and its reason, but also on the extra-human and its mystery.

Let us take the most natural and simple example, tha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e human body, in its major functions (breathing, feeding, sleeping, reproducing), is an animal body, and animals are very close to humans in many other ways. So-called "superior" animals, in particular, have a memory, are capable of elementary reasoning, and some (gorillas, crows, dolphins...) even have astonishing capacities for instantaneous thought. The major point of difference remains that animals have no artificial means of communication and expression: no articulated language, no images.

Humans have always been capable of depicting animals accurately. Yet we have never stopped seeing them as companions and partners, or as instruments at our service. The divinized animal of Middle Eastern religions (Egypt, Sumer), African, Amazonian or Siberian rites¹¹⁾, can become so important that it is what truly unites a human group: this is the case of the totem, whose figuration takes on a sacred character that makes it escape all requirements of the order of the realistic. At the same time, animals that have become servants, such as oxen, may have been depicted in a similarly simplified way, because only one trait was retained: the ox is strong, he pulls the plough or cart, and it is this muscular power that is depicted. This is clearly seen in certain archaic Greek toys, for instance, where a vaguely sketched bovine-shaped mass is mounted on wheels.



In modern societies, the documentary path of animal iconography has kept pace with scientific progress in general. An animal such as the cat, which has become a useless but emotionally-charged pet, has long been above all a valuable aid to pest control. It was part of our everyday *décor*, and all that was required to depict it was observation and, above all, the desire to put it to the service of an objective image (a notion that only emerged with modernization). A painter as virtuoso and meticulous as Albrecht Dürer had no trouble

drawing cats (or rabbits) with an accuracy at least equal to that of prehistoric lions or aurochs. On the other hand, if he drew a rhinoceros (**Fig. 15**), which he had never seen with his own eyes, the animal would look fantastic, despite the care taken to include every detail.

When it comes to animals, the documentary approach offers no major differences from the one generally followed by the history of representation, when it focused on accuracy and realism. The decisive step here was photography, a techno-scientific invention that was destined to move in one constant direction, that of progress. The recent invention of digital technology has only served to perfect photography's figuration capabilities, enabling us to go into ever finer detail, to get closer and closer, to multiply images, to draw up more exhaustive catalogs, to make comparisons - in short, to play to the full its role as an auxiliary to human knowledge and its mastery of the animal world. The documentary image, indispensable to knowledge, reproduces the dyssymmetry of relationships: it is man who makes the images, and it is man who considers the animal and learns to know it better, but for their own ends.

As for the "magical" or "spiritual" path, it too is deeply rooted in human concepts and attitudes. Humans never cease to marvel at the very fact of existence; but the real remains impenetrable to them, and human life takes place for the most part in a "double" of reality, where the image is at its place, since it serves precisely to create an imaginary double of the world. As we have seen, images have no trouble evoking entities inaccessible to the senses. The Japanese ghost mentioned earlier was imaginary, but no more so than the "spirits" portrayed in late 19th-century spiritist photos (faked, of course), which were very

10) Georges Bataille, *Lascaux ou la Naissance de l'art*, Skira, 1955.

11) Evelyne Lot-Falck, *Les rites de chasse chez les peuples sibériens*, Gallimard, 1953 ; Anne de Sales, « Chamanes sibériens et amazoniens : même combat ? », *Terrain* (en ligne), 2018



fashionable in Europe, or, better still, in *post-mortem* photos, which portray the deceased as if they were still there, to make us touch something ineffable about this great enigma of our lives. These kinds of images (which continue to be proposed in the 21st century, for example in the picturesque and colorful form of the “auratic” photo) are not documents, but a kind of reverie. The animal has always been essential to man's imaginary relationship with the world. This is obvious in shamanic or fetishist beliefs, where the animal becomes the visible manifestation, or even the incarnation, of a spirit. I mentioned above the masks and totems of North America, which make this point explicitly, but this idea is present, in a more allusive way, in Australian

aboriginal art as well as in certain African productions, such as the delicately sculpted *tyiwaracrests* of the Bambara (Fig. 16), exalting the mythical role of the antelope (which is said to have taught mankind how to cultivate the land)¹². A similar idea, though not linked to any specific belief, can be found, in a completely different cultural field, in the catalogs of human types in vogue in Europe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where the human was characterized by its similarity to an animal, as in this plate from Charles Le Brun's *Physiognomonie* (Fig. 17), illustrating the “owl” type. In these diverse images, the animal serves to reflect the human condition, and often, to underline its superiority. Even today, it is hard to escape the reflex of projecting a human feeling onto the animal (as when, just now, I deemed the expression of a prehistoric lioness to be “attentive and serious”). The projective impulse always underlies the image of an animal, which always moves and excites us, in an easy confusion with the human.

Animals have lost much of their magical prestige since photography, which prevents us from imagining them as anything other than they are. However, I am struck by the current proliferation - easily observable on the Internet - of striking animal images, which cultivate sensation, even the sensational, and which seem to want to push the documentary capacity of photography to its extreme limit, and, to reach another reality, less scientific than poetic. A tapeworm head, seen in very close-up, under a derealizing light, endowed with an astonishing chromatism (Fig. 18), is perhaps useful to the biologist seeking to better understand this animal for therapeutic purposes; for the ordinary viewer, it can hardly appear as anything other than the image of a monster- immediately arousing an empathic reflex, probably a negative one: it is frightening, it does not attract sympathy. The result is ambiguous: do I feel closer to the animal thus represented? Or have humans invented one more tool that allows them to take control of the situation?



Here again, the Internet has accentuated this questioning. Every day, on various networks, we see increasingly extraordinary images of all kinds of animals, familiar (cats, dogs, goats, pigs) or exotic (from dragonflies or millipedes to rare birds or quadrupeds). If, in addition, we watch TV documentaries, our little mental encyclopedia is amply nourished. We have a copious and varied repertoire of animal images in our heads. But does this lead us to refine our view of animality? To put it bluntly, have images, in their current state of permanent mass distribution, helped us to overcome the old dilemma between science, which wants to own the world, and belief, which wants to submit to it, when it comes to this important aspect of the non-human? I leave it to every one of you to decide the answer.

Similar things could be said about the plant environment, but this is a much more recent idea. For a very long time, in fact, it was difficult to really consider plants as living entities. They are, or appear to be, immobile, growing slowly on a human scale. They are inexpressive, at least to our eyes, which are accustomed to seeing the expressive only in the humanizable. Bringing them into the realm of the living is therefore still something of a paradox, and requires explanation. However, we are doing it more and more, to the point where this movement has been given a name: the *plant turn*. What is it all about? As with animals,

12) Jean-Paul Colleyn, *Ciwara, chimères africaines*, Milan-Paris, 5 Continents-Musée du Quai Branly, 2006.

or any other aspect of the non-human world, it is about making visible the inherent power of plants¹³).

This has always been the case, and anthropologists are well acquainted with a number of ancient rituals involving plants. The Abelam of Papua New Guinea, for example, organize ritual ceremonies featuring large, decorated yams. In a very different cultural context, horticultural practices in Osaka (Japan) involve “programming” the flowering of a particular species of wisteria. Generally speaking, growers, gardeners and landscape gardeners, each in their own way, know in practical terms that plants are living entities with which we cannot communicate, but with which we can cooperate, and which we can get to know in ways other than pure knowledge.

As always, the image plays a dual role here, as both a document and a spiritual penetration - even if, in the case of plants, the latter always stumbles over their apparent inertia. When, in his cosmically resonant fable *The Lord of the Rings* (1954-55), J.R.R. Tolkien imagines trees that walk, he is aware that he is transgressing the impossible. The result is certainly striking, as demonstrated by the visualization of this idea in the film based on the novel (Peter Jackson, 2001-2003): old trees turn out to be nothing less than people, talking, reasoning, sensitive, and finally, capable of moving, slowly but powerfully - to the point of destroying the evil wizard’s nefarious construct. With Tolkien and Jackson’s Ents, we are not far from what certain



photographic images felt, playing on an old visual joke, pareidolia. One tree looks like an old man with a beard (Fig. 19); another one may appear to walk with its arms outstretched (Fig. 20), and this is what fantasy fiction is all about, pushing the idea to its limit: a tree is an old man, a wise and courageous one at that, and he marches valiantly into battle for the Good.

We are on shaky ground here, somewhere between fiction, cult and joke, but this very hesitation speaks volumes about our relationship with plants and vegetation: we know, in principle,

that they are alive; we have great difficulty representing this life in our images, quite simply because our images have become far too realistic, and only accept the invisible in disguise. It is through notions that are a little vague, but very prevalent in certain cultural contexts, that the tree, the flower and the grass have emerged as entities worthy of consideration, even going so far as to appear not as objects, but as subjects.



This is what has been at play, albeit indirectly, in the reflection, within various cultures, on the idea of landscape. Yet another anthropocentric notion, complex and infinitely variable according to time and place. The English garden is literally the opposite of the French garden, and neither has much in common with a Chinese landscape painting (Fig. 21). The idea of “landscape” is, in fact, profoundly ambiguous, since it signifies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non-human in essence, of an organization of vegetation, but at the same time

designates a properly human way of thinking about this organization, and possibly of making it pleasant and/or useful to humans¹⁴). Nature is there, in front of us, rocks, trees, flowers, minerals, plants: we see it, and the temptation is to turn this spectacle, which enchants us but overwhelms us, into an event that can be mastered by man. There is no need to insist on the obvious role that images have played in all civilizations in consolidating this idea of a reality that takes shape in all its parts, but *for our eyes only*¹⁵).

13) Michael Marder, *Plant-Thinking. A Philosophy of Vegetal Lif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3; *Through Vegetal Being: Two Philosophical Perspectives*, Columbia Univ. Press, 2016; Emanuele Coccia, *La Vie des plantes : une métaphysique du mélange*, Payot-Rivages, 2018; T. Castro et al, dir. *Puissance du végétal et cinéma animiste*, Dijon, Presses du Réel, 2020.

14) Kenneth Clark, *Landscape into Art*, London, John Murray, 1949.

15) This is not absolutely true today, a non-human-centered approach having begun to be developed, under the name of “landscape ecology”. Cf. J/ M. Klopatek, and R.H. Gardner (eds): *Landscape ecological analyses: issues and applications*, Springer, New York, 1999.

The natural world is not limited to the surface of planet Earth, and we know that around it lie spaces that are, if not infinite, at least terribly vast. This aspect of the physical world has at first given rise to few representations, for the simple reason that man was unaware of what he could not see with the naked eye: the sun, the moon, day and night, the seasons. The first images of the cosmos are only a few centuries old (as, symmetrically, are the first images of the infinitely small). Here again, what is striking is that imagery, whether painted, drawn or photographed, follows a double slope: naturalistic and objective, or, imaginative and suggestive. For a long time, images of the universe repeated the same pattern, that of a black sky studded with bright dots, reproducing in its broad outlines our everyday vision of the night sky.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little else was produced other than these images of a universe observed and explored from Earth, albeit with increasingly powerful instruments that merely made long-known data more perceptible. Here again, imaging has taken a decisive step forward in the last two, three or four decades, opening up a world we do not recognize ourselves in, but which we can easily convince ourselves we are literally immersed in.

As in the case of animals and plants, the primary virtue of these images is that they serve to broaden our knowledge. At the same time, the image takes us, by its own means, into the vastness of the universe, and above all, shows us phenomena that have only recently been known and named. Black holes, for instance, remain a double enigma: for thought, because the idea of matter annihilating or becoming negative is difficult to conceive, and for images, because a "hole" that absorbs light is, in principle, impossible to perceive. The viewer of this cosmic imagery is torn between several senses: amazement at such a strange world; admiration for the performance of the photographers and the science on which they rely; pleasure of learning more about the real world; but also, and always, a kind of vertigo that is specific to the image, and which makes it escape all utilitarian and realistic considerations. Photographs of the cosmos are precious for astronomers and cosmologists; for the public, they are fantastic, surreal, marvellous sights.

All in all, what strikes me about images' relationship to the world, both living and non-living, in this first quarter of the twenty-first century, is the combination of documentary, more or less assumed spiritualism, and expressiveness. These seductive images often aim for sensation, even sensationalism, rather than information or emotion - but they betray the human fascination for all its co-existents, whether they are living, like insects¹⁶⁾ or trees, whether they are endowed with a fabulous existence, like clouds, for example, or whether they visibly embody the very enigma of the world's existence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like galaxies.

Half a century ago, a well-known anthropologist warned us: "the mental system that governs how we think and learn is the very same sort of system that governs the evolution and ecology of life on Earth"¹⁷⁾. It is this fundamental conviction that we see manifested today, in our relationship with animals, plants and the universe, and especially in the sometimes clumsy proliferation of images about them. Moreover, the often gleaming nature of the images we are presented with ties in with the long history of the fantastic and the ghostly in images, and today extends into another, even more fantastic hypothesis: that images themselves are "alive"¹⁸⁾. This exaggeratedly animistic proposition is not to be taken literally; but, as a provocation to reflection, it is highly suggestive. How, for example, are we to understand the appeal of the images generated in GANs, where a machine learns to produce verisimilar images, and which so occupy contemporary artists¹⁹⁾? It is easy to get the impression that there is an intelligence at work here, and that the images generate each other with a life of their own. Here again, we need to learn to live rationally with these productions.

The image fosters our living together

The idea of image, and the term "image", refer to several realities. Our memory images, our imagination, are the first stages

16) Emmanuelle André & Jean-Michel Durafour, *Insectes, cinéma. Le visible qui palpite*, Aix-en-Provence, Rouge Profond, 2023.

17) Gregory Bateson, *Mind and Nature. A Necessary Unity*, Hampton Press, 1979.

18) Emanuele Coccia, *La Vie sensible*, Payot-Rivages, 2013.

19) For instance, Gregory Chatonsky, "Book of Machines (excerpt)", in A. Somaini (ed.), *Time Machine. Cinematic Temporalities*, Skira, 2020.

for each of us. But above all, the image has been a major medium for human activity, through its dissemination, socialization and, often, mediatization. There are images linked to activities as diverse as play (which by its very nature is both individual and group-based), art (especially in its modern definition, which takes it away from rituals of a religious nature), science and technology, and of course, religions and beliefs of all kinds. In all these uses of images, the point is to stand back from the reality in which we are immersed - and which imposes itself on us without revealing its inherent meaning (if any). Gaming abstracts us from reality, creating a new, provisional reality (even if some online games can now last almost forever). Memory turns our own lived reality into something like a narrative. Art, in the modern sense, is a tool for withdrawing from reality, leading to contemplation or distancing.

Instead, I have tried to consider other values of images, which can bring the same powers into play, but for other purposes. Used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e image has a status that is sometimes interpersonal, sometimes public, and often a mixture of both. The exploration of the non-human world in images, as I mentioned last, aims at something like revelation, when it does not have the ambition of opening us up to a reality that is itself difficult to perceive. Finally, the register of emotion, undoubtedly the most archaic of all, plays on the innate powers of the human body, and produces the empathic phenomenon.

These great functions, values and powers of images do not conflict with their individual and personal uses. As in all our lives, there is a dialectic between what comes from us (from our consciousness, our memory, our mind - our brain, if you prefer) and what comes from the world, this splendid reality in which we are inscribed, which we will probably never master, but which we must confront from all sides, and if possible through coordinated efforts. Thanks to its enormous social reach, the image, more than language since the mythical episode of the Tower of Babel, is the privileged means of coordinating human efforts²⁰).

I would like to conclude with two remarks, as optimistic and constructive as possible.

1°, social coexistence is based on consensus, but also on *dissensus*: discussion, dispute and contradiction. The globalization of images, since their automated reproduction, two centuries ago, thanks to photography, has accentuated their role in this process, which is both inevitable and indispensable, because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elf-evident truth, and discussion will always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ctivity, the one that alone enables us to act with full knowledge of the facts.



We see it every day, especially since the mass distribution of images. Countless caricatures and "shock images" are designed to do just that: spark controversy. Similarly, some films are designed to spark debate, as was once the case with militant cinema. Such films were not made to be watched passively, even to increase knowledge or strengthen opinions, but to spur action. An Argentinian film much commented on in 1968, *La Hora de los hornos* (F. Solanas & O. Getino), was intended to be shown, not in cinemas, but at impromptu screenings, often in support of a demonstration or a strike. The slogan reads

in full: "Every spectator is a coward or a traitor" (Fig. 22). This film sought out discussion and dispute, and provoked them - even if today it has turned into a mere document for historians. On the other hand, certain films of the past, whose explicit or implicit message has become unacceptable in the light of the ideologies of the moment, are much debated today. Such is the well-known case of *The Birth of a Nation* (Griffith, 1915), which for a long time wa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moments in the birth of the cinematic language, and which is now seen above all as an embarrassing apology for the Ku-Klux-Klan.

Images communicate, they move, they reveal, but never univocally. Like all human expression, any image is marked by the context in which it was produced, and will therefore be seen as irremediably dated: it mingles with the never-ending noise of conversation, discussion, dispute, and sometimes, war.

2°, the digital revolution has brought an absolute novelty: we no longer just look at images, we make them, instantly and

20) W. J. T. Mitchell, *What Do Pictures Want? The Lives and Loves of Imag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5.



without difficulty. Images are increasingly seen by viewers who are not surprised by them, because they make them too. This has not revolutionized our relationship with images, but it has added a conscious and almost permanent distance to them, so that at the same time as we see an image, we also see, at least virtually, how it was made - especially since the appearance of image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ve forced us to ask ourselves, in front of each image, what its nature and origin are. This is easy enough in the case of obvious fakes, such as this photo of French President Macron "fleeing from the crowd" (Fig. 23), which has been much circulated in 2023: it has been used to communicate in all directions, it provokes immediate (usually negative) empathy, but few people think that it is an authentic snapsho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more

ambiguous cases, which are part of the very long history of public deception and lies.

Our increasingly concrete knowledge of how images are made tends to make them the basis for more intellectual discussions, with exchanges of arguments, explicit questioning, and so on. Images have never fulfilled their communicative function as much as they do today. However, neither empathy nor escape into non-human worlds has disappeared from images as they appear to us. My conviction is that the empathic power of an image, in particular, has not diminished with the digital age - but that it is its relationship to other equally important dimensions, such as truth, that has profoundly changed. We urgently need to reflect on the new paths taken by images, because they shape our lives and commit us to them completely. Images have become "intelligent", yet they continue to work on our bodies. It's up to us to manage this contradiction *intelligently*.

Legends for illustrations not given in the text :

- 6. *Captain America: The Civil War* (A. & J. Russo, 2016)
- 7. *The Ashes of Time* (Wong Kar-wai, 1994)
- 8. Eugène Disdéri, Visiting cards for Ms Rose Deschamps, ca 1860
- 14. Léon Spilliaert, *Self-portrait with mirror*, 1908
- 21. Guo Xi, *Autumn skies* (particular), ca 980

이미지의 인간적 힘

The Human Powers of Images

자크오몽 Jacques Aumont
소르본 누벨 대학교 미학 명예교수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é Sorbonne Nouvelle
(Department of Aesthetics)

이미지의 인간적 힘

이미지가 나를 사로잡는 방법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림 1)

저처럼 당신에게도 유아부터 할머니까지 연령대가 다른 다섯 사람이 보일 겁니다. 솔직한 미소부터 걱정까지 다른 얼굴 표정을 한 다섯 사람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그 어떤 것도 알기 전부터 당신은 그들의 존재와 표정과 자세에 영향을 받아 몸이 반응할 겁니다. 당신은 깊은 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조금 더 이 사진에 대해 알아보면 미군이 1953년경 부산에서 찍은 한국 북부 난민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난민들의 힘든 삶에 대해 많이 읽고 들으면서 이들 존재에 대한 제 즉각적인 첫 반응에 더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런 정보를 갖춘 우리에게 이 사진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사진작가가 찍은 수많은 사진과 더불어 이 이미지는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 사진을 발견했을 때 공감과 아마도 연민조차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다른 난민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 일반적이고 정치적이면서 인본주의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이미지들처럼 이 이미지 역시 단지 특정 순간에만 보이는 일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이미지를 스쳐 지나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인간이며 저의 인류 동지이자 저는 이들에 대해 쉽고 자연스럽게 예상하거나 이해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저의 지식이(특히 말로 모든 것을 옮기는 언어에 의해)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이미지는 저에게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는 존재와 힘으로 둘러 쌓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미지는 또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인간이 아닌 존재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세계와의 공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이미지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적어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예술가와 장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정신적이든 심지어 초자연적인 것이든 이런 효과들은 인류 전체의 이미지에 대한 오랜 경험의 결실입니다. 오늘 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적, 감정적, 미술적, 법적, 종교적, 사회적 그 밖의 모든 단계에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미지

저는 이미지의 사회적 측면이라는 가장 명확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미지는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시키고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벽화 이미지처럼 그들은 소수의 집단일 수도 있는데 이미지가 발견된 동굴에서는 시작을 한 것만이 관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 가능한 가장 많은 대상을 위한 종교적 이미지 혹은 픽션 영화에 잠정적으로 동원된 방대한 사람들 같은 군중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는 각 사회마다 다른 공동체의 활용에 대해 정의하고 공동체의 비전을 규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지는 구상된 맥락과 처음 전파되었던 시간과 장소와 연관될 때에만 제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에서 오래도록 대중의 눈앞에 전시되었던 대다수의 종교적 그림은 항상 신성한 공간에 전시될 운명이었습니다.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성모승천'(1515~18년, 그림 2)은 회화 역사상 수많은 작업을 통해 재탄생되지만 원래는 '성모 마리아'(그림 3)에게 바치기 위해서 성당 제단에서만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전통적으로 일본의 '에마키'는 손에 들고 있지 않을 때에는 '도코노마'라는 집안의 신성한 공간에 걸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네쉬'의 이미지나 아프리카의 가면은 근본적으로 신성한 제례의식을 지내는 동안에만 제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들조차 서로 관련된 이해하기 쉬운 유통구조를 자체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화라 부르는 움직이는 이미지 작품들에 완전히 익숙해졌지만 영화를 시청하는 사회적(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심리학적) 조건은 한 세기가 넘게 지나면서 크게 변화했습니다. 연극 무대를 모방한 기본 장치는 1910년대부터 압도적으로 많아졌지만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관객이 반드시 자리에 앉아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대 미국에선 드라이브인을 통해 자기 차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제한적이고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코믹'과 일본 '망가'는 이들의 원조 격 중 하나인 '우키요에'가 제한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유통 수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미지는 특정 환경에서 유통되고 이 결과 유통 환경이 더욱 활성화 됩니다.

글로벌화가 초래한 가장 큰 결과는 이미지의 무한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이미지와 맥락 사이의 호응이 불명확해지고 제대로 된 판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콰키우틀 가면(그림 4) 또는 고대 쿠로스상(그림 5)같이 한 때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져 있던 희귀하고 귀중한 작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미술 전시나 미술품 경매에 존재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술의 영역이나 문화 상품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점점 더 쉽게 최소한 인터넷에서 복제품으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유통이 초래한 문제적, 부정적인 결과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원래 속한 토양에서 이미지를 단절시키고 이미지가 본래 가진 사회적 공감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감수하면서 가능한 모든 것이 평등한 무한한 전체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가면은 새의 머리에 사람의 얼굴을 배치합니다. 닫혀 있을 때는 새가 보이지만, 열려있을 때는(입회한 사람들만을 위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만 일어날테지만) 새가 사람을 보호하거나, 어쩌면 새는 사람이거나, 사람과 비슷한 것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영혼의 존재에 관심이 두는 모든 원시 종교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메시지는 21세기 세계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쿠오로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만들어질 당시(대략 2500년에서 2600년 전에) 우리는 그것이 봉헌된 조각상인지 장례 기념 비석이었는지 모릅니다. 몇몇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심지어 아폴로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종교적, 의식적 목적의 일부이고 이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영혼을 보기를 바랐습니다. 박물관이나 카탈로그나 위키피디아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이미지들은 제게 형태가 바뀌기 쉬운 힘, 미술품으로서 성공에 대해 전해줍니다. 전체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맥락이 소멸되기 쉽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점점 날이 지날수록 지구에 살고 있는 수 없이 많은 인간 집단에게 이미지는 중요한 소통 장치임을 배우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 중 일부는 그레코로만형 조각상이나 기독교 도상, 불교 도상, 중국 혹은 중동의 캘리그래피와 같이 눈에 띄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랜 기간 알려진 것이 별로 없었던 집단 역시 도상을 제작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미지는

특정한 문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그럼에도 훌륭한 인간 문화 자산입니다. 이 조각상에 이 가면을 끼워 맞추는 것은 한 세기 전만해도 농담이나 도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소통의 힘과 사회적 유대감을 부여 받은 강렬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단지 다른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그들의 소통능력을 정의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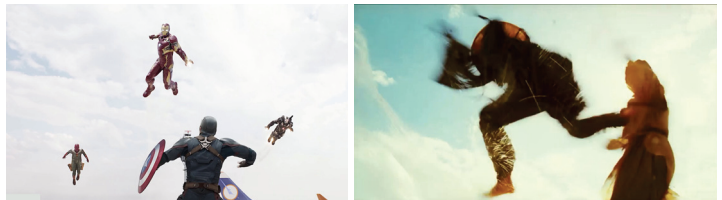
이미지와 의사 소통의 어려움

즉 이미지는 인간 사회에서 의사 소통의 두 가지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다른 하나는 당연히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미지가 사회에서 재현되는 방식과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미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찰한 바를 두 가지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한 편 이미지가 특정한 가치나 생각, 혹은 명제를 사회적 환경 안에서 전파한다면, 그것은 그 지위가 분명히 사회적인 다소 복잡한 기구의 중재자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한 편 이러한 성향들이 그들을 나아가게 한 집단성과 관련하여 항상 그들 자체일지라도 그들을 집단적으로 볼 것인지 혹은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선택의 여지를 남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오직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전달할 수 있고 이는 같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적 장치와 성향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영화란 장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시입니다. 첫째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바로 영화관을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은 19세기 유럽과 북미의 두 가지 사회적 관습인 부르주아 극장과 음악당의 주요 특징을 차용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화의 확산의 힘은 관객 모델을 수 세대에 걸쳐 일종의 자명한 삶의 사실로 만들었고(영화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오늘날 영화관에 대한 헌신적인 연구와 다큐멘터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자 코로나 팬데믹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관람의 *아비투스(habitus)*가 변화하면서 영화관은 이미 급진적인 변화와 사라질 위협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과거로 이어지는 문화특성으로 보여 집니다.

영화는 이제 ad hoc 극장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홈 스크린과 주머니 속 멀티 디바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더 이상 50년 전이나 60년 전의 주간 뉴스나 단편 영화, 메인 영화가 상영되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기차에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저를 사회적 주체로 소환하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란 하나의 단일한 기기가 아닌 여러 기기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비평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와 라디오와 TV 인터뷰 등은 수십 년에 걸쳐 적어도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널리 퍼져 있는 씨네필리아라는 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 60년 전처럼 공통된 취향이나 관심사로 모인 자신들만의 영화에 대한 반응(이후 언급할 '공감'이라는 감정을 포함하여)과 무엇보다도 씨네필 환경에 따라 영화를 판단하는 이런 저런 종류의 영화를 골라 보는 '씨네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두 영화 장면들을(그림 6, 7)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둘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둘은 매우 다른 전문가들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미심쩍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본 마블 '유니버스'의 블록버스터 팬들에게만 어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격식 있는 대담한 작업과 정교한 이미지로 유명한 영화감독의 영화에서 가져온 것으로 무엇보다도 심미적 성향이 다분한 팬들에게 환영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제 면에서 유사한 두 장면은 전혀 겹치지 않는 서로 다른 성격과 범주에 대한 논의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치를 물질적 구성 요소에만 국한시키지 않을 때 장치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저는 매우 다른 성격의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19세기 말 약 3~40년 동안 사람들은 사회적 목적으로 '방문 카드' (그림 8)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명함이 오고 가지만 이는 원래 누군가가 없을 때 방문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하인에게 맡겨두면 그들이 고용주에게 건네는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진은 필수가 아니었지만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에 들어간 삽화는 거의 사실에 가깝게 리얼리즘을 살려 매우 환영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작은 문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정교한 시스템 (공식 가정 방문, 가사 서비스의 존재, 예의 규범 등) 안에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가의 사진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시크한' 모임에 속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신비하게도 매장된 이후의 그리스도로 추정되는)의 모습이 흡사 사진처럼 새겨진 천 조각인 '토리노의 수의'는 과거에는 종교적 목적에서

오늘날에는 과학적 목적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의 기원에 관한 기적 같은 실상에 설득된 소수의 신자 집단에만 전시되어 왔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몇 년(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된 것인지 정확한 기원을 찾고자 하는 전문가들이 조사 중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복제품이나 언론 그리고 엽서로 널리 퍼져있는 이 이미지는 스마트폰 시대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들은 가상의 보이지 않는 집단이며 공유된 결의와 믿음(누구에게는 종교적이고 누군가에게는 과학적인)으로 함께 뭉친 사람들입니다.

소통의 도구로서 이미지에 대한 마지막 관찰로 이야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합적으로도 볼 수 있는 이미지와 단일하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루미에르 시네마토그래프가 본디 제안한 광경(spectacle)의 형태를 한 세기 동안 확장 시킨 매우 적절한 시기의 영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 강력한 기관(제작 및 배급사, 광고 회사)과 점점 더 정제되는 기술과 근무 조직(끊임없는 장비의 발달, 대본 작가에서 편집자까지 명확한 분업) 그리고 더 많은 관객을 확보한 집합적인 예술과 탁월한 광경을 말입니다.

잠정적으로 영화는 적어도 관객 상당수를 루미에르 이전 모델 즉 에디슨이 발명한 키네토스코프(혼자 기계를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를 감상하던) 시절의 고독한 관객으로 되돌립니다. 이는 관객이 속한 임시 커뮤니티와 관객 모임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온 것처럼 영화의 세기는 기술 변화를 넘어 지속되어 온 집단 경험을 강화하고 육성하고 이러한 습관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소통(그리고 공감)은 내가 앉아 있는 영화관에서와 비슷하게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화의 흐름에 종속되어 있을까요? 또한, 나의 반응을 낳은 이들과 나누고 혹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기 앞에서, 나를 나 자신에게로 다시 돌려보낼까요? 캐필러리(Capillary) 배급은 20세기의 전문 경로를 이용한 배급보다 더한 대량 배급입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더욱 의존해야 하는 수신자(시청자) 역시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장치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영화를 강조해왔습니다만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되는 점점 더 통제가 불가능한 이미지들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직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인공 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던지는 현실적인 도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사진과 영화로 제작된 이미지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띠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조만간 전문 알고리즘만이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짜 이미지의 대량화, 이미지에 대한 신뢰의 상실,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진실이 소멸되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를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대한 의문은 이미 너무 오래됐고 재현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제기된 질문입니다. 여러 다른 상황에서 이미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인공물을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현상, 사물, 혹은 사건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수신자를 기만한다고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쓰이는 '트롱프 뵐유'라고 불리는 기법이 있는데 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지와의 소통과 이미지를 통한 소통, 이러한 이미지의 수용은 언제나 다소 의식적이고 중요한 지식을 전제로 해왔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모방한 인공물과 눈으로 본 것 그 자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인공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로 발전하여 우리가 이미지를 계속 인간답게 사용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감의 지평선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한 이미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환경, 사진작가의 목적, 뉴스 사진으로서 유통 가능성, 그리고 더욱 포괄적으로는 이미지가 애초에 전달하고자 한 것에 대해 조금은 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다시 봐도 여전히 제에게 일었던 공감의 힘은 같습니다. 제게는 웃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찡그리는 어머니, 걱정하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저는 어떠한 전체적인 인상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온? 고뇌? 사진 작가를 위한 의도적인 포즈나 즉흥적인 태도? 하지만 제 몸은 그렇게 많은 추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 다른 방식으로 투영합니다. 공감의 법칙 또한 그렇습니다. 공감은 스스로 일어날 뿐 누군가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미지의 효과와 같습니다. 공감을 멈추거나 강화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실제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선택합니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공감의 개념은 한 세기 반 전에 특히 이미지의 작용에 제기된 질문이라는 맥락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개념을 감정이입(*Einfühlung*)라는 단어로 만든 사람은 독일의 학자 로베르트 피셔였습니다. 이 이름하에 그는 관찰되는 사물 또는 존재가 사고의 개입이나 성찰 이전에 관찰자 자신의 감정과 즉흥적으로 연결되는 심리학적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피셔의 논문은 미학의 분야였고 그는 주로 당대 예술 작품(회화와 조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접근은 훗날 심리학 분야에서 채택되고 증폭되었으며 공감을 표현적 현상의 직접적인 이해에 따른 핵심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테오도르 립스에 의하면 공감은 '상상된 모방'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초기의 비자발적이고 심지어 통제가 불가한 반응이며 지적이고 감정적인 차후 관계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은 언어와 같은 상징적인 수단에 의한 교류 이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연민 또는 동정심 같은 초자연적인 관계 형성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심리학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 개념에 따르면, 개인적인 지식이나 타인에 대한 애착은 인류에 대한 공동 참여의 일차적인 발현인 공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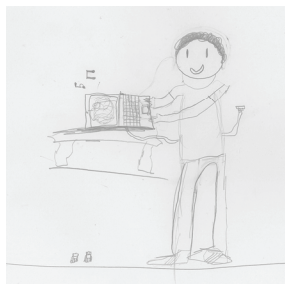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지를 통해 즉각적인 존재감에서 오는 내재된 힘과 함께 인간 대 인간의 소통에서 보다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공감이 이상적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예시는 동굴 벽화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2~3만년 전에 만들어진 이 그림들은 우리 동시대의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작가들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비록 오늘날 그들이 행한 의식과 무속적 특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 같지만) 그들이 그 후에 무엇을 했는지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제품에서조차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을 걸고' 강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킵니다. 쇼베 동굴에 있는 암사자들(그림 9)은 위협적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진중해 보입니다. 흉상만 볼 수 있는 라스코 동굴에 있는 오록스(그림 10)는 마법처럼 작은 말 무리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환영(아마도 영혼)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는 못하지만 '부정적인 손'과 같이 훨씬 더 원시적인 이미지들이 천 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리와 소통하지는 않지만 즉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공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아마도 소통 가능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영향으로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들의 첫 번째 영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지의 의사소통적 기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감은 정신을 부여 받은 주체로서 그를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범위와 힘은 더 확대되고 또한 엄격하게 포괄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모든 심리 현상처럼 개인마다 고유하고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의 사회적 기능과 개별적 가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목표로 합니다. 재현한 대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슷하게 재현할 것. 심지어 그 대상이 거기 없더라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감을 보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에 표현력을 부여할 것. 재현과 유사성, 존재감의 효과, 표현력: 이는 이미지의 중요성을 정당화하는(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이미지를 금지시키고 싶을 정도로) 세 가지 불가분의 주관적 효과입니다. 우리는 존재감을 통해 경험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유사성은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표현력은 감정을 동반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미지의 세 가지 효과는 예술, 과학 또는 미디어 이미지의 영역을 뛰어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그림, 캐리커처, 대중적인 판화 등 모든 종류의 이미지가 예술, 종교 또는 과학의 이미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미지의 감정성이 의사소통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난민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서사를 알면 그에 못지 않은 공감을 느끼지만, 그 이야기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와의 공감은 어느 정도의 문화적 지식에 대한 필요성을 없애지 않으므로, 이미지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그림 11)에서, 저는 노트북을 본 적이



없다면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에서 행해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칸돔블레 의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저는 이 조각상들(그림 12)에서 컬트 참가자들에게 호호함 없이 그것들이 구체화하는 orixá 정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지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반대 하든(이제 인류의 대다수가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적든(칸돔블레 의식은 아주 특수합니다) 특정 사회집단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잘 알아야만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있고 이미지가 주는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 감정입, 즉 이미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2023년에도 여전히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이미지를 느끼고 이미지 안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게 만들어 존재감의 효과를 강조하고 표현력에 민감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심지어 제가 필요한 정보 중 일부를 놓치더라도 항상 긍정이든 부정이든 공감하는 감정의 흐름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제도사의 정신 상태나 오록스의 마법을 느끼기 위해서 지극히 적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조각상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제 개인사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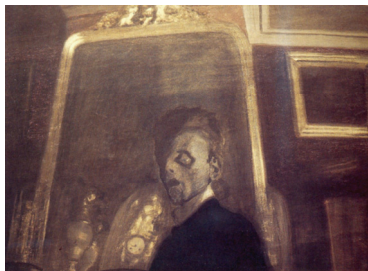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인간의 이미지 더욱이 얼굴의 이미지에서 감정이라 여겨지는 것을 읽어내는 선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이라는 현상의 핵심입니다. 어떤 인간의 이미지라도 보는 이가 몸소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 처했다'고 느끼게 하는 그들이 주는 영향을 공유하는 충격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사람의 이미지에 의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 하거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웃고 울고 한탄하고 손짓과 자세 사이의 관계는 종종 차별적인 고정관념에서 나타나듯 인간 집단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서양인들은 동양인의 미소를 감정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교라는 이데올로기는 자기 감정 조절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작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다행히 정보는 더욱 명확해 졌지만 미소는 여전히 미소로 남아 있고 항상 그 혹은 그녀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 주체에게 도달합니다.



인간의 모습과 그 이미지가 뇌의 감정을 주관하는 부분을 즉각 포착하는 힘은 합리를 넘어선 믿음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그림의 악마, 힌두교 조각상, 특정 아프리카 문명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가면', 일본 유령들의 이미지(그림 13)은 모두 제게 말없이 고통이나 공포라는 형태로 직접적인 채널을 통해 소통합니다. 작게는 위협적이거나 고문당한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각과 감정에 반사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을 특히나 게임 세계나 게임에서 파생된 것들이 속한 많은 판타지 세계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선택해온 방식입니다.

인간의 겉모습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초상화같은 사실적인 예술은 대체로 공감의 예술이었습니다. 초상화는 시각적으로 모델을 닮아야 하지만 공감적 충동만이 도덕적으로 그와 닮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지를 창조한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각 증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초상화는 그가 전쟁 중에 내려야 했던 중요한 결정에 몰두하고 있을 때, 사진작가 유섭 카쉬가 의도치 않게 찍은 것입니다. 처칠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카쉬는 처칠의 입에서 시가를 뱉었습니다. 처칠은 불쾌감을 드러냈고 우리에게 보이는 분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공감은 이처럼 억누를 수 없지만 모호합니다. 우리 눈에는 짜증난 남자도 보이지만 또한 우리는 1941년 처칠이 직면했던 위험을 이미지에 투영하면서 그가 걱정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색된 초상화를 통해 보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이 자화상(그림 14)은 우리가 방금 본 일본의 악마와 거의 유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모델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이미지에 끌리고 우리 대부분에게 아마도 이질적인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닌 감정으로 우리를 몰들입니다. 사진 이미지는 먼저 외모에 대한 충실한 재현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날 손으로 만든 이미지처럼 그것들은 감정의 매개체 중에서도 가장 높이 있으며, 정확히는 거부할 수 없는 공감력 때문에 일부 사진은 진정한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36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 FSA 사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찍은 도로시아 랭의 유명한 사진 '이주민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얼마 뒤

1963년 베트남에서 네이팜 폭탄으로 인해 등이 불타는 동안에 촬영된 '네이팜 소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착취당하는 농장 노동자를 지지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두 사진 모두 전투적인 목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부산의 난민 사진이 덜 분명하게 그랬듯 정치 도구로서 효과는 불가피하게 생겨난 엄청난 공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에서 생겨난 공감이 인지하고 활용한다면 사회관계와 대인 관계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지가 유통되고 제작되는 속도는 이해와 더 나아가 연대까지 대체할 수 있는 감정이 점점 더 이성을 앞선다고 위협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공감은 이미지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실패하지 않지만 이것은 심지어 이미지가 보여주는 진실이나 현실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거짓된 이미지는 진실된 이미지만큼 공감을 불러 일으킵니다(그리고 때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숙고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따라서 공감을 잠재적인 결과로서 감정(연민, 동정)과 구별하고 감정의 영역을 지적인 영역, 소통의 영역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다시금 중요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가 인간 동료들과 유용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후자입니다.

이미지와 비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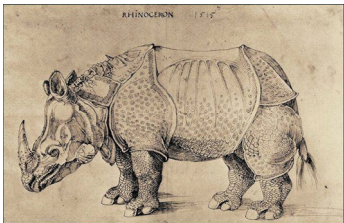
수세기에 걸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의 개념은 우리가 보았듯 엄청나게 다양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식의 형성과 사회적 유대를 견고히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항상 공감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사용되어 온 방식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본질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입니다.

인간은 비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류는 과학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경쟁적이고 종종 적대적인 길을 따라왔습니다. 전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내를 요구하는 길고 끝이 없는 객관적 지식과 이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탐구를 수행하고 판단하고 이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의식화 되었던 아니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속성, 그리고 종종 눈에 보이는 외형을 부여하는 미지의 힘에 대한 선형적 복종을 나타냅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양과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가 듣고자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더 높은 힘, 신 또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은 처음부터 이미지에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동굴에 그려진 이미지에서 이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때때로 시각적으로 놀랄 정도로 정확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목적은 마법적(또는 페티시즘적)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그들의 최초 발견자들이 분명하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동시대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즉시 현실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공감의 측면에서도 말합니다(여기서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여 매우 넓은 의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비슷한 것들은 주어진 문화에 속하는 모든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과학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간이 아닌 세계의 수수께끼에 접근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되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을 발견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아직 완전히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고 3천 년의 기술적 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미지는 인간과 그 이성만이 아니라 초인간적 신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간단한 예시인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들어봅시다. 주요 기능(호흡, 음식섭취, 수면, 생식)을 하는 인간의 몸은 동물의 몸이고 동물들은 다른 많은 면에서 인간과 매우 가깝습니다. 특히 소위 '우월한' 동물들은 기억력이 있고 기본적인 추론이 가능하며 심지어 어떤 동물들(고릴라, 까마귀, 돌고래...)은 즉흥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동물들은 의사소통과 표현의 인위적인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련된 언어도 이미지도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동물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동반자나 파트너, 또는 우리를 위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중동 종교(이집트, 수메르), 아프리카, 아마존 또는 시베리아 의식의 신격화된 동물들은 매우 중요해져서 진정으로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템의 형상이 신성한 성격을 띠며 현실적인 질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피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동시에 소와 같이 하인이 된 동물들은 비슷하게 단순화된 방식으로 묘사되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특성만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는 강하고 쟁기나 수레를 끌고 이를 통해 표현된 것이 바로 근육의 힘입니다. 이것은 특정 고대 그리스 장난감들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호하게 스케치된 소 모양의 덩어리가 바퀴에 장착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 도상학의 기록 경로는 일반적인 과학의 발전과 함께 했습니다. 쓸모 없지만 감정으로 무장한 애완동물이 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병충해 방지에 귀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장식의 일부였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찰과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이미지에 투영하고자 하는 욕망뿐(현대화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었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처럼 화가로서 거장이며 꼼꼼한 화가는 적어도 선사시대 사자나 오르크 정도로 정확하게 고양이(또는 토끼)를 그리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코뿔소(그림 15)를 그렸다면 모든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환상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동물에 관한 한 다큐멘터리적인 접근법은 정확도와 사실주의에 초점을 두었던 표현의 역사를 따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계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발명품이자 진보의 끊임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운명을 가진 사진술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명은 우리로 하여금 사진의 형상화 능력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했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미지를 복제할 수 있게 했으며 더욱 포괄적인 카탈로그를 만들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사진의 형상화 능력에 불과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지식과 동물 세계에 대한 숙달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이미지는 지식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의 비대칭을 재현합니다. 또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고, 동물에 대해 생각하고 더욱 알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마법적인’ 또는 ‘영적인’ 길에 관해서는 이 또한 인간의 개념과 태도에 깊게 뿌리박고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진짜는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고 인간의 삶은 정확히 상상 속에 이중 세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제자리에 있는 현실 ‘이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미지는 감각이 접근할 수 없는 실체들을 환기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본의 유령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매우 유행했던 사후 사진(물론 가짜)에서 묘사된 ‘영혼들’에 지나지 않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즉 사후 사진은 이 거대한 수수께끼같은 삶에서 무언가 형언할 수는 없는 어떤 것을 느껴볼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이미지들은 (예를 들어 그림같이 아름답고 다채로운 형태의 ‘아우라가 있는’ 사진에서) 문서가 아니라 일종의 몽상입니다.



동물은 항상 인간과 세상의 상상 관계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동물이 영혼의 가시적인 표현 또는 심지어 화신이 되는 무속 신앙이나 페티시즘 신앙에서 명백히 보여집니다. 저는 위에서 북미의 가면과 토템에 대해 이 점을 분명히 언급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더 암시적인 방식으로 호주 원주민 예술뿐만 아니라 밤바라의 섬세하게 조각된 치와라 벳(그림 16)과 같은 특정 아프리카 작품에도 존재하며,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영양의 신화적 역할을 높이 평가합니다. 비슷한 생각은, 어떤 특정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문화 분야인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인간 유형 카탈로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카탈로그에서 인간은 샤를 르브링의 관상학(그림 17)에 나오는 동물과 유사하다는 특징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미지에서 동물은 인간의 조건을 반영하고, 종종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반사신경처럼 (제가 방금 선사시대 암사자의 표현이 '주의깊고 진지하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인간의 감정을 동물에게 투사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사적인 충동은 항상 인간과의 쉬운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흥분시키는 동물의 이미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사진의 등장 이후 마법 같은 권위를 많이 잃었는데 이로 인해 우리는 동물들을 있는 그대로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감각적이고 선정적이기까지 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사진의 기록 능력을 극도의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시적인 것보다는 과학적이지 못한 또 다른 현실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동물 이미지들의 확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빛 아래에서 매우 가까워서 보는 지렁이의 머리는 놀라운 색각성(그림 18)을 부여 받은 듯 보입니다. 이는 치료 목적을 위해 지렁이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생물학자에게 유용할 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괴물의 이미지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즉시 부정적이고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는 반사적인 감정입을 일으킬 것입니다. 결과는 모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된 동물과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인간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하나 더 발명했을까요?



여기서도 인터넷은 이 질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친숙한(고양이, 개, 염소, 돼지) 또는 이국적인(잠자리, 노래기에서부터 희귀한 새까지, 네발 달린 동물) 모든 종류의 놀라운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TV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우리의 작은 정신적 백과사전은 충분히 더 많은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동물 이미지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동물성에 대한 관점을 세련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재 영구적인 대량배포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세상을 소유하려는 과학과 세상에 복종하려는 믿음 사이의 오랜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인간이 아닌 비인간의 중요한 측면에서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답을 결정하는 것에 맡기겠습니다.

식물의 환경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훨씬 더 최근의 생각입니다. 사실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식물을 살아있는 개체로 간주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스케일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인간다운 표현에만 적응된 인간의 눈에는, 감정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삶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전히 역설이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운동이 plant turn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점점 더 많은 설명을 합니다. 이걸 다 무슨 일일까요? 동물이나 비인간의 세계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식물의 내재된 힘을 가시화하는 것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래왔고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고대 의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의 아벨람은 크고 장식된 양을 포함 의식을 진행합니다. 매우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일본 오사카의 원예 관습은 등나무의 특정한 종의 꽃을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배자, 정원사, 조경사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식물은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실체이지만 협력하고 순수한 지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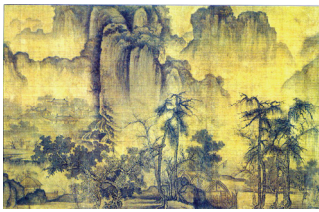
늘 그렇듯 이 이미지는 문사이면서 영적인 침투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식물의 경우에는 항상 후자가 명백한 관성 위에서 비틀거리더라도 말입니다. 우주에 공명하는 우화인 '반지의 제왕' (1954년~55년)에서 J.R.R. 톨킨은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상상했을 때 그는 자신이 불가능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이 아이디어가 시각화된 것이 입증하듯 그 결과는 확실히 놀랍습니다. (피터 잭슨, 2001~2003) 오래된 나무들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추론을 하고 민감하게 굴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악한 마법사의 극악무도한 구조물을 파괴할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톨킨과 잭슨이 파레이돌리아라는 오래된 시각적 농담을 통해



우리는 특정 사진 이미지들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무는 수염을 기른 노인(그림 19)처럼 보입니다. 다른 나무는 팔을 쭉 뻗고 걷는 것(그림 20)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판타지 소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죠. 나무는 용감하게 선(善)을 향한 전투로 행진하는 현명하고 용맹한 노인이 됩니다.

우리는 허구와 컬트와 농담 사이 어딘가에 불안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주저함이 우리와 식물과 초목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속에서 현생을 재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이미지가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 위장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널리 퍼져있는 모호한 개념들을 통해서 나무와 꽃과 풀이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등장하여 더 이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풍경에 대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속고를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인간 중심적 개념이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복잡하고 무한히 가변적입니다. 영국식 정원은 말 그대로 프랑스식 정원과 정반대이며 둘 다 중국의 풍경화(그림 21)와 그리 많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풍경'이라는 개념은 사실 심오할 정도로 모호한데 이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이자 식물의 구성원인 것을 인지하고 동시에 이 구성원에 대해 제대로 된 인간적 사고를 하는 것, 되도록이면 인간에게 유익하거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 나무, 꽃, 광물, 식물입니다. 우리는 이 풍경을 인간을 매혹하고 압도하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장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모든 문명에서 수행해온 분명한 역할인 현실에 대한 생각을 굳히는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이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연계는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우리는 주변에 무한하지 않지만 적어도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물리적 세계의 이러한 면은 인간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태양, 달, 낮과 밤, 계절 등은 거의 표현되지 않았습니 다. 우주의 첫 이미지(대칭적으로 무한히 작은 것이 첫 이미지입니다)는 불과 몇 세기 전의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놀라운 것은, 그려진 심상이든 사진으로 찍힌 심상이든, 이미지는 자연주의적이고 객관적이거나, 혹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암시적이거나 하는 두 가지 경사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주의 이미지는 밝은 점들이 박힌 검은 하늘과 같은 패턴을 반복했고 밤하늘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을 재현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지구에서 관측되고 탐험 된 이러한 우주 외에는 그리 특별할 만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 다. 비록 오래전에 알려진 데이터를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더욱 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이미지 제작은 결정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갔고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 그대로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들의 주된 덕목은 우리의 지식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지는 그 자체를 수단으로 삼아 광활한 우주로 데려다 주고 무엇보다도 최근에야 알려지고 이름 붙여진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은 이중 수수계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소멸되거나 음성이 된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렵고, 이미지의 경우 빛을 흡수하는 '구멍'은 원칙적으로 인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이미지를 보는 사람은 여러 감각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한 이상한 세계에 대한 놀라움, 사진작가들의 퍼포먼스와 그들이 구원하는 과학에 대한 감탄, 현실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늘 그렇듯 모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고려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이미지에 특정한 일종의 현기증,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주의 사진들은 천문학자들과 우주학자들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중들에게 그것들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대체로 21세기의 1분기에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이미지가 세상과 갖는 관계에 대해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기록주의와 다소 가해진 영성주의, 그리고 표현주의의 결합입니다. 이러한 유혹적인 이미지들은 종종 정보나 감정보다는 감각, 심지어 선정주의를 지향하기도 하지만 곤충이나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이든 모든 공존자들을 위해 인간의 매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구름처럼 멋진 존재감을 부여 받았는지, 또는 은하처럼 세상의 존재라는 불가사의한 사실을 눈에 띄게 구현했는지 ("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무언가가 있나요?") 같은 예시처럼 말이죠.

반 세기 전, 한 유명한 인류학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방법을 지배하는 정신 체계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와 생태를 지배하는 바로 그것과 같은 종류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러한 근본적인 확신은 오늘날 동물, 식물, 우주와 우리의 관계에서 특히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설프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의 반짝이는 본성은,

이미지들에 있는 환상적이고 유명같은 이미지들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은 이미지 자체가 “살아있다”는 또 다른 심지어 더욱 환상적인 가설로 확장됩니다. 이 과장되게 물화론적인 명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성찰의 자극으로서, 매우 암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매우 유사한 이미지들을 생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의 자리를 차지하는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생성적 적대 신경망)에서 생성된 이미지들의 매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가 서로를 각자의 삶이라고 인식하고 자능적이라는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제작물들과 이성적으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우리가 함께 사는 삶을 촉진시킵니다

이미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미지’라는 용어는 여러 현실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기억 이미지와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 각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지는 보급, 사회화 그리고 종종 미디어화를 통해 인간 활동의 주요 매개체였습니다. 놀이(본질적으로 동시에 개인적이고 집단에 기반을 둔), 예술(특히 종교적 성격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현대적 정의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물론 종교와 여러 종류의 신념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과 연결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 사용에서의 요점은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물러나고 그 본질적인 의미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현실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게임은 (비록 일부 온라인 게임이 이제 거의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라도) 새롭고 일시적인 현실을 만들어서 우리를 현실로부터 추상화 시킵니다. 기억은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현실을 네러티브 같은 것으로 바꿉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예술은 현실로부터 물러나기 위한 도구이며 사색 또는 거리 두기에 이릅니다.

대신 저는 이미지의 가치를 고려하고자 노력해 보았는데 이미지는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통의 도구로 사용했을 때 이미지는 때로 대인 관계적이고 대중적이며 종종 두 개 모두의 혼합된 형태를 띠니다. 이미지 속의 비인간 세계에 대한 탐구는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했듯이 우리에게 인식하기 어려운 현실을 열어주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계시와 같은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감정의 기록은 신체의 타고난 힘에 작용하여 공감적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미지의 이러한 위대한 기능, 즉 가치와 힘은 그들의 개별 그리고 개인적 용도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리로부터 오는 것(우리의 의식, 기억, 정신 - 우리의 뇌를 좀 더 선호한다면, 이것까지도)과 아마도 결코 통달하지 못할 그리고 가능하다면 협의하고 노력해서 직면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화려한 현실 세계가 주는 변증법이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범위 덕분에 바벨탑 신화 이래로 언어 이상의 이미지는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특권 수단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낙관적이고 건설적인 두 가지 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사회적 공존은 합의에 기반하지만 토론, 논쟁, 모순이라는 의견 불일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2세기 전 자동 복제 이후 등장한 사진 기법 덕분에 이미지의 글로벌화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이미지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자명한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토론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며 우리가 사실을 충분히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지가 대량으로 배포된 이후로 우리는 이를 매일 봅니다. 수많은 캐리커처와 ‘충격적인 이미지’가 바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슷하게 일부 영화는 과거 호전적인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쟁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화는 수동적으로, 심지어 지식을 높이거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68년 많은 논쟁을 받은 아르헨티나 영화 페르난도 솔라나스 감독과 옥타비오 게티노 감독의 ‘불타는 시간의 연대기’는 종종 시위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영화관에서가 아니라 즉흥으로 상영될 것을 의도한 것입니다. “모든 관객은 겁쟁이나 반역자이다” (그림. 22)라고 슬로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비록 오늘날에는 역사가들을 위한 단순한 문서가 되었지만 토론과 논쟁을 야기시켰고 이를 자극했습니다. 반면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메시지가 그 순간의 이념들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 과거의 영화들은 오늘날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화 언어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로 여겨졌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쿠 클레스 클랜 대한 당혹스러운 사죄로 여겨지고 있는 D. W. 그리피스 감독의 ‘국가의 탄생’의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이미지는 소통하고 움직이고 드러내기는 하지만, 결코 한 목소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표현처럼, 이미지는 그것이 만들어진 맥락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시대적인 어떠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대화, 토론, 논쟁, 그리고 때로는 전쟁의 끊임없는 소음과 어울립니다.



이는 대중의 기만과 거짓말의 매우 긴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점점 더 구체적인 지식은 논쟁의 교환, 명백한 질문, 등을 통해 이미지를 보다 지적인 논의의 기초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오늘날처럼 소통의 기능을 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인간의 세계로의 공감이나 탈출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확실한 것은, 특히 이미지의 공감력이 디지털 시대와 함께 감소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다른 차원과의 관계가 심오하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가 가진 새로운 길을 시급히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지능적"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에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텍스트에 제공되지 않은 삽화의 설명

6. *Captain America: The Civil War* (A. & J. Russo, 2016)
7. *The Ashes of Time* (Wong Kar-wai, 1994)
8. Eugène Disdéri, Visiting cards for Ms Rose Deschamps, ca 1860
14. Léon Spilliaert, *Self-portrait with mirror*, 1908
21. Guo Xi, *Autumn skies* (particular), ca 980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백영서 Baik, Youngseo

연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Honorar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1. 서 : 대전환기 공생의 인문학과 대안문명의 길

지금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한 것은 분명 실감된다. 냉전과 '신냉전(?)'이 교차하는 국제질서의 유동성,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위기, 환경오염과 기후-생태 변화, 팬데믹 현상,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확산 등 서로 다른 층의 요인이 중첩된 복합위기(polycrisis)의 현 국면은 큰 위력으로 우리 삶을 휘감고 있다. 단지 각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전환의 요인과 그 '이후'의 전망이 달리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러한 대전환 국면이 드러내준 역사적 균열의 현상 밑에 있는 심층구조, 곧 인간과 비인간, 생물권 모두를 위기로 몰아가는 (일국적이 아닌 세계적 차원의) 자본주의체제를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기후-생태 위기와 국제적 전쟁에 대한 감수성이 한껏 민감해진 지금이야말로 현존 자본주의체제와 성장제일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그에 개입하기 좋은 때이다.

우리가 자본주의 '이후'로의 이행을 구상하고자 할 때,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제안이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즉 지속적 민주화와 시장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모색을 통해 자본축적의 우선성을 약화시켜 제거해가는 것, 그리고 대안적인 체제의 작동원리로서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시스템 곧 일종의 문명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¹⁾ 이 큰 과제를 염두에 두되 이 자리에서는 기존 지식생산체계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한계에 대한 발본적 인식에 기반한 문명 전환을 모색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도록 받쳐줄 지식 생산과 전파의 영역이 일정 정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나는 '공생의 인문학'의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이번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주제인 '관계의 인문학' 취지와 통한다. 현존 인문학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인문학의 방향 모색이기에 그렇다. '인간·비인간·자연을 포괄하는 새로운 관계 문화 정립'을 추구하고, 그를 위해 소통·공존·공감을 핵심 가치로 삼자는 요청도 '공생의 인문학'이 공유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것이 엄밀한 개념이라기보다 행사용 문구의 성격이 짙기에²⁾ 평소 생각해온 '공생의 인문학'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지만, 이번 회의 주제와의 생산적 대화라는 뜻을 바탕에 깔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공생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이 문구를 구성하는 '공생'부터 먼저 설명하겠다.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자면 보통 symbiosis를 먼저 연상하고, 좀더 생각하고 나서 co-existence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co-becoming'을 의식하고 있다. 그것은 '함께 생성·변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³⁾ 다음으로 '인문학'은 학문분류상 분과학문의 하나로서 대학이나 학술계에서 제도화된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근대세계의

1) 유재건, 「대전환과 자본주의」, 『창작과비평』, 2023년 여름호, 367면.

2) '관계의 인문학'은 한국 논문에서 정착된 개념이 아니다. 이 어휘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이번 행사 소개 기사 말고 고작 김세원, 『관계의 인문학』, 서울: HUIINE, 2019이란 책이 나오는 정도이다. 이 책에서는 "좋은 삶의 관건"으로 관계의 인문학을 제시한다.

3) '공생'의 영역을 "co-becoming"로 쓴 나카지마 타카히로(中島隆博)의 발상에서 시사 받은 것으로서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being'과 구별되는 'becoming'의 의미에 덧붙여 도가의 발상도 담은 내용이다. 곧 '유변생성(流變生成)'과 '공동적 생성'을 의미한다. 賴錫三·莫加南, 「共生哲學對當前世界、兩岸處境的迫切性: 與中島隆博教授的對談」, 『思想』(臺北), 제45기, 2022년, 252-253면.

‘두 개의 문화’의 분열⁴⁾, 곧 인문학과 과학의 분열을 감수한 (좁은 의미의) 인문학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다고 분리되기 이전의 옛 인문학으로 그냥 복귀할 수 없고, 철저히 혁신되어야 하는 통합학문, 총체적 학문에 다른 아닌 인문학이다. 이처럼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두 단어로 조합된 ‘공생의 인문학’은 학문 각 분과가 ‘함께 생성·변화하는’ 학문이자, 인간과 비인간, 생물권 모두가 ‘함께 생성·변화’하도록 이끄는 학문이라는 두 겹의 뜻을 아우른다.

이런 규정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인문학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려는 ‘공생의 인문학’은 ‘아름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고 말한다면 좀 더 실감나지 않을까 한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한 마디로 ‘자기답게 사는’ 삶을 영위하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감각이 온전하게 깨어남을 끊임없이 견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⁵⁾ 그가 오감을 통한 생생한 미적 체험을 통해 세상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 개인의 내면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개인의 아름다움을 허용하고 복돋는 조건을 일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로 되는 과정은 개인 차원의 내면 변화 곧 개인수양과 함께 사회변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다.

방금 ‘아름다운 사람’의 덕목으로 ‘오감을 통한 생생한 미적 체험’을 제시했는데, ‘공생의 인문학’의 길에 동참하려 할 때 이 덕목을 공감 능력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공감이 널리 쓰이는 어휘라서 범박해져 그 뜻이 또렷이 잡히지 않는다면, ‘사회적 영성’이라고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는 자기초월을 향한 내적인 길을 가는 삶의 방식과 수행이라는 의미의 ‘영성’을 (제로로서의 종교가 아닌) 종교성 안에서 재해석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질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상호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될 터이다.)

이 발표에서는 공감능력과 사회적 영성의 공통된 특성으로 꼽을 수 있는 ‘듣는 힘’을 부각할 것이다. 단순히 청력(또는 청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말—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이나 표정까지 포함해—을 받아들이고 듣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며 스스로의 인식을 반추하여 갱신하려는 과정에서 단련된 능력이다.(204면) 이 힘을 길러 특히 낮은 자, 혹은 ‘비통한 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생하는 주체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좀더 확장하면, 내가 우주 안의 모든 존재와 관련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수양의 힘(修養力)이라 하겠다. 기후위기 시대를 겪으면서 상실한 것을 애도함으로써 정동(情動)화된 연대감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생태적 슬픔’(ecological grief),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비인간종들과 공감하며 생명체의 공생 관계를 만드는 사회로 변혁해갈 것인가에 관심을 촉구하는 ‘연루된 공감’(entangled empathy)도 거론된 바 있다.⁶⁾ 이는 우리의 ‘듣는 힘’을 확장하라는 시대적 과제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듣는 힘을 단련하는 것은 문명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경제적 보상 중심의 사고와 제도가 “일종의 마음의 뇌물”이 되어 조장하는 마음의 부패에서 벗어나기 다른 욕망, 이를테면 영적 갈망이나 아름다움의 추구를 통해 욕망의 공적 가치(달리 말하면 公共心)로 전환해 대안적 삶의 기획을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실천하도록 이끌기에 그렇다. 욕심을 적대시하거나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욕심에 초탈하여 욕심에 끌려 다니지 않고 그 주인이 되어 자주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물론 이런 발상은 새로운 것일 리 없으니, 동서양 종교와 사상의 광맥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자원이다. 그 ‘자원’을 지금 대전환 국면에서 각자가 터한 장소의 실감에 맞춰 따져묻는 비평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재활성화하는 일이 긴요하다.

자본주의 폐해를 돌파하는 동력이 될 ‘자원’은 우리가 탐구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한에서만 존재하는 법이다. 인문학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과업에 충실하려면, 대안문명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터득해 점증적으로 축적해온 사유와 삶의 경험을 재활성화하는 데 게으를 수 없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한국사에서 쌓아온 사상 자원을 남달리 중시할 것이다.

2. 공생의 인문학과 지식의 재구성(1) : 생산 차원

공생의 인문학을 내세운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나 방법론을 제창할 뜻은 없다. 문명전환의 방향에 맞춰 학문하는 태도를 바꿔 현존하는 인문학을 온전케 하는 길을 찾을 따름이다.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관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는 발본적 인식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되, 여기서는 그간 내가 수행해온 작업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공생의 인문학’으로 향한 길을 가겠다는 마음가짐과 관련된

4) 인문학과 과학의 분리가 초래한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 가운데 스노우(C. P. Snow)와 리비스(F. R. Levis) 간의 논쟁(the Snow-Levis controversy)가 유명하다.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은 ‘두 개의 문화’라는 문제를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사회체제의 생성과 유지 및 압박한 붕괴의 핵심적 일부로 파악하면서, 두 개의 문화의 분열을 넘어 갱신된 하나의 ‘과학’(scientia, 학문, 앎)으로서 ‘역사적 사회과학’(historical social science)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유희석 옮김, 『지식의 불확실성: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을 찾아서』, 파주: 창비, 2007.

5) 아시아 미 탐험대, 『아름다운 사람』, 파주: 서해문집, 2018.

6) 김현미, 「기후 위기와 생태적 슬픔(ecological grief): 수치와 희망의 세계」, 아시아 미 탐험대, 『재난과 감수성의 변화: 새로운 미 탐색』, 파주: 서해문집, 2023.

7) 최태현,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파주: 창비, 2023, 259-260면.

두 개 요건을 제시하는 데 한정하겠다.

첫 번째는 사회의제를 학술의제로 삼는 태도이다. 공생의 인문학은 총체적 인문학을 지향하더라도 특정 분과학문 안에서든 분과 횡단적이든 이 조건을 충족하기를 요청한다. 인문학의 미래를 전망할 때 보통 분과학문의 경계 넘기 곧 '탈경계의 인문학'이 거론되지만, 통합학문의 발상을 받아들여 지식을 생산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과제 설정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원된 분과학문들의 결합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 구상을 (국가 지원을 받아 추진한)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의 일환으로 '사회인문학(Social Humanities)'이란 이름을 내걸고 대학 안의 연구소를 거점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⁸⁾ 이는 단순히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이 아니라 통합적 학문을 수행해 인문학과 사회를 소통시키면서 학문하는 태도를 쉼하는 가치지향적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활동가'⁹⁾ "각자가 처한 현장성에 기반하여 사회의제를 학술의제로 전환해 연구를 수행하는 실천적 자세"를 사회인문학이 특히 중시한다. 그러나 사회의제를 학술의제로 가져오더라도 현실문제에 밀착해 "그 단계적 해법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와 결합시키고 그것을 일관된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 정세 판단을 거시적 시야, 곧 역사적·사상적 과제와 결합시켜 우리 삶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어떤 통찰을 이끌어내고 그에 비취 실천하려는 것"이다.¹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의제를 학술 의제로 삼고, 연구 결과를 사회에서 검증받아 다시 학술적 의제를 조정하는 순환 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설정되고 또 조정되는 의제를 통해 학술계의 흐름을 방향 잡는 역할을 맡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일감으로 생각했다.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사업이 관점에 따라서는 실패한 것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에 대한 반응을 만났다. 그 발신자는 "사회인문학은 연세대학교의 과제가 끝나버린 지금, 논문 몇 편과 책 몇 편을 내고 사라져버렸다"라고 혹평했다.¹¹⁾ 의제 만들기보다도 의제 지키기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겹쳐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노력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¹²⁾이라는 시 구절을 들려주고 심정이다.

어쨌든 대전환기 문명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오늘의 엄중한 작업을 감당하면서 사회인문학이라는 자원을 재활성화하려면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다. 사회인문학이 총체적 학문으로서 인문학다우려면 인문사회 분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가령 과학기술연구(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같은 것을 인문학의 당연한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지적된 바 있다.¹³⁾ 인류세(Anthropocene) 또는 자본세(Capitocene)로 불리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보는 과제를 더 깊이 다뤄야 마땅하다. 사회인문학을 보완한 총체적 학문인 '공생의 인문학'이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경우, 중국 유학 사상에 담긴 천인합일(天人合一)적 사유, 곧 인간과 자연의 일체를 추구하는 우주론에서 기술적 사유와 우주와 도덕의 관계를 새롭게 보게 할 자원을 끌어낼 수도 있다.¹⁴⁾ 그런데 중국의 천인합일 사상에 비해, 한국의 동학·천도교의 '천인상여(天人相與)'는 생명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관계에 더 중점을 두었다.¹⁵⁾ 중국의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한다"(替天行道)는 관념에 비해 "하늘을 몸받아 도를 행한다"(體天行道)는 것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훨씬 더 상호 순환적으로 파악한 데서 그 독자성이 한층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우주적 공동체성을 담지한 개인, 곧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늘과 생생한 상호협력 관계를 맺는 우주적·영적 성격을 띤 '봉공인(奉公人)/공개인(公個人)'이라는 천도교에서 원불교로 이어지는 발상이야말로 자원으로 삼을 값어치가 있다.¹⁶⁾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 논의를 옮겨가보자. 그것은 지식활동가의 삶의 기획, 달리 말해 개인의 실존 차원의 삶의 윤리, 내 삶과의 구체적 연관성에 대한 성찰이다. 이 요건도 사회인문학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과제인데, 강하게 표현하면 지식활동가의 '마음공부'이다.

8) 그 성과는 연세대학교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사회인문학백서: 10년의 궤적과 전망』, 새물결, 2018 참조.

9) 지식활동가는 내가 만든 용어로서 지식 생산자와 전파자를 아우른다. 단순히 제도권 교수나 연구자, 또는 기존 미디어 종사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주체들이 출현하는 추세까지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다.

10)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길: 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 파주: 창비, 2014, 13면.

11) 사회인문학은 인문학의 위기가 대학 교수들 때문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실패"라는 주장이다. "한국사회는 사회인문학에 의해 어떤 변화도 겪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사회는 평범한 상식을 지닌 시민들에 의해 진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우재, 「사회인문학의 실패」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8319> [2021년 11월 27일 검색]

12) 「사라지는 것들의 목록」, 천양희,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파주: 창비, 2011, 29면.

13) 백낙청, 「인문학의 새로움은 어디서 오나」, 『창작과비평』, 164호, 2014, 344-46면.

14) '코스모테크닉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우주와 도덕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기술적 사유의 전개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허옥 지음, 조형준·이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서울: 새물결, 2019.

15) 황중원, 「최시형의 천지 관념 연구: 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동철학』, 68집, 2014.

16) 허남진, 「근대한국 개벽종교의 '공화' 개념: 천도교의 공화적 인간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4집, 2020

이 말을 들으면, 동아시아 전통학문관, “스스로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修己治人)”는 관념을 바로 떠올릴지도 모른다. 왕판썬(王汎森)은 유학이 추구한 구도(求道) 또는 치용(致用) 위주의 지식을 (순수)지식 추구(求知識) 위주로 전환시킨 20세기 초 중국 신학술운동이 이룩한 공로를 중시하여, ‘신지식의 해방적 기능’이라고 표현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지식 체계의 (근대적) 전환이 지식 생산의 목적을 ‘중성(中性)적’ 학술을 전달하는 데 두다보니 사람됨을 가르치고 사회를 이끌려는 노력에서 미흡하다고 당시에 비판한 조류도 있었다고 소개한다. 그는 인문학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오른 지금은 이 조류를 되돌아볼 여유가 생겼고, “미래 인문학 발전을 구상하는 데 참고할 가치”있다고 제안한다.¹⁷⁾

그가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말하는 데 그쳤지만, 백낙청은 거기서 더 나아가, 마음공부를 강조한다.¹⁸⁾ 마음공부가 현실적 실천과 동떨어진 개인수양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영성훈련(예컨대 마음챙김 mindfulness), 곧 이에 기반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운을 얻어 돈벌이에 더 열중하게 돕는 힐링 프로그램¹⁹⁾과는 전혀 다르다. “각자의 ‘비평적’이고 ‘정치적’인 훈련을 포함하는 좀 더 전면적인 마음공부나 수행(修行)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⁰⁾ 한 마디로 말해, 개인수양과 사회변혁의 병진을 감당하는 일이 공생의 인문학에서 중요한 요건이다.

그가 힘주어 말하는 마음공부는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적 태도의 재활성화에 그치지 않는다. 유불선을 아우르면서 동학·천도교의 개벽사상을 계승한 원불교 사상, 특히 삼학(三學)의 내용을 바탕에 둔 점에서 유다르다.²¹⁾ 이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깊은 이해도 없으려니와 길게 말할 자리도 아니므로 아주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삼학에서 말하는 ‘학’이란 관념적 차원의 마음공부가 아니라 물질문명이 주도하는 근대적 현실이라는 구체적 상황을 해결하고 운영해가는 공부이자 수행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수양(精神修養), 사리연구(事理研究), 작업취사(作業取捨)라는 세 겹의 마음공부를 한꺼번에 끊임없이 수행한다. 낯선 용어일지 모르니 좀더 설명해보자. 정신수양은 마음의 깨어있는 경지에 이르는 힘[自主力]을 기르는 것이다. 물질/정신 이분법에 갇힌 그 정신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법을 포함한 마음 사용법(用心法)을 익히는 경지를 일컫는다. 사리연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지혜를 단련해 근본원리를 꿰뚫어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작업취사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취(取)하고 불의는 버리는(捨) 실행력을 의미한다.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기준은 자신과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自利利他) 것이다. 삼학의 열매에 해당하는 응용 단계로서 개인양심 구현으로부터 가정·사회·국가·세계로 확장해 사회정의 구현까지 총괄하는 공부이다.

삼학에서 말하는 마음공부는 각자 자신의 일상생활 분야에서 도달하는 경지이다. 그 일 그 일에 한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그 일 그 일에 알음알이를 밝히는 중에 그 일 그 일에 응용·실행하는 것이다. 이 시각에 입각해 공생의 인문학의 지식생산 과정을 다시 보면, 지식활동가 개개인이 모든 분야에 통달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능력과 처지에 맞는 만큼의 지식을 습득하되 항상 ‘총체적 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을 지향하는 태도로 전환해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각자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절실한 문제를 중심으로 현실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천적인 인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과 현실의 삶을 동시에 변혁하는 공부법이 공생의 인문학의 중요한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자.

3. 공생의 인문학과 지식의 재구성(2) : 전파 차원

지금까지 밝힌 이 발표의 논지대로라면 지식 생산과 전파 영역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모두 마음공부를 통해 아름다운 사람 또는 사회적 영성을 가진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편의적으로 나눠 살펴보는 것은, 날로 지식정보 입수 경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대학 교육의 비중과 고유한 역할이 급속히 저하되는 반면, SNS등 다양한 지식 전파 매개체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 연구 대상인 중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감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의 반중감정을 형성케 한 정보는 나 같은 중국사 연구자가 글(문장언어)로 발신하는 것보다 유튜브 같은 다양한 매체로부터 얻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17) 왕범삼(王汎森), 「21세기(世紀) 인문학(人文學)의 창신(創新)과 대학(大學): 근대 중국의 “신학술운동”과 인문학」, 『대동문화연구』, 63호, 2008, 87, 94면.

18) 공부(工夫)의 원뜻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어떤 일에 집중해 그 능력을 성취함으로써 모종의 조예에 도달한 것인데, 불교와 유학의 영향 속에 각기의 수양방식과 관련해 의미 전환을 다소간 거쳤다. 지금의 쓰임새로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목표에 따라 자신을 연마하고 승화시켜 나가는 모든 노력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음공부는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 이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연마하고 승화시켜가는 모든 노력과, 이를 통해 마음을 총체적으로 알고 그 본질을 발현하여 궁극의 경지에 이르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 이 조류는 마음챙김의 상업화로서 ‘자본주의적 영성의 최신판’이라 불릴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로널드 퍼서, 서민아 옮김, 『마음챙김의 배신』, 서울: 필로소픽, 2021.

20) 백낙청, 『근대 세계체제, 인문정신, 그리고 한국의 대학』(2008),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파주: 창비, 2009, 390면.

21) 삼학에 대한 서술은 방길트, 『원불교 기본교리 사사삼팔4438』, 익산: 원불교출판사, 2023, 411-515면을 참조. 이 책에서 삼학과 3대 종교의 연관이 이렇게 설명된다. 작업취사는 범절(凡節:예의법도)을 밝히는 유교로써 곧 솔성지도(率性之道), 사리연구는 천지만물의 근본이치를 깨닫자는 불교로써 곧 견성지도(見性之道), 정신수양은 정신을 온전히 하여 정력(定力)을 얻자는 선교(仙敎)로써 곧 양성지도(養性之道)와 각각 연관된다.(426면)

자연언어보다 디지털언어(혹은 컴퓨터언어)에 익숙해진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조건에서 어떤 지식 전파 매개체에 더 비중을 둘지는 지식활동가 각자가 선택할 몫일 터이나, 어느 경우든 근본적으로 '듣는 힘'을 키우는 과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과제 역시 내가 그간 수행해온 작업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겠다. 역사연구자로서 이전에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을 제기해본 적이 있다.²²⁾ 그것은 과거에 산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과 그로부터 향상된 비평능력을 갖춘 일반인과 역사연구자가 공동주체가 되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역사학 프로젝트이다. 역사 내지 역사교육의 '공감적 재구성'은 타인의 경험을 함께 느끼며 소통하는 것이자, 증거와 역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상상적이면서도 분석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를 통해 역사분쟁에 시달리는 동아시아인의 역사화해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사학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지식 전파의 현장을 "타인과 더불어 공감/공고(共感/共苦)할 수 있는 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 발신하는 태도가 긴요하다는 데 점차 생각이 미쳤다. 요컨대 '듣는 힘'을 기르는 역사학을 기대한다.²³⁾ 그 '힘'이 역사학을 넘어 대전환의 길목에서 찾는 대안문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공생의 인문학'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사회적 영성'으로 포괄하는 쪽이 더 폭넓은 호소력을 발휘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제도권 종교가 쇠퇴하는 데 비해 종교를 넘어 사회 다방면에서 영적 갈망과 이를 위한 영성 훈련이 점점 더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사용하기에 널리 통용되는 정의는 없지만, 여기서는 개인에 내재된 잠재력을 전인(全人)적으로 발현시켜 자기초월을 향한 내적인 길(inner path)을 가는 삶의 방식과 수행으로 보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 제도로서의 '종교'를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경험으로서의 종교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²⁴⁾ 그런데 영성에 '사회적'이란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관계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회적 영성이란 한 개인의 경험을 종교성 안에서 해석해냄으로써 개인의 삶과 사회적 질을 동시에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험을 해석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변화케 하는 상호적인 과정을 가리킨다.²⁵⁾

이에 대해 길게 더 말하기보다 '사회적 영성을 찾는 사람'의 예시가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될 것 같다. 시인과 화가를 각 한명씩 소개하겠다.

한국의 시인 윤동주는 '듣는 힘', 달리 말해 공감 능력을 갖춘 본보기라 할만하다. 짧게 살다간 행적과 시 세계가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져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을 터이다. 여기서는 시 '병원'을 먼저 읽어보겠다. 젊은이인 자기의 병을 알아내지 못하는 늙은 의사에 대해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구절에 이어지는 마지막 행을 인용해보자.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온몸으로 듣는 힘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단순한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에서 벗어나려면 바로 이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두는 것만큼 진정한 자세가 또 있을까. 생애 끝무렵에 쓴 '쉽게 쓰여진 시'도 눈길을 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최초의 악수"를 한다.²⁶⁾ 그가 시를 쉽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렵게 산 것을 알 수 있다. 신형철의 속 깊은 해설에 따르면,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결국 '최후의 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를 죽게 했고 영원히 살게 했다."²⁷⁾ 동주가 영성을 찾는 사람, 곧 자기초월을 향한 내적인 길을 가는 사람임을 일깨워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리한 역사의식을 버리는 겸손함도 돋보인다. 앞서간 아시아인들이 쌓아 올린 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한 세계와 다른 세계, 한 문명과 다른 문명들이 만나 격렬하게 부딪치고 저항했으며, 각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해를 되돌아보게 했던 20세기 초반의 격렬했던 역사의 산물인 동주의 사상의 모태가 기독교 신앙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측은지심(惻隱之心), 자기성찰(修身), 자비심 등 그의 시에 보이는 덕목(德目)은 아시아 고전문명에 깃든 인문정신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다른 한명은 2021년에 100세로 타계한 화가 토미야마 타에코(富山妙子)이다. 그녀는 1970년대 이래 한국 민주화 운동,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과 군위안부라는 소재를 형상화한 화가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나는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동아시아 민중미술과 페미니즘의 시각, 그리고 이 두 시선으로 역사를 다시 보는 작업에 주목한다.²⁸⁾

22) 백영서, 『사회인문학의 길: 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 파주: 창비, 2014에 수록된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제언」.

23) 이 주제에 대한 간명한 소개는 大門正克, 『語る歴史, 聞く歴史』, 東京: 岩波書店, 2017 참조.

24) 영성에 대한 간명한 개관은 Philip Sheldrake, *Spiritua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25) 한국에서 세월호사건(2014년) 등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사회적 영성'의 흔적들을 찾아내 증언하며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려는 시도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종교 간 대화의 사례도 나타났다. 김진호 등 저, 『사회적 영성: 세월호 이후에도 '삶'은 가능한가』, 서울: 현암사, 2014.

26) 이상의 시 인용은 홍장학 엮음, 『정본(정본) 윤동주 전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106, 129면.

27) 신형철, 『인생의 역사』, 파주: 난다, 2022, 176면.

28) 연세대 박물관 기획전시 "기억의 바다로: 도미야마 다에코의 세계"(2021.3.12.-6.3) 참조. 이 전시에 대한 발표자의 해설이 담긴 유튜브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museum.yonsei.ac.kr/museum/exhibit/room_etc.do]

‘경계 넘기’를 추구해온 작업도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만주·한국·남미 등, 땅과 바다를 넘나드는 물리적·지리적 경계 넘기뿐만 아니라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도 감탄을 자아낸다. 나는 시각(視覺)에 치중한 근대적 미를 넘어 지금은 오감을 통한 미 체험이 요구되는 때라고 보기에, 그녀가 보여주는 내러티브 예술(narrative art)의 세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상호작용의 퍼포먼스야말로 이정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계 넘기가 ‘역사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라는 목표로 이어지기에 한층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청일전쟁부터 이어지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모순의 응집과 그로부터 연유한 고통의 기억, 그리고 그를 넘어서는 연대(連帶)의 정동(affect)을 형상화한 그녀의 예술세계를 ‘듣는 역사’의 귀감으로 삼고 싶다. 타자의 기억의 ‘나눔’, 즉 단순한 역사지식의 전달이 아닌 교감의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다. 내가 모든 존재와 관련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듣는 힘’이 아닌가. 이는 어떤 종교적 수행의 결과로 비로소 얻어지는 특별한 마음이 아니다. 각자 작업 현장의 출발점에서 확인되어야 할 근원적인 차원의 ‘사회적 영상’이다.

‘사회적 영성을 찾는 사람’의 예시는 이 두 사례로 그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더 많이 형성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별적 활동을 북돋우고 지속하도록 받쳐줄 소규모 자발적 모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가상공간보다는 가급적 신체적 만남을 통해 기운을 주고받는다면 지식 생산과 전파의 유기적 상호작용이 활기차게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공동체(僧伽, sangha)를 세 가지 보물(三寶)의 하나로 간주한다. 공동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수인 이유는 길동무(道伴)의 뒷받침 없이 수행을 계속하는 일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²⁹⁾ 제도권 교육기관의 어느 단위에서든, 더 나아가 다양한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 함께 가야 할 마음공부 공동체는 생성될 수 있다. 위에서 ‘공감과 비평의 역사학’이 일반인과 역사연구자가 공동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뜻과 같은 맥락이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개인주의의 심화, 개인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 확대의 영향으로 집합행동의 개인화가 만연하다. 어느 나라에서든 파편화한 개인들, 특히 코로나 격리 국면을 겪고 난 젊은 세대가 개인화된 이슈들에 선택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행동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들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서 축감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감각의 무한확장을 향해 진화하는, ‘온몸감각 인간’(homo sensus)의 출현 징후까지 거론되는 추세이다.³⁰⁾ 이러한 변화의 장·단점을 두루 감안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새로운 문명전환운동의 방향을 잡으려면, 젊은 세대의 진화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한층 더 확장된, 사회적 차원의 감각이나 감성과 결합할 수 있도록 ‘대화적 대화’(dialogic conversation)를 추진하는 일을 빠뜨릴 수 없다. 이런 대화는 서로 간의 차이가 하나의 공통성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 오히려 차이를 명료화하는 데 기여한다. “미적이고 공적인 분배를 통해서만 예술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마음공부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과 다른 존재(생명체)들과 어우러지는 대화적 대화를 익히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삶이 (상품이 아닌) 예술작품이라는 은유를 터득해간다. 우리의 삶과 성장에 중요한 이 수행방식은 ‘미적 교육’에서 유용한 자원을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³¹⁾

4. 결어 : 공생의 인문학의 효능

이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공생의 인문학’의 함의랄까 효능에 대해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책 차원의 제안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공생의 인문학’이 “통합과 연대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단상을 말하고자 한다. 이번 포럼에서 세계 차원의 인문학의 함의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인문가치를 체득한 인간 계발이라는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지 싶다. 혐오와 배제와 무관심이 판치는 지구촌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세계시민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긴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시민권이란 비시민(또는 비국민)에 대한 배타성을 내포한 국민국가의 경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면서 동시에 보편적 인권을 환기하고 암시하는 매개로 작동해온 이중성에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포럼’이 인권과 시민권, 달리 말해 인간과 시민을 같은 것으로 보는 쪽이라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공정’하는 데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장은 정치적으로 무한한 영역을 열어놓는다는 인식을 단단히 공유해야 한다.³²⁾

바로 이 점에서 공생의 인문학이 (위에서 확인한대로) 낮은 자 또는 ‘비통한 자’, 곧 배제된 자의 소리를 ‘듣는 힘’을 기르는 공부에 중점을 두는 한,

29) 이러한 공동체에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 사례로 중국의 ‘혁명수양론’이 있다. 이는 유가수신학(修身學)의 계보를 이어 전통 수양방법을 형식으로 삼되, 기율의 논리를 강조하며 당 조직과 행정에 의해 그 수양론을 보완한, 일종의 혁명 주체 형성의 계통적 이론과 실천을 말한다. 이에 내재된 자발성과 위계성 사이의 긴장이란 문제는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을 간과할 수 없다. 焦德明, 「革命的修養與修養的革命: 作為儒家修身學現代形態的革命修養論」, 『開放時代』 2022-5. 이 쟁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白永瑞, 「东亚文明論述の使用法」, 復旦大學文史研究院編, 『化身萬千: 開放的思想史』,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23 참조.

30) 이수안, 「감각중심 디지털 문화와 포스트휴먼 징후로서 ‘호모 센수스(homo sensus)’의 출현」, 『문화와 사회』, 18, 2015.

31) 진은영·김경희, 『논어와 미적 교육』, (파주: 서해문집, 2023). ‘대화적 대화’는 차이 속에서 공통의 이해나 보편적 진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변증법적 대화’와 구별된다.

32) 황정아, 「인권과 시민권의 등식: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중심으로」, 『명미문학연구』 20(2011)

국경을 넘어 세계 시민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방역 대상인 이민자 및 난민 문제, 곧 비시민이자 인간이라는 이중성 문제에 직면해 (성공적으로든 그렇지 않든) 대처한 경험이 날카롭게 보여주듯이, 지금처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의 불평등이 조성하는 어려운 교착상황은 역설적이게도 타자의 고통을 함께 하는 동시에 함께 보람을 느끼는 사회적 연대의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데 세계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 인문학의 효능을 사유하더라도 실천 차원에서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가는 태도가 전제된다. 이른바 이소성대(以小成大)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해나가되 큰 뜻을 품고 착수할 때 작은 일에 매몰되지 않고 훨씬 더 강한 실행력도 갖는 법이다. 각자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과 현실을 동시에 변혁하는 공부법이 공생의 인문학의 요체임을 상기하자.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발표에서 역설한 ‘공생의 인문학’의 길을—이 이름을 내걸진 않았지만—이미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는 익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과 서로 기운을 북돋우며 함께 나아가는 효능을 거두려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았다. 이 길에서 서로 알아보는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기존 지식생산체계를 온전하게 갱신하여 대안문명을 앞당길 집단적 힘이자 동력이 아닐 수 없다.

이 회의를 주관하는 기구인 ‘세계인문학포럼’이라는 명칭에 들어 있는 ‘포럼’의 원뜻은 도시의 시장이나 집회 장소라고 한다. 모인 순간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특성,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태와 신체적 접촉과 연대(곧 집회)의 형태가 어우러진 전 과정이 이 포럼의 수행성(performativity)이다. 이 또한 공생의 인문학의 길에서 서로 알아보는 기쁨을 맛보는 자리 아닌가.

대안문명의 길에서 묻는 공생의 인문학

Co-Becoming Humanities on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s)

백영서 Baik Youngseo

연세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Honorary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1. Introduction : Co-becoming Humanities in the Age of the Great Transition and the Way to Alternative Civilization

It is clear that we are facing the age of the Great Transition. The current phase of polycrisis, which is an overlapping of different layers of factors such as the liquidity of the international order where the Cold War and the 'New Cold War' intersect; the global level of capitalist crisi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ic-ecological change; the pandemic; and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is sweeping our lives with great power. It can be seen that the factors of conversion and the prospects of 'post-conversion' are different simply due to the individual's critical mind.

We must examine the capitalist system in depth – not at a national level but at a global level – where the deep structure underlies beneath the phenomenon of historical crevice revealed by such a state of Great Transition drives humans, non-humans, and the biosphere into crisis. Now that one's sensitivity to climatic-ecological crises and local wars has heightened more than ever, it is high time to speculate the current capitalist system and growth-first belief more actively and be fully involved.

When we try to envision a transition to the 'post'-capitalist world, Immanuel Wallerstein's suggestion can act as a sufficient guide.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weaken and thus, eliminate the priority of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continuous democratization and consistent search for market potential. Furthermore, as an operation principle of the alternative system, it is imperative to conduct a transformation in civilization which is not in the shape of money¹⁾. With such a huge task in mind, we are trying to review the existing knowledge production system on this ground. This is because we expect the area of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to be secured to a certain level, to support our effort to seek a transformation in civiliza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s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To effectively communicate such concern,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the 'Co-becoming Humanities'. This aligns with 'Humanities in Relationship' which is the main theme of 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It is because it reflects on the current version of the Humanities and seeks direction for the new era of Humanities. It is also the essence that 'Co-becoming Humanities' seeks to share, as we opt for "an establishment of a new relationship culture which encompasses human, non-human, and nature" and request to make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as its core values. However, even though I strategically take the concept of 'Co-becoming Humanities' to the fore, I do not mean it in a strict sense as it is regarded more as a phrase for an event²⁾. Yet, I will proceed with the discussion based on the idea that it is a productive

1) Jaegeon Yoo, 'The Great Conversion and Capitalism', Creation and Criticism, Summer 2023, 367 pages.

dialogue with the theme of this forum.

What is 'Co-becoming Humanities'? First, I will start to explain the term 'co-becoming'. When one translates this term into English, it is natural to think of 'symbiosis' first, and then perhaps the term 'co-existence' after some thoughts. However, I am more aware of the term 'co-becoming' which means 'to create and change together'³⁾. Secondly, the term 'Humanities' is one of the academic disciplines when classified academically, but it is not limited to institutionalized areas of universities or academia. It is not a (narrow sense of) Humanities that has suffered the division of Humanities and Sciences, so-called the division of 'two cultures' in modern society⁴⁾. However, it is also not the Humanities which can merely return to the old Humanities before its division. It is the Humanities which has to be thoroughly innovated: An integrated study, a discipline as a whole. Thus, "Co-becoming Humanities", a term which has been combined with two terms with new meanings, encompasses a twofold meaning: It is an area of study where each department 'creates and changes together', and also that of a discipline that leads humans, non-humans, and the biosphere to 'create and change together'.

This definition might sound rather abstract. Yet, it would be more realistic to say that 'Co-becoming Humanities' which is devoted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Humanities that pursue humanity, seeks to raise a 'beautiful being'. A 'beautiful being' is a person who is aware of being the subject of their own lives – in other words, 'being themselves' – and strives to keep their senses fully awakened⁵⁾. With the vivid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the stimulation of the five senses, one develops a sensitivity to the world and brings out an inner change in the individual. Based on this, one creates a 'beautiful world' that allows and encourages their beauty which is full of life.

I have just presented the 'vivid aesthetic experience through the stimulation of the five senses' as a virtue of a 'beautiful person', and this can be understood as a sense of empathy when one joins the path to 'Co-becoming Humanities'. However, if empathy is a widely used term where its meaning is no longer clear, how about thinking of it as 'social spirituality'? This refers to the mutual process of changing the individual and at the same time, their quality of life by reinterpreting spirituality (not a religion as an institution), in terms of one's way of life and practice that leads to an inner path towards self-transcendence (which will be discussed below).

In this presentation, I will highlight 'the power of listening', which is a common characteristic of empathy and social spirituality, not just hearing (or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It is an ability that has been train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and listening to the speaker's words – including silence or facial expressions about what cannot be said – and reflecting on and renewing their perceptions. It is hoped that this power will be created personally or collectively by the subject who sympathizes and coexists with the suffering of the particularly low-, or 'bitter-self'. More broadly, it is the power of discipline to realize and practice that one is related to and living with all beings in the universe. 'Ecological grief', which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emotional solidarity by mourning the loss of the climate crisis era, as 'entangled empathy', which calls attention to how mankind will transform into a society that empathizes with non-human species and create a symbiotic relationship of life⁶⁾. This appropriately reflects the task of the times to expand our 'power of listening'.

Training the power of listening can be a driving force for the transition of civilization. This is because one shifts from an economic reward-oriented way of thinking and institutions which is the corruption of the mind that becomes "a kind of a

2) 'Humanities in Relationship' is not a concept that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If you search for this vocabulary on the Internet, you will find only Kim Se-won, "Humanities of Relationship, Seoul: HUINE, 2019." This book presents the humanities of relationship as "the key to a good life".

3) In addition to the meaning of 'co-becoming', which is different from 'becoming' in Western philosophy, it is suggested by Nakajima Takahiro's idea of 'co-becoming'. In other words, it refers to co-creation. Lai Xisan and Mark MaConoghy, "Symbiotic Philosophy Confronting the Desperation of the Present World and Cross Strait Situation: Conversations with Professor Takahiro Nakajima" Sixiang, 45th, 2022, pp. 252-253

4) Among the many discussions on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the Humanities and Sciences, the Snow-Levis controversy between C. P. Snow and F. R. Levis is famous. Immanuel Wallerstein identified the problem of two cultures as a key part of the creation, maintenance and imminent collapse of the historical social system of capitalism, and proposed to establish 'historical social science' as a renewed 'scientia' beyond the division of two cultures. Immanuel Wallerstein, Translated by Yoo Hee-Suk, "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 Paju: Changbi, 2007.

5) The Expedition to Asian beauty, "Beautiful Being", Paju: Seohaemunjip, 2018.

6) Kim Hyun-mi, "Climate Crisis and Ecological Grief: The World of Shame and Hope, The Expedition to Asian beauty, Changes in Disaster and Sensibility: A Search for New Beauty", Paju: Seohaemunjip, 2023.

bribery of the mind”⁷⁾, to another type of desire, such as spiritual desire or pursuit of beauty that transforms them into a public value of desire (in other words, public sympathy). Thus, it leads one to share and practice the daily initiation of an alternative way of life. It is not a way to antagonize or annihilate greed, but a way to secure self-reliance by becoming the owner of such without being led by the nose of greed.

Of course, this idea is nothing new, as it is a resource that can be found in the vein of Eastern and Western religions and ideas. It is imperative to reactivate the resource by maintaining a critical attitude that questions the reality of each place in the current transition phase.

The resources that will be the driving force to break through the evils of capitalism exist only as long as we explore and make the most of them. For the Humanities to be faithful to the task of envisioning and practising a new way of life that meets the challenges of the times, we cannot be idle in reactivating the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we have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heading towards alternative civilization. Therefore, this presentation will place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ideological resources accumulated in Korean history.

2. Co-becoming Humanities and Reconstruction of Knowledge (1) : On the Dimensions of Production

Asserting ‘Co-becoming Humanities’ does not mean advocating a new system or methodology; it merely seeks a way to perfect existing humanities by changing the attitude of learning following the direction of the change of civilization. To pave the right way, it is necessary to possess a radical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one requires a full transformation of the truth. Based on such awareness of the problem, I will limit myself here to presenting two requirements related to the mindset of going on the path to ‘Co-becoming Humanities’ in a way that reflects on the work I have been researching.

Firstly, it is the attitude of making the social agenda an academic one. Despite the fact that ‘Co-becoming Humanities’ pursues a holistic approach to the Humanities, it is required to meet this condition regardless of its academic discipline or the area of study. When one overlooks the future of the Humanities, we usually refer to the boundary-crossing of integrated disciplines or ‘the Humanities of demarcation boundaries’. However, even if we accept the idea of integrated discipline and produce the required knowledge, in reality, it is very natural to pursue a combination of disciplines mobilized to the extent that it is required and permitted by task setting.

As part of the Humanities Korea project (which was supported nationally), the idea was co-worked based on a research institute in a university under the name of ‘Social Humanities’⁸⁾. This is not simply a combination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but a value-oriented task of reforming the attitude toward studying while communicating the Humanities and society by carrying out integrated studies. For such reasons, Social Humanities shed particular importance on “the practical attitude of conducting research by converting the social agenda into academic agenda” based on the field of ‘activists in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⁹⁾. However, even if the social agenda is brought to the academic agenda, “it is not simply focused on the short-term solution but combined with the medium- and long-term task which can be continued with consistency in practice. In other words, it is to conjoin specific situational judgements with a macroscopic vision, that is, a historical and ideological task, to draw some insight into various possibilities of our life and to practice accordingly”¹⁰⁾.

In the process of prosecuting the project, the social agenda was used as an academic agenda, an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7) Choi Tae-hyun, “Democracy for the Desperate”, Paju: Changbi, 2023, 259-260.

8) The results are as follows: Yonsei University Korean Studies Institute, Humanities Korea Project, “White Paper on Social Humanities: Trajectory and Prospects of Ten Years,” New Wave, 2018.

9) ‘Activists in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s a term I created that encompasses knowledge producers and propagators. It is a device to reflect not only institutional professors, researchers, or existing media workers, but also the emergence of subjects who produce and disseminate knowledge in various fields.

10) Baik Youngseo, “The Way of Social Humanities: Study as Institution, Study as Movement”, Paju: Changbi, 2014, page 13.

were verified by the society while the process of adjusting the academic agenda was then followed. It was thought to be our very own job to take on the role of directing the flow of academia through the agenda that was adjusted and readjusted in such a process.

At this point, you might assume that the business has failed, depending on different points of view. I recently came across a reaction on the Internet regarding this matter. The sender criticized that "Social Humanities had disappeared with the publication of some papers and books, now that the task of Yonsei University was over"¹¹⁾. I humbly accep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keep the agenda than to make the agenda, but I also would like to recite a poem which says: "Our efforts do not disappear but permeate"¹²⁾.

In any case, there is something to be supplemented to reactivate the resources of Social Humanities while fulfilling today's grave work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the times of the transition of civilization. It has been pointed out from the outset that Social Human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Humanities and social fields to be the Humanities as a holistic discipline, and that, for example,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hould be regarded as a natural part of the Humanities¹³⁾.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described as the Anthropocene or the Capitolocene, it is necessary to dwell more deeply into the fundamental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 why 'Co-becoming Humanities', a holistic discipline that complements Social Humanities, is required.

In this case, it is possible to draw resources to view the technological reason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e and morality in cosmology, that pursues the unity of man and nature, that is, the unity of heaven and man in the Confucious ideology of China¹⁴⁾. However, compared to the idea of the unity of heaven and the Earth from China, Donghak and Chondogyo in Korea focused more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e, focusing on the concept of life¹⁵⁾. In contrast to the Chinese idea of "doing Tao in place of the heavens", "taking the heavens do Tao" reveals individuality more clearly as one understand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en and human beings in a much more mutually cyclical way. The idea that led to Won Buddhism from Chondogyo, a cosmic and spiritual individual who has a cosmic and spiritual character that not only has a relationship with others, but also a cosmic and spiritual relationship with the sky, is worthy of resources¹⁶⁾.

Now, let's move on to the second requirement, which is the reflection on the life planning of the activists in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n other words, the ethics of life at the level of individual existence, and the specific connection with my life. This requirement is also a task that has not been properly addressed in Social Humanities.

When you hear this, you might immediately recall the notion of the East Asian Traditional Academic Center: "To educate oneself and rule the world", Wang Fansen emphasizes the merits of the Chinese neo-academic move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transformed the knowledge of Confucianism or knowledge based on application to the pursuit of pure knowledge, and expresses it as 'the liberating function of the new knowledge'. At the same time, it is introduced that there was a criticism at that time that the (modern) transition of such a knowledge system was insufficient in the effort to teach the Humanities, and to lead society as the purpose of knowledge production which was to convey neutrality. He suggests that now that the study of Humanities has reached a considerable level, there is room to look back on this tide as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¹⁷⁾.

11) Social humanities is a complete failure that proves that the crisis of humanities is due to university professors. Korean society has not undergone any change by social humanities, but rather Korean society has progressed by ordinary citizens with common sense. Kim Woo-jae, "The Failure of Social Humanities",

12) "A list of things that disappear", Chun Yang-hee, "I sometimes become vacant", Paju: Changbi, 2011, page 29.

13) Paik Nak chung, "Where does the newness of the humanities come from", Creation and Criticism, No. 164, 2014, 344-46.

14) Some studies hav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ew technological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e and morality while presenting a new concept of cosmotechnics. Yuk Hui, Translated by Cho Hyung-joon and Lee Chul-kyu,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in China : an essay in cosmotechnics", Seoul: Saemulgyul, 2019.

15) Hwang, Jong-Won, "A Study on the Idea of Heaven and Earth by Choi, Si-Hyu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Confucianism", Daedong Philosophy, Volume 68, 2014.

16) Heo, Nam-Jin, "The Concept of the Republican Religion of Modern Korean Gaebyeok Religion: Focusing on the Republican Man of Chondogyo", Won Buddhism Thoughts and Religious Culture, Vol. 84, 2020

Although he only said theoretically that it is worth referring to, Baek Nak chung goes further and emphasizes mind practice¹⁸⁾. Mind practice does not mean personal discipline that is far from realistic practice. It is a far cry from the world-famous spiritual exercises (mindfulness, for example)¹⁹⁾ that help to reduce stress and energize people to focus on money-making. This is because "it is a task that requires a more complete version of mind study or practice, including each individual's 'critical' and 'political' training"²⁰⁾. In other words, coping with the translation of individual cultivation and social transformation is an important requirement in 'Co-becoming Humanities'.

The study of the mind that he underlines, does not stop at the revitalization of the attitude of Confucianism²¹⁾. It is different in a way where Won Buddhism inherited the idea of Donghak and Chondogyo, especially The Threefold Study, inherited Donghak and Chondogyo ideas while covering the Yubulsun. I will introduce this very briefly because the presenter does not have a deep understanding and it is not a place to talk long.

In The Threefold Study, 'Hak' is not an ideological mind practice but a study and practice that solves and operates the concrete situation of modern reality led by material civilization. In this process, he constantly performs three layers of mind practice: Chöngsin Suyang, Cultivating the Spirit; Sari Yŏn'gu, Inquiry into Human Affairs and Universal Principles; Chagöp Ch'wisa, Choice in Action. Mental cultivation is the cultivation of the mind's power to the waking state of mind, not the mind trapped in the matter/mind dichotomy, but the practice of mindfulness, including the use of matter. Sari Yŏn'gu research aims to cultivate wisdom, including accurate scientific knowledge of how the world works, to develop the power to penetrate fundamental principles. Chagöp Ch'wisa means the ability to practice justice and abandon injustice when applying everything. The standard that separates justice and injustice is self-interest, which is the fruit of The Threefold Study. It is a study that extends from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conscience to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justice in the home, society, country, and the world.

The study of mind in The Threefold Study is a state that each person reaches in his/her daily life field. It is about focusing on the work with one mind and applying it to the work while revealing the knowledge of the work. Based on such a view, looking back at the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of 'Co-becoming Humanities', it is not an unreasonable order that individual activists in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should master all fields. It means to acquire as much knowledge as possible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circumstances but to constantly shift to an attitude toward humanities as a holistic discipline. Let's once again confirm that the study method of transforming oneself and the life of reality at the same time is an important requirement of 'Co-becoming Humanities', while pursuing a holistic and practical awareness of reality centred on the urgent problems in the field of their lives.

3. Co-becoming Humanities and Reconstruction of Knowledge (1) : On the Dimensions of Dissemination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is presentation so far, we should not distinguish between knowledge production and propagation, because it is a process of trying to become a beautiful being or a being with social spirituality through mind

17) Wan Fansen, "Renovatioonn and Universities of Humanities in the 21st Century: The New Academic Movement and Humanities in Modern China", Daedong Culture Research, No. 63, 2008, 87, 94.

18) The essence of studying (practice, in this case) is to reach some kind of proficiency by concentrating on a certain task with time and energy and accomplishing its ability. With the influence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it has undergone a change of meaning in relation to each method of cultivation. In terms of its current use, it can be said that it means the process of all efforts to cultivate and sublimate oneself according to the goals in all areas of life. Studying (or practising) the mind means all efforts to cultivate and sublimate the mind in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essence of the mind and expressing it, and through this, it can be said that it is an effort to reach the ultimate state by knowing the mind as a whole and expressing its essence.

19) This trend, as a commercialization of mindfulness, has limitations that can be called the latest edition of Capitalist Spirituality. Ronald E. Purser, Translated by Seo Min-ah, "McMindfulness: How Mindfulness Became the New Capitalist Spirituality", Seoul: Philosophic, 2021.

20) Paik Nak-chung, "Modern world system, humanistic spirit, and Korean university (2008)", "Where is the middle and why is the transformation", Paju: Changbi, 2009, 390 pages.

21) For a description of Samhak, see Bang Gil-ton, "Sasa Sampal 4438", Won-Buddhism Basic Doctrine, Iksan: Won-Buddhism Publishing House, 2023, 411-515. In this book, the relationship between Samhak and the three major religions is explained.

practice. Nevertheless, it is easy to look at the fact that the proportion of university education and its unique role is rapidly deteriorating in the reality where the route of acquiring knowledge information is diversified day by day, while the influence of various knowledge propagation media such as social media is getting bigger.

Let's take an example. It seems that the disgust of Korean society toward China, which is the subject of my research, has reached a serious level. However, the information that formed their anti-Chinese sentiments is often obtained from various media such as YouTube rather than from Chinese history researchers like me. Younger generation faces the reality as they are more accustomed to digital languages (or computer languages) than natural languages. In this condition, it is up to each activist in knowledg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to choose which knowledge propagation medium to give more weight to. But in any case, the task of raising the power to listen fundamentally is urgent.

As a history researcher, I have previously raised the history of empathy and criticism. It is a new history project that is jointly promoted by people and historical researchers who have sympathy for those that have lived in the past and improved their criticism ability²²⁾. Empathic reconstruction of history or history education is imaginary, and so is the analytical interaction between evidence and history, as well as the communication with others' experiences. Through this, we expected a new history that contributes to the reconciliation of East Asians suffering from historical disputes.

However, in order to deepen this subject, it is increasingly thought that it is critical to interpret and send a new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field of knowledge propagation in the field of empathy/sympathy with others. In short, I expect the history of cultivating the power to listen²³⁾. Could it work as a driving force for 'Co-becoming Humanities' that will lead us beyond the history to alternative civilization that we are looking for, in the path of the great transformation? To do so, it is likely to exert a broader appeal once one encompasses 'social spirituality' as aforementioned.

While institutional religions are declining around the world, spiritual longing and spiritual training for them are increasingly attracting attention in many parts of society beyond religion. So, what is spirituality? Today, there is no widely accepted definition to use as it is applied too extensively, but here, we try to see the inner path to self-transcendence as a way of life and practice by manifesting the potential inherent in the individual holistic²⁴⁾. In a sense, it can be called 'religiosity' as a more comprehensive experience beyond 'religion' as an institution, but the reason for attaching the modifier 'social' to spirituality is to include two meanings: 'relational' and 'structural'. Therefore, social spirituality refers to a mutual process that not only changes an individual's life and social quality at the same time, by interpreting an individual's experience in religiosity but also changes the quality of life of an individual, as well as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by interpreting social experiences²⁵⁾.

Rather than talking about this for a long time, an example of oneself looking for social spirituality' will be an effective way of conveying. I will introduce a poet and painter each one by one.

A Korean poet, Yoon Dong-ju is an example of 'the power of listening', in other words, the ability to empathize. Here, I will go through the poem 'The Hospital' first. Let me quote the last line that follows the phrase, "I lie where he lay, hoping that her health - or mine - will recover quickly." It is easy to fall into the simple illusion that we sy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but if we want to get out of it, is there any truer attitude than putting our body in a place of suffering like this? Let's look at the poem 'An Easily Written Poem' written at the end of the writer's life: "The last division, waiting for this morning like an era, gives me a small hand and tears and comforts me with the first handshake"²⁶⁾. I can see that he did not write poetry easily and led

22) Baik Youngseo, "The Way of Social Humanities: Study as Institution, Study as Movement" , Paju: Changbi, "The History of Empathy and Criticism: Suggestions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in East Asia" in 2014.

23) For a concise introduction to this topic see Masakatsu Okado, "History of Speaking, History of Listening", 2017.

24) See Philip Sheldrake, Spirituality: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5) During the Sewol ferry incident (2014) in Korea, attempts were made to identify and testify the traces of social spirituality and to name them, and in the process, there were examples of Buddhist and Christian interfaith dialogues. Kim Jin-ho et al., "Social Spirituality: Is It Possible to Live a Life After the Sewol Ferry", Seoul: Hyunamsa, 2014.

26) The quotations of the above poems are as follows: Hong Jang-hak's Composition, "The Complete Works of Yoon Dong-ju (Orthodox)", Seoul: Literary and Intellectual History, 2004, 106, 129 pages.

a hard life. According to Shin Hyung-chul's in-depth commentary, "the poet's efforts to overcome himself, eventually reaching 'the ultimate me', killed him and made him live forever"²⁷⁾. It reminds us of that Dongju is a person who seeks spirituality, that is, a person who goes on an inner path toward self-transcendence.

In addition, the humility of forging a keen sense of history, which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pursuing social spirituality, stands out as it is inherited with gratitude from the wisdom built up by the preceding Asians. The origin of Dongju's thought is the product of the intense history of the early 20th century, where one world and another world, one civilization and other civilizations met and resisted violently. Each of them looked back on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his Christian faith, but at the same time, the virtues in his poetry, such as compassion, self-reflection, and benevolence, are deeply related to the human spirit in Asian classical literature.

The other is Tomiyama Taeko, a painter who died in 2021 at the age of 100. She has been well-known in Korea since the 1970s as a painter who embodied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especially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military comfort women. However, I am interested in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folk art and feminism through the realm of work, and thus, focusing on revisiting the history with two perspectives²⁸⁾.

The work that has pursued 'boundary crossing' is also very impressive. Japan, Manchuria, Korea, South America, etc., as well as the physic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crossing the land and the sea, and the work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the art genre, are also admired. I think that it is time to go beyond the modern beauty that focuses on vision. Now, it is time to experience beauty through the five senses. Therefore, I consider that the performance of interaction that draws audience participation by utilizing the world of narrative art and various media that she shows is a milestone value.

This boundary crossing gives a deeper resonance to the goal of 'listening closely to history'. I would like to use the art world, which embodies the cohesion of contradictions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 from the Sino-Japanese War – the memory of suffering stemming from it, and the affection of solidarity beyond her – as an example of history. This is the power of listening to history. This is not a special mind that is obtained only as a result of any religious practice, but a fundamental dimension of social spirituality that must be identified at the starting point of each workplace.

Examples of 'people seeking social spirituality' are these two examples, and I want to emphasize the need for small voluntary groups to encourage and sustain individual activities for them to form and spread wider. In Buddhism, 'sangha' is regarded as one of the three treasures. It is essential to perform with the community because we know the difficulty of continuing to perform without the support of a road companion. A mind practice community can be created at any level of institutional education, and even at any place in life²⁹⁾. It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meaning that the history of sympathy and criticism is carried out by the general public as the historical researcher is a common subject.

As we all know, the 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is prevalent due to the deepening of individualism, as the spread of neoliberalism and the expansion of personal media and online networks increases. Individuals in any country, who are fragmented,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experienced the COVID isolation phase, tend to prefer the way they selectively engage in and act on personalized issues. As they utilize digital technology, there are even signs of the emergence of 'homo sensus', which evolves toward infinite expansion of sense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such as touch³⁰⁾. Consider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se changes, it is imperative to promote dialogic conversation so that the evolving cultural sensibility of the younger generation can be combined with an ever-expanding sense of social dimension or emotion, in order to set the direction of a new civilization transition movement that will empathize with their everyday lives.

27) Shin Hyung-chul, "History of Life", Paju: Nanda, 2022, p. 176.

28) Yonsei University Museum Exhibition, "To the Sea of Memory: Taeko Tomiyama's World: (2021.3.12.-6.3). YouTube with the presenter's commentary on this exhibition can be seen on the homepage below. [https://museum.yonsei.ac.kr/museum/exhibit/room_etc.do]

29) The state's institutional involvement in these communities is controversial, such as China's revolutionary self-cultivation theory. The problem of tension between spontaneity and hierarchy inherent in this cannot be overlooked a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creatively.

30) Lee Soo-an, "The emergence of Homo Sensus as a sign of sensory-centric digital culture and post-human", Culture and Society, 18, 2015.

These conversations do not erase differences in one commonality, but rather stimulate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the clarification of differences. Just as "art sustains life only through aesthetic and public distribution", the mind practice community learns the metaphor that their life is a work of art (not a product)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conversational dialogue with themselves and other beings (life) while acknowledging the differences. This practice, which is important for our lives and growth, can draw an abundance of useful resources in aesthetic education³¹⁾.

4. Conclusion : The Efficacy of 'Co-becoming Humanities'

Before concluding this presentation, I'll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Co-becoming Humanities', but that doesn't mean I'm going to make a proposal at a policy level.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lk about whether 'Co-becoming Humanities' contributes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integration and solidarity". In this forum, I mentioned the implications of the Humanities at a global level, in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human development that has gained universal human values beyond borders. It is an urgent task to implem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change the global reality of disgust, exclusion and indifference. However, citizenship needs to be more sensitive to duality,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boundaries of a nation-state that insinuates exclusivity to non-citizens (or non-nations) and at the same time has worked as a medium to evoke and suggest universal human rights. If this forum is about seeing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in other words, human beings and citizens, on the same side, this means affirming the universal right to politics; and in that sense, we must firmly share the perception that this argument opens an infinite political realm³²⁾.

In this respect, if 'Co-becoming Humanities' focuses on cultivating the power to hear the voice of the low (as confirmed above) or the wretched, that is, the excluded, it can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world citizens across borders. Paradoxically, the difficult stalemate created by inequality in the capitalist world system as it is now, and as our experience of responding (successfully or not) to the duality problem of immigrants and refugees, non-citizens and humans, also ironically creates a condition of social solidarity that feels rewarding together with the suffering of others.

However, even if we think about the efficacy of the Humanities by expanding our view to a global level, it is premised on the attitude of stepping into the field of each person's life in practice. In order to accomplish a great task, it is necessary to do small things; but when you start with a big will, you will not be buried in such small things, but have much a stronger execution power. Let's recall that the study method of transforming oneself and reality at the same time in each field is a requirement of 'Co-becoming Humanities'.

If you look around, there will be a lot of anonymous people who have already walked and are still walking, even though they have not given this name to the path of 'Co-becoming Humanities' that was emphasized in this presentation. I gave them new names to encourage each other and to work with each other. Sharing the joy of meeting each other on this road is collective power, and it is this power that advances the alternative civilization by completely renewing the existing knowledge production system.

It is said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forum' in the 'World Humanities Forum', is 'an organization that organizes a meeting, a market or a meeting place of a city'. The power of physical contact and solidarity (assemblies) - the qualities that make something happen in the moment of gathering - may be the performativity of this forum, which is also a place to enjoy the joy of recognizing each other on the path of 'Co-becoming Humanities'.

31) Jin Eun-young and Kim Kyung-hee, "Analects and Aesthetic Education", (Paju: Seohaemunjip, forthcoming). 'Dialogic dialogue' is distinguished from 'dialectical dialogue', which aims to find common understanding or universal truth in differences.

32) Hwang Jeong-ah, "Equation of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Focusing o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Research on Anglo-American Literature 20 (2011)

언어, 번역 그리고 공감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커스틴 말름케르 Kirsten Malmkjær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icester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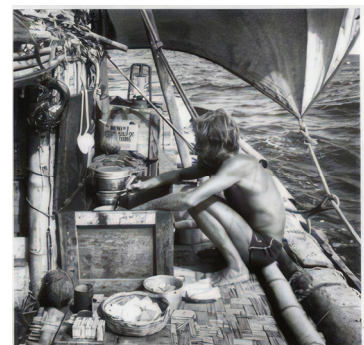
1. Introduction

The remarkable Norwegian explorer, Thor Heyerdahl (1914–2002), is probably best known for his 8000 km long Kon-Tiki expedition which he undertook by hand-built raft across the Pacific Ocean in 1947, from South America to the Tuamotu Islands. He was and remains a controversial figure for a number of reasons -- some personal, and others to do with his scientific claims, which, according to some scholars, were pseudoscientific and based on selective uses of sources. However, Thor Heyerdahl is said to have remarked



“Borders? I have never seen one, but I have heard that they exist in the minds of some people”.

Here, I would like to explore some of these borders of the mind by way of issues pertinent to my academic discipline which is translation studies. My main argument is that (i) an obvious border between peoples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languages, and that (ii) translation is an obvious, but not unproblematic bridge across this linguistic border. I will use an illustration through art, as befits the third sub-theme of this conference, *Unity through Empathy*, which is founded on the belief that “through art, we can empathize with others and the world”. I think we can indeed do that.



I must add, that I consider translation to be a form of art; and I will end my talk with an example of a translation for which the translator will have had to exercise his ability to empathize considerably in order to produce a translation of a text made by a person who herself, unlike her translator, will have been fairly far from her subject matter in terms of empathic ability.

But before we get that far, it might be helpful to dwell for a whi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erception, given that I will be dealing with people’s perception of written text rather than with more direct, physical interaction between peop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erception

A common exercise to give to students of language is to ask them to compare different newspapers’ accounts of the same event. This works especially well if the newspapers are positioned differently on the political spectrum of the locale where they exist; but in fact the phenomenon of potential variation in formulation of one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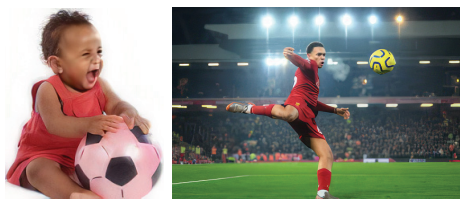
is a ubiquitous, everyday event: Of all the ways to describe an event or a state that are available to a speaker or writer, one must normally be selected, and the selection is often made fairly spontaneously without much thought for any potential consequences. Consider



The club is to the left of the ball
The ball is to the right of the club
To the left of the ball is the club
To the right of the club is the ball

Each of these descriptions is as accurate as any of the others given a particular state of affairs in the world. But the description selected will depend on a number of things, most obviously whether one adopts the point of view of the club or of the ball or of a position (left or right), but also on whether one adopts the position of an onlooker viewing the picture, or the position of the player depicted. In real life, this kind of confusion is usually dealt with in, say, a cake shop, when one explains to the person on the other side of the counter, for example, "I would like the one to your right", which would be the one to the customer's left, usually, because the customer is usually facing the seller; but the customer who utters "I would like the one to your right" is

adopting the point of view of the seller, thereby avoiding confusion about which item is wanted.



But equally, sometimes we need to know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an utterance in order to interpret it. Consider the utterance, "nice ball" said in the context where a child is playing with a (colourful) ball, versus the circumstance in which a football game spectator is commenting on how a player kicks a football. Note that this is not a matter of ambiguity such as we see between

"ball" as an object and "ball" as a dance event; it is more a matter of polysemy, relatedness of meaning, of the term "ball" as used in the two contexts.



Finally, let me consider an example that will take us on to the third section of my talk; this is the illustration through art that I promised you:

In 1605, the Italian painter,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made a painting entitled St. Jerome in Meditation.

I must mention in passing that St Jerome is the saint of translators, famous for translating the Christian bible into Latin from Greek.

A good while later, some time in the 2010s, I think, Tomas Downes made a painting which he called St Jerome in Mediation.



I think that if we simply juxtapose the two paintings, although we can see a similarity between them at least in terms of the red colour, really they have little in common.

In contrast, if we put the pictures side by side with the linguist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titles of the paintings, then we might begin to build up a story about how the second artist (Downes) has used the first painting (by Caravaggio), perhaps in part jokingly, to provide, maybe, a continuation of the action of the character in the first painting. Was St Jerome removing his beard in that first painting? And is Downes imagining that St Jerome has now hung his beard on the shepherd's crook?

In addition to this sequential story-aspect of the juxtaposed paintings, we can also meditate on the

meaning of “mediation”. The most prominent meaning that I found in an internet search undertaken on 12 September 2023 has to do with dispute resolution by way of a mediating person. But the meaning that I think we need to look at is among the others listed, namely “to bring about a result, such as a physiological effect”. This is the opposite of meditation, because in meditation you do nothing (except meditate, of course):

Meditation is a practice in which an individual uses a technique – such as mindfulness, or focusing the mind on a particular object, thought or activity – to train attention and awareness, and achieve a mentally clear and emotionally calm and stable state (Wikipedia online 12 September 2023).

Since Jerome is holding on to his beard in the original painting as he meditates, perhaps his meditation concerns the beard and, for example, whether he should shave it off, sacrifice it, or whatever. In any case, once we know the title of the painting, we probably begin to wonder what is in Jerome’s mind, and this takes me to part three of my talk:

3. Theory of mind

According to Baron-Cohen (1995: 55), what enables people to attribute mental states (beliefs, emotions, desires) to themselves and others and to interpret behaviours in terms of mental states is a “theory of mind”. A theory of mind is a prerequisite for empathy, and theory of mind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al learning, “the type of learning that is critical for the cumulative transmission of informatio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and arguably ... what makes us unique from all other species” (Birch et al 2017: 11 online version). Obviously, understanding another person’s mental state does not automatically make the understander positively disposed to that other person and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at empathy should not be seen as “the literal equivalent of goodness ... Moral behaviour must involve more than just the ability to empathize”. Empathy “is an **amoral** human attribute or ability and like all others, can be used for good or bad purposes” (Ryan 2018: 216; my emphasis). In addition, there are two sides to empathy. Reniers et al. (2011) consider that empathy comprises both an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s’ experiences (cognitive empathy) and an ability to feel their emotional experiences (affective empathy) indirectly. Similarly, Baron-Cohen et al. (2003, 2004) consider that empathy is the ability to identify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and feeling (cognitive empathy) and to respond to these mental states with appropriate emotions (affective empathy), enabling individuals to understand other peoples’ intentions, anticipate their behaviour and experience the emotions that arise from this contact with people (De Lima and de Lima Osorio 2021). In other words, cognitive empathy involves identifying and understanding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and feeling while affective empathy involves feeling other peoples’ emotional experiences and responding to these mental states with appropriate emotions. Let us now consider whether these types of empathy are necessary for translating.

4. Empathy and translation

Consider Christopher Taylor, documented with great sympathy in a book by Neil Smith and Ianthi-Maria Tsimpli entitled *The Mind of a Savant: Language Learning and Modularity*. As they explain (1995: 1):

Christopher is unique. He is institutionalized because he is unable to look after himself; he has difficulty in finding his way around; he has poor hand-eye co-ordination, turning many everyday tasks such as shaving or doing up buttons into a burdensome chore; but he can read, write and communicate in any of fifteen to twenty languages.

Christopher can also translate; but “Christopher’s translating abilities, although remarkable in terms of speed, are unusually flawed in terms of sensitivity to contextual information and linguistic constraints” (Smith and Tsimpli 1995: 38). For example, when asked to translate the English Source Text: “Would you like to speak German” into German, Christopher produces (op. cit. 159) “*Möchten Sie sprechen Deutsch!*”, even though if he is given a formal test, he demonstrates that he knows that the appropriate translation would be “*Möchten Sie Deutsch sprechen!*”. A similar example is Christopher’s translation of “can you



give me more time?", where he produces "*Können Sie mir geben mehr Zeit?*", whereas the correct translation is "*Können Sie mir mehr Zeit geben?*". Smith and Tsimpli comment "Christopher stops short at the word recognition stage and provides a translation on a purely word-for-word basis, even though he may have the requisite knowledge to do better" (p. 163). Christopher speaks "English in many different languages", although he shows in well-formedness judgements that he knows the correct syntax of those

languages (p. 173). He displays a "theory of mind deficit" (op. cit. 183) although his linguistic competence in his first language, English, is intact. For Christopher, translation "is a non-communicative enterprise: a linguistic exercise" (op cit.: 187). His case illustrates (by its absence) the importance, in translation, of a theory of mind, of consideration of the other, of empat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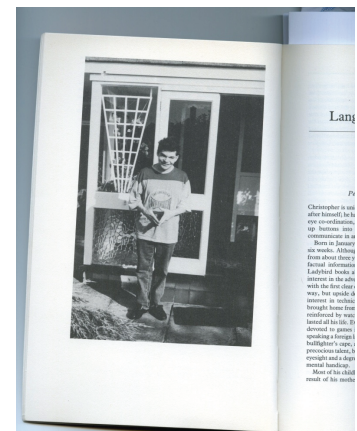
5. How to translate with empathy

Consider the translation, by an adult, male translator, of a literary work written by a female child. Such is the case of the translation into Danish of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written by Daisy (Margaret Mary Julia) Ashford (1881~1872) in 1890, when she was nine years old. The source text was published in 1919 in London by Chatto and Windus/The Hogarth Press, and according to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Young_Visitors), it was reprinted 18 times in the first year of its publication.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is an unusual work insofar as the narrating voice is that of a nine-year old female child who is its actual author, whereas the child's voice in a number of well known children's books written as if authored by a child are in fact authored by adults. This is true, for example, of numerous books by Dame Jacqueline Wilson, who writes famously about Tracy Beaker, and it is true of the Adrian Mole books by Sue Townsend. These books, therefore, have required an adult (the author) to assume how a child would write and then any translator of the works into any other language would presumably convey this adult-made child voice to the new language. I have not explored any of the translations of the books I have just mentioned, so I will not dwell on this issue.

In contrast, since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is written by an actual (English) child, its translator's task is to try to write as a real child would write. One issue might be whether it should be written as a child in the translator's culture would write, or whether it should retain the impression that the child is English. The Danish translator, Poul Malmkjær says that he has striven to present the world that Daisy Ashford created "in a country house in England in the 90ies" (translator's notes; my translation), and he retains the English titles "Mr" and "Miss" for the characters, so it is clear that the action takes place in England.

The Danish translation is titled, *De unge elskene eller Mr Salteenas plan* (*The young lovers or Mr Salteena's plan*, the word "elskene" is a misspelling of "elskende" ("lovers")). The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1986 by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k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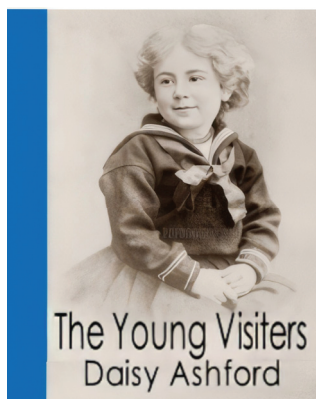


As mentioned above, the book was written in 1890 and the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1986, and, as the translator remarks (p. 7; my translation)

The main problem with the translation was the "Zeitgeist" ("tidsånden" (the spirit of the time)). I have not tried to match a nineties Danish as a nine year old girl would misunderstand it. I have used concrete expressions from the era in descriptions of clothing and objects ... but in descriptive parts as well as in the dialogue I have moved the language towards our own time as gently as I could.

The narration is mainly third person narrative (e.g., it begins "Mr. Salteena was an elderly man of 42 and was fond of asking

people [sic] to stay with him”); but the narrator self-refers occasionally when addressing her readers, as in Chapter one, where she suggests that “Perhaps my readers will be wondering why Bernard Clark had asked My Salteena to stay with him”. Occasional direct address to readers is a fairly common literary device in third person narratives, known perhaps especially famously from Charlotte Brontë’s *Jane Eyre*’s exclamation, “Reader, I married him” (1847), and Daisy Ashford uses it with panache. Particularly good examples of her skill in using this literary device are the endings of Chapter Two, “Here we will leave our friends to unpack and end this chapter”, Chapter Three “So I will end my chapter” and Chapter Six “And now we will leave our hero enjoying his glimpse of high life and return to Ethel Montague”. Similarly, Chapter eleven, which tells of Ethel’s and Bernard’s honeymoon (which Daisy Ashford spells “Honymoon”) in Egypt, concludes “... and here we shall leave them for a merry six weeks of bliss while we return to England”, and the final chapter ends “So now my readers we will say farewell to the characters in this book”.



Of course, despite Daisy Ashford’s familiarity with literary convention, she is a child, and adopts a child’s perspective on many parts of the story that she tells. For example, in Chapter One, where she introduces and describes her main characters, she explains that Ethel Montague, who is seventeen years old, wears “a blue velvet [sic] frock which had grown rather short in the sleeves”, and at the beginning of Chapter Two, which takes place on the morning of Ethel’s and Mr Salteena’s journey, by train, to visit Bernard, she explains that “When the great morning came Mr Salteena did not have an egg for his breakfast in case he should be sick on the journey” [sic]. On the travellers’ arrival at Bernard’s estate, they are offered “a glorious tea ... on a gold tray two kinds of bread and butter a lovely [sic] jam role [sic] and lots of sugar cakes” (p. 26). As these passages illustrate, and as the translator into Danish notes (pp. 7-8; my translation), “Daisy Ashford was very good at spelling, but she was only nine years old, and it is quite understandable that her text exhibits a selection of errors”.



Unusually for published texts (compared with the texts published on sites like e.g. <https://www.tckpublishing.com/child-authors/> (accessed 3 October 2023) which seem improbably error free), the errors in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have been retained in the published book, and for many adult readers, they may contribute considerably to the affect experienced when reading the book (*The Young Visitors* was not intended to be a book for children). For example, the translator sees them as (Translator’s notes, p. 10; my translation)

curiosities which must certainly not detract from the book’s genuine qualities. Let them, rather, enter into a higher, magical unity in Daisy Ashford’s world, created in a nursery in a house in the English countryside in the 1890s; and what a world!

Daisy Ashford performs and adopts a child’s perspective on emotions and is unfamiliar, from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emotions that she is aware that her characters are likely to experience given the situations they find themselves in. She knows these emotions by description rather than by acquaintance, as we might say (Russell (1912); indeed, she focuses on outer manifestations of the characters’ inner adult feelings, as when Mr Salteena and Ethel arrive at Bernard’s home (p. 26):

Let me introduce Miss Montague she is very pleased to come for this visit [says Mr Salteena to Bernard].

Oh yes gasped Ethel blushing through her red rouge [sic]

Bernard looked at her keenly and turned a dark red.

The translator does not mention this as a difficulty and, indeed, as an adult, he finds himself in the fortunate position, rather unusual in translation, of knowing more about what is being narrated than the narrator, as far as this issue is concerned. His

task, therefore, is to avoid allowing this more advanced knowledge and experience to filter through to the translation because this would risk superimposing an ironic tone on the work which might diminish its affective potential.

6. Misspelling with empathy

Obviously, the translator empathises positively with the author; his emotional engagement with the work is made clear in his Translator's Notes (p. 7; my translation):

One of life's plentiful pleasures is the completion of a piece of enjoyable work. In the case of the translation of Daisy Ashford's novel, however, my joy was admixed with grief that the book wasn't longer, that it ended, that my work was not to continue.

He populates his translation with the kinds of error that a Danish child of nine might make in the Danish language. Given the lexical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s, this strategy means that instead of making an error in the item in the translation that corresponds to an item that Daisy Ashford has spelled incorrectly, the translator often selects a different item in the translation to render erroneously, namely one that a Danish child might find difficult. These must be believable, logical and consistent in the context of the language of the translation, which means, interestingly, that the representation of spelling errors works best when close equivalence with individual items in the source text in this aspect is *avoided* rather than aimed for. For example, in the first sentence of the story, Mr Salteena is said to be 'fond of asking people to stay with him' (Ashford 1919/1984 edition: 19). This 'people' is the first misspelling in the book. The translator places an error in the chapter heading, where he spells the term "temmelig", which would correspond to the original's 'Quite' in 'Quite a young Girl' as 'temlig', which is how the term is usually pronounced; this error then recurs in the second sentence, (Ashford/P. Malmkjær 1986: 19). Such consistency in misspelling is important to ensure credibility across the translation, and the translator ensures credibility further by exploiting other of the Danish spelling system where pronunciation is either an imprecise or a misleading guide to spelling (and vice versa). In particular, within words, the same consonantal sounds can be represented by either gg/g or kk/k [g], or by either dd/d or tt/t [d], or by either pp/p or bb/b, [b]. Some vowel sounds can be represented by different letters, e.g. [œ] can be represented by either æ and e; in addition, some letters are redundant for pronunciation purposes, as in so many languages (including English), especially, in the case of Danish, at the ends of syllables. Examples of these issues include spelling a word meaning whiskers (which Daisy Ashford misspells "wiskers") as "baggenbarder" instead of the correct "bakkenbarter". The Danish version also has "munder" instead of "munter" meaning jovial, and "dypt" instead of "dybt", "intændst" instead of "intenst" and "værsatte" instead of "værdsatte". Please see Malmkjær (2020) for an exhaustive list of misspellings in the first two chapters of the books.

7. Conclusion

Since empathy belongs within the realm of what Austin (1962) refers to as perlocution (the effect of a speech act on a listener: what it makes him or her understand, feel or do), it is not in the translator's power (any more than it actually is in the power of the author of the original) to guarantee empathy on his or her readership's part. But he or she will, if they wish to convey to the readers of the translation the affect that the original had on them themselves, seek to select the translations for individual items that will in their unison, in the translator's opinion, convey that affect to the readers of the translation. Their success in this endeavor depends at least to an extent on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able to develop a theory of mind for (i) the author and (ii) for the audience for the translation. The notion of a theory of mind can be seen as a significant, psychologically informed elaboration of what has been referred to, following Nord (1989) as "loyalty", and I think that the ability to form theories of mind for the various actors involved in a translation event will always be an advantage, no matter what the translator's general intention for the translation might be.

* I have previously written on this topic in an article entitled "Centres of Attention in (Literary) Translation" published in *Journa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JLT)* Vol. 7, Issue 1, pp. 1-15 | October 2020 Print ISSN: 2735-4520 | E-ISSN: 2735-4539.

References

- Ashford, Daisy (1919/1984),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London: Chatto and Windus/The Hogarth Press.
- Ashford, Daisy (1919/1986), *De unge elskene eller Mr Salteenas Plan*. Translated by Poul Malmkjær from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Copenhagen: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A/S.
- Austin, John R.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on-Cohen, Simon (1995)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Baron-Cohen, Simon and Wheelwright, Sally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 Baron-Cohen, Simon, Richler, Jennifer, Bisarya, Dheraj, Gurunathan, Nhishanth and Wheelwright, Sally (2003) "The systemizing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8 (1430): pp. 361-374.
- Birch, Susan, Li, Vivian, Haddock, Taeh, Ghrear, Siba, Brosseau-Liard, Patricia, Baimel, Adam and Whyte, M. (2017) "Chapter Six – Perspectives on Perspective Taking: How Children Think about the Minds of Other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52: 185-226.
- Bloom, Paul (2016)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New York: Ecco HarperCollins.
- De Lima, Felipe Fernandes and de Lima Osorio, Flávia (2021) "Empathy: Assessment Instruments and Psychometric Quality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ith a Meta-Analysis of the Past Ten Years". *Frontiers of Psychology* 12: 1-21.
- Malmkjær, Kirsten (2020) "Centres of Attention in (Literary) Translation". *Journa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JLT)* Vol. 7, Issue 1, pp. 1-15 | October 2020 Print ISSN: 2735-4520 | E-ISSN: 2735-4539.
- Nord, Christiane 1989 "Loyalität statt Treue. Vorschläge für eine funktionale Übersetzungstypologie" (Loyalty rather than faithfulness. Suggestions for a functional translation typology). *Lebende Sprachen* 34(3): 100-105.
- Reniers, Renate, Corcoran, Rhiannon, Drake, Richard James, Shryane, Nick and Völlm, Birgit (2011)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1): 84-95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yan, David L. (2018) "Paul Bloom: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Society* 55: 216-217.
- Smith, Neil and Tsimpli, Ianthi-Maria (1995) *The Mind of a Savant: Language Learning and Modularity*. Oxford: Basil Blackwell.

언어, 번역 그리고 공감

Language, Translation and Empathy

커스틴 말름케르 Kirsten Malmkjær

Honorary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icester

(Department of Translation Studies)

1. 소개

주목할 만한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토르 헤이어달 (1914~2002)은 1947년, 직접 지은 뗏목으로 남아메리카에서 투아모투 제도에 이르기까지, 8000km에 달하는 태평양을 횡단한 콘티키 탐험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몇몇의 학자에 의하면, 그와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들이나 과학적 근거들이 유사과학 및 선별적 자료들을 근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르 헤이어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경계요? 몇몇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고 들어만 봤지,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쯤에서, 번역학이라는 제 학문 분야와 관련된 문제를 통해 이러한 마음의 경계의 일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제 주된

주장은, (i) 사람들 간의 명백한 경계는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며, (ii) 번역은 이 언어적 경계에서 명백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가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학회의 세번째 중주제인 ‘공감을 통한 화합’에 걸맞게, “우리는 예술을 통해 타인과 세계에 공감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어 미술을 통한 삽화를 강연에 적용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전 번역은 예술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번역가가 자신의 공감능력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이 작성한 글을 번역해야 할 때, 그 자신의 공감 능력을 심분 발휘해야 했던 번역의 예시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 간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교류보다는, 작성된 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언어와 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언어와 인지의 관계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흔히 시키는 연습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신문기사들의 관점을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신문기사들이 저마다 그 지역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각기 다른 위치에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한 사건의 구성에 있어 잠재적 변화의 현상은 어디에나 있는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화자나 글쓴이가 어떤 사건 혹은 상태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 그 자신은 보통 선택되어야 하고, 해당 선택은 그 어떤 잠재적 결과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꽤나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예시를 고려해보세요.



골프채는 공의 왼쪽에 있습니다.



공은 골프채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의 왼쪽에는 골프채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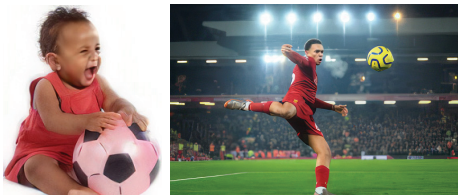
골프채의 오른쪽에는 공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설명은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어떤 것들과도 마찬가지로 정확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설명은 여러 요소로 인해 달라지는데, 가장 분명하게는 골프채나 공의 관점 혹은 위치 (왼쪽이나 오른쪽)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또는 해당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을 택하느냐, 묘사된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혼란은 보통 제과점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은 일반적으로 카운터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자신의 왼편에 케이크가 있음에도, “사장님(의) 오른쪽에 있는 것 주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의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해석하기 위해 그 발화를 둘러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멋진 공”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형형색색의) 공을 갖고 노는 상황과 축구 경기의 관람객이 선수가 어떻게 공을 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ball”을 물체(공)로 보는 것과 ‘연회’(ball)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의 모호함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는 “ball”이라는 용어의 다의어 및 의미의 연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의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는 예시이자, 제가 이전에 약속한 미술을 통한 삽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605년, 이탈리아 화가인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는 ‘집필 중인 예로니모 성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 전에 예로니모 성인은 라틴어로 된 기독교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번역가들의 성인이라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후, 한 2010년쯤, 토마스 다운즈가 ‘집필 중인 예로니모 성인’이라는 이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두 그림을 나란히 두고 보자면, 빨간 색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만 비슷할 뿐, 실제로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두 그림의 제목이 주는 언어적 정보로 그림들을 나란히 두자면, 두 번째 화가(다운즈)가 첫 번째 그림(카라바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반 농담조로, 첫 번째 그림의 주인공의 행동을 연결했다는 서사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예로니모 성인은 자신의 수염을 깎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다운즈는 예로니모 성인이 이제 그의 수염을 양치기의 팔꿈치 안쪽에 걸었다고 상상한 걸까요?



이처럼 병치된 그림의 연속적인 측면 외에도, 우리는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2일에 인터넷에서 찾은 가장 대표적 의미는 중재하는 사람에 의한 논쟁 해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열된 많은 의미들 중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의미는, “생리학적인 효과와 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명상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명상에서는 (당연히 명상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개인이 집중력과 인지, 그리고 정신적으로 맑으며 감정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수련하기 위해 특정 기술 (예: 마음챙김, 혹은 특정 물체나 생각 또는 행동)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원본에서 자신의 수염을 붙잡고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명상은 수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염을 깎아야 하는지, 희생해야 하는지 따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당

그림의 제목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예로니모 성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 강연의 세 번째 파트로 이끌게 됩니다.

3. 마음 이론

바론-코헨(1995:55)에 의하면,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 상태 (신념, 감정, 욕망)를 귀속시키고 정신 상태의 관점에서 행동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마음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음 이론은 공감의 필수 요건이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보가 누적되어 전달되는 것이 매우 주요한 학습의 종류, 또한 주장하건데, 우리를 다른 모든 종들과 차별화하게 하는 것”인 사회적 학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irch et al 2017: 11 online version) 당연히, 다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해자가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감은 “말 그대로 선함의 등가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적 행동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수반해야 합니다.” 공감은 “비도덕적인 인간의 속성이나 능력이며,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좋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Ryan 2018: 216; 제 강조입니다). 또한 공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르니에르 외 다수 (2011)는 공감이 타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 (인지적 공감)와 그들의 감정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정서적 공감)을 모두 포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론-코헨 외 다수 (2003, 2004)는 공감이 타인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지 감별하고 (인지적 공감), 이러한 심리 상태를 적절한 감정들을 이용해 반응하는 능력 (정서적 공감)이며, 개인이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그들의 행동과 경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은 타인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판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수반한다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적 경험을 느끼고 적절한 감정으로 이러한 심리 상태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유형의 공감이 왜 번역에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공감과 번역



닐 스미스와 이안티-마리아 심플 리가 집필한 *서번트의 마음: 언어 학습과 모듈성*에서 굉장한 연민으로 기록된 크리스토퍼 테일러를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설명하기를 (1995:1):

크리스토퍼는 독특하다. 그는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고, 길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며, 면도를 하거나 단추를 채우는 일상적인 일들을 부담스러운 일로 만드는 등, 손과 눈의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15~20개의 언어 중 어느 것으로도 읽고, 쓰고 소통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는 번역도 할 수 있으나, 그의 “번역 능력은 속도 면에서는 뛰어날지언정, 문맥 정보에 대한 민감도와 언어적 제약 면에서는 몹시 결함이 있습니다”(Smith and Tsimpli 1995: 38).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는 영어 원문인 “당신은 독일어로 말하고 싶습니까?”를 독일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공식 시험에서 분명 “Möchten Sie Deutsch sprechen?”으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Möchten Sie sprechen Deutsch?”를 도출했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시간을 더 주실 수 있나요?”에 대한 크리스토퍼의 번역은 “Können Sie mir geben mehr Zeit?”로, 올바른 번역은 “Können Sie mir mehr Zeit geben?”입니다. 스미스와 심플리는 “크리스토퍼가 더욱 잘 할 수 있는 필요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어 인식 단계에서 멈추었으며 순수하게 단어 단위의 번역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는 언어들의 정확한 구문을 알고 있다는 것을 면바른 판단으로 보여주는 하나, 그는 “영어를 다양한 언어”로 구사합니다. 그는 모국어인 영어에서 언어적 역량은 온전함을 보이지만, “마음의 결핍 이론”을 나타냅니다. 그의 사례는 (공감의 부재로), 마음 이론의 번역, 타인에 대한 배려, 공감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5. 공감으로 번역하는 방법

성인 남성 번역가가 여자 아이가 쓴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890년 데이지 (마가렛 메리 줄리아) 에쉬포드가 9살 때 집필한 ‘젊은 방문객들’ 혹은 ‘살티나 씨의 계획’의 덴마크어 번역본이 그 예시입니다. 원문은 1919년 런던의 Chatto and Windus/The Hogarth Press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출판 첫 해에만 18번 재인쇄되었습니다.

‘젊은 방문객들’ 혹은 ‘살티나 씨의 계획’은 마치 아이가 쓴 것처럼 쓰여진 많은 유명 동화들과 다르게, 실제 작가인 아홉 살의 여자 아이가 글의 화자인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예로, 트레이시 비이커에 대해 쓴 것으로 유명한 재클린 윌슨 여사의 수많은 책들과 수 타운센드의 아드리안 물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들은 고로, 어른 (작가)이 아이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가정해야 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은 아마도 성인이 만든 아이의 목소리를 새로운 언어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책들의 번역본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반면, '젊은 방문객들' 혹은 '살티나 씨의 계획'은 실제 (영국 출신의) 아이가 썼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는 번역가의 과업은 실제 아이가 쓰는 것처럼 쓰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번역가의 문화를 가진 아이가 쓰는 것처럼 써야할지, 아니면 아이가 영국인이라는 인상을 유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덴마크의 번역가인 폴 맘제어는 데이지 에쉬포드가 그려낸 "90년대 영국의 한 시골집"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영국 직함인 "Mr"와 "Miss"를 그대로 살리며, 해당 소설의 배경이 영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어로는 De unge elskene eller Mr Salteenas plan (젊은 연인들, 혹은 살티나 씨의 계획)로, "elskene"이라는 단어는 "elskende" ("연인들")의 철자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해당 번역본은 1986년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k A/S에 의해 출간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1890년에 집필되었고, 번역가의 말에 따르면 번역본은 198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번역본의 주요 문제점은 "시대정신" ("tidsånden")이었습니다. 저는 9살 소녀가 오해할만하도록 90년대 덴마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과 물건을 묘사할 때, 그 시대의 명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화 뿐 아니라 서술 부분에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 시대로 옮겼습니다.

해당 서술은 주로 3인칭 시점이지만 (예: "살티나 씨는 42세의 중년이었고 사람들에게 그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좋아했다."로 시작합니다.), 1장의 "아마도 내 독자들은 왜 버나드 클라크가 나의 살티나에게 그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와 같이 화자는 독자를 지칭할 때 종종 자기 언급을 합니다. 때때로 독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3인칭 시점에서 꽤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로써,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속 감탄사인 "독자여, 나는 그와 결혼했다" (1847)나 데이지 에쉬포드가 파나슈와 함께 사용한 것이 유명합니다. 이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나 좋은 예는, 2장의 엔딩인 "여기 우리는 친구들을 떠나 이 챕터를 풀고 끝낼 것이다.", 3장의 "그래서 나는 나의 챕터를 끝낼 것이다."와 6장의 "그리고 우리 우리의 영웅이 상류층의 삶을 잠시 즐기는 것을 떠나 에델 몬타큐로 돌아갈 것이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델과 버나드의 이집트 신혼여행 (데이지 에쉬포드가 "Honymoon"이라고 묘사)을 묘사하는 11장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6주간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로 마무리되며 마지막 장을 "그래서 이제 나의 독자들은 이 책의 등장인물들에게 작별을 고할 것이다."로 끝을 냅니다.



물론, 데이지 에쉬포드가 아무리 문학적 관습에 익숙하다고 해도, 그녀는 아이이며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아이의 시점에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자신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1장에서, 그녀는 17살인 에델 몬타큐가 "소매가 다소 짧은 파란 벨벳 드레스"를 입었다고 설명하고, 에델과 살티나 씨가 베르나르를 방문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날 아침을 묘사하는 2장의 초반에는, "그 위대한 아침이 왔을 때, 살티나 씨는 이동 중에 속이 안 좋을까봐 아침식사에 계란을 먹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베르나르의 사유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금쟁반 위에 올려진 두 종류의 빵과 버터, 잼롤과 많은 양의 슈가 케이크, 영광스러운 차"를 대접받았습니다. 이 구절들과 덴마크어 번역가가 얘기하듯이, "데이지 에쉬포드는 철자를 매우 잘 알았지만, 그녀는 겨우 9살이었고 그녀의 글이 몇몇 오류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출판된 원고들의 경우, '젊은 방문객들' 혹은 '살티나 씨의 계획'의 오류들이 출간된 책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는 많은 성인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애정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젊은 방문객들'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가는 아래와 같이 봅니다 :



엄연히 책의 참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되는 호기심. 도리어, 1890년대 영국 시골의 한 보육원에서 만들어진, 더욱 드높고 마법같은 결합이 이루어지는 데이지 에쉬포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은 얼마나 멋진 것인지 보세요!

데이지 에쉬포드는 필연적으로 감정에 대한 아이의 시각을 적용시키며, 자신의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겪을 감정들에 생경합니다. 그녀는 이 감정들을 아는 것보다는 묘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살티나 씨와 에델이 버나드의 집에 도착했을 때와 같이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성인 내면의 감정들의 외적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몬테규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번 방문에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셀티나 씨가 버나드에게]
오 네, 에델은 붉게 물든 포도주 사이로 얼굴을 붉히며 숨을 헐떡였다.
버나드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쳐다보더니 검붉은 색으로 변했다.

번역가는 이를 어려움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당연하게도, 어른으로서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번역으로서는 이례적이나 화자보다 더욱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운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과제는, 이 고급 지식과 경험이 번역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작품에 아이러니한 어조를 덧씌워 정서적 잠재력을 약화시킬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6. 감정이입으로 틀린 철자법

당연하게도, 번역가는 작가에게 긍정적으로 공감합니다. 그의 감정적 몰입은 번역가의 노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풍부한 즐거움 중 하나는 즐거운 작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데이지 에쉬포드의 소설 번역의 경우, 제 기쁨은 책이 더 길지 않고 끝이 났으며, 제 작업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는 비통함에 더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번역본을 9살의 덴마크 아이가 덴마크어를 쓰면서 낼 수 있는 오류들로 채웁니다. 언어간의 어휘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 전략은 데이지 에쉬포드가 잘못 쓴 항목에 해당하는 번역본의 항목에 오류를 만드는 대신, 번역가가 종종 덴마크 아이가 어려워할 만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선별해 틀리게 작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번역본의 언어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고 논리적이며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 점에서 철자 오류의 표현은 원문의 개별 항목을 일치시키려 하기 보다는 이를 회피하며 거의 동등하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첫 구절에서, 살티나 씨는 “사람들에게 그의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좋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책에서의 첫 번째 철자 오류입니다. 번역가는 챕터의 제목에 오류를 만드는데, ‘다소’ 혹은 ‘다소 어린 소녀’에 부합하는 “temmelig”을 해당 단어가 주로 발음되는 방식인 ‘temlig’로 적어둡니다. 이러한 오류는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한 철자 오류의 일관성은 번역본 전반에 걸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며, 번역가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철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덴마크 철자법의 다른 부분을 활용하여 더욱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단어 내에서 동일한 자음은 gg/g 혹은 kk/k [g], 또는 dd/d나 tt/t [d], pp/p나 bb/b, [b]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일부 모음 소리는 다른 문자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œ]는 æ나 e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떤 문자들은 발음의 목적을 위해 더 이상 쓰이지 않으며, (영어를 포함한) 매우 많은 언어들이 그러하듯, 특히 덴마크어의 경우, 음절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의 예로는, 수염을 의미하는 단어 (데이지 에쉬포드가 “wiskers”로 잘못 표기)를 올바른 “bakkenbarter” 대신 “baggenbarder”로 표기했습니다. 덴마크어에서도 유쾌함을 의미하는 “munter” 대신 “munder”를, “dyt” 대신 “dypt”를, “intent” 대신 “int ændst”, 그리고 “v ærdsatte” 대신 “v ærdsatte”로 작성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두 장에서 철자를 잘못 쓴 모든 목록은 Malmkjær(2020)를 참조하세요.

7. 결론

공감은 오스틴 (1962)이 말하는 구술 (말하는 행위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무엇이 그 혹은 그녀를 이해하고, 느끼고, 하게 하는지에 대하여)의 영역 안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독자로부터 공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번역가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그 혹은 그녀가 번역본을 읽는 독자들에게 원문이 그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번역가의 일치된 의견들로 독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전달할 개별 항목에 대한 번역을 함께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 노력에 대한 그들의 성공은 적어도 그들이 (i) 작가를 위한 마음 이론과 (ii) 번역본의 독자를 위한 마음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이론의 개념은 Nord (1989)에 이어 “충성심”으로 언급된 것에 대해 주요하고 심리적인 정보에 입각한 정교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번역가의 번역에 대한 일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번역에 포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마음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늘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전에 JLT (Journa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Vol. 7, 1호, pp. 1-15 | 2020년 10월 인쇄 ISSN: 2735-4520 | E-ISSN: 2735-4539에 게재된 "(문학) 번역의 관심 중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주제에 대해 적었습니다.

References

Ashford, Daisy (1919/1984), *The Young Visitors or Mr Salteena's Plan*, London: Chatto and Windus/The Hogarth Press.
Ashford, Daisy (1919/1986), *De unge elskene eller Mr Salteenas Plan*. Translated by Poul Malmkjær from *The Young Visitors*

- or *Mr Salteena's Plan*, Copenhagen: Nyt Nordisk Forlag Arnold Busck A/S.
- Austin, John R.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ron-Cohen, Simon (1995)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Baron-Cohen, Simon and Wheelwright, Sally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 Baron-Cohen, Simon, Richler, Jennifer, Bisarya, Dheraj, Gurunathan, Nishanth and Wheelwright, Sally (2003) "The systemizing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8 (1430): pp. 361-374.
- Birch, Susan, Li, Vivian, Haddock, Taeh, Ghrear, Siba, Brosseau-Liard, Patricia, Baimel, Adam and Whyte, M. (2017) "Chapter Six – Perspectives on Perspective Taking: How Children Think about the Minds of Other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52: 185-226.
- Bloom, Paul (2016)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New York: Ecco HarperCollins.
- De Lima, Felipe Fernandes and de Lima Osorio, Flávia (2021) "Empathy: Assessment Instruments and Psychometric Quality –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ith a Meta-Analysis of the Past Ten Years". *Frontiers of Psychology* 12: 1-21.
- Malmkjær, Kirsten (2020) "Centres of Attention in (Literary) Translation". *Journal of Languages and Translation (JLT)* Vol. 7, Issue 1, pp. 1-15 | October 2020 Print ISSN: 2735-4520 | E-ISSN: 2735-4539.
- Nord, Christiane 1989 "Loyalität statt Treue. Vorschläge für eine funktionale Übersetzungstypologie" (Loyalty rather than faithfulness. Suggestions for a functional translation typology). *Lebende Sprachen* 34(3): 100-105.
- Reniers, Renate, Corcoran, Rhiannon, Drake, Richard James, Shryane, Nick and Völlm, Birgit (2011)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1): 84-95
- Russell, Bertrand (1912) *The Problems of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yan, David L. (2018) "Paul Bloom: Against Empathy: The Case for Rational Compassion". *Society* 55: 216-217.
- Smith, Neil and Tsimpli, Ianthi-Maria (1995) *The Mind of a Savant: Language Learning and Modularity*. Oxford: Basil Blackwell.

분과회의 세션 1

Parallel Session

- 1-1 321호 소통의 토대 탐구하기
Exploring the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 1-2 322호 소통과 연대의 폭 넓히기
Broadening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 1-3 323호 디지털 시대의 문화연대
Cultural Solidarity in the Digital Age
- 1-4 324호 AI 빅뱅시대, 확장 인문학을 제안한다
Proposing an Expanded Humanities in the Age of the AI Big Bang
- 1-5 325호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보는 <한일연대>
<Korea-Japan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imacy' and 'Publicness'
- 1-6 326호 뇌, 생명, 문화 : 공감의 지위에 대한 학제적 접근
Brain, Life, and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atus of Empathy

건설적 사회 담론의 조성 :**종교성의 역할****Facilitating Constructive
Social Discourse :
A Role of Religiosity**

이나미 Nami Lee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해결의 주요 척도로서, 신성한 자비에 의해 촉진된 원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한편, 이슬람 전통은 코란의 가르침과 의식 기도를 준수함으로써, 겸손과 평화로운 영성을 독려하여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소통을 장려한다. 요약하자면, 종교적 체계는 사회에서 더욱 자비롭고 관용적이며 균형잡힌 담론을 독려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의사소통에 대한 주요 종교적 가르침과 심리적 관점의 교차점을 연구한다. 과학적 접근이나 사회 정치적 논쟁과는 달리, 종교적 가르침은 화합과 연민을 증진시키는 윤리적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은 때때로 분열적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용되어 왔다. 6가지 종교적 가르침의 기본 원리를 재검토함으로써, 필자는 종교적 가르침과 소통의 원리 사이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첫째, 샤머니즘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성격은 협상, 타협, 통합적 의사소통의 기술을 함양한다. 불교는 마음 챙김과 현재 중심적 삶이 용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관적 인식과 신념이 환상에서 유래한다고 상정한다. 이데올로기, 권위, 그리고 제도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도교는,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담론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유교 원칙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균형 잡힌 관계의 미덕을 강조하고, 극단주의에 대한 억지력으로써 관대와 조화를 촉진한다. 기독교 갈등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intersection of major religious teachings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In contrast to the scientific approach or socio-political debates, religious teachings could offer ethical frameworks that promote harmony and compassion. Despite the potential for fostering constructive dialogue, these teachings have at times been misused to justify divisive discrimination. By revisiting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6 religious teachings, author tried to reestablish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religious teachings and communication principles.

First, shamanism's flexible and inclusive nature cultivates skills in negotiation, compromise, and integrative communication. Buddhism posits that subjective perceptions and beliefs stem from illusion, advocating that mindfulness and present-focused living can pave the way for forgiveness. Taoism, fundamentally confrontational toward ideology, authority, and institutionalization, serves as a corrective to oppressive or unilateral discourse. Confucian principles underline the virtues of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superiors and inferiors, promoting generosity and harmony as deterrents to extremism. Christian doctrine emphasizes love for one's enemies, facilitated by divine mercy, as a critical measure for conflict resolution. Islamic tradition, meanwhile, encourages humility and peaceful spirituality through adherence to Quranic teachings and ritual prayers, thereby fostering open and tolerant communication. In sum, these religious frameworks can be leveraged to encourage more compassionate, tolerant, and balanced discourse in society.

중국 고전을 통해 살펴본

'상호 존중'으로서의 소통 양상*

-당대(唐代)에 편찬된 《군서치요(群書治要)》를 중심으로-

The aspect of communication as 'mutual respect' examined through Chinese classics

홍유빈 Hong, You-bin

경성대학교

Kyungsung University

국문요약

중국 고대의 유가사상에 있어서 '충'은 보통 아랫사람인 신하가 윗사람인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群書治要》의 예를 통해 볼 때, 그에 앞선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윗사람인 군주가 최선을 다해 신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앞서 말한 대로 기업이나 관공서와 같은 조직집단에서는 필수적으로 위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조직에서는 아랫사람 보다는 윗사람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조성된다. 물론 그러한 조직 혹은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계질서가 붕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다보면, 때로는 상명하복식의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MZ세대의 퇴사문제'의 원인 중 하나도 이러한 상명하복식의 업무 문화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주가 현인이나 신하를 존중하고 그들을 대함에 있어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곧 신하의 충성을 이끈다는 《群書治要》에 나오는 내용이 주목된다. 오늘날의 기업이나 관공서와 같은 조직 집단의 경우에도 신입사원이나 하위직에 속하는 직원들에 대해 그 위의 선임이나 윗사람들이 보다 평등한 시각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잘 관찰하고 깊이 이해해

준다면, 아랫사람들 역시 그 마음을 읽고 윗사람 혹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국 고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Abstract

In ancient Chinese Confucianism, '忠' has been recognized as a concept in which a servant, usually a subordinate, pays allegiance to the king, his superior. From the example of the 群書治要,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premise ahead of it. It means that the monarch, who is none other than his superiors, does his best to respect his subjects and keep their manners. And this spirit is thought to have implications today. In other words, as mentioned earlier, hierarchies inevitably exist in organizational groups such as companies and government offices, and in such organizations, a trend of prioritizing seniors over subordinates is created. Of course, in order for such an organization or system to be maintained, such a hierarchy should not collapse. However, maintaining this hierarch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unilateral communication, sometimes up and down. One of the causes of the "MZ Generation's resignation problem" is the antipathy to this top-down work culture. In this regard, it is noteworthy that the 群書治要 shows that respecting wise men or servants and being polite in dealing with them lead to the loyalty of the servants. Even in today's organizational groups such a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offices, if the seniors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from a more equal perspective, it is believed that the subordinates will also read the mind and show dedication to the superiors or companies. And I think this spirit is a message of Chinese classics that informs the importance of 'mutual respect'.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소통을 위한 이성의 사용 :

칸트의 “건강한 지성의 세 가지 준칙”을
비탕으로The Use of Practical Reason
for Communication :Based on Immanuel Kant's "Critique
of Judgement"

유연희 Yeonhee Yu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타인의 위치에서 사고하기는 자신의 판단의 경험적이고 편파적인 토대에 대해 반성하고 공평한 판단을 내리기를 요구한다. 자신과 일치하게 사고하기는 사고와 판단을 통일적으로 조망할 것을 요구한다. 소통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소통 내용에 대해 반성하는 것, 그리고 소통 상대에 대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마지막으로 비판이 열려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이 건전하고 비판적인 소통의 출발점을 함께 만든다.

국문요약

소통을 통한 연대의 조건을 찾기 위한 이 논문은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건강한 지성의 세 가지 준칙을 다룬다. 이 준칙은 '보편 가능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주관이 사유 방식에서 따라야 할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준칙은 올바른 사유 능력의 사용을 통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형성과 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토대로 볼 수 있다.

이 준칙은 스스로 사고하기-타인의 위치에서 사고하기-항상 자기 자신과 일치하게 사고하기라는 3단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칸트의 당시 사회에 대해 진단 및 실천적인 과제 설정과 연결되어 있다. 칸트는 자신의 시대를 계몽된 시대가 아닌 계몽 중인 시대로 규정하고, 이성 사용을 통한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계몽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이성 사용의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이성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건전한 지성 사용의 준칙은 불가피한 경험적 제한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 능력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스스로 사고하기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Abstract

In order to find the condition for solidarity through communication, this text deals with the "three maxims of common sense" of the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These maxims in "Critique of Judgment" (1790) concern the rules that the subject who wants to make a universally valid judgment must follow in his thinking. I'd like to show that these maxims can be understood as the basis on which, through the proper use of reason, th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in society is formed and successful communication achieved.

These maxims consist of 1) thinking for oneself, 2) mentally put ourselves in the place of other people, and 3) always thinking in accordance with oneself. Thinking for oneself means thinking independently of any prejudice. To think in the place of other people requires us to reflect and to question the contingent conditions on which our judgment is based. In order to think in agreement with oneself, one must conceive of one's thought and judgment in a unified way.

The use of the human reas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his evaluation about his time and setting task in practice. In his "Answering the Question: What Is Enlightenment?" (1784), he defines his own time as the time of enlightenment, i.e., not yet completely enlightened time, and appeals to enlightenment that is nothing other than emancipation from self-caused immaturity. According to him this immaturity does not result from a lack of intelligence, but from the lack of courage to use one's reason without the help of others. Therefore, enlightenment is, for him, the task set by human reason and only possible through it, especially in freedom of publication and speech to the public. Kant considers the enlightenment not only at the level of the individual, but also at the level of the entire society, in which we interact with others and struggle with communication.

These "maxims of common sense" show how our reason can reach at a fair judgment even though, as human beings, we remain within our natural limits. Self-reflection on one's own judgment, understanding and considering a point of view that is different from one's own, are still relevant in our societ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has to be based on 'communicability' in society and to be open to criticism in public communication. These elements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communication.

소통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

현상학적 조건 :

미셸 앙리의 삶의 현상학 논의를 중심으로

Phenomenological
Conditions of Community on
the Basis of Communication :A Discussion on Michel Henry's
Phenomenology of Life

백규원 BAIK Gyuwon

소르본대학교

Sorbonne Université

국문요약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함’을 뜻하는 소통(疏通, communication)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공동(共同, commun)의 요소가 작용하거나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통은 타자와 나 사이의 공동의 것에 관한 문제이기에 그것이 가능한 조건은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함께 간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문화적 맥락, 지역, 언어, 개인 관심 등에 따라 실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다. 그 다양성은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경험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현대 프랑스 철학자 미셸 앙리(1922~2002)는 세계 경험의 구성 원리에 따르는 공동체의 발생과 별개로, 그에 앞서는 근원적인 토대로서의 공동체가 주체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정념(pathos)을 공유하는 삶의 공동체로, 존재 가능한 모든 공동체의 선험적 조건이자 내재적인 본질을 이룬다. 모든 인간은 생의 자기-계시 안에서 생명으로서 탄생한다. 삶은 개체화의 원리를 이루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실재하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된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삶에 기반한 인류 공동체를 앙리는 세계의 현상성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에 고유한 현상학적 조건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오늘 우리는 미셸 앙리가 삶과 세계의 나타남의 이원성에 근거하여 도출하는 ‘공-정념(co-pathos)’으로서의 인류 공동체의 현상학적 조건을 살펴보고, 그

논의가 현대인들의 소통 문제에 있어 암시하는 바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Abstract

Communication, represented in the East Asian culture with the term ‘疏通’, which means ‘communication without blockage’, refers to the presence or formation of a common element among two or more individuals. As it pertains to what is common between myself and others, its condition corresponds to that of the community. In our society, there exist a multitude of communities based on societies, cultures, regions, languages, and individual interests. Such diversity gives the impression that the principles of community formation are empirical. However, the contemporary French philosopher Michel Henry (1922-2002) asserts that, apart from the emergence of communities based on the experience, a prior community already exists for each subject as a foundational basis of all communities. It is the community of life that shares *pathos*, which is the transcendental condition and the immanent essence of every possible community. Every human being is born as a living being in the self-revelation of Life. Life is the principle of individuation (*principium individuationis*) and achieves a real and universal community for all living beings. Michel Henry meticulously elucidates the phenomenological conditions of the human community based on life, which might seem like an obvious fact, by rigorously distinguishing it from the phenomenality of the world. We will examine today the phenomenological condition and the meaning of the human community as ‘co-pathos’, as discussed by Henry, based on the duality of the appearance of life and the world. Then, we will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is discussion for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among contemporary individuals.

아프리카를 보호하거나 혹은 대화하거나 :

프랑스의 유산정책과 식민지 유산

Conserving or Conversing with Africa? :

France's Heritage Policies and (Neo)
Colonial Legacies

Jérémie Eyssette
Chosun University

국문요약

의사소통의 부족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갈등에 대한 금기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이전 식민지 개척자와 이전 식민지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는 이러한 모든 갈등을 포함한다. 지난 20년 간,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은 프랑스와 아프리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며 – 그로 인해 프랑스는 15개국 이상을 계속해서 지배해왔으나 – *Françafrique*로 알려진 신식민주의 체제를 넘어서려 했지만 거의 소용이 없었다. 이 논문은 프랑스와 아프리카 파트너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열린 마크롱 대통령 (2017-현재)의 새로운 대화의 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문화 유산의 반환이 역사와 민족 지학, 윤리와 법률, 전시학과 문화 외교, 간의 학제간 대화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대화는 아프리카 문화 유산의 95%가 비아프리카 박물관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의 잠재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원해진 활동가들 – 유럽 큐레이터, 아프리카 박물관 및 압류된 출처 공동체 – 사이에도 필요하다. 이 글은 마크롱의

재임기간 – 양자 역사위원회 및 출처 조사, 시민 사회 정상 회의, ODA 및 연대 기금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화된 계획 –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식을 검토한다. 팬데믹에 힘입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아카이브는 박물관을 소스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예술 작품이 보상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유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 논의는 프랑스가 어느 정도까지 유산 정책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재조정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마크롱 정부가 내세우는 새 정책의 틀이 과거 식민 지배자와 식민지 사이의 역사적 금기, 정책 결정권에서의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배제, *Françafrique* 체제의 진부화, 등의 다양한 위기를 완화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펠와인 사르 (Felwine Sarr), 레일라 슬리마니 (Leïla Slimani), 아킬 음벰베 (Achille Mbembe), 등 주요 지식인들을 종종 끌어들이는 세습적이고 문화적인 새로운 거래의 표면 아래에서는, 마크롱이 10년 간 군사 개입을 한 사헬 지역이나 CFA 프랑의 통화 통제로 구현된 *Realpolitik* 의제 – 이는 본인 스스로 명명한 아프리카의 '재정복'이기도 하다 – 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유산과 문화의 대화에서 나오는 초기 소프트 파워는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하드 파워 운영을 비난하는 프랑스 정서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Abstract

Lack of communication may derive from language and cultural gaps, but also from taboos on unresolved conflicts. The imbalanced relationships between former colonizers and former colonies encompass all these tensions. For the past twenty years, successive French Presidents tried to go beyond the neocolonial system known as *Françafrique*—whereby France kept exerting sway over fifteen or so countries—by seeking to normalize Franco-African relations, to little or no avail.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the new avenues for dialogue President Macron (2017-now) opened in order to restore relationships between France and its African partners.

This presentation will first show that the restitution of cultural heritage offers a unique opportunity for interdisciplinary dialogue between history and ethnography; ethics and law; museography and cultural diplomacy. Dialogue is also necessary between long estranged actors—European curators, African museums and dispossessed source communities—to unlock the latent injustice encapsulated in the fact that 95% of the African cultural heritage is retained by non-African museums. This presentation will then review the different formats for discussion that emerged under Macron's tenure—bilateral history

commissions and provenance research, civil society summits, ODA and Solidarity Funds programs, or digitization initiatives. Spurred by the pandemic,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rchiving have indeed proved vital in connecting museums with source communities, and in sharing information on heritage prior to deciding whether artworks were eligible for restitution.

The final discussion will assess to what extent France has been able to use heritage policies to recalibrate and rebalance its relations with African countries. It will argue that the new policy framework advocated by Macron's administration serves the purpose of allaying various crises such as historical taboos between former colonizers and former colonies; the exclusion of African diasporas out of policy-making circles; or the obsolescence of the *Françafrique* system. But beneath the veneer of a patrimonial and cultural new deal which often coopts leading intellectuals—Felwine Sarr, Leïla Slimani, Achille Mbembe, *inter alia*—Macron has been at pains to dissimulate a *Realpolitik* agenda—which he himself labelled a "reconquest" of Africa—embodied by a decade of military interventions in the Sahel region (2013~2022) or the monetary control of the CFA franc zone. This inevitably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ascent soft power emanating from dialogue on heritage and culture may suffice to quell the anti-French sentiment that denounces enduring hard power operations in Africa.

러시아와 한국의 여성영화에서의

젠더 관계 :

페미니스트 변화

Gender Relations in Women's
Cinema in Russia and South
Korea :

Feminist Shift

Rimma Tangalycheva
St Petersburg Universit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러시아와 한국 영화의 페미니스트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1908년대에 태어난 여성 영화 제작자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고정 관념과 문화적 기준보다는 페미니스트적 렌즈를 통해 젠더 관계를 표현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해당 연구의 이론적 근거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 연구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었다. 경험적인 자료 수집은 영화의 내용 분석과 영화 평론가와 관객의 평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영화들의 주제적 유사성으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의 페미니즘 의제는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러시아 영화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을 제한하는 내적 문제에 중점을 둔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가치 지향에 격차가 있고, 러시아의 지방 도시에서 자아 실현의 기회가 부족하며, 대도시와 수도의 이동성을 위한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맥락은 전통주의와 가부장제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억압적이게 된다. 한국 영화는 전통적 가치, 적어도 가족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동시에, 영화는 젠더 불평등의 확고한 관행을 비판적으로 재현한다. 이 모든 것은 서구 페미니즘의 외적 논리에 한국 영화가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eminist shift in modern Russian and South Korean cinema. Women filmmakers born around the 1980s have concentrated on representing gender relations through a feminist lens rather than the stereotypes and cultural standards that are still prevalent in the society today.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study was sociological and cultur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feminism in cinema. The collection of empirical data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content analysis of films and reviews of film critics and viewers. Due to the identification of similar themes of films, it was concluded that the feminist agendas of films in Russia and South Korea are different. In Russian films, the emphasis is on internal problems that limit the self-determination of women. There is a gap in the value orientations of young people and older generations, a lack of opportunities for self-realization in the provincial cities of Russia, as well as a decrease in resources for mobility in large and capital cities. The social context becomes repressive, orienting towards a return to traditionalism and patriarchy. Korean films are built on respect for traditional values, at least family values. At the same time, films critically reproduce entrenched practices of gender inequality. All this testifies to the inclusion of South Korean films in the external logic of Western feminism.

서울 메트로에 대한 시민 의견광고 :**연대를 쌓아가기 위한 소수의견의 소통****Citizens' Opinion Ads on the Seoul Metro :****Communicating Minority Opinions to Build Solidarity**

Olga Fedorenko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도시가 소통을 통해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현대 포스트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온라인과 레거시 미디어는 우익과 좌익 정치의 적대적인 노선을 따라 심하게 양극화되었으며, 우리가 반대되는 견해에 부딪치지 않도록 정교한 메커니즘이 존재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대를 확립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세뇌되고, 편협하고, 지적으로 결핍되는 이들로 일축해버리는 것은 슬픈 일이며, 이는 의미 있는 관계 맺기를 방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는 다양한 인구 통계에 도달하고,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경쟁적인 입장을 제시하며, 종종 다른 형태의 미디어에 의해 강화되는 계급, 세대 및 성별 간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점점 더 중요한 매체로 부상한다. 본 논문은 서울 지하철에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한국의 특정한 형태의 도시 커뮤니케이션 광고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의 K-pop 팬덤이 그들의 아이돌을 위해 생일 광고를 게재하는 초기 추세에서부터 비 팬들에 의한

옹호 광고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일반 시민들에 의한 지하철 광고의 진화를 추적한다. 또한, 여성혐오와 여성차별 비판, 채식주의의 옹호,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 표명,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한 의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2010년대 내내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성공적이고 실패한 시도를 조사한다. 본 논문은 시민들의 의견광고가 공공공간의 차이를 넘어 소통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기회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Can the city serve as a medium for fostering solidarity through communication? In contemporary postdigital media ecology, online and legacy media have become deeply polarized along the antagonistic lines of rightwing and leftwing politics, and sophisticated mechanisms exist to shield us from encountering opposing viewpoints, making dialogue and the establishment of solidarity with those holding differing opinions almost impossible. It is often tempting to dismiss individuals with opposing beliefs as brainwashed, bigoted, and intellectually deficient, discouraging meaningful engagement. In this context, the city emerges as an increasingly important medium capable of reaching diverse demographics, presenting competing positions in the voices of their supporters, and breaking down barriers among classes, generations, and genders, which are often reinforced by other forms of media.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a particular kind of urban communication in South Korea—opinion advertisements by citizen groups on the Seoul subway. I trace the evolution of subway advertising by regular citizens in South Korea, from the initial trend of K-pop fandoms placing birthday ads for their idols to the subsequent appearance of advocacy ads by non-fans. I survey the successful and unsuccessful attempts made by various civic groups throughout the 2010s to place opinion ads on topics such as critiquing misogyny and women's discrimination, advocating vegetarianism, expressing opinions on South-North Korea relations, and showing support for sexual minorities. The paper elucidates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that citizens' opinion advertisements present in enhanc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building solidarity through communication across differences in public space.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개별화 :**철학적 실천적 의사소통을 통한 연대감 형성****Hyper-Individualiz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 Building Solidarity through Philosophical-Practice-Facilitated Communication**

Xiaojun Ding

Xi'an Jiaotong University

국문요약

전례 없는 수준의 연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서, 개인은 개인화와 자기 중심적 사고로 점차 몰려 들어, 단편적인 집단 정체성과 감소된 사회적 응집력으로 나아간다. 본 논문은 초개인화가 사회적 유대와 협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초연결 사회에서 초개인화의 역설적인 성격과 초개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집단행동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초연결성, 초개인화, 소통, 연대의 핵심 개념을 논의하고 상호 관련성을 검토한다. 초개인화된 세상에서 소통을 촉진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철학적 실천, 특히 유교의 실천의 역할 또한 탐구된다. 윤리적, 실존적 토론에 참여하고 Ren과 Li의 원칙을 따르면, 개인과 집단은 서로의 공통점과 공유된 가치를 발견하고, 공감을 구축하며 공동 책임 의식을 키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연대를 육성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초개인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루기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책 입안자, 교육자, 지역사회 지도자,

개인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며, 그들이 초개인화의 도전을 탐색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Abstract

In today's digital age, characterized by unprecedented levels of connectivity, individuals are increasingly driven towards individualization and self-centeredness, leading to a fragmented sense of collective identity and diminished social cohesion. By examining the implications of hyper-individualization on societal bonds and coopera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aradoxical nature of hyper-individualiz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potential of communication as a tool to counteract the negative effects of hyper-individualization and promote collective action. The key concepts of hyper-connectivity, hyper-individualization,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are discussed, and their interrelatedness is examined. The role of philosophical practice, specifically the practice of Confucianism, in facilitating communication and building solidarity in a hyper-individualized world is also explored. By engaging in ethical or existential discussions and upholding the principles of Ren and Li, individuals and groups can find common ground and shared values, cultivating empathy and fostering a sense of shared responsibility. Ultimately, the paper has underscored the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in fostering solidarit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concerted efforts to addres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hyper-individualization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The outcome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stakeholders such as policymakers, educators, community leaders, and individuals, enabling them to navigate the challenges of hyper-individualization and work towards a more inclusive and cohesive society.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Gotong Royong 개념의 변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Gotong Royong* During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

A Survey Among the Young Generations

Antonius R. Pujo Purnomo
Universitas Airlangga

국문요약

이 문은 인도네시아 공동체 내에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심 있는 태도의 범위에 대해 논의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적이고 배려적인 태도나 지지는 *gotong royong*으로 알려진 이 국민의 성격에 오래 전부터 배어 있었다. *gotong*이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의 자바어에서 유래한 반면, *royong*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의미는 없으나 복수의 함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용어의 의미론적 해석은 무언가를 들어 올리려는 집단적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연구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같은 처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공감적이고 동정적인 성향을 조사하고자 했다. 설문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48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모든 학생들이 *gotong royong*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gotong royong* 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보살핌의 한 형태이자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팬데믹 기간 동안 *gotong royong* 활동을 하지 않은 몇몇의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참여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아픈 다른 학생들의 조별 과제를 완료하는 것을

돕고, 다른 가족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환경을 미화하는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더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학생들도 "*gotong royong*"이라는 개념 안에서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물려받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해당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형식이 되거나, 온라인 모금과 같은 형식의 변화, 혹은 개인주의적인 태도에 의해 다소 침식되는 등, 의미의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모양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전히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믿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extent of empathy and caring attitude within the Indonesian community for their fellow citizens. The empathic and caring attitude or support towards others has long been ingrained in the personality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known as *gotong royong*. The word *gotong* comes from the Javanese language, meaning "to lift," while the word *royong* does not have a specific meaning but can have plural connotations. Consequently, the semantic interpretation of the term can be summarized as the collective effort to lift something. The researcher aimed to investigate the empathic and compassionate disposition towards fellow individuals, especially those experiencing difficulti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here the majority of people also face similar hardship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48 university students as representatives of the younger generation in Indonesia.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all students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word *gotong royong* and its application in daily life. The reasons for engaging in *gotong royong* activities during the pandemic were seen as a form of empathy or care for others and to maintain the environment. Furthermore, although there were some students engaged in *gotong royong* activities during the pandemic, the majority had done so. For example, helped to complete group assignments for other students who were sick due to COVID-19, assisted other families, distributed masks to others, participated in community service to clean the environment, and more. They also understood that helping others would make them feel better and happier. The students were also very proud to inherit the values of empathy and care in the concept of "gotong royong." However, over time, they also realized that the concept had undergone a shift in meaning, such as becoming a mere formality to avoid criticism from society, changes in form, such as online fundraising, or being slightly eroded by individualistic attitudes. Despite changes in shape with time, most students believed that they still held these values to this day.

전통공연계의 젠더 경계 뛰어넘기: 그 노력과 한계*

Crossing the Gender Boundaries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 Its Efforts and Limits

최희영 Heeyoung Choi

노던일리노이대학교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전통음악 분야의 현대 여성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적 관념을 연출해오고 있는지 탐색한다. 저자가 주목한 '해파리 (HAEPAAARY)'라는 여성 듀오는 공연무대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악을 완전히 변형시켰다. 두 여성 예술인은 오랜 전통의 궁중 의례 요소를 반복, 재활용, 파편화 및 혼성화 함으로써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춘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원래 유교 전통에 따라 남성에게 의해 수행되어오던 것이었다. 자유롭고 중성적인 이미지와 저음의 목소리를 넘어 전자음향의 사용과 새로 제작한 악기 연주는 한국 음악계,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저항을 시사한다. 즉 여성 예술인들이 전통 공연물을 재해석하여 파격적인 공연 형식과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 무대 공연을 통해 젠더 이슈에 대한 관념을 표현한 새로운 시도라 하겠다. 저자는 이를 음악 혹은 공연무대가 수동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나 견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 관념을 주장, 채택, 경쟁 및 협상하는 공개 포럼의 역할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음악 비평' 담론을 적용하여 이해한다. 더불어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전통공연계의 젠더 경계 뛰어넘기 노력의 한계를 점검하여 향후 발전 방향 모색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contemporary women artists 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recent years have presented feminist concepts on stage. The author focuses on a concert titled 'The Songs Once Used for Men' (*Namchang gagok*) by a female duo group called 'HAEPAAARY'. The two artists, Choi Hyewon and Park Minhee, completely transformed the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UNESCO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Jongmyo Jeryeak, through their performance on stage. They repeatedly reuse, fragment, and hybridize elements of the long-standing royal ancestral rite and ritual music as they sing songs, play musical instruments, and dance. All of these activities were traditionally performed exclusively by men according to Confucian traditions. The women artists' androgynous appearances and singing style, using deep voices, the use of electronic soundscapes, and the creation of new instrument performances, indicate resistance to traditional gender roles in Korean society, particularly within the realm of Korean music. In other words, contemporary female artists who reinterpret traditional Korean music in a modern context, marked by their unconventional performance formats and styles, represent a novel attempt to express notions of gender issues. The author applies feminist music criticism discourse, which suggests that music and performance stages can serve as open forums for asserting, adopting, contesting, and negotiating gender concepts in various ways, to understand the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of the female duo. In the latter part, the author briefly reviews the limitations of the aforementioned attempts to transcend gender boundaries in th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ield, with the expectation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xploring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2043693)

소소하지만 확실한 디지털 일상의 '서사력' : 재미와 소통, 연결감 - 소셜미디어를 통한 밈, 앱, 댓글(글) 놀이를 중심으로 -

Small but distinct power of digital narrative: fun, communication, and the feeling of connection

– focus on the digital play with memes,
apps, and online comments through
the social media

김지연 JI YEON KIM

세명대학교

Semyung University

국문요약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중독시키고, 획일화하며, 필터버블에 가두어 편협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협적인 요소로 지목된다. 그러나 현대인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Z세대라고 불리는 소위 '청년' 세대에게 디지털 세상은 또 하나의 세계이자 익숙한 일상이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에서 수행되는 '디지털 놀이'의 서사에 주목함으로써 공감을 통한 화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에서 창작되거나 공유되는 밈, 댓글, 앱 활용 콘텐츠나 포스팅 같은 디지털 놀이를 통해 감발·연결·확장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재미와 소통, 연결감"이 디지털 일상을 긍정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이자 공감을 통한 화합을 실천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놀이의 '서사력'이 공감을 통한 화합의 한 방법일 수 있음을 세 단계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금은 부족하지만 애쓰고 있는 나" 혹은 "이대로 꽤 괜찮은 나"를 발견하면서 안도하는 '공감 형성' 단계가 "여전히 사랑받는 나"와 "이러한 나의 가치를 묵도하고 인증해주는 너"와의 '소통 확산' 단계로 진화하며, 다시 "비슷한 경험과 기분을 공유하는 우리" 사이의 느슨한 연결감을 확인하는 '화합 상상' 단계로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We found that the 'small but distinct fun, communication, and the feeling of connection' on social media, such as memes, online comments, and app-using posting, is a positive component of digital daily life and a foundation to practice unity through empathy.

We examined how the narrative of digital play can be a way to unite through empathy in three stages, which is 'building empathy with fun,' 'spreading communication,' and 'imagining unity from connection.'

양극화 시대의 '디지털 능력주의'

Digital Abilityism in a Polarized Era

김만권 Mankwon Kim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국문요약

양극화 분배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디지털 기술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분배를 정당화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쉽사리 결합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우리 사회는 누구나 알다시피 가장 디지털 기반이 잘 구축돼 국가이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다. 노동시장에서 대다수가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디지털로 인해 가속되는 양극화 분배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더하여 새로이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 역시 정교한 지식을 지닌 고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중숙련 노동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들고 더하여 중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 간의 임금 격차를 늘려 양극화 분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

다. 능력주의는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이런 격차를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것이다. 본 발표문은 이를 '디지털 능력주의'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digital technology that leads to polarized distribution has a point of convergence with the ideology of meritocracy, justifying the distribution of the wealth and income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the few. As well known, South Korea is the nation where the digitally advanced infrastructure is built and merit-driven ideology dominates. In the labor market, many will fail to catch up with the advancing digital technology, and the accelerating polarize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means will increase the likelihood of many workers falling into poverty. Furthermore, the newly emerg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proving beneficial to highly skilled workers with sophisticated knowledge, while revealing its limitations for those with lower skills. This situation is expected to reduce mid-skilled jobs and further widen the wage gap between mid-skilled and highly skilled jobs. Meritocracy will act as an ideology that justifies and deepens these disparities created by digital technology. This presentation aims to conceptualize this phenomena as 'Digital Meritocracy.'

확장된 문해력과 인문학의 재정의

Extended Literacy and
Redefinition of Humanities

김재인 Kim Jae-Yin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국문요약

생성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함에 도전하는 지금, '인문학'이 무엇인지 더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인문학은 '학문 연구' 분류 단위가 아니라 '교육' 단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 전까지의 교육은 '공통 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인문학은 '핵심 공통 역량'의 교육 활동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핵심 공통 역량에서 과거에 인문학이 담당했던 언어 능력, 즉 문해력(literacy)이 핵심이다. 삶과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 과거에는 언어가 그런 활동의 핵심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어는 자연어 외에도 수학, 자연과학, 기술, 예술, 디지털 등으로 확장했다. 따라서 확장된 언어를 다루는 능력, 즉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해졌다.

확장된 인문학은 '교양 대 전공'의 이분법을 넘어 핵심 공통 역량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사회생활을 하다 직업 전환이 필요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핵심 공통 역량은 어렸을 때 충분히 익혀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재교육은 어렵다. 변화의 시기에 버텨낼 힘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둘째, 핵심 공통 역량을 갖추면 전문가가 협업하는 융합 활동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융합 작업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은 전문가끼리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한국의 예를 보면, 이른바 문과와 이과의 언어가 너무 일찍 분리된 탓이다. 핵심 공통 역량은 협업의 토대이고 소통의 선결 조건이다.

Abstract

A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allenges human uniqueness, it's time to better define what the humanities are. The humanities should be understood as a unit of education, not a unit of academic research. Education up to the pre-graduate level should focus on 'common competencies', and the humanities should be redefined as educational activities in 'core common competencies'. In the core common competencies, language skills, or literacy, which have traditionally been the responsibility of the humanities, are central. It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deal with life, human beings, society, and nature. In the past, language was at the core of these activities, but today language has expanded beyond natural language to include math, natural sciences, technology, the arts, the digital, and more. So we need extended literacy - the ability to deal with extended language.

The expanded humanities must move beyond the "liberal arts vs. majors" dichotomy and take on the responsibility of teaching core common competencies. This is necessary for two main reasons. First, people need to be retrained if they need to switch careers later in life, and the core common competencies they need should be mastered early in life. For the unprepared, this retraining is difficult. You need to have the strength to persevere through times of change. Second, having the core common competencies will enable convergence activities where experts collaborate. One of the reasons why convergence hasn't been successful so far is that specialists don't understand each other's language. In Korea, for example, the languages of the so-called humanities and sciences were separated too early. Core common competencies are the foundation of collaboration and a prerequisite for communication.

인공지능의 신화와 철학 :

동양철학의 '몸'에서 본 인공지능 담론

Myth and Philosophy in AI

김시천 Kim, Si-Cheon

송실대학교

Soong Sil University

국문요약

조셉 캠벨은, 고도로 과학이 발달한 20세기 탈신화화의 시대에는 과학자가 사제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다. 신화와 종교가 사라진 자리를 과학과 과학자가 대체했다는 뜻이다. 21세기인 오늘날, 초인공지능의 출현을 둘러싼 당금의 논란은 새로운 신학과 과학의 충돌로 보아도 좋겠다. SF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신과 같은 존재로 상상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삶의 영역을 빼앗겨가는 인간의 무기력함에 대한 공포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인간을 초월하거나 혹은 심지어 지배할 것이라는 신화적 상상은, 사실상 흑세무민의 새로운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기계 속의 영혼을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초인공지능 혹은 특이점 담론이

갖는 위험성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현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신체와 관련된 것이다. 인공지능이 현실에 개입하는 몸에 주목할 때, 그것이 인간의 삶과 사회의 영역에 끼치는 실제 영향력과 위험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인공지능 담론이 상정하는 인간의 '지능'보다 몸의 다원성, 그리고 인간의 몸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두 차원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어떤 함축을 갖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담론이 '초인공지능'이나 특이점 담론을 통해 실현해가려는 것은 기계론적 인간관의 확장이거나 혹은 기계-신의 담론이라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주목할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다.

Abstract

Joseph Campbell said that in the highly scientific age of 20th-century demythologization, scientists took over the role of priests. In other words, science and scientists took the place of myth and religion. Today,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mergence of AI can be seen as a new collision of theology and science. In the world of science fiction, the idea of AI as a godlike entity is understandable as an expression of fear of human helplessness as AI takes over our lives.

The mythical idea that AI will transcend or even dominate humans, beyond their capabilities, is nothing more than a new theology of the hordes. It is tantamount to speaking of a soul in a machine. The danger of the AI or singularity discourse is that it distracts us from what we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which is the body of the AI. This is because when we pay attention to the bodies that AI intervenes in reality, the real impact and risks it poses to human life and society are revealed.

In this article, I will present two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e body and its multiplicity, rather than the human 'intelligence' that the AI discourse assumes, and show their implications for our live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what the AI discourse is trying to realize through 'superintelligence' or singularity discourse is an extension of the mechanistic human view or a machine-god discourse. I think these are the points t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about AI.

분과회의 세션 1

1-4 AI 빅뱅시대, 확장 인문학을 제안한다

Parallel Session 1

1-4 Proposing an Expanded Humanities in the Age of the AI Big Bang

인공지능과 정치 :

철인왕, 공리주의 머신, 그리고 샤머니즘

AI and Politics :

Philosopher King, Utilitarian Machines,
and Shamanism

송경호 Kyungho So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AI 정치의 등장은 공정성, 중립성, 효율성, 사실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심리적 장벽, 기술적 한계, 데이터와 기준의 부재, 권력의 사유화 위험, 정보독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AI 정치의 가능성을 '샤머니즘 모델', '공리주의 머신 모델', 그리고 '철인왕 모델'로 구분하며, 각각의 모델이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AI가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AI 정치에 대한 열망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AI의 발전이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I aim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impact of AI technology on politics. The emergence of AI politics is expected to create a new paradigm that can ensure fairness, neutrality, efficiency, and actuality. However, it also faces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psychological barriers, technical limitations, lack of data and standards, risk of privatization of power, and information monopoly. I categorize the possibilities of AI politics into three models: the shamanistic model, the utilitarian machine model, and the philosopher king model. We outline how each model affects politics, how AI will change politics, and what political perceptions reflect our desire for AI politics. My goal i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advances in AI technology in the political sphere.

전후보상운동에 대한 서사적 접근

A Narrative Approach to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현무암 Mooam Hyun
홋카이도 대학교
Hokkaido University

국문요약

<한일연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글은 한국정치가 민주체제로 이행하면서 과거의 것으로 인식되는 <한일연대>의 가치를 재생하기 위하여 그 역사적 경험과 담론을 통해 한일 시민사회의 공조를 재구축하는 조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 피해국/가해국으로 단순화된 도식에서 배제된 피해자 개인들의 보편적 인권을 기반으로 한 연대이다.

이러한 연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일연대>라는 사회운동의 역사적 계보를 저항 공간으로서의 공공영역으로 부터만이 아니라, 운동을 성립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나 소통으로서의 '친밀성'에 기반하는 영역이 가진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고찰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초국경적인 시민사회가 키워온 신뢰와 유대, 규범과 가치를 포착하는데 있어서 <한일연대>로 나타나는 집합행동의 내적이고 문화적인 역동성에 다가서는 서사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Korea-Japan Solidarity' was raised by Japanese civil society that supported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1970s to the 1980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onditions for rebuilding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through their historical experience and discourse to revive the value of 'Korea-Japan Solidarity', which is recognized as a thing of the past as Korean politics transitioned to a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present the need for such solidarity, this article consider the political role of 'Korea-Japan Solidarity' while tracing its historical genealogy not only from the public sphere as a space of resistance, but also from 'sphere of intimacy' as an informal network and communication that can establish a movement. This paper argues that a narrative approach that examines the internal and cultural dynamics of collective action represented by 'Korea-Japan Solidarity' is effective to comprehend the trust, bonds, norms and values fostered by the transnational civil society of Korea and Japan.

분과회의 세션 1

1-5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보는 <한일연대>

Parallel Session 1

1-5 <Korea-Japan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imacy' and 'Publicness'

전후보상운동과정에서의 지원자와 피해자의 교류와 연대 :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사례로

Exchanges and Solidarity between Applicants and Victims during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 A Case Study of the 'Group Supporting the Board of Officials

김명주 MYEONGJU KIM

도시샤여자대학교

Doshisha Women's College of Liberal Arts

국문요약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의 가해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본의 시민들은 한국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한국사회 일반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일본의 시민활동가 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조차 성립되지 않았다. 이 글은 전후보상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의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일본의 시민활동가들의 실천을 사례로, 한일연대의 다양한 경험과 그 의의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부산 중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 (통칭 '관부 재판')을 지원했던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사례로, 전후보상에 대한 법적 해결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 일본 시민활동가들의 지원활동에 대해 재검토한다. 지원활동과정에서 보여 졌던 지원자와 피해자의 교류와 공감, 연대의 경험을 제시하며 전후보상운동에 있어서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전제로 하는 '친밀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Abstract

Even in Japan, citizens' movements have been formed to reflect on the history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determine their responsibility for such actions. Further, Japanese citizens, conscious of Japan's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have supported South Korean victims in various ways. However, this fact is not well known in Korean society, and there is no established perspective on Japanese citizen activist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various experiences and significance of Korean-Japan solidarity using examples from the practices of Japanese citizen activists who have stood in solidarity with South Korean victims, while exploring the content and methods of postwar compensation.

The support activities of Japanese citizens who strove to find a legal solution to postwar compensation and restore the honor of victims were examined through the case of the "KanPu (Shimonoseki-Pusan) Trial Support Association," which supported the "Pusan Military Comfort Women and Women's Volunteer Labor Corps Official Apology Lawsui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KanPu Trial"). A discussion of the value and importance of "intimacy" was provided, which is premised on the presentation of the experiences of empathy, encouragement, and solidarity between supporters and victims as seen in support activities, and the concern and consideration for the lives of others in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분과회의 세션 1

1-5 '친밀성'과 '공공성'에서 보는 <한일연대>

Parallel Session 1

1-5 <Korea-Japan Solidarity> from the Perspectives of 'Intimacy' and 'Publicness'

친밀권에서 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배상청구소송의 전개와 시민운동 :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밝히는 모임'의 활동에 주목하여

The Development of Compensation Claims Lawsuits for Korean Victims of the Asia-Pacific War from an Intimate Perspective, and Civic Movement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to Clearly Defin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김 성 Makoto Kanemitsu
삿포로대학교
Sapporo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일본의 시민단체인 「일본의 전후책임을 확실히 밝히는 모임」(이하, 핫키리카이)의 활동에 주목하여, 한국의 「한국 태평양전쟁피해자 유족회」(이하, 한국유족회)와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양자가 어떻게 협력하고, 대표인 우스키 게이코씨가 한국유족회 사람들과 어떤 친밀권 (= '생'의 승인)을 형성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고, 양측의 협업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핫키리카이는 한국유족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어 한국유족회의 대일배상 청구소송에 협력하여 일본의 전후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우스키 씨와의 인터뷰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주의 노선의 핫키리카이는 일본 외무성 및 정부 관계자와 연계하여 일본의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마찰을 빚으며 대립했다.

「아시아여성기금」 참여는 핫키리카이 내부에서도 다양한 비판과 갈등을 낳았고, 일본 정부에 부역하는 것으로 간주된 핫키리카이의 입장은 다른 시민단체와는 차이가 있었다. 2004년에는 지원했던 대일배상청구소송의 패소가 확정되어 2007년부터 외무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후속사업(2017년 3월 종료)에 참여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봐 왔다.

핫키리카이와 정대협과의 불화는 이후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스키씨의 발언은 일본 보수계 논단에 의해 정대협 비판을 위해 소개되는 등 친밀권이 한일 양국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ctivities of a Japanese citizens' group, the "Association to Clearly Defin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Hakkiri-kai"), and examines how it collaborated with the Korean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for Victims of the Korean Pacific W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in Korea through the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Korean victims of the Asian Pacific War, and how its representative, Keiko Usuki, formed a sphere of intimacy (= recognition of "life") with the bereaved families.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and meaning of this collaboration and the intimacy sphere (i.e., recognition of "life") that Keiko Usuki, the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formed with the people of the Association. The intimate sphere was a very important place for minorities who had been politically marginalized by the majority, and it was also a space needed for them to regain their political dign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Hakkiri Association was organized to support the Korean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and was involved in activities to pursue Japan's postwar responsibility by collaborating with the Korean Bereaved Families Association in its trial for claiming compensation from Japan. As is clear from the interview with Mr. Usuki, the Hakkirikai, taking a pragmatic line, tried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s postwar compens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government officials, which led to friction and conflict with the Korean Council Against Voluntary Aid in Sou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a-Taiheiyo").

2. participation in the "Asian Women's Fund" led to various criticisms and conflicts within Hakkirikai, and its position diverged from that of other civil society groups, as it was seen as being complicit with the government. Since 2007, Hakkirikai has been involved in a follow-up project (completed in March 2017)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provide care for former comfort women.
3. The feud between the Hakkiri-kai and the Teitai-kyo has affected the situation since then. Currently, the intimate sphere is being appropriated as a tool for criticism of both Korea and Japan, as statements by Usuki are being introduced by conservative Japanese commentators to criticize the Teitai-kyo.

재일/여성 디아스포라의 신체와 정동 :

'한일연대'의 탈중심화를 위한 시론

Body and the Affect of Zainichi Korean Women : An Essay for Decentralization of 'Korea-Japan Solidarity' Discourse

조경희 Cho Kyunghee

성공회대학교

Sungkonghoe University

일반의 보편적 역량보다는 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신체들의 부대낌을 통해 교감되는 힘으로 보고 열린 친밀권이 가지는 또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이 글은 기존 '한일연대' 담론과 실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위해 디아스포라의 위치성과 잠재적인 행위성에 주목한다. 특히 재일조선인 여성들의 행위성을 드러냄으로써 '한일' 담론을 탈중심화하고 디아스포라 담론을 전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일연대'라는 틀에서 재일조선인의 존재는 종종 '매개'나 '가교'로서의 역할로 표상되거나 비가시화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예컨대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전개 과정을 봐도 한일 국민국가의 사이공간에서 포스트식민 페미니즘의 장을 열어온 재일여성들의 당사자성과 그 선도적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가부장제의 중층적 구조아래서 살아온 재일여성들을 한일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적 위치가 아닌, 교차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횡단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민족, 혈통, 동포, 조국, 고향, 귀환과 같은 개념과 친화적인 디아스포라 담론은 이미 본국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적 담론에 여성을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방식을 피해 이 글에서는 신체와 정동의 관점에서 재일 여성들의 삶을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정동(affect) 개념을 인간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sitionality and agency of the diaspora for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existing 'Korea-Japan solidarity' discourse and practice. In particular, the purpose is to decentralize the 'Korea-Japan' discourse and the diaspora discourse by revealing the agency of Korean women in Japan. In the framework of 'Korea-Japan solidarity', the existence of Zainichi Korean has often tended to be represented as a 'mediator' or 'bridge' or made invisible. However, even looking at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 the early 1990s, for example, we cannot overlook the involvement and the leading role of Zainichi Korean women who opened the agenda for postcolonial feminism in-between Korean and Japanese nation states.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position Zainichi Korean women, who have lived under the complex structure of colonialism, nationalism, and patriarchy, as trans-local actors who have actively sought intersectionality, rather than as a bridge connecting the Korean and Japanese nations.

The diaspora discourse, which is friendly to concepts such as nation, blood, compatriot, fatherland, hometown, and return, is already constructed in nationalistic and male-centered manner. Avoiding adding women to the dominant discourse, this article interprets and reconstructs the lives of Zainichi Korean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affect and the body. This paper views the concept of affect as powers that activated through interacting specific bodies of minorities, rather than the universal capacity of humans in general, and seeks to capture another political possibility of the open to intimate sphere.

분과회의 세션 1

1-6 뇌, 생명, 문화 : 공감의 지위에 대한 학제적 접근

Parallel Session 1

1-6 Brain, Life, and Culture: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atus of Empathy

인간은 세포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생명의 존재 조건인 소통과 협력, 자기 절제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고찰

Are Humans Better Than Cells?:

Microscopic and Macroscopic

Reflections on the Conditions of Life -
On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Self-Restraint

송기원 Kiwon Song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국문요약

지금 인류는 기후 위기와 극심한 경제의 양극화 위기 앞에 서 있다. 이는 실질적인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근대 이후 인류의 생존과 번성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인 틀인 자연 대 인간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생존 양식이자 발명품인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협력을 위한 공감 능력과 도덕적 본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인류가 과연 공동 생존을 위해 이러한 본성을 다시 한번 발휘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는 누구인가, 즉 유기체 수준에서 생명체의 보편적 존재 방식으로서의 소통과 협력을 생물학적 관점에 방점을 찍어 논의하려고 한다. 또,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즉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왔던 우리의 소통 능력과 공감을 통한 협력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진화론적 관점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이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이나 인간의 존재 방식은 '스스로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져 온 현상'인데 인위적으로 거기에 과도한 설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 개개인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또 진화과정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한, 기본 로직으로 작동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 및 자기 절제의 의미에 대해 상기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Humanity is now facing a climate crisis and a severe economic polarization. These crises pose real threats to human survival. It is also a crisis of the dichotomous worldview of nature versus humans, which is the basic framework that has enabled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mankind since modern times, and of capitalism, which is the basic survival mode and invention of human society. At this point, the reason why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mpathy and morality for cooperation as human nature is probably because of the question and doubt, 'Will humanity be able to overcome this crisis together by demonstrating these natures once again for common survival?'.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discuss 'who we are' with an emphasis on biological perspective, that i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s the universal way of existence of living organisms at the cellular level. In addition, I will try to summarize the evolutionary perspectives of various scholars on 'where we came from', that is, where our communication skills and cooperation through empathy, which have made humanity's survival possible, originated. This kind of work may be artificially giving excessive explanation and meaning to the nature of living organisms and the way humans exist. However, through this work, I do hope we remind about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cooperation, and self-restraint, which have operated as basic logic for maintaining the lives of each of us at this moment and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in the process of evolution.

우리는 어떠한 '공감'을 추구하는가?:

'공감' 개념에 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gonggam' ≡ empathy

김태연 Taeyeon Kim

송실대학교

Soong Sil University

국문요약

'사유하는 인간(homo sapiens)'에서 '공감하는 인간(homo empathicus)'으로 인간됨 의미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중이다. 제1,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의 경험으로 이미 인간의 이성적, 합리적 사유에 대한 자신감에 치열한 의문이 제기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그러한 의문은 이내 효력을 잃었다.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 신자유주의의 확장과 지구화,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은 인간 진보에 관한 낙관주의로 그러한 의문은 이내 효력이 떨어졌고, 인간 이성과 합리적 계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이내 팽배해져 갔다. 이제 우리 인간은 팬데믹을 경험하고,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 재앙을 목도한다. 오랫동안 끓아온 상처가 터져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격화되고 있다. 어떻게 인류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모두에게 닥칠 위기와 재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긴급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때가 왔다.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비인간과도 '공감하는 인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표는 '공감'에 대한 개념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에서 '공감'은 empathy의 번역어로 정착해 있으나, sympathy의 번역어로도 쓰인다. 심리학, 철학, 사회학, 생물학, 인지과학, 신학 등 전방위적으로 '공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데, '공감'에 대한 이해방식은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인지적 과정으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된 '공감' 개념과 철학에서 도덕적, 윤리적 요청으로서의 '공감' 개념의 함의가 서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문적 차원과 별개로 일상적, 실천적 차원에서도 '공감'이란 용어는 활발히 사용된다.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를 담은 각종 교양 저술에서도 '공감' 능력에 관한 논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적 차원에서 '공감'이란 용어는 사람 간, 집단 간 이견으로 인한 충돌이 발생할 때, 서로 간의 입장과 이견의 내용을 고려하고 포용하며 협상과 화합을 추구해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통합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만약 사회가 극심한 의견 대립과 충돌,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가 그 긴장이 점차 완화, 해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통합을 위한 호소와 요구로서의 '공감' 개념 사용 빈도는 약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좀 더 개인적이고 심리적 차원에서와 개인 삶의 기술을 위한 '공감' 개념 사용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감' 개념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떠한 함의 속에서 이야기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감'에 대한 함의와 그에 대한 필요성, 당위에 대해 과거에 어떻게 사고했고 현재는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한국에서 '공감' 개념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신조어였다. 일본에서 '공감' 개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20년대이며 한국의 경우도 1920년대부터 그 용례가 발견된다. 그 이전 시기에는 '공감'이란 신조어 없이도 사람들은 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공감'이라는 신조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 일제강점기 때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사람들은 '공감' 개념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 하나의 새로운 용어가 통용되었을 때 그 이유로 소환할 수밖에 없는 맥락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발표는 '공감' 개념 사용 맥락과 그 맥락 속에서의 '공감'의 함의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한국에서 늘 인용되는 '공감'에 대한 서구 개념사에 대해 간단히 살핀다. 현재 한국의 학문적 '공감' 개념 논의가 글로벌한 차원과 함께 연동되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의 '공감' 개념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 일제강점기 한국의 일상 담론 안에서의 '공감' 개념 등장과 그 활용 맥락을 당시 근대 사전과 신문, 잡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에 어떠한 '공감' 이해 속에서 움직여 왔는지 인식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공감' 개념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과회의 세션 2

Parallel Session

- 2-1
321호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e
- 2-2
322호 놀이와 예술
Play and Art
- 2-3
323호 관계 맺기, 균형과 조화
Building Relationships, Balance, and Harmony
- 2-4
324호 인공지능과 공진화하는 세계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evolving Worlds
- 2-5
325호 연대를 향한 실천적 성찰
Practical Reflections on Solidarity

KEYNOTE LECTUR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분과회의 세션 2

2-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Parallel Session 2

2-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

한국 지방박물관의 공존과 상생

방향성 모색 :

ICOM의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중심으로

Exploring the Coexistence and Synergistic Direction of Local Museums in South Korea

이정은 Lee Jeong Eun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국문요약

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인 ICOM에서 발표한 박물관 정의는 박물관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으로 그야말로 가장 현대적이며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정의이다. 이번 새로운 정의는 한국 박물관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새롭게 정의된 박물관은 기존 박물관의 장소성과 역할적 측면을 벗어나 사회적 활동을 기대하게 만든다. 한국의 경우 지역박물관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비 접근성, 활용성,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들을 위한 문화 향유 개선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다. 이제 새로운 목표와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박물관이 변화되어야 한다. 인류 공동의 목표이자 공존과 상생을 위한 포괄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는 것으로 활동적 박물관의 기본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박물관들은 그 어떤 때 보다 조직 정비를 새롭게 이루어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수평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왜 이 사업을 수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소장품 수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며 보다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 목표를 가지는 자세일 것이며, 나아가 소장품의 활용 방안 역시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아마도 현재 한국의 지역박물관에게 주어진 가장 업데이트된 새로운 박물관 정의를 기반으로 한 지역박물관의 공존과 상생의 전략일 것이다.

Abstract

The definition of a museum presented by 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n 2022 is truly the most modern, democratic, and professional definition, focused on the developmental and forward-looking soci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seums. This new definition can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Korean museums. The newly defined museum goes beyond the physic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raditional museums, encouraging social engagement.

In the case of Korea, regional museums face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accessibility, utility, support, and policies, compared to museums in the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To overcome these issues, it is essential to expand region-specific cultural and artistic facilities and propose cultural enjoy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culturally marginalized regions and populations. However, this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Now, regional museums need to transform themselves based on new goals, roles, and functions. The fundamental spirit of an active museum should revolve around inclusivity, divers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humanity's common goals and essential fo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To achieve this, regional museums should focus on why they are pursuing this mission, establishing a more horizontal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enabling staff to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Furthermore, as important as collecting artifacts is encouraging community participation, adopting a more future-oriented approach to museum goals. It is also the right time to set new goals for the utilization of collections. This may be the most up-to-date strategy for regional museums in Korea based on the updated definition of museums, focusing on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분과회의 세션 2

2-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Parallel Session 2

2-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

박물관과 기후 변화 :

박물관은 기후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Museums and Climate Change :

How can museums contribute to climate action?

Anna Woodham
King's College

탐구한다. 영국을 주요 지리적 초점으로 활용하고 *기후 행동을 위한 박물관 재구성* 프로젝트 (2021년 글래스고에서 COP26 기간 동안 실행)의 논의를 포함하여, 본 논문은 박물관의 보다 “급진적인 기후 행동”을 향한 혁신의 영역을 강조한다 (Museumsforclimateaction.org). 이는 수집품, 전시회 및 공공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의 탈탄소화와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박물관이 기후 행동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위한 풍부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결론을 짓는다. 비록, 이것이 자신감과 직원들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필요로 하고,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이 작업에 대한 추진력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문화적, 구조적 과제가 있다.

국문요약

박물관에 대한 국제 박물관 협의회 (2022년)의 정의는,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에 봉사하는” 지속 가능성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물관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역할은 훨씬 더 많이 용인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박물관은 어느 범위까지 기후 행동의 최전선에 있는 것인가? 또한, 기후 변화 감소 정책과 전략에서는 어떻게 간주되는가? 박물관은 정말로 진정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박물관을 인간, 비인간, 자연 및 환경의 공존과 공감적 교차 문화 이해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논문은 박물관 활동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 위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어떻게 이 주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 박물관의 사명, 비전 및 가치의 중심에 점점 더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Abstract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2022) definition of a museum emphasized, that these organizations should foster sustainability, ‘in the service of society’. This social role for museums is becoming much more accepted, but to what extent are museums standing at the forefront of climate action? And how are they regarded in climate change reduction policies and strategies? Can they really make a genuine contribution, and if so, in what ways? Crucial within these debates are questions around whether we can view museums as spaces contributing to the co-existence of humans, non-humans, nature and the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empathic cross-cultural understandings.

The presentation approaches this subject through a review of museum activities, exploring how they have engaged with the climate crisis over time and how this topic has, for some, moved from being relatively marginal to one which increasingly sits at the heart of museums’ mission, vision and values. Using the United Kingdom as its main geographic focus and including discussion of the *Reimagining Museums for Climate Action* project (which ran during COP26 in Glasgow, 2021) the paper highlights areas of innovation by museums towards more “radical climate action” (Museumsforclimateaction.org). This includes strategies to support society’s decarbonization and adaptation using collections, exhibitions and public programmes. The paper concludes by recognizing that museums can indeed be rich spaces for hope and optimism around climate action although this requires confidence and new ways of working which could stretch staff capabilities and what some perceive to be museums’ traditional roles. Alongside this there are also wider cultural and structural challenges which currently limit momentum around this work.

분과회의 세션 2

2-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Parallel Session 2

2-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

박물관의 필록세니아
(Philoxenia)

Philoxenia in the Museum

Will Buckingham
Parami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그리스적 개념의 필록세니아(philoxenia), 즉, 타인과의 우정이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들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유익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나는 옥스포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의 어린이 방문객들의 경험에 대해, 박물관에 대한 나의 어린 시절 경험과 나의 전 협력자인 고 엘리 커크(Dr Elee Kirk) 박사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엘리의 연구는 어린이 박물관 경험의 개성을 강조하여, 박물관 경험의 질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독특하며 풍부하게 다층적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종종 박물관을 배움의 장소로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직접 박물관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보면, 배움은 훨씬 더 복잡한 태피스트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나는 '필록세니아(philoxenia)'라는 용어가 이러한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 위해 엘리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킨다. 필록세니아(philoxenia)는 박물관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많은 용어들 (예를 들어, '호기심'과 '경이로움')에 가깝지만, 타인과의 우정이라는 개념은 박물관 경험과 만남에 대해 잠재적으로 더욱 유익한 사고방식이다.

학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 박물관을 필록세니아(philoxenia), 즉, 타인과의 우정의 현장으로서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배움의 장소 이상의 것으로 이를 다시금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도리어, 박물관은 타자성과 풍부한 개인적, 정서적, 깊이 독특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화적인 만남을 열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장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Greek concept of philoxenia - friendship with the other - is a fruitful way of reflecting on the experience of museum visitors. To do this, I take as my starting point both my own childhood experiences of museums, and also the research of my former collaborator, the late Dr Elee Kirk, into the experience of child visitors at the Oxford University Museum of Natural History.

Elee's work served to bring to light the individuality of child museum experiences, showing persuasively that the textures of museum experience are much more individual, idiosyncratic, and richly-layered than we imagine. We often think of museums as sites of learning. However, as Elee's work shows, if we listen carefully to children's own accounts of museum visits, we discover that learning is only part of a much more complex tapestry.

In this paper, I develop Elee's work further to propose that the term "philoxenia" may help capture this complexity. While philoxenia is close to many other terms more commonplace in museum studies - for example, "curiosity" and "wonder" - this notion of friendship with the other is a potentially more fruitful way of thinking about museum experiences and encounters.

While not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learning, exploring museums as sites of philoxenia - friendship with the other - allows us to reimagine them as being far more than simply places of learning. Instead, it allows us to see that the museum may be of value precisely because it is a place with the potential to open up a rich set of personal, affective, deeply idiosyncratic - and ultimately transformative - encounters with otherness.

분과회의 세션 2

2-1 공존과 상생의 시대, 박물관과 예술의 역할
-역사적 담론을 중심으로

Parallel Session 2

2-1 The Role of Museums and Art in an Era of Coexistence and Mutual Benefit-Centered on Historical Discours

기술매체와 예술의 상생 :

1980년대~1990년대 한국 미디어아트
담론의 갈래와 쟁점Co-prosperity of Technology
Media and Art : The Sections
and Issues of Korean Media
Art Discourse from the 1980s
to the 1990s

홍지석 HONG JISUK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국문요약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비디오아트 담론은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조작(수정)', '합성(편집)', '불확실', '불연속(반복)', '참여' 등의 개념들을 내세우며 커뮤니케이션 가능성을 탐색하는 비디오예술의 특성과 중복/변이의 검색을 통해 창출되는 비디오예술의 즐거움(쾌) 현혹에 집중하는 유형이다. 다른 하나는 조작과 단절, 불연속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자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으나 후자는 예술가 자신의 솔직한 표현, 잠재의식의 표현이나 삶의 표정을 드러내는 예술을 강조했다. 전자는 비디오예술의 '즐거움(쾌)'을 강조했으나 후자는 쾌를 등한시하거나 배제하는 금욕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매체-기술결정론을 반대하고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입장'과 '대중-전자 매체의 미학적 감수성과 의식의 반영을 요구하는 입장'이 대립했다. 전자는 매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매체-기술결정론적 시각과 맞닿아 있으며 저항과 비판을 마비시키고 지배질서를 공고히 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며 후자는 1990년대에 등장한 신세대의 미디어아트가 한국사회가 본격적인 산업사회 속으로 편입한 1970~1980년대에 청소년기를 맞이했던 세대들의 감수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Abstract

Video art discourse in Korea in the 1980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ne is a type that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video art that explores communication possibilities by promoting concepts such as "manipulation" "composition(editing), "uncertainty," "discontinuity (revolvement)," and "participation," and the joy(pleasure) of video art created through the search of redundancy /variety. The other is the type that rejects manipulation, disconnection, and discontinuity. The former emphasized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while the latter emphasized the artist's own honest expression, that is, art that reveals the expression of subconsciousness or the expression of life. The former emphasized the "pleasure" of video art, but the latter had an ascetic tendency to neglect or exclude pleasure. In the early 1990s, "a position that opposes media-technological determinism and emphasizes resistance to the dominant order" and "a position that demands the reflection of the aesthetic sensitivity and consciousness of the mass-electronic media" were opposed. The former criticized that excessive obsession with the media is in line with the media-technical deterministic view, paralyzing resistance and criticism, and solidifying the dominant order.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saw that the new generation of media art that appeared in the 1990s represents the sensitivity of the generations who spent their adolescence in the 1970s and 1980s when Korean society was incorporated into a full-fledged industrial society.

이 시대의 “빨간 페터”는 누구인가?

- 재현과 동화에 관해

Who is the “Red Peter” of this era?

- About representation and assimilation.

장희권 Jang Hee Kwon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발표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지구촌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일종의 에스노그래피적 관찰로서, 재현(representation), 동화(assimilation), 문화적 전유(cultural appropriation) 등의 개념에 대한 관찰을 통해 타자(성)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한다. 논의의 출발은 카프카의 단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이다.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생포된 원숭이가 힘겨운 노력 끝에 유럽인의 평균 교양에 도달하는 ‘진보’를 이룩한다. 자신이 이룩한 성과를 학술원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원숭이 ‘빨간 페터’의 보고는 일차적으로는 자신이 인간처럼 ‘진화’하도록 도움을 준 인간들을 향해 온화한 언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원숭이로서의 존재를 박탈당한 채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 행태를 모방해야 했던 강제적인 ‘순응’ 과정을 반영적인 어투를 동원해 고발하고 있다. 빨간 페터가 제국의 힘에 의해 본래의 터전과 정체성을 빼앗기고 식민 상황에 놓인 그 누군가로, 즉 타자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한 우회적 글이다. ‘빨간 페터’가 ‘붉은 피부인’

으로 읽힐 수 있음은 자명하다. 붉은 피부인은 인디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로써 ‘빨간 페터’가 단순히 원숭이가 아닌, 제1세계에 의해 폄하된 타자들을 지칭하는 상징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본 발표는 영화 <기생충>을 예로 문화적 전유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 kind of ethnographic observation of the phenomena that occur in a global society where various races have no choice but to coexist, and it examines concepts such as representation, assimilation, and cultural appropriation. Through this, we have a general discussion about the other.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ussion is Kafka's short story "A Report for An Academy". A monkey captured alive on the coast of West Africa achieves 'progress' by reaching the average level of sophistication of a European through hard work. The report of the monkey 'Red Peter', who conveys his achievements to the academy members, primarily uses gentle language toward the humans who helped him 'evolve' like humans. However, the other side uses an ironic tone to denounce the forced 'conformity' process in which the monkeys were deprived of their existence as monkeys and had to imitate the language, culture, and behavior of their rulers. In that Red Peter is deprived of his original home and identity by the power of the empire and can be replaced by someone in a colonial situation, that is, by the Other, this work is a detour about the conflict situation that arises at the point where different cultures collide. It's writing. It is obvious that 'Red Peter' can be read as 'red-skinned person'. The term red-skinned was used in a racist connotation against Indians. This allows 'Red Peter' to acquire symbolism that refers not simply to monkeys but to others disparaged by the first world. This presentation will discuss cultural appropriation using the movie "Parasite" as an example.

한국과 아메리카 사이 :

인간의 땅과 디아스포라적 상상

Between Korea and the Americas :

The Land of Humans and the Diasporic Imaginary

Benjamin M. Han
University of Georgia

국문요약

한국의 문화적 상상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억 중 하나는, 멕시코로의 한국 이주의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1905년, 약 1,033명의 한국인을 태운 영국 선박, 일포드가 멕시코로의 길로 인천항을 떠나 유카탄에 도착했다. 한국인들은 187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경질 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번성했던 헤네켄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로 멕시코에 도착했다.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은 계약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외국에 왔지만, 그들의 민족 국가가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다는 것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4년 간의 노동 계약이 끝나자, 그들 중 많은 수가 멕시코에 머물렀고, 다른 이들은 더욱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쿠바와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러한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지난 수십 년간 영화와 소설로 서술되어 온 가운데, 1994년에는 한국의 지상파 3사 중 하나인 한국방송공사(KBS)가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의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인

후아니타 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드라마를 방영하였다. 본 논문은 한민족의 내재적인 부분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 주체성과 근대성을 형성하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한국의 역사드라마 <인간의 땅>이 라틴아메리카의 세계적 디아스포라 수용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을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의 목소리와 주체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TV 드라마는 그들을 타자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태평양 관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주체성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 또한, 이 역사드라마가 어떻게 미국을 거쳐 중남미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가독성을 찾기 위한 대상이자 목적지로서의 심판과정을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Abstract

One of the earliest memories of Latin America in the South Korean cultural imaginary is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migration to Mexico. In 1905, Ilford, a British ship carrying approximately 1,033 Koreans left the port of Incheon for Mexico, making its arrival in Yucatán. The Koreans arrived in Mexico as contractual laborers to work on henequen plantations that thrived in response to the growing demand for hard fibers across the globe since the late 1870s. Many of the Korean laborers came to a foreign nation hoping to return to their homeland after their contract ended, only to discover that their nation-state had vanish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a result, when the four-year labor contract ended for many Korean workers, many of them stayed in Mexico while others remigrated to Cuba and the United States in search of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While this history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has been narrated in films and novels in the last few decades, in 1994, the Korean Broadcasting Station (KBS), one of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ing networks in Korea, broadcast a historical TV drama based on the real-life story of Juanita Kim, one of the first members of the Korean diaspora in Mexico. This paper examines how *The Land of Humans*, a historical TV drama, illuminates Korea's reckoning with the world through the embrace of the global diaspora in Latin America in its attempt to claim diasporic subjectivities as an intrinsic part of *hanminjok* (Korean people) and nationalism shaping modernity. However, in its desire to claim the voices and subjectivities of the Korean diaspora in Mexico, the TV drama not only constructs them as the Other but also valorizes the Korean American diasporic experience and subjectivity in the transpacif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Latin America. I further problematize how the historical drama depicts the reckoning process through the United States as a referent and destination site for the Korean diaspora in Latin America to find legibility.

장소의 형성과 건축적 상상력

Erlangen市の 우생학 실행시설의 역사적 보존사례를 중심으로

The Formation of Places and Architectural Imagination :

A Case Study on the Historical Conservation of Eugenics Facilities in Erlangen City

홍민기 Mingi Hong
Studio MIN.ARCHI

국문요약

장소는 집단적 기억의 그릇과도 같다. 장소를 만드는 작업은 무엇을 기억할지, 어떠한 역사를 도시공간에 어떻게 남길지 결정해가는 공공적 과정이다. 도시 공간에서는 여러 시대의 켜가 중첩되고, 다양한 사건이 한 장소에서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 특정한 역사에 대한 보존 가치와 방법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시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직접적인 많은 이해관계와 충돌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소의 형성에는 그러한 복잡성, 충돌, 혹은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영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많은 정보가 네트워크로 빨리 들어가고, 혁신적인 디바이스에 의해서 정보의 접근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애가 허물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여전히 도서관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며,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적인 장소공간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23년에 열린 독일 도시 에어랑엔(Erlangen)의 "옛 치료 및 간호 시설(일명 Hupfla)"의 보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마스터플랜 공모전은 매우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건축적 상상력이 장소의 형성을 통해 어떻게 도시공간의 화합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에어랑엔시 공모전 작업을 통해서 건축적 상상력이 장소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Abstract

This text is about architectural imagination and the formation of places. A place serves as a vessel for collective memory. The process of creating a place is a public endeavor that involves deciding what to remember and how to preserve a particular history within the urban space. Places become part of our lives by serving as the backdrop to our daily routines, rather than merely preserving history in a static manner.

In urban spaces, multiple eras overlap, and various events become intricately intertwined. The understanding of the value and methods of preserving specific history can vary depending on individuals, groups, or even different eras, leading to direct conflicts of interest. Consequently, the formation of a place fundamentally relies on coexistence and harmony.

The urban masterplan competition centered around the preservation of the "Healing and Care Facility" (commonly known as Hupfla) in Erlangen, Germany, in 2023, is a highly unique case. It serves as a valuable example showcasing how architectural imagination can foster social coexistence and harmony through the formation of a place.

음악은 보편적인가?

- 상호 이해, 공감, 그리고 여러 문제들

Is Music Universal?

- On Mutual Understanding, Empathy, and their Problematic

Takayuki Yokota-Murakami
Osaka University

국문요약

음악은 종종 국가 / 문화적 장벽을 초월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간주된다. 음악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도전하고 음악의 '코드화'를 다른 언어적 구성으로 드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음악의 보편성을 대변하는 사상가들의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좋은) 음악 (즉, 포크)의 전문화적 이해력을 주장한 예술 논문에서 그는 일본 노래를 들었던 경험을 쓰며, 언어에 대한 지식은 없었지만 감정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톨스토이가 이 노래들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전달 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흔히 음악에 있는 보편주의의 함정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음악에서도, 어떤 문화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의 보편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진정한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편주의적 휴머니즘을 경계하고 이질적인 문화의 불가해성을 겸허하게 직시해야 한다.

Abstract

Music is often considered as a universal language that can transcend national/cultural barriers. There have been attempts in musicology to challenge such a notion and to reveal "codedness" of music as any other linguistic constructs. Lev Tolstoy was one of the proponents of thinkers who spoke for the universality of music. In his treatise of art in which he claimed the transcultural comprehensibility of (good, i.e.. folk) music he writes of his experience of having listened to Japanese songs and insists that he understood the emotional content of them perfectly well although he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the language. Historical research into Tolstoy's "experience" demonstrates, however, that Tolstoy totally mi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 the meaning of these songs. The case of a clear demonstration of the pitfall of universalism that is often attached to music. In music, as much as in any cultural system, its universality is open to question. In order to have true understanding and true empathy of the Other, one should be on guard against such universalist humanism and face the incomprehensibility of the alien culture humbly.

공존과 화합 :**사회적 상호작용의 비선형적 역동성****Co-Existence and Harmony :
Non-Linear Dynamics of Social
Interaction**

Bongrae Seok
Alvernia University

국문요약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발전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Kiel and Elliott, 1996).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비선형적 역동성의 관점에서 공존과 상생의 구성적 조건으로서의 조화를 논하고자 한다. 조화는 공익을 위해 개인 및 사회 관계의 개인차와 다양성에 대한 상호 수용, 지원 및 이해로 구성된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공존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 조화의 중요한 성질 중 과정 의존성, 맥락 민감성, 조화의 구성적 성질에 주목하여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행동(궤적)과 비교하고, 조화가 어떻게 공존과 상생의 중요한 요소인지 설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화의 유교적 개념(기계적 평등이나 동질성을 부과하지 않고 지지적인 공존과 협력을 통해 다양하고 자주 대립하는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통합하는 이상적 규범)을 논하고, 다양한 관점, 요구,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평형, 분기, 기타 복잡한 변화 패턴과 같은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형식적 특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Abstract

It is not uncommon to develop a formal interpretation of a social, political, or economic phenomenon (Kiel and Elliott, 1996). In this paper, I will discuss harmony as a constitutive condition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from the perspective of non-linear dynamics of social relations. Harmony can be defined broadly as supportive and cooperative coexistence that consists of mutual acceptance, support, and understanding of individual difference and diversity in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 for common good. Among the important properties of harmony, I will focus on the process-dependency, context-sensitivity, and constructive nature of harmony and compare them with the behaviors (i.e., trajectories) of a non-linear dynamic system and explain how harmony is a critical element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Specifically, I will discuss Confucian notion of harmony (an ideal norm that integrates diverse and often conflicting social relations and roles through supportiv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without imposing mechanical equality or homogeneity [和而不同]) and analyz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mal properties of a non-linear dynamic system such as equilibrium, bifurcation, and other complex patterns of change that can achieve the balance of diverse viewpoints, needs, and opinions.

This paper consists of three sections.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I will explain the notion of Confucian harmony through supportive co-existence (和而不同), relation specific duties (五倫), sympathetic understanding (恕), and reciprocal consideration (己所不欲勿施於人) and discuss whether Confucian harmony is a viable and inspiring model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In the second section, I will argue that a theory of non-linear dynamics (such as chaos theory) provides a good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and interpret Confucian harmony. Specifically, I will show that the open, interactive, relationship-based, and constructive natures of Confucian harmony discussed by many comparative philosophers can be explained in this dynamic and formal interpretation. In the third section of the paper, I will argue that this formal interpretation helps one to avoid overly liberal (i.e., Confucian harmony accepts any viewpoints) and overly restrictive (i.e., Confucian harmony does not function in extreme moral dilemmas) interpretations of Confucian harmony.

전통의 본질과 개인 간의 관계

The Nature of Tradi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y Hamilton
Durham University

국문요약

개인 간의 관계는, 이것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든,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든 전통의 개념에 의해 조정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그러한 관계의 중재자로서 전통의 개념을 심문한다. 나는 맥스 베버 (반합리적)와 알리스데어 매킨타이어 (합리적)가 제시한 설명을 대조하며,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모형은 웨버의 것으로, 전통을 자의식이 없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 전통을 따라 우려되는 전통은 암스트롱의 비합리적 분석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것은 전통의 합리성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생각이다. 그러나, 암스트롱만이 전통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매킨타이어는 자유주의를 지나친 합리주의로, 보수주의를 반 합리주의로 잘못 진단한다. 비합리적 관점에서 지적이고 예술적인 전통은 전적으로 서서히

터득하며 진화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상가들은 의식적으로 전통을 특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데이비드 암스트롱은 "전통은 채택될 수도 없고 확산될 수도 없다. 그것은 그저 전해진다." 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전통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 사상가는, 전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합리성과 비합리성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자유주의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식입니다"라는 반응이 핵심인 전통을 인간 사회와 교류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례를 조사하는 것은 전통 분석의 일부이며 세대 내 및 세대 간 인간 관계의 중재자로서 필요하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is mediated by the concept of tradition – whether this is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and individuals, or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is paper I interrogate the notion of tradition as a mediator of such relationships. I contrast the accounts offered by Max Weber (anti-rational) and Alisdair MacIntyre (rational), arguing that neither offers a satisfactory analysis. The received model of tradition is Weber's, who treats tradition as unself-conscious and non-rational; following in this tradition concerning tradition is Armstrong's non-rational analysis. In contrast is MacIntyre's idea of the rationality of tradition. However, only Armstrong attempts a conceptual analysis of tradition. MacIntyre mis-diagnoses liberalism as over-rationalistic, and conservatism as anti-rationalistic. The non-rational view is wrong to assume that intellectual and artistic traditions evolve entirely by osmosis; thinkers may self-consciously develop the tradition in a certain direction. David Armstrong comments that "a tradition cannot be adopted nor does it spread. It is handed on." But a thinker who sees themselves as within a tradition may criticise how it is evolving. This nuanced relation between rationality and non-rationality of tradition is essential to developing a conservative critique of liberalism. One needs to see tradition as an inevitable part of human society and interaction, in which the response "This is how we did it before" is key. An examination of precedent is thus part of the analysis of tradition, and necessary as a mediator of human relations both within and across the generations.

균형을 통한 공존 :

유럽 의학과 종교의 중세 소우주/대우주

Co-existence through the Balance :**Medieval Micro/Macrocosm in European Medicine and Religion**

MinJi Lee

Montclair State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논문은 빙엔의 12세기 선각자 힐데가르트의 글에서 인체와 세계의 소우주와 대우주가 어떻게 공존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자는 힐데가르트의 첫 번째 인간의 기독교 창조와 타락에 대한 표현을, 그의 환영적 작품 3 부작 중 첫 번째 작품에서의 아담과 이브, 시비아스 ("Know the Ways")와 그녀의 의학 논문, 원인과 치료 ("The Causes and Cures")를 통해 조사한다. 힐데가르트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표현한 상호적인 방식이 중세 신학과 의학에서 자연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나는 인간이 독립적이지 않고 세계와 상호 의존적이라는 상생과 공존의 현대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될 수 없기에 우리의 몸, 마음, 그리고 세계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힐데가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일관된 균형은 최초의 존재인 아담과 이브가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연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으면,

우주 전체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요소와 액체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중세의 이해는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의 시기에 우리의 연결을 재고하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micro- and macrocosm of the human body and the world were used in terms of co-existence in the writings of the 12th-century visionary Hildegard of Bingen. More specifically, I investigate Hildegard's representation of the Christian Creation and Fall of the first human beings: Adam and Eve in the first of Hildegard's trilogy of visionary works, the Scivias ("Know the Ways") and her medical treatise, the Cause et cure ("The Causes and Cures"). By understanding the reciprocal ways in which Hildegard represented the human soul and body affect the natural world in medieval theology and medicine, I offer insight into the modern paradigm of co-prosperity and co-existence that human beings are not independent but codependent with the world; therefore, we have a strong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our body, mind, and world since we are not separable. This consistent balance of the human being is connected to the natural world since Adam and Eve, the first beings, were created with the natural elements according to Hildegard. If human beings lose their physical and spiritual health, it affects the world as they also share elements and fluids with each other to keep the right balance of the whole cosmos. This medieval understanding of co-existence of the humans and nature gives us a significant view in a time of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to rethink our connection.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사물에 대한 공감의 공존

Plato, Aristotle and Coexistence in Empathy towards Things

이석광 Seogkwang Lee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이원론적 관점에 도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잠재성과 실재성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 윤리에서의 공감과 공존의 역할을 탐구한다. 본 논문은 모든 환경 실체의 고유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수단으로서 공감의 실천을 강조하며, 자연 환경에서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전체론적 이해를 주장한다. 변하지 않는 형태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분리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적 관점은, 전통적으로 현실에 대한 논의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자연 환경에서 생물적 관점과 무생물적 관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간과하고 모든 개체에 내재된 잠재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플라톤의 이분법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유기체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논문은 모든 환경 실체의 상호 의존성과 공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장한다.

공감의 실천은 이러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생물적 측면과 무생물적 측면을 포함한 모든 환경 단체와 공감함으로써 그들의 독특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공감적 접근은 인간 중심의 관점을 초월하고, 환경의 모든 요소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한다. 위의 전제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의 추가적인 주제를 다룬다. 첫 번째 주제는, 들뢰즈의 창조적인 존재 개념에 관한 것으로, 우리 행성의 다른 서식 동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의무와 일치하는 공감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수단으로서, 동물이 되는 것과 지구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주안점은 인간, 동물, 식물, 곰팡이 및 박테리아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공감적 방식으로 조사하는 학문적 영역인 다종 연구 영역에 관한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empathy and coexistence in environmental ethics, drawing upon Aristotle's concept of Potentiality and Actuality to challenge Plato's dualistic perspective. The paper argues for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entities in the environment, emphasising the practice of empathy as a means to recognise and respect the inherent potentiality in all environmental entities. Plato's dualistic perspective, which separates the realm of unchanging forms from the realm of matter, has traditionally shaped discussions on reality. However,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e intricate relationships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aspects of the environment and fails to acknowledge the potentiality inherent in all entities. By turning Plato's dichotomy to Aristotle's biological organisms, the paper argue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and coexistence of all environmental entities.

The practice of empathy plays a central role in fostering this understanding. By empathising with all environmental entities, including living and non-living aspects, their unique potentiality can be acknowledged and appreciated. This empathic approach transcends human-centred viewpoints and recognises the intrinsic worth of every element in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premise, this paper addresses two additional themes. The first of these themes pertains to Deleuze's concept of creative becoming, encompassing becoming-animal and becoming-earth, as a means of cultivating empathetic sensibilities aligned with the imperative of coexisting harmoniously with other inhabitants of our planet. The second focal point of this paper concerns the domain of multispecies studies, an academic realm through which one examines, in an empathetic manner, the intricate inter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imals, plants, fungi, and bacteria.

인공지능의 움벨트와 동물

AI's Um Belt and Animals

이동신 Yi, Dongshi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피터 싱어와 입 페이 쓰는 “AI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걱정이 높아짐에도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는 이슈로 “비인간 동물에 대한 AI의 영향력”을 지적한다. 인류의 세상이 단 한 번도 인간만으로 구성된 적이 없었고, 현재 지구상 포유류의 60 퍼센트가 가축의 형태로 존재하고, 조류의 경우 70퍼센트가 가금류인 현실에서 인류의 세계는 동물을 제외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처럼 인간 세계에 수많은 동물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AI가 형성하는 “계산적 우주”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동물을 제외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각각의 동물이 기호학적으로 구성된 세계를 지칭하기 위해 제이콥 본 뵉스킬이 고안한 용어인 ‘움벨트’를 차용하여 본 논문은 AI도 자신만의 움벨트를 형성시킬 거라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AI의 움벨트가 인간중심주의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동물과의 관계적 윤리관을 토대로 한 세계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토대로 형성된 세계만이 인간 및 비인간 동물 모두에게 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Despite the rising concern about “ethical implications of AI,” Peter Singer and Yip Fai Tse have pointed out, there is virtually no discussion of “the kinds of impact AI has on nonhuman animals.” Given how much of the current world is made up of nonhuman animals, to envision an AI-created world or, to quote Stephen Wolfram via N. Katherine Hayles, the “computational world” that we are apparently heading into as devoid of nonhuman animals seems unacceptable. This paper borrows Jacob von Uexküll’s notion of Umwelt and refers to this computational world as AI’s Umwelt, and argue that the way nonhuman animals are included determines the ethical contour of AI’s Umwelt.

ChatGPT와 글쓰기 :

글을 쓰는 인간 주체가 있는가?

ChatGPT and Writing :

Is there a human subject behind writing?

김종갑 Kim, Jonggab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국문요약

2022년 말에 ChatGPT가 출시된 이후로 그것의 부작용과 오용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제도권은 학생들이 글쓰기를 GPT에 의존함으로써 스스로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인간의 글쓰기 수행 능력을 뛰어 넘은 GPT가 인간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촘스키와 플로리다처럼 GPT는 정보만 처리할 뿐 인간처럼 삶의 내용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들이 글쓰기의 중요한 본질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 발표를 제안하게 되었다. 독창성과 의식, 자율성, 지향성의 관점에서 인간의 글쓰기와 GPT를 구별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미셸 푸코와 롤랑 바르트가 1970년대에 지적하였듯이, 그리고 고대 희랍 이후의 수사학의 발전과정이 말해주듯이 글쓰기는 개인의 창조적 작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집단지성적 작업이며, 언제나 종이나 펜, 붓과 같은 글쓰기 장치와 결합된

사이보그적 작업이었다. 삶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도 언어 체계와 수사학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ChatGPT는 이에 대한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인간의 글쓰기와 대립되거나 그것을 위협하는 새로운 자동글쓰기 기계의 출현이 아니다. 원래부터 글쓰기는 비인간적이고 사이보그 적이었으며 집단지 성적이었다. 인간과 기계를 배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인류역사의 초기부터 인간은 자신의 몸을 기계와 결합하거나 세계를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기계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Abstract

Since ChatGPT was released in late 2022, alarm bells have been ringing about its side effects and the risk of misuse. The university system fears that students' ability to think and express themselves will be diminished by relying on GPTs for writi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GPTs will surpass human ability in writing, potentially rendering humans ineffective. Others, such as Chomsky and Floridi, have observed that GPTs merely process information without understanding what they are doing. This paper proposes that it is not legitimate to distinguish between human writing and GPTs in terms of originality, consciousness, and intentionality. As Michel Foucault and Roland Barthes pointed out in the 1970s, and as the development of rhetoric since ancient Egyptian times has shown, writing is not an individual creative endeavor but a communal and collective intellectual pursuit. It is inherently cyborgic in nature as it is coupled with instruments such as paper, pen, or brush. ChatGPT does not herald the emergence of a historically new writing machine that cancels or threatens human writing capacities, as its critics have claimed. The history of writing demonstrates that it has always been inhuman, cyborgic, and collective.

AI 예술과의 공존 :**AI예술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Coexistence with AI Art :****What to Expect from AI Art**

정혜윤 Hye-yeon Chung

명지대학교

Myongji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예술 분야의 진정한 일원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에 의한 예술을 우리가 진정한 예술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적어도 인공지능이 감정이라는 인간의 역량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감정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사교로봇의 양상을 제시한 후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들에서 채택되고 있는 감정 전략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교로봇에 비해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로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인 직관, 즉 예술은 '예술가가 체험한' 감정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지목하고, 이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른 직관도 예술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감정의 표현이나 전시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 않는 다양한 예술 현상에 주의를 환기하여 예술 분야의 적법한 일원이 되기 위해 인공지능이 반드시 감정의 영역에 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은 감정의 표현 혹은 전시가 중요한 예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Abstract

In this essay, I argue the belief that AI cannot create artworks only because it cannot feel emotions as human beings cannot be held. In other words, if artworks by AI cannot be accepted as qualified members of the art world, it is not because AI cannot feel emotions as human beings. For this purpose, I first present how social robots, the representative AI which challenges the area of human emotions perform their expected function, and then examine the strategies adopted by AI art programs. I argue that it is due to the implicit intuition that the essence of artworks lies in the expression of emotions artists undergo that people treat AI artworks more strictly than social robots. I show that this intuition has its root deeply in art history, but also indicate that there has been another, contrasting perspective that does not find the essence of artworks in the expression of artists. Afterward, I call attention to contemporary artworks whose primary concern is neither expressing nor displaying emotions, but the assertion of the ideas. Artworks of this kind show that AI doesn't have to challenge the area of human emotions. The discussion in this essay ultimately proves that the deficiency of AI in its emotional capacities does not generate any trouble whether the artworks it produces crucially require the expression and the display of emotions or not.

인간과 공생 가능한 윤리적 로봇

Ethical robots that can coexist with humans

이영의 Young E. Rhee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국문요약

로봇이 인간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은 여러 방면에서 인간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이점이나 초지능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 바둑에서 그랬듯이 조만간 인간은 로봇의 하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로봇과의 공생을 생각하고 로봇의 윤리성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생존을 위해 윤리적 로봇이 필요하다. 삶의 현장에서 인간과 더불어 생활하고 인간과 소통하고 있는 소셜로봇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인간을 능가하고 거기에다 인간이 로봇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실존적 재앙일 것이다. 이상이 윤리적 로봇에 대한 한 가지 접근인데, 거기서 로봇은 인간에게 노예이거나 아니면 생존경쟁자로 인식된다.

그러나 로봇은 인간에게 경쟁자인 동시에 타자일 수 있다. 윤리적 로봇에 관한 두 번째 접근은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로봇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로봇이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윤리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진 로봇을 '윤리적 로봇'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윤리적 로봇이 갖추어야 할 윤리성의 두 가지 핵심으로 자율성과 인격을 검토한다. 나는 먼저 트롤리 문제를 사용하여, 행위 원칙으로서 공리주의적 원칙과 의무론적 원칙을 기준으로 로봇의 자율성에 따라 윤리적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나는 타자로서의 윤리적 로봇이 갖추어야 할 주요 조건으로서 인격을 들고 롤랜즈의 '형이상학적 인격체' 개념을 중심으로 로봇 인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e paper is to discuss ethical robots that can coexist with humans. There are two approaches to ethical robotics. The first approach regards robots as either slaves to humans or as competitors for survival. However, robots can be others as well as rivals to humans. The second starts from a human-robot perspective rather than an anthropocentric one. In order for a robot to live in human world, it must adopt a certain ethical stance, which I refer to as an ethical robot and examine autonomy and personhood as the two cores of ethical robots. I first use my variations of the trolley problem to argue that different degree of robot's autonomy leads to different outcomes in ethical situations. I then argue that focusing on Roland's notion of the "metaphysical person,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we should regard them as persons, which in turn would make them ethical beings.

'효용'을 넘어 '존재'를 위한 화폐 :

인문학적 성찰과 적용 가능성 연구

Money for 'Existence'**beyond 'Utility' :**

Humanistic Reflection and Applicability

나희량 HEERYANG RA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현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주류경제학은 경쟁과 효율을 지고의 선으로 간주하고 인간을 능력에 따라 수치화, 계량화함으로써 인간 존재 자체와 사회적 관계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인문학적 통찰을 토대로 대안적 화폐 인식과 정책 가능성,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화폐창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화폐이론은 크게 부정적 인식체계를 토대로 하는 상품화폐론과, 긍정적 인식체계를 토대로 하는 신용화폐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통화주의, 신자유주의 등에 기초한 주류경제학의 화폐이론은 상품화폐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존재 자체로서의 인간의 가치는 부정되고 수치화되고 계량화된다. 이는 화폐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결과물이자 배일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화폐의 긍정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 자본주의하에서 인간 존재와 사회적 관계의 가치 회복을 위해 이러한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론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화폐이론, 주권화폐론 등의 '국가주도 화폐창조'를 통해 실물경제를 추동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 존재와 사회적 관계의 가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경제학을 넘어 인문학적 통찰을 토대로 한 대안적 화폐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

Abstract

Current financial capitalism and mainstream neoliberal economics prioritize competition and efficiency as the ultimate goals, deliberately disregarding the intrinsic value of human life and social relationships. They reduce and assess individuals solely based on their abiliti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raise awareness about alternative aspects of money, explore policy options, and emphasize the necessity to create a monetary system rooted in human values. Monetary theory can broadl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mmodity money theory, which follows a negative perception framework, and credit money theory, which operates on a positive perception framework. Mainstream economic theories such as monetarism and neoliberalism are based on commodity money theory. According to these theories, the inherent worth of human beings is denied, reduced to numeric terms. This is because money is seen merely as a reflection of economic activity, a superficial veil. Consequently, the positive aspects of money are not fully addressed. To restore the value of human life and social relationships within the current capitalist system, it is essential to challenge these negative perceptions and theories about money. For instance, we can stimulate the real economy through strategies like 'state-led money creation,' as advocated by modern money theory and sovereign money theory. This approach can further contribute to the revival of the intrinsic value of human life and social connections. Achieving this goal requires raising awareness about the aspects of money grounded in insights from the humanities, going beyond the traditional economics.

평화를 현재로 만드는 과정 :**갈등이 반갑고 협력이 즐거운
'회복적 공감대화'****The process of making
peace into the present :****'Restorative Empathy Dialogue' where
conflict is welcome and cooperation is
enjoyable**

안지영 Ahn Ji Young

인제대학교

Inje University

국문요약

본 글은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서 평화적 소통 모델에 관해 탐구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평화학 및 평화 실천 그룹으로부터 주목받아 온 '회복적 정의'와 '서클', '비폭력대화'에 기초한 소통 모델을 '회복적 공감대화'라 일컫고,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그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복적 공감대화'의 철학적 전제는 회복적 정의에서 비롯된 회복적 세계관이다. 회복을 목표이자 목적으로 하여 매 존재와 세계를 회복이 필요한지 충분한지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이다. 회복해야 할 지점을 빠르게 알아차려야 수월하므로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이 반갑다.

둘째, 평화적 소통 구조와 문화로서 '서클'을 제시하였다. 서클은 한 사람씩 발언하고 경청하며 안정감과 신뢰로 쌓아가는 안전하고 평등한 시공간이다. 회복보다는 잘잘못을 가려 상벌 하는 데 익숙한 문화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클과 같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비폭력 대화에 기초하여 마음챙김 등을 접목한 '회복적 공감대화'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등하게 공감할 것을 강조한다. 서로의 입장과 견해를 경청하며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느낌과 욕구를 공감하며 마음을 연결하고 함께 만족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시민 개개인이 이와 같은 소통 역량을 갖추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네 삶터가 곧 평화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eaceful communication model as a basic competency that citizens must have in order to realize active peace. Since the 2000s, domestic peace studies and peace practice groups have paid attention to 'restorative justice', 'circles', and 'non-violent communication'. Here, the communication model based on these three concepts is called 'restorative empathic communication', and its contents are introduced in the following three directions.

First, the philosophical premise of 'restorative empathic communication' is a restorative worldview derived from restorative justice. This perspective views recovery as its goal and purpose, and classifies each being and the world as to whether recovery is necessary or sufficient. If you look at the world from a restorative worldview, the moment when conflict is revealed is a welcome sight. The reason is that it is easier to quickly recognize the point where recovery is needed.

Second, 'Circle' was presented as a peaceful communication structure and culture. In a circle, people talk and listen one by one, building stability and trust. So the circle is a safe and equal space and time, and it is also the process of becoming that way. Mainstream culture is accustomed to rewarding and punishing mistakes rather than recovery.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peace, detailed preparations such as circles are necessary.

Third, 'restorative empathic communication' is based on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combines mindfulness, etc. Here, the emphasis is on empathizing with oneself and others equally. We listen and observe each other's positions and opinions, and connect our hearts by empathizing with each other's feelings and needs. And we find a way to be satisfied together. If each citizen can have peaceful communication capabilities and make relationships, we expect that our living place will soon become a peace scene.

정치적 노동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

- 아렌트와 네그리를 중심으로 -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through the Political Labor

오하나 Hana Oh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지배 집단의 바깥으로 배제된 사회적 소수자들(이주노동자, 장애인,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비정규직 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배제의 지양은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 및 법률 제정이라는 법적 대안들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러한 법률적 접근은 사회적 요구와 광의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나아가 사회적 요구와 합의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정치-사회적 연대의 장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수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정치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연대의 장소 형성에 대한 논의는 일찍이 현대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에 의해서 제안되었지만, 그의 개념적 범주는 현실적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뒤섞여 나타난 제국적 네트워크 권력의 시대에 연대의 장소는 아렌트적인 관점에서 단순 말과 행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네그리가 주장했듯이 언어, 물질, 정보, 소통,

관계, 정동 등 비물질적 생산물의 생산까지도 포함하는 삶 정치적 노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삶 정치적 노동은 공적인 것도 사적인 것도 아닌 공통적인 것을 생산함으로써 연대의 장소(혁명의 장소)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네트워크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소수자들의 정치적 노동은 연대의 장소 속에서 새로운 삶의 형태와 사회적 조직 형태들을 개발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social minorities (migrant laborers, disabled people, international marriage foreigners, women, non-regular laborers, etc.) excluded from the ruling group is increasing. The avoidanc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minorities was generally made through legal alternatives such as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legisl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which are made possible through social demands and broad consensus. Furthermore, for social needs and consensus, the place of political-social solidarity of the community must precede. Discussions on forming a place of solidarity where minorities can communicate together and be revealed as members of the political community were earlier proposed by modern political philosopher Hannah Arendt, but his conceptual category has limitations in capturing practical complexity. In the era of imperial network power, where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are realistically intertwined, the place of solidarity is formed not only through simple words and actions from an Arendt point of view, but also through bio-political labor, including the production of non-material products such as language, materi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lations, and affect. Bio-political labor enables the formation of a place of solidarity (a place of revolution) by producing the Common, not public or private. Political labor of minorities away from network power develops new forms of life and social organizational forms in a place of solidarity.

아이 돌봄의 위기와 돌봄 연대의 양상

- 영화 <미씽>과 <Lost, Found>를 중심으로

Crisis in child care and aspects of caring solidarity

- Focusing on the movies Missing and
Lost, Found

송향경 SONG XIANGQING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Womens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아이 유괴를 모티브로 한 한국 영화 <미씽>(2016)과 중국 영화 <Lost, Found>(2018)로 아이 돌봄 위기의 다양한 차원과 해결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영화에서는 가정에서의 젠더적 불평등, 직장에서의 근무 환경 및 공권력의 제도적 한계가 만들어 낸 아이 돌봄의 공백 위기가 보모에 의한 유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표출되었다. 유괴된 아이가 구출되던 순간은 일차적 친밀관계, 이차적 사회적 관계, 국가와 국제적 층위와 관련되는 삼차적 관계라는 아이 돌봄의 세 차원의 동심원이 동시다발로 작동되던 순간이며 사회와 제도의 지원이 현현되던 순간이다. 아이 돌봄 위기의 사건과 그 해결은 모성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동적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위기에 놓인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정된 돌봄을 받게 한다. 하지만 아이의 구출 과정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으로 돌봄에서 배제된 유괴범인 보모 아이의 죽음은 돌봄 문제는 결코 모성의 연대로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코 쉽게 극복될 수 없는 계층과 인종의 한계를 보여준다. 영화는 이와 같은 계층의 분화를 도시/농촌의 이분법으로, 국적의 구분으로 보여주면서 젠더적 곤경으로 축소시킨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various dimensions and possibilities of solving the child care crisis with Korean movies "Missing" and Chinese movies "Lost, Found" featuring child kidnapping. In the film, the crisis of child care created by gender inequality at home, working conditions at work,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public power was expressed as an extreme situation of kidnapping by nannies. The moment when the kidnapped child was rescued was the moment when the three dimensions of child care, primary intimacy, secondary social relations, and tertiary relationships related to the state and international level, were in operation at the same time, and the support of society and institutions was manifested. The events of the child care crisis and its resolution elicit "cognitive empathy" and "dynamic empathy" in the interaction of mothers, allowing more children in crisis to receive stable care. However, the death of a nanny child, a kidnapper excluded from car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an imbalance in medical resources that surfaced during the child's rescue,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of class and race that cannot be easily overcome, showing that the problem of care is never a problem that can only be overcome by maternal solidarity. The film reduces this class differentiation to a gender predicament by showing it as a dichotom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a division of nationality.

분과회의 세션 3

Parallel Session

- 3-1
321호 문학 연구의 미래 : AI,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상호매체성
The Future of Literary Studies : AI, Digital Media, and Intermediality
- 3-2
322호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
- 3-3
323호 인간과 기계, 양립과 호혜
Human and Machine: Compatibility and Reciprocity
- 3-4
324호 전쟁 그리고 타자(others)에 대한 적대와 환대
War and Hostility & Hospitality to Others
- 3-5
325호 종교미술의 기능 :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 3-6
326호 나와 타자, 공존과 상생
Me and the Other,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디지털 세계 문학을 위한 제안 :

디지털 인문학, 문학, 미디어 및 인공지능의
융합

A Proposal for Digital World Literature :

The Convergence of Digital Humanities, Literature, Medi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김영민 Youngmin Kim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국문요약

디지털 인문학, 문학, 미디어 및 인공지능 분야를 수렴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프로젝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연결성의 중성 시대에 기술적 송고의 변화하는 지형을 이해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를 나타낸다. 한편으로는, Jerome McGann의 "전자 인코딩 시스템"(SGML, XML 및 TEI)의 "디지털 마크업 방식" 개념으로 시작하여, 종이 기반 텍스트의 마크업을 매핑하여 전통적인 텍스트의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우리는 컴퓨터와 인터넷에서 수집되고 저장된 정보의 저장 및 검색 허용을 가능케 해주는 "점점 더 커지는"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큰 데이터"의 혼란 환경적인 존재를 상기할 수 있다. '빅텐트'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위태로운 것은 이러한 코드와 빅데이터를 '읽는' 방법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본 논문은 미디어 고고학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DH 전자/기계 문헌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더불어 "코드"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시도한다.

Abstract

Converging the fields of digital humanities, literature, media, and AI is a daunting tricky project which will, nevertheless, reveal an innovative attempt to understand the shifting terrains of the technological sublime in the medial age of hyperconnectivity. On the one hand, one can start with Jerome McGann's notion of "digital markup schemes" of "electronic encoding systems" (SGML, XML, and TEI), mapping the markup of the paper-based texts, translating the vast corpora of the traditional texts into digital forms. On the other hand, one can recall the environmental ubiquitous presence of "big data," thanks to "more and larger" databases which allow us to get access to the storage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collected and stored from the computers and the internet. What is at stake in the field of "big tent" digital humanities is how to "read" these codes and big data. The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s. This paper attempts to bring "code" and "big data" together in tandem with AI, focusing on DH electronic/machine literature in relation to the new technopoetics of AI from the perspective of media archaeology.

* 2023 NRF Korea-US Special Cooperation Project : "AI avec Digital Humanities : New Technopoetics and Electronic Litera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K2A9A2A20097740)

* '인공지능과 디지털인문학의 상생 : 새로운 기술시학과 전자문학' 과제명으로, 2022년도 한-미 인문분야특별 협력사업 선정

비교 문학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접근 :

기회와 도전

Digital Humanities Approach to Comparative Literatur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Qinglong Peng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국문요약

지난 10년 동안 영어권 국가권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장학금 제도가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이 장학금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방법론과 인식론에 대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나, 디지털 인문학 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며 경의를 표할만한 약속과 성취를 이뤄냈다. 기술적-인문학의 교차 및 통합을 통해, 인문학은 더 이상 배척당하지 않고, 잘 정립된 혁신의 가치와 사회 개선의 유비쿼터스한 요구에 부합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 논문의 저자는 디지털 인문학이 데이터 기반 경험주의와의 비교문학 연구를 확장 함으로써 인문학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디지털 인문학은,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으며 인문학자의 부적절한 참여, 인문학 분야의 정의되지 않은 경계, 세계적인 인식 부족, 미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미성숙한 이론 모델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Abstract

Over the past decade, digital humanities scholarship has developed dramatically in Anglosphere universities. However, elsewhere such as China Mainland, little interest is yet visible in this scholarship. Still controversial over its methodology and epistemology, and too early to predict its future, digital humanities scholars have made respectful and encouraging commitments and accomplishments. The self-protection of humanities from further marginalization, through intersection with and integration of techno-humanities, is in line with the well-established value of innovation and the ubiquitous needs of social improvement. From both a macro and micro perspective, the author of this article contends that digital humanities scholarship can contribute to the humanities as a whole, by expanding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with data-based empiricism. However, as a new approach to comparative literature, digital humanities is still in its fledgling stage and faces a slew of challenges: inadequate involvement from humanities scholars, undefined boundaries within humanities disciplines, lack of global recognition, and immature theoretical models to propel future research.

* 2023 NRF Korea-US Special Cooperation Project : "AI avec Digital Humanities : New Technopoetics and Electronic Litera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K2A9A2A20097740)

* '인공지능과 디지털인문학의 상생: 새로운 기술학과 전자문학' 과제명으로, 2022년도 한-미 인문분야특별 협력사업 선정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teratur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ex Gil

Yale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논문은 메타데이터로서 문학의 범주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그리고 그 구조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어떤 과제를 남겼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도서관이 책을 분류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문학을 장르와 언어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는지를 강조하며 시작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도서관이 책의 분류를 위한 질서 정연한 세계를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지털 텍스트, 인터넷 및 AI의 등장으로 이러한 경계가 붕괴되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문학 부서가 낙서, 광고에서 컴퓨터 코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텍스트를 포함하기 위해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메타데이터 분류는 안정적이었다. 이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의 이러한 안정성의 결말에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독서 경험을 형성하는 텍스트의 물리적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전자 도서관에서 메타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공지능이 ChatGPT와 같은 프롬프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문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문학을 메타 데이터로 재편하고,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며, 나아가 문학 작품의 창작과 보급에 있어 작가와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Abstract

The paper discusses the evolution of the category of literature as metadata and the challenges posed by digital technologi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at structure. It begins by highlighting how traditional library classifications have neatly categorized literature into genres and languages, providing an orderly world for organizing books. However, the rise of digital texts, the internet, and AI has disrupted these boundaries. Despite the effort by literature departments in recent decades to expand their focus to include a wide range of texts, from graffiti and advertisements to computer code, the metadata categorization of literature remains stable. The paper questions the fate of this stabilit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material systems of textual organization that shape our reading experiences. It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metadata in digital libraries and how AI can impact literature through prompt-based systems like ChatGPT. In sum, the paper raises questions about how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technologies are reshaping literature-as-metadata, challenging traditional boundaries, and even redefining the role of authors and libraries in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literary works.

* 2023 NRF Korea-US Special Cooperation Project: "AI avec Digital Humanities : New Technopoetics and Electronic Litera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K2A9A2A20097740)

* '인공지능과 디지털인문학의 상생 : 새로운 기술학과 전자문학' 과제명으로, 2022년도 한-미 인문분야특별 협력사업 선정

책과 글을 넘어서 :

디지털 세계에서 문학의 상호매체적 관계

Beyond Books and Texts :

The intermedial relationships of literature in a digital world*

Beate Schirrmacher

Linnaeus University

국문요약

디지털 미디어의 부상은 우리가 문학에 참여하는 방식을 변화 시켰고, 문학-작품에 대한 참여를 재구성했으며, 문학 작품에 접근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 시켰다.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부르는 구두로 표현된 인간 경험은 더 이상 텍스트와 인쇄된 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호매체성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문학의 진화하는 역동성을 풀기 위한 가치있는 틀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문학의 다양한 상호매체적 관계에 주목하고 관습과 맥락에 의해 형성된 텍스트, 이미지 및 사운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 장치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 라스 엘스트롬의 미디어 유형 및 미디어 양식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 워크 (2010; 2021)는 이러한 다양하고 다층적인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유연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제공한다. 스웨덴의 시인 요하네스 헬덴의 디지털 아트 *Evolution(진화)*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엘스트롬의 미디어 양식이 미디어 간 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미디어 경계를 넘나들며 비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틀을 가능하게 하는지 보여준다. 이 프레임 워크는 예술적 미디어에서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학자들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모드(mode)와 미디어의 복잡한 수렴을 다루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Abstract

The rise of digital media has transformed how we engage with literature, reshaped our engagement with literature, and how we access and experience literary works. In the present media ecology, the verbally expressed human experience we refer to as literature is no longer confined to text and printed books. Intermediality offers a valuable framework for unpacking the evolving dynamics of literature in the contemporary media landscape. This paper draws attention to the various intermedial relationships of literature, and highlights the interplay between technical devices that give access to texts, images, and sounds that are formed by conventions and contexts. Lars Elleström's theoretical framework of media types and media modalities (2010; 2021) offers a set of flexible and precise concepts to examine these diverse and multi-layered relationships. The analysis of the digital artwork *Evolution* by the Swedish poet Johannes Heldén demonstrates how Elleström's media modalities enable a fine-grained analysis of intermedial relationships and a stable frame for comparisons across media borders. The framework not only enhances our comprehension of intermedial relationships in artistic media but also empowers humanist scholars to address the complex convergence of modes and media in a digitized society.

* 2023 NRF Korea-US Special Cooperation Project : "AI avec Digital Humanities: New Technopoetics and Electronic Litera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K2A9A2A20097740)

* '인공지능과 디지털인문학의 상생 : 새로운 기술과학과 전자문학' 과제명으로, 2022년도 한-미 인문분야특별 협력사업 선정

기계 문학 입문서

An Introduction to Machine Literature*

Dennis Yi Tenene, C
Columbia University

국문요약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텍스트를 읽지만, 정작 문학에 대한 연구는 쇠퇴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계 문학 연구를 위한 문학적 분석의 가능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소설과 시"와 같이 좁게 정의된 장르에서, 단수 작가의 작업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분야는 텍스트 문화의 대규모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도구, 템플릿, 기계, 알고리즘은 항상 문학의 일부였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는, 현대 문학 연구가 작가라는 낭만적인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 관점을 바꾸면, 연구가 부족한 방대한 아카이브가 허용되어 연구 방법과 대상 모두에서 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Abstract

People read more text than ever, yet the study of literature is in decline. In this talk, I outline the potential of literary analysis for the study of machine literature. By emphasizing the work of singular authors in narrowly defined genres like "fiction and poetry," our field has neglected to perceive large-scale changes in textual culture. Tools, templates, machines, and algorithms have always been a part of literature, I argue. We just failed to see them, because modern literary study clings to a romantic notion of authorship. Changing that perspective allows for the admittance of a vast, understudied archive, necessitating reform in both the method and the object of study.

* 2023 NRF Korea-US Special Cooperation Project : "AI avec Digital Humanities : New Technopoetics and Electronic Literature"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K2A9A2A20097740)

* '인공지능과 디지털인문학의 상생 : 새로운 기술시학과 전자문학' 과제명으로, 2022년도 한-미 인문분야특별 협력사업 선정

분과회의 세션 3

3-2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Parallel Session 3

3-2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기후 변화, 환경 인식 및
아시아의 비디오 게임Climate Change,
Environmental Awareness
and Asian Videogaming

Xenia Zeiler

University of Helsinki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인도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제작된 두 가지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과 그 주변의 환경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주제를 강조한다. 게임의 예시, 게임 개발자의 인터뷰 및 진술, 플레이어의 토론 및 리뷰, 게임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잠재 고객의 게임 플레이 비디오에 대한 의견, 등을 통해 이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교육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캐릭터와 이의 성공을 탐구한다. 여기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상은 누구이며, 게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용 게임 (예: Michael and Chen 2006)과 게임 환경 (Radde-Antweiler, Waltemathe 및 Zeiler 2014)의 두 가지 이론적 프레임 및 관점이 사용된다. 교육용 비디오 게임은 비디오 게임과 그에 따른 환경이 기후 변화 및 환경 인식과 관련된 갈등에 협상하고, 공감하며 초월하는 방법을 탐구할 때 유용할 수 있다. 비디오 게임 내러티브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것이 게임의 (더 가깝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인정함으로써, 이 논문은 게임 환경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Gamevironments는 비디오 게임과 게임의 기술 및 문화 환경을 포괄하며, 다양한 글로벌 게임 환경을 승인한다. 즉, 본 논문은 최근 출시된 두 가지 대표적인 비디오 게임인 *Tea Garden Simulator* (플라잉 로봇 스튜디오, 인도, 2023)와 *Little Witch in the Woods* (Sunny Side Up, 대한민국, 2022)를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highlight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related themes in and around two exemplary videogames produced in India and in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Through discussing examples from the games, interviews with and statements from game developers, discussions and reviews from players, and comments on gameplay videos by interested audiences that might or might now play games themselves,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characters and successes of new Asia produced gamified approaches to globally creating awareness for and educating about environmental appreciation and mindfulness. How are nature environment related themes taken up, who are the target audiences, and how are the games perceived? To discuss these questions, two theoretical frames/lenses are touched upon: educational games (e.g., Michael and Chen 2006) and gamevironments (Radde-Antweiler, Waltemathe and Zeiler 2014). Educational videogames can be of use when exploring how videogames and their environments support the negotiating, empathizing over and transcending of conflicts a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awareness. By acknowledging the representations in videogame narratives as well as how this is discussed by persons in the (closer as well as broader defined) vicinity of games, this presentation additionally builds on the approach of gamevironments. Gamevironments encompasses the techn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videogames and gaming, and acknowledges the diverse global gaming landscapes. Namely, this presentation looks into the two exemplary recently released videogames *Tea Garden Simulator* (Flying Robot Studios, India, 2023) and *Little Witch in the Woods* (Sunny Side Up, Republic of Korea, 2022).

분과회의 세션 3

3-2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Parallel Session 3

3-2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

종말의 게임 :

'Fallout 3' and 'Ludic Evil'

Gaming the Apocalypse :

Fallout 3 and Ludic Evil

Gregory P. Griev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인기 게임인 Fallout 3에서 비디오 게임, 윤리 및 악의 개념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한다.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RPG 게임은, 도덕적 결정이 게임의 내러티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인 황량한 황무지에 플레이어를 내몰아 몰입시킨다. 본 논문의 핵심 초점은 Fallout 3에서의 핵폭탄을 신성한 질서로 바꾸는 것인데, 이는 게임 내에서 원자 폭탄을 숭배하는 Atom Children의 교회가 예시로 보여진다. 이 논문은 Fallout 3이 '놀이 좋아하는 악'이라는 개념과 상충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철학적 관점을 통해 대중 문화를 면밀히 탐구하고 있다. 또한, 플레이어의 선택이 게임의 세계에서 다양한 결과를 가져 오므로 악의 주관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비디오 게임이 모호함에 직면하여 도덕적 선택 의지, 탄력성 및 적응력을 키우고 악의 구상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개념에 반박한다.

Abstract

The paper delves into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video games, ethics, and the concept of evil within the popular game Fallout 3. This post-apocalyptic RPG immerses players in a desolate wasteland where their moral decisions profoundly influence the game's narrative. A central focus of the paper is Fallout 3's transformation of nuclear annihilation into a sacred order, exemplified by the Church of the Children of Atom's worship of the atomic bomb within the game. The paper scrutinizes popular culture through a philosophical lens, arguing that Fallout 3 serves as a platform for grappling with the notion of "ludic evil." It highlights the subjective nature of evil as players' choices lead to diverse consequences within the game's universe. Ultimately, the paper underscores the capacity of video games to cultivate moral agency, resilience, and adaptability in the face of ambiguity, challenging the notion that they trivialize the concept of evil.

분과회의 세션 3

3-2 비디오게임을 통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기후변화와 비디오 게임

Parallel Session 3

3-2 Building a better World through Videogaming?
Climate Change and Videogames데스 스트랜딩(Death Stranding)의
플랫폼 매개성 플레이Platform-mediated play in
Death Stranding

Martin Roth

Ritsumeikan University,
Stuttgart Media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논문은 비디오 게임 데스 스트랜딩(Death Stranding (Sony / Kojima Productions 2019)과 관련된 유튜브의 놀이 관행이 기후 변화가 오래 전에 일어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에서 더이상 거주할 수 없는 환경과의 관계를 상상해볼 수 있는 놀이를 위한 공간을 여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놀이 관행 중 일부를 탐구하기 위해, 필자는 비디오 게임 놀이가 사용자에게 의해 문서화되고 시청자들에게 의해 논의되며, 비디오 게임 콘텐츠가 새로운 놀이 관행의 재료 역할을 하는 공간인 유튜브의 데스 스트랜딩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은 일상 생활에서도 데스 스트랜딩에서 겪었던 자연의 위험을 경험하는 현실의 포터가, 일본어로 된 게임 비디오들을 논하며 위 내용 중 후자의 일부를 탐구한다. 이 사례는 유튜브가 게임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생산적인 놀이 공간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제공하며, 따라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죽음의 좌초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설정은 기후 변화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은, 우리의 자연 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의 맥락에서 새롭게 얻은 인식을 고려해볼 것을 제한한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one of the ways in which play practices on YouTube involving the videogame Death Stranding (Sony / Kojima Productions 2019) open up a space of play in which we can imagine our relation to uninhabitable environments in a post-apocalyptic world in which climate change has long taken place. In order to explore some of these play practices, I focus on engagements with Death Stranding on YouTube, a space in which videogame play is both documented by players and discussed by viewers, and in which videogame content serves as material for new play practices. This paper explores some of the latter, focusing on a series of videos in Japanese in which the gameplay is commented on by a real-world porter, who experiences the dangers of nature explored in Death Stranding in his daily work life. This case provides one example of how YouTube serves as a space for productive play that opens up a new perspective on both the game world and the physical world, and as such changes our awareness of our environment. While not directly engaging with climate change, the post-apocalyptic setting of Death Stranding suggests situating this newly gained awareness in the context of drastic changes to our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ose set in motion by climate change.

인공지능 행위자성의 통속적 이해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Moral Agency

노형래 Hyungrae Noh

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일반 화자들은 대개 AI 시스템 (예 : iCub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Roomba, Siri와 같은 비 휴머노이드 로봇, 가상 로봇 등)을 도덕적 존재로 여기고, 이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각종 심리 용어를 사용한다. 본 논문은 인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영역으로의 참조 변화가 의미론적 변화를 수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심리적 또는 도덕적 존재로 취급할 때, 일반 화자들은 무엇을 '진정으로' 의미하는가? 필자의 최근 연구에서는, 일반 화자들이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믿다', '알다', '결정하다' 등의 '행위자 용어'로 표현하는 개념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간에게 동일한 용어를 적용할 때 표현하는 개념과 유사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 주체에 대한 민간 이해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최근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반 화자들은 AI 시스템을 어떠한 주체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심지어, 비난 받거나 처벌받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Mikalonyte와 Kneer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비예술적 주체에 비해 인공지능 시스템에 예술적 신념과 의도 (또는 욕망)를 돌릴 의사가 훨씬 적었다. 이 연구들은 인공지능 주체에 대한 민간의 이해가 인간 주체의 개념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째로, 인간 영역에서 주체와 가치, 비난/처벌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어서, AI의 맥락에서 도덕적 주체 용어와 예술적 주체 용어의 의미가, 인간 영역에서 사용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여 탐구한다. 필자는 인공지능 주체에 대한 민간의 이해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은 비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주체라고 결론지었다. 이 결론을 달리 말하면, 인공지능 주체에 대한 민간의 이해는 Floridi의 '분산된 도덕적 행동'의 개념에 부합한다.

Abstract

Ordinary speakers commonly treat AI systems (e.g., humanoid robots such as iCub, non-humanoid robots such as Roomba, Siri, fictional robots, etc.) as moral beings and use psychological terms to explain their behavio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is referential shift from the human domain to the AI domain entails semantic changes: what do ordinary speakers "really" mean when they treat AI systems to be psychological or moral beings? In a recent study, I showed that concepts ordinary speakers express by agency-terms (e.g., "believe," "know," "decide," etc.) in reference to AI systems are similar to the concepts they express when applying the same terms to human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more fine-grained clarification of the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agency. Recent psychological studies demonstrate that ordinary speakers not only view AI systems as agents, but also hold them morally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nd even consider them blameworthy or deserving of punishment. In Mikalonyte and Kneer's experiment, however, participants were much less willing to ascribe artistic beliefs and intentions (or desires) to AI systems compared to non-artistic agency. These studies suggest that the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agency is a bi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human agency. Firstly, I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ncy, value and blame/punishment in the human domain. I then explore whether the meaning of moral-agency-terms and artistic-agency-terms changes in the context of AI, compared to their usage in the human domain. I conclude that the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agency consists in a complex and technical concept, according to which AI systems are non-individualistic, moral agents. To put this conclusion otherwise, the folk understanding of artificial agency fits Floridi's notion of "distributed moral actions."

AI 시대의 공동 번영

Shared Prosperity in the Era of AI

Kang-Kook Lee
Ritsumeikan University

국문요약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는 또한 대량 실업과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현재 기술 진보의 궤적이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에 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AI를 포함한 기술 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살펴본다. '로보칼립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AI와 같은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의미 있게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 기술 진보는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복직 효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력 노동은 일부 영역에서 AI에 비해 비교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가 더욱 높은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어, 불평등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기술의 역할은 중요하다. 많은 국가들이 급속한 기술 진보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증가한 것을 목격했다.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정부가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도 한몫했다. 이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향후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떻게 하면 AI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인간 노동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본 논문은 AI 시대에 포용적 성장과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공투자의 확대와 노동자 보호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는 기술 변화의 방향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협상력을 강화해야 하고, 우리는 보다 진보적인 정치적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AI와 함께 동반 성장의 미래는 우리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of AI in the recent period brings hope for increasing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However,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mass unemployment and rising inequality. This suggests that the current trajectory of technological progress could pose challenges to inclusive growth and shared prosper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including AI, on the labor market by reviewing current studies. Although there is concern about the 'robocalypse,' it is unlikely for technologies like AI will significantly replace human labor. Technological progress can lead not only to the replacement effect but also to the reinstatement effect, creating new jobs, and human labor will maintain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AI in some areas.

However, the role of technology in increasing inequality is significant, as several empirical studies report that automation results in higher inequality. Many countries have witnessed a rise in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since the 1980s due to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A decline in workers' bargaining power and the adoption of 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by governments have also contributed to this. This suggests that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can further exacerbate income inequality in the future.

This raises the essential question of how to minimize the risk of AI while maximizing its benefits for human labor.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extensive institutional reforms and policy measures, along with political changes, to promote inclusive growth and shared growth in the era of AI. A more active role of the government, including increasing public investment and protecting workers, is essential. Additionally, we should guide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change to ensure it complements human labor rather than replaces it. Workers should strengthen their bargaining power, and we should strive for more progressive political changes. The future of shared growth alongside AI will depend on our collective efforts.

인류는 다른 종과 연대할 수 있는가? :

『진이, 지니』에 나타난 인간과 보노보 사이의
공감을 중심으로Can Humans Stand in
Solidarity with Other Species? :An Analysis of Empathy between
Humans and Bonobos in Jeong You
Jeong's <Jini, Jinny>

이유경 LEE, YOU-KYUNG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과연 인류는 다른 종과 공감할 수 있는가? 작가 정유정은 『28』에서 개를 매개로 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재난 앞에 개와 인간의 불화와 공존 불가능성을 전경화하고, 『종의 기원』과 『완전한 행복』에서 사이코패스와 극단적 나르시시스트를 묘사하며, '공감'을 우리 시대의 화두로 제시한다. 그리고 보노보가 인간의 유전자와 유사하며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보이는 영장류라는 점에 주목, 『진이, 지니』라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보노보와의 교감을 시도한다. 최근 과학자들은 보노보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인류의 유전자에 공감이 잠재되어 있어 인간이 본능적으로 '공감'하는 개체라고 설명한다. 『진이, 지니』에서 우연히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해 사육사, 진이는 보노보인 지니의 몸에 갇히면서 보노보에 동화되기 시작한다. 지니의 관점에서 지니에 공감하게 된 진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보노보 지니에게 몸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다친 몸으로 복귀하고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진이의 선택을 통해, 소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감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영장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공감을 요청할 때, 소설가는 다른 종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죽음마저 각오하는 태도야말로 공감의 출발이라고 역설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theme of humanity's empathy towards other species, in Jeong, You-jeong's novels. Especially, in her novel, *Jinyi, Jinny*, she describes a zookeeper sacrificing her own life for the bonobo. This conclusion raises the question of the scope and paradox of empathy, a trait that scientists recently argue is crucial for humanity's survival, evolution, and coexistence.

예술작품 제작에서의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동진화

Co-Evolution of Human and AI in Producing Artworks

박연숙 Park Yeonsook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공 지능을 생명체로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인공 지능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예술 범주에 수용할 것인가, 라는 실존적 문제를 떠나, 인간과 인공 지능의 공진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구에 관한 것으로 논의를 좁혔다. 예술 작품을 자신의 독특한 활동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인간은, 인공 지능에게도 이러한 속성을 주입하려고 시도해왔다. 예술 생산과 관련된 인공 지능의 발달은, 예술의 정의와 예술 작품의 의미를 더욱 복잡하고 모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추구를 새로운 예술을 향한 중요한 단서로 간주한다. 인공 지능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예술 작품은 공동 창의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호 진화를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즉흥적 행위는 인간과 인공 지능이 공동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실시간으로 기여할 때, 공동 창의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동 진화는 인간이 오류를 범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공 지능이 인간 명령을 적절하게 실행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다.

Abstract

Aside from the existential question of whether to accept AI as a being or the image produced by AI in the art category, this study narrowed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inquiry of how human-AI co-evolution occurs and affects each other. Humans who accept making artwork as one of their distinctive activities have attempted to instill these attributes in AI. Although the development of AI-related to art production may make the definition of art and the meaning of a work of art more complex and ambiguous, the study considers this pursuit as a significant clue toward new art. Artworks by the interaction of AI and humans can cause their co-creativity, and it would stimulate mutual evolution. In particular, improvisation is a significant element of co-creativity, when humans and AI spontaneously collaborate and contribute in real-time with a common purpose. Co-evolution likely occurs as developing AI programs in which humans make errors, and AI attempts to properly execute human commands.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적대와

환대의 개념적 고찰 :

도덕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A Conceptual Consideration of Hostility and Hospitality towards Autonomous Weapon Systems :

Towards a Concept of Moral Agents

김상수 Sangsu Kim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국문요약

인공 지능으로 구동되는 자율 무기 시스템(AWS)은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군사 작전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율성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치명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그런 까닭에 자율무기체계는 인간에게 적대 또는 환대 받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 인공적 존재(artificial being)이다. 따라서 전쟁에서 인간과 자율무기체계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인공지능 유토피아(utopia)와 디스토피아(dystopia)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의 목적은 적대와 환대라는 개념을 인간이 아닌 인공물과 같은 자율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인식론적·존재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이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적대 또는 환대를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적대와 환대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인식론적 관점에서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자율무기체계를 인간이 환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자율무기체계의 존재론적 지위로서 도덕적 행위자의 자격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율무기체계와 인간 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자율무기체계가 인류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볼 것이다.

Abstract

Autonomous weapon systems (AWS),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revolutionized military operations by conducting independent combat without direct human involvement. However, their autonomy raises significant legal and ethical concerns, as they can engage in potentially lethal actions without human control. For this reason, AWS represent artificial beings with a duality, capable of receiving both hostility and hospitality from humans. Therefore, the task of def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WS in warfare i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humanity, experiencing both artificial intelligence utopia and dystopia simultaneously. To address this challe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analys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concepts of hostility and hospitality to non-human beings such as AWS. To this end, I will offer a conceptual analysis of hostility and hospitality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elucidating the essential concepts required for humans to engage with AWS in terms of hostility or hospitality. Furthermore, I will show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the ontological status of AWS as a moral agent to qualify for their hospitality toward humans. Through this analysis, it aims to offe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WS and humans and explore the possibility for AWS to be hospitable to humanity.

적(敵)이 없는 전쟁은 가능한가?

- 맹자(孟子) 의전론(義戰論)을 중심으로 -

Is it possible to have a war without enemies? :

Focusing on Mencius' thought of Uijeon(義戰)

조은영 Eunyoung Cho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국문요약

본 연구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전쟁은 적대의 대표적 현상으로 환대의 반대편에서 환대의 의미를 대비적으로 선명히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모든 타자가 적은 아니지만 왜 어떤 타자는 적이 되는지 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해 검토해보고, 일반적인 전쟁 개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전쟁'을 말했던 맹자의 의전(義戰) 논의에서 어떤 새로운 착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전쟁에서 적은 단일한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어떤 적은 비인간화되고 혐오하는 적이 되는데, 그러한 적에 대한 폭력은 극단화되고 쉽게 정당화된다. 이러한 비인간화되는 적이 되는 데에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나를 선에, 타자를 악에 귀속시켜 선악 대립의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런데 맹자는 의전(義戰)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장을 펼친다. 먼저, 맹자는 이기심이 아닌 인의(仁義)라는 인간 보편의 도덕성과 공동가치에 근거한 정치가

'적이 없는 전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선악의 도덕적 우열이 없는 상황이 도리어 파괴적인 전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맹자의 생각은 기존의 전쟁과 적에 대한 생각을 재고하게 한다. 선악 대립의 구도를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선악의 분별은 공동의 기반이 필요하며, 결국 우리의 과제는 그러한 공동가치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intriguing concept that to pursue peace, one must comprehend the nature of war. War, being the ultimate expression of hostility, is examined in contrast to hospitality, shedding light on the essence of hospitality. The study explores why not all adversaries are necessarily enemies, drawing insights from Mencius' discourse on Uijeon(義戰),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war perceptions.

In the context of war, the term "enemy" is not a monolithic concept; instead, certain adversaries undergo dehumanization and evoke strong hatred, leading to extreme and often justifiable violence. This dehumanization frequently stems from religious or ideological factors that dichotomize self as good and the other as evil, framing conflicts as battles of good versus evil.

However, Mencius presents compelling arguments in the context of Uijeon(義戰). He contends that a society rooted in universal human ethics and shared values, such as Inui(仁義) rather than self-interest, can foster a state of "war without enemies." Moreover, he suggests that the absence of moral superiority between good and evil can lead to profoundly destructive warfare.

Mencius's ideas challenge us to reassess our perspectives on war and the concept of the enemy. While framing conflicts in terms of good versus evil can be problematic, discerning between the two may still hold relevance. However, achieving consensus on what constitutes good and evil necessitates a common foundation, raising the question of how expansive such shared values can be.

셰익스피어의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한 환대 불가능의 가능성 모색

An Exploration on the Possibility of Non-hospitality on Shakespeare's 『Coriolanus』

서동하 DONG-HA SEO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국문요약

본 발표는 셰익스피어의 로마 사극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해 환대의 가능성은 환대의 권리와 환대의 윤리가 아닌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적대적 충위를 제거하는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라틴어 *hostis*에서 갈라진 환대와 적대의 선택이 주체의 선택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핵심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 차원의 인식변화에 있음을 본 작품은 탁월하게 형상화하였다. 주인공 코리올레이너스가 주체에서 타자로, 타자에서 다시 주체로 위치가 전도되는 과정은 경계 긋기 행위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전쟁영웅 코리올레이너스를 적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경계에 존재하는 인물로 상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바대로 전쟁의 폭력성이 개인과 집단을 타자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가 일상화, 내면화된 공동체가 개인마저도 타자화시키는 속성이 더 큰 위험성을 지녔음을 이야기하였다. 셰익스피어는 더 나아가 코리올레이너스의 죽음을 통해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고통을 객관화하며 환대의 실패가 가져온 파국을 비장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경계인의 위치에 선 운명에 있음을 경고하고, 타자에 대한 소통과 연대가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 문제라 얘기한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argues that the potential for hospitality arises from an attempt to eliminate various layers of hostility existing within the community, rather than from discussions about ethical and social dimensions of hospitality through reading of Shakespeare's Roman tragedy *Coriolanus*. The play demonstrates that the disquieting kinship between hospitality and hostility, originated from the Latin word *hostis*, should not be considered a matter of individual decision, because the core issue lies in a shift in awareness at the community level, not at the individual level. The process where the protagonist Caius Martius (renamed Coriolanus after his defeat of Volscian army at Corioles) transitions from the self/host to the other/guest and then back to the self/host challenges the epistemological issues surrounding the act of drawing boundaries. Shakespeare, by presenting the war hero Coriolanus as a figure existing on the boundary, highlights that violence in war does not reject individuals and groups as commonly thought, but poses a greater danger in othering even individuals with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by dramatizing Coriolanus's death Shakespeare reveals the extent to which the hostility has become normalized and internalized within the community. In addition, by objectifying the pain excluded from the community, Shakespeare also emphasizes the dire consequence of the failure of hospitality. In this light, Shakespeare's play serves as a warning that we all stand at the boundary, and it also allows us to understand more about our own, emphasizing that empathy and solidarity with others are directly related to our survival.

공존불가능성을 횡단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예로

A Reflection on Humans crossing 'Non'-coexistence : An Example on the Ukrainian War Refugee

이영주 Youngju Lee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국문요약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난민과 노동자들의 이민행렬이 심각한 국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난민위기는 난민 스스로의 위기라기보다는 난민 수용국의 위기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성원권 간의 충돌 문제가 놓여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난민은 이민과 어떻게 다르며, 난민의 현재 상황, 특히 많은 여성 난민의 상황과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은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이 인간에 대한 선한 마음과 책임 의식에서 비롯되는 환대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난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민 발생의 최근 경향, 독일에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환대와 무한한 연대의 가능성을 짚어보겠다.

Abstract

Today, migratory flows of refugees and laborers around the world have become a serious international problem. This refugee crisis is understood as a crisis of the host country rather than a crisis of the refugees themselves, and at its core lies the conflict between human dignity,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sexuality.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plore how refugees differ from immigrants, what the current situation of refugees is, especially the situation and plight of many women refugees, and how refugees from the recent war in Ukraine are being received in European countries, especially Germany. In doing so, I would like to explore the extent to which the act of hospitality can be realized out of a sense of goodwill and responsibility towards human beings. In this paper, I will first revisit the concept of refugees, and then specifically examine the recent trends in refugee outbreak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with the reception of Ukrainian refugees in Germany, and point out the possibilities of hospitality and infinite solidarity within them.

‘우리’안의 타자, 여군 :**미래전투원은 (탈)젠더화 될 것인가?****The ‘Other’ among ‘Us’,
Female Soldiers :****Will the Future Comabatants be
De-gendered?**

문현영 Hyunyoung Moon
육군사관학교
Korea Military Academy

국문요약

전통적으로 전투와 전사됨은 남성성의 전형으로 규범화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여군의 전투 참여는 많은 도전을 받았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는 미래 전쟁은 무인화, 자율화, 그리고 사이보그화 되고 있으며 인간의 신체성은 그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 탈신체화되는 전장 환경에서 전사의 원형은 탈젠더화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불구하고 미래 전사상은 초인간·초남성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여군은 여전히 이등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초남성적 전사라는 헤게모니적 담론은 그 수행성의 전복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사가 남성적으로 규범화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음을 이 글에서 밝힌다.

Abstract

Historically, the ideals of bravery and sacrifice in battle have been tied to the idea of masculinity, leading to skepticism about women's involvement in combat. However, as we move towards an era where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ominate the battlefield, physical strength is less relevant. Some suggest that this shift will neutralize gender roles in warfare, but current trends hint at an even more amplified version of male "super-warriors," keeping female soldiers sidelined. This article proposes that while this intensified masculine warrior image seems dominant, it also presents opportunities to challenge and redefine what it means to be a warrior, moving away from strictly gendered norms.

분과회의 세션 3

3-5 종교미술의 기능 :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Parallel Session 3

3-5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상생을 위한 소통의 문자 :

주문, 상징, 그리고 미술

Script of Communication for Coexistence :

Incantation, Symbol, and Art

강희정 Kang, Heeju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국문요약

역사적으로 종교미술은 신과의 소통을 목표로 제작되었다. 신도들은 단순히 신의 형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세속적 기원을 신과 소통하려 했다. 양란과 기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 공동체의 기반이 무너질 만큼 혼란이 이어진 조선 후기에는 불교의례를 엄밀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승려와 속인이 함께 진언집을 간행하고, 불교건축과 불화, 범종, 향완, 반자 등의 의식용구에 범자를 썼다. 진언집에는 한자와 언문을 병기했는데 이는 의식에서 梵音과 梵字로 부처와 소통할 때, 不翻語인 梵字 眞言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誦呪함으로써 진언이 담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불교미술의 범자 진언은 의식 도량을 청정하게 하거나 망자의 영가천도와 제난구제의 간절한 기원을 담기 위한 것이다. 이는 승려들의 문집과 당시 간행된 진언집의 서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진언집과 범자가 쓰인 불교의례 용구는 정확한 범음 송주로 불교의식을 가능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민간의 사회적 결속 강화와 상생에 기여하는 역할을 했다.

Abstract

Historically, religious art was created for communication with God. Rather than representing images of God, believers attempted to communicate their religious or secular wishes to God through their voices and texts. Due to two wars, famine, an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e foundation of social communities was about to collaps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ccordingly, to properly perform Buddhist rituals, monks and ordinary people republished collections of mantras and wrote Sanskrit characters on Buddhist architecture, paintings, and ceremonial tools such as temple bells, incense burners, and Buddhist gongs. The published versions of collections of mantras included both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characters. The double transcription of the Siddham pronunciation was purposed to properly convey the original meaning of the mantra by accurately pronouncing the Siddham words. Sanskrit mantras written in Buddhist art are intended to purify the place where the ritual practices would be performed or to effectively convey earnest prayers for the transfer of the soul of the deceased to the Western Paradise. The collection of monks' writings and the prefaces from the books of mantras published at the time confirm these. As a result, it played a role in strengthening the social solidarity of the communities and contributing to coexistence in the late Joseon period.

분과회의 세션 3

3-5 종교미술의 기능 :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Parallel Session 3

3-5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마조 신앙의 확산 :

해상 안전과 해양공동체의 융합 그리고 상생

Wide spread of Mazuism :

Ocean safety and Coexistence,
Concord

양은경 Yang Eun Gyeng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중국인들은 이른 시대부터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살아가거나 혹은 생업을 위해 본인의 고향을 떠나 주변 국가에서 활약하였다. 명청시기 해금정책과 대륙의 인구팽창으로 인해 중국 복건성과 광둥성, 특히 복건성 주민들은 대규모로 대만, 홍콩, 마카오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였다. 바다를 건너기 이전, 항해하는 도중, 바다를 건너 새로운 지역에 도착한 이후 화인들은 시종일관 마조신에게 그들의 안녕과 항해 안전을 기도하였다. 화인(화교)들의 입장에서 마조신앙은 정신적 지주이자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香港(홍콩)과 마카오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마조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의 마조신앙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시사한다. 오늘날 마조사당은 중국 대륙 이외에 대만과 동남아시아에 많이 현존하고 있다.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마조신앙과 마조사당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의 마조 사당은 대체적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배를 타고 최초로 도착한 곳에 그들의 무사안녕을 기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마조 신앙은 기타 다른 종교는 물론이고 현지 민간신앙과 서로 융합하여 마조 사당에는 마조 신상과 불교, 도교, 현지 민간 신앙이 함께 안치되기도 하였다. 셋째, 해양 안전신의 역할을 한 마조는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항해 여신의 기능 이외에도 전지전능한 신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화인들은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으나 마조신앙을 믿으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를 의지하였다. 홍콩, 마카오, 대만이 중심이 된 마조문화는 각국의 현지 신앙, 문화와 서로 융합하고 화해하였으며 현지인들과 서로 상생하며 살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요약문입니다.

Abstract

Mazuism, or the worship of the Chinese sea goddess Mazu, was once a spiritual anchor for Chinese people who settled in Hongkong, Taiwan, Southeast Asia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solidarity among them. It was not merely one of many folk religions that originated from China, but a very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about the underlying culture of the Chinese communities in Hongkong, Taiwan, Southeast Asia.

The buildings used as shrines and assembly halls of Mazu worshipers are located along the shore areas. Mazuism was changed and evolved through the process of localization based on a syncretization of some of the world's major religions and local popular beliefs. In the subsequent Ming and Qing periods, the worship of Mazu became increasingly ardent and widespread among the Chinese migrating to Taiwan, Southeast Asia. It is conjectured that Mazuism was introduced to and spread throughout Southeast Asia due to the inflow of Chinese immigrants from Fujian and Guangdong during the Ming and Qing periods.

분과회의 세션 3

3-5 종교미술의 기능 :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Parallel Session 3

3-5 The Function of Religious Art : Communication with God, Aesthetics of Human Coexistence

순례여행을 위한 공감적 소통 :

15~16세기 독일어권 <사도들의 이별> 도상

Art of Sympathy for
Pilgrimages :The Iconography of the Separation of the
Apostles in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y German Speaking Lands

한유나 Yu Na Ha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사도들이 예수의 명을 받아 전 세계로 선교를 떠나기 직전의 모습을 시각화한 '사도들의 이별'은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순례 문화의 영향 아래 독일 남부 및 오스트리아에서 크게 유행했던 회화 주제이다. 당대의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의미로 자기 자신을 순례자로 규정했다. 한편으로는 천국을 목표로 지상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는 관념적인 '삶의 순례' 여행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로마와 같은 주요 성지나 혹은 인근의 소규모 성지들을 방문하는 실제 순례의 참여자로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사도들의 이별> 도상은 다양한 공감과 이입의 장치를 통해 감상자들이 이러한 정신적, 물리적 순례여행을 순탄히 준비하도록 도왔다. 먼저 그들이 출발 전 느끼는 두려움과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했던 현실의 다양한 심리적 지원 방안들을 상기시켰다. 최종적으로는 순종의 미덕에 따라 결연히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나서도록 감상자들을 설득하였다. 감상자와의 이러한 공감적 소통을 통해 <사도들의 이별> 도상은 순례여행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 모범을 제시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달했던 것이다.

Abstract

The Separation of the Apostles, a theme that enjoyed great popularity in German-speaking lands between 1450 and 1550, visualizes the moment of the apostles' departure under Christ's command to preach to all nations. The figures in attire resembling late medieval pilgrims indicate that the iconography developed in close connection to the contemporary culture of pilgrimage. During this period, people were constantly on a twofold journey: a metaphorical journey to the Heavenly Jerusalem, known as "peregrinatio vitae," on one hand, and actual trips to various pilgrimage sites such as Rome or Jerusalem on the other. The representations of the Separation of the Apostles helped viewers prepare for both spiritual and physical journeys by presenting figures in various actions, with whom viewers could easily sympathize. For example, those lost in their thoughts externalized the inner conflict of prospective pilgrims afraid of a dangerous trip. This provided catharsis and emotional comfort to viewers as they realized they were not alone in their suffering. The apostles, carrying staves, bags, or drinking from flasks, served as reminders of the special rituals for pilgrims held in local churches, assuring divine protection and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Figures already on the way in the background offered a model for viewers to follow: one must venture into the foreign world in obedience to God's will to reach the Heavenly Jerusalem. Through such sympathetic interactions with the images of the Departure of the Apostles, viewers found motivation for their own journeys and set out on their paths with determination.

조선후기 종교의 소통 :

관우신앙과 유불도교 신앙의 통합

Religious Communic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Guan Yu beliefs and Integration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beliefs

이승희 Lee, Seunghui

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관우는 유비, 장비와 함께 삼국지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武와 忠, 義理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그는 중국에서 儒佛道 三敎의 신이자 재물신으로 송대부터 황실은 물론이고 민간에 이르기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역대 중국의 황제들에 의해 장군에서 侯→王→帝→聖→天으로 끊임없이 추존되며 드라마틱하게 神의 반열에 올랐다.

조선에서는 정유재란 때 구원군으로 온 명나라 장수가 각지에 관왕묘를 세우며 관우가 알려졌다. 초기부터 국가차원에서 관우가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는 점차 관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숙종대부터 관우는 왕실을 수호하고 왕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三國志演義』를 널리 읽게 되면서 관우의 신령스러움이 더욱 부각되었고, 정조대에는 조선의 수호신으로까지 인식되었다.

고종대의 관우신앙은 구한말의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일제를 포함한 외세 침탈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왕실을 보호하려는 간절한 염원과 시대상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도교적인 선서가 새롭게 유입되면서 三帝君을 신앙하는 善陰騰敎와 도교 교단인 無相壇이 등장하여 신앙서를 출판 보급한 것도 관우신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말기 유교사회를 바탕으로 도교와 불교는 융합되었고, 三敎가 통합된 신앙적 전통 위에서 관우신앙이 크게 성행한 것이다.

조선말기 박규수는 관우가 도리를 실천하는 이상형으로서의 보편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를 하였다. 이어서 관우의 성품 때문에 어떤 종교윤리에서도 적대시되지 않고 대중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관우의 성품을 관우가 신격화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관우는 그 당시나 오늘날에도 현실 세계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인물이다. 관우의 이러한 성품은 현대인들이 상상하며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인재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한다.

Abstract

Guan Yu, along with Liu Bei and Zhang Fei, are historical figures who appear in the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were considered the embodiment of martial arts, loyalty, and righteousness. In China, he was a god of Confucianism and a god of wealth, and was very popular from the Song Dynasty to the imperial family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He was continuously revered by successive Chinese emperors from general to king to lord to saint to heaven and dramatically rose to the rank of god.

In Joseon, Guan Yu became known when a general of the Ming Dynasty, who came to the rescue army during the Jeongyu War(1597~1598) and built Guanwangmyo shrine in various places. Although Guan Yu was not worshiped as an object of faith at the national level from the beginning, the civilian population gradually became aware of his existence. From the reign of King Sukjong(r.1674~1720), Guan Yu was used politically to protect the royal family and solidify its foundation. In addition, as the general public began to widely read 三國志演義, Guan Yu's spirituality became more prominent, an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r.1776~1800), he was even recognized as the guardian deity of Joseon.

King Gojong(r.1897~1907)'s Guan Yu faith contains the earnest wish and era to protect the country and the royal family from invasion by foreign powers, including Japan, in the chaotic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new Taoist oath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unyangyu religion(善陰騰敎), which believed in the Three Emperors, and the Taoist denomination, Wusangsang(無相壇), appeared and published and disseminated religious

book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for the active development of the Guan Yu religion. Based on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late Joseon Dynasty, Taoism and Buddhism were fused, and the Guan Yu faith became very popular based on the religious tradition that integrated the three relig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Park Gyu-su evaluated Guan Yu as a universal figure who practiced morality. Next, it is said that because of Guan Yu's personality, he was not hostile to any religious ethics and was accepted by the public. In other words, Guan Yu's character is recognized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that allowed Guan Yu to be deified. Guan Yu was a mentally healthy and sincere person who was rarely encountered in the real world, then or even today. Guan Yu's character may be a virtue that must be possessed by modern people who can co-exist and create a harmonious society.

신라의 전통 厝葬과 불교 造塔

신앙의 결합 :

전 황복사 사리함기의 “厝” 기록 검토

The combination of temporary burial rite and building a pagoda on it after all funeral services at the Temple known as Hwangboksa in Gyeongju: Examining the “厝” record on the reliquary

송은석 Song, Unsok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국문요약

경주의 전 황복사 석탑 사리함기의 ‘厝’자는 그간 ‘廟’자로 판독되어, 황복사에 종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광학기기를 활용한 사진을 조사한 결과 ‘厝’자로 읽히는 해당 글자는 ‘厝’자의 이체자로 확인되었다. ‘厝’는 ‘무덤에 안장하기 이전에 관을 임시로 안치하거나, 임시로 매장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리함기의 기록은 “신목태후와 효조대왕이 선왕의 유해와 성스러운 영혼을 받들어 선원가람에 삼층석탑을 건립하였”고, “이러한 공양의 복으로 위로는 신문왕, 신목태후, 효조왕의 대를 이은 성스러운 유해가 열반산을 베고 보리수에 앉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사리함기의 ‘厝’는 아마 ‘유해’라기 보다는 ‘유해를 모셨던 자리’ 또는 ‘유해를 모셨던 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신문왕은 낭산 동쪽에 장사지냈고, 유골을 사찰에 산골 하거나, 매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신문왕의 유해를 능에 안장하기 이전에 임시로 사찰에 모셨던 자리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라를 비롯하여渤海, 唐 등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매장법과 불교적인 탑장이 결합한 장법이 8세기 이래 행해졌는데, 전 황복사 석탑의 厝葬과 塔葬의 결합은 이러한 장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또한 전 황복사지 석탑의 건립과 수리는 『造塔功德經』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탑을 세우는 공덕’과 ‘탑을 수리하는 공덕’ 신앙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요약문입니다.

Abstract

The character ‘厝’ on the reliquary discovered from the pagoda at the Temple known as Hwangboksa in Gyeongju was interpreted as the letter ‘廟’, and it was interpreted that “Jongmyo, the ancestral shrine of the King” was installed within the temple.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photos using optical device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acter read as ‘厝’. ‘厝’ means temporarily placing a coffin or temporary burial before placing it in a tomb. Therefore, the record in the reliquary says, “Empress Shinmok and King Hyojo built a three-story stone pagoda in the Seon Temple to honor the remains and sacred souls of the late kings,” and “We hope that the blessings of these offerings will help the sacred remains of King Sinmun, Empress Shinmok, and King Hyojo to put their heads on the mount Nirvana and sit on the Bodhi tree.”

However, I think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word ‘厝’ on the reliquary as ‘place where the remains were kept’ or ‘traces of the remains’ rather than ‘remains.’ This is because King Sinmun was buried on the east side of Nangsan Mountain and did not bury his remains in a temple.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as a place where King Sinmun's remains were temporarily placed in the temple before being buried in the tomb. In East Asia, including Silla, Balhae, and Tang, funeral methods combining traditional burial methods and Buddhist pagodas have been practiced since the 8th century, and the combination of a temporary burial ceremony and building a pagoda after the burial ceremony at the Temple known as Hwangboksa in Gyeongju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se combined funeral method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and repair of this Pagoda are interpret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beliefs about the ‘merit of building a pagoda’ and ‘merit of repairing a pagoda’ mentioned in The Pratītyasamutpādagāthā and the Raśmivimalaviśuddhaphabhādhārāṇī.

소통·공감을 위하여:

인간과 공간이 갖는 문화의 공존과 상생

Toward Communication and Empathy :

Cultura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Human and Space

최의숙 Oui Suk CHOI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국문요약

1. 본문 연구배경

글리상 (Glissant)¹⁾에 따르면 각 토속 전통문화는 지속적인 지향성과 전통송배 고수 존중하는 토양에 리즘 (rhizomatic)식 문화 토착화가 된다. 문화 리즘식 뿌리가 서로 만나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성격의 돌연변이 문화가 탄생된다²⁾. 특히 식민지 토착민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 자체성과 개인 주체성 복구³⁾ 및 지배문화의 재인식 과정에서 복합 문화 (composite cultures)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이 문화 형성 과정을 크레올 문화과정 (process of creolization)이라고 한다.

2. 연구 방법

인간의 기본 인성을 대표하는 '친절'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조 동기 부여에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친절'은 한글이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굳히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언어 구사 표현 도구라는 단순한 정의를 벗어나 양반들 못지 않는 사고의 세계로 이끄는 공존·상생 역할을 하고 있다. '친절'은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고 있는 정서⁴⁾이며, '사랑·인류애 정신'은 그것이 '상생'된 것이다. 이 상생된 감정은 공생화 되어 다시 인간을 이끌어 주는 모체가 되는 공존 성격을 띠게 되며 또 다른 '사랑·인류애 정신'이라는 상생을 성립한다.

이탈리아에 단테, 움베르토 에코⁵⁾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병주⁶⁾, 정소성⁷⁾, 이승우⁸⁾, 또한 최윤⁹⁾ 등이 새로운 상생을 시도한다. 빅토르 위고가 '새로운 것을 찾는 여행은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¹⁰⁾'이라고 한 것처럼 각 문명의 특색은 각 개인이 모두가 문화의 뿌리임을 자각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리즘 (rhizomatic)식 문화 교류점에서만 문화 공존·공생은 '상생'하게 된다고 하겠다.

3. 연구 결과

문화, 예술에서 보이는 공존, 공생 요소는 각 개인이 문화 뿌리의 실뿌리라는 자각이 중요하다. 각 개인 실뿌리가 자체성과 주체성을 고수하면서 다른 실뿌리를 존중할 때 공감·공유라는 감정 매개체를 통해 공존과 공생이 있는 시공간으로 이전시켜 준다. 타 실뿌리와의 만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공존과 공생을 느끼는 감정이 길어지면서 공간이라는 것으로 상생하게 되며 토양이라는 조건으로 갖추게 된다. 이 토양에서 다시 예상 불가능한 크레올 현상을 통해 창조성 시학적 요소가 있는 시공간을 거친다.

1) Édouard Glissant (*Sainte-Marie, 21 settembre 1928 – Parigi, 3 febbraio 2011*). 카브리 (caribe)해 지역 문화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학 비평가.

2) Édouard Glissant «*Poetics of the Different*»에서 말했다.

3) Ania Loomba «*Colonialism/Pstcolonialism*»에서 말했다.

4) 이탈리아 거장 시인 단테(Dante Alighieri)는 시에서 사랑하는 베아트릭체 (Beatrice)를 'Kind Woman'으로 묘사.

5) Umberto Eco (*Alessandria 5 gennaio 1932 – Milano 19 febbraio 2016*) «*장미의 이름 Il nome della Rosa*». 유럽의 현·근대 문화를 '거인 어깨에 앉아있는 난쟁이라고 표현했다. 즉, '거인은 유럽의 화려했던 과거'를, 거인 어깨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난쟁이는 지금의 유럽인'이라는 표현이다.

6)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7) 자아 성찰을 중심으로 다룬 작품으로 꼽히는 «*아테네로 가는 배*».

8) «*미궁의 추측*»에서 문학가의 선구자적인 세계관은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

9) «*하나코는 없다*». «*코(가) 하나*»라는 일반적 한국 언어 문화에서 앞뒤 순서를 바꾼 놀이. 포르투갈 문학 대표 이탈리아 문학가 안토니오 타부끼(Antonio Tabucchi (Pisa, 24 settembre 1943 – Lisbona, 25 marzo 2012). 뒤집기 시학 (詩學, reverse poetics)으로 유명한 «*뒤집기 게임 과 단편집(The Reverse Game and Other Stories 1981)*»이 있다.

10) The journey of new research is to look with different eyes.

Background

According to Glissant¹¹⁾, every traditional indigenous culture continues through rhizomatic inculturation based on its continuous orientation and adherence to traditional worship. The meeting of roots gives life to a mutant culture with new and unexpected characteristics; a new and unexpected culture that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restoring human and individual identity and re-perception of the dominant culture pursued by indigenous populations who had to pave the way for a new world after colonization. Cultures created through this phenomenon typically exhibit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cultures.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creolization process" in the formation of culture.

Methods

King Sejong's empathy/kindness towards ordinary peo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existenc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subjectivity. Ordinary people can enter the world of noble thought, that of the aristocrats. "Kindness" is an emotion that coexists in all human beings and the "spirit of love and humanity" is the form of its very "coexistence".

A representative European example is Umberto Eco¹²⁾. Jeong So-seong¹³⁾, Lee Seung-woo¹⁴⁾, Choi Yoon¹⁵⁾ and the existentialist Lee Byeong-ju¹⁶⁾ are Korean examples of such cultural coexistence. It reminds us also of Victor Hugo who said: "The journey of new research consists in looki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Results

The element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seen in culture and art are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is the common thread of cultural roots. When each individual thread respects the other threads while maintaining their own identity, it is transferred into the space and time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through the emotional medium of empathy and sharing. The encounter with other threads leads to a moment of choice and the feeling of coexistence.

11) Édouard Glissant (21 September 1928 – 3 February 2011) a French writer, poet, philosopher and literary critic originally from Martinique. He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Caribbean culture and in Francophone literature.

12) «The Name of the Rose» described modern and contemporary European culture as "a dwarf sitting on the shoulders of a giant". The giant represents Europe's splendid past, and the dwarfs looking out at the world from the giant's shoulders represent the Europeans of today.

13) «Boat to Athens».

14) He is a work focusing on the self-reflection and pioneering worldview of a literary figure in «Labyrinth's conjecture».

15) «There is no Hanako». The game from "Ko (the nose)" ga Hana (one)' to 'Hana (unique)ko' (nose) ga. Coexistence through a work that changes the order of the grammatical of the Korean language

16) «Alexandria»

디지털 지도를 통해 보는 공존과 상생의 지중해 역사

-중세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Mediterranean history of coexistence and win-win seen through a digital map

- Focused on the Medieval Renaissance -

강지훈 Kang Jihoon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문요약

최근 인문학 혹은 지역학 연구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다. 인문학, 지역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에 있어 정보기술의 활용은 연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한다. 지중해는 문명권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정복 활동과 교역 등을 통한 교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연구가 수행되지만 연구 내용들은 개인의 연구 분야나 관심사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며 개인의 성향에 따라 편향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연구방법론으로의 정보기술의 활용은 객관적인 역사연구를 위한 매개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중해지역의 역사를 공존과 상생의 역사로 재해석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시도이다. 다문화, 다문명권의 특징을 가지는 지중해는 분열과 갈등을 비롯해 화합과 공존, 상생의 바다이기도 하다. 특히 전쟁과 정복, 분열과 갈등의 지중해 역사를 공존과 상생의 역사로 재해석하기 위해 정보기술(디지털 지도)을 활용한다. 이는 인문학이나 지역학을 접근하는 하나의 연구방법론이자 역사연구에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하나의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active attempts to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humanities or area studies.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academic research in various fields such as humanities, area studies, and history can be ensures research efficiency. The Mediterranean is a region that shares a history of exchange through numerous conquest activities and trade as civilizations develop. Study about history is generally conducted based on geographical and historical facts, but research contents differ in interpretation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research field or interest, and tend to be biased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inclination. In this respect,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research methodology can be a one way for objective historical research.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ing the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area as a history of coexistence and win-win. The Mediterranean Sea,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multicultural and multicivilizational region, is also a sea of division and conflict, as well as harmony, coexistence, and win-win. In particular, information technology (digital maps) is used to reinterpret the Mediterranean history of war, conquest, division, and conflict as a history of coexistence and win-win. This is a research methodology that approaches for humanities or area studies, and is also a case study that combines information technology with historical research.

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개의 공존 양상

-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Coexistential Aspect of Humans and Dogs Viewed From Literature

- Based on the Comparison of Premodern
and Modern Korean Literature

신은경 SHIN, Eunkyung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발표는 조선시대의 시조·한시, 고전소설 「숙향전」 그리고 현대의 동물관련 에세이와 시를 대상으로 하여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개의 공존 양상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려는 데 목표를 둔다. 이 발표는 먼저 '가축' '애완견' '반려견'의 차이를 짚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가축'은 말 그대로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하며 Pet로서의 개는 애완견 혹은 반려견으로 번역되지만 '애완견'이 장난감처럼 인간이 사랑하여 데리고 노는 대상으로 개를 보는 관점이라면 '반려견'은 삶의 동반자로 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전자의 관점은 인간이 주인이 되고 개는 그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속적 존재'라는 인식을 함축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개는 배우자처럼 인간과 '대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조선시대의 개는 그 활용도에 따라 사냥용, 경비용, 식용으로 구분되는데 사냥용의 개는 '애완견' 성격을 띠고 주로 상류층이나 부유층에서 길러졌으며 보통은 집지키는 경비용 혹은 식용으로 사육되었다. 고전문학에서는 사냥개나 식자재로서의 개 그리고 오늘날의 '반려견'과 같은 성격을 띠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거의 대부분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 발표는 문학작품을 통해 '경비용 가축'이었던 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간의 삶의 동반자로서의 '반려견'으로 자리잡는 양상을 검토하면서 인간과 개의 공존 관계의 변화상을 살피는 데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 개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데 있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resentation intends to explore the coexistential aspect of humans and dogs working with premodern Korean literature such as poems in Chinese(漢詩), Sijos(時調), and The Story of Sukhyang(淑香傳) and modern Korean poems, novels and essays. This study begins by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livestock, pets, and companion animals: livestock refers to animals raised for a useful purpose, pets to those for a person's entertainment, and companion animals to those who share human's homes and lives. Dogs in the Joseon Dynasty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dogs for guard, dogs for hunt, and dogs for food--by their uses, mainly the first category of which appears in literary texts.

This study mainly examined the aspect that dogs for guard in the premodern literary texts, as time went on, established themselves as dogs for human's companion in modern texts. For explaining this change this study focused on showing th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of human's attitudes towards dogs embodied in the two types of literature.

비인간 존재자들과 함께, 어떻게 세계를 알아가야 하는가?

- 포스트휴먼 지식을 위한 몇몇 시도들

How Should We Get to Know the World With Non-human Critters?

- Some Cases to the Possibility of Posthuman Knowledge

현남숙 Hyun Nam-Sook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국문요약

인류세에 비인간 존재자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가 주요한 철학적 중심 물음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관심의 변화에 부응하듯 로지 브라이도티는 '포스트휴먼 지식'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다른 종과 함께 세계를 알아가려면, 어떻게 인간중심적 인식론을 넘어서 다종적 지식형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도나 해러웨이는 '응답-능력(response-ability)'를 통해 종간의 비대칭적 이해를 도모한다. 애나 칭은 '알아차림의 기예(arts of noticing)'를 통해 다종간의 중첩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톰 반 두렌은 '주의 기울임의 기예(arts of attentiveness)'를 통해 관찰과 응답으로 멸종의 위기로부터 다종의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 각각의 접근은 포스트휴먼 지식의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앎의 주체를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자들로 확장한다. 둘째, 앎의 대상을 인간 외부가 아닌 주-객의 분리 불가능한 얽힘으로 간주한다. 셋째, 앎의 내용 면에서 보편성 또는 객관성과는 다른 상황적 지식을 추구한다. 포스트휴먼 지식론의 인식 주체의 확장, 인식 대상과의 얽힘, 지식의 상황성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

Abstract

In an era where 'posthuman knowledge' is required, how can we go beyond human-centered epistemology and seek multi-species knowledge? Donna Haraway seeks a holistic understanding of species through 'response-ability'. Anna Ching takes it that interspecies relationships can be explained by means of the 'art of noticing'. And Tom Van Duren attempts to overcome the crisis of extermination by monitoring and responding through the 'arts of attentiveness'. When it comes to posthuman knowledge, those approaches have a certain commonality. First, the subject of knowing is expanded to include non-human beings. Second, the object of knowing is considered to be inseparable from the subject. Third, as far as the content of knowledge is concerned, instead of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some sort of situated knowledge is pursued.

분과회의 세션 4

Parallel Session

- 4-1
321호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
- 4-2
322호 동아시아 문화 공감
Cultural Empathy in East Asia
- 4-3
323호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in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 4-4
324호 이동과 결합, 새로운 발견
Moving, Combining, and Discovering
- 4-5
325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세션 :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제도 현황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HSS)]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4-6
326호 부산특별세션 : 이동과 전환의 부산
[Busan City Session] Busan in Movement and Transition

분과회의 세션 4

4-1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Parallel Session 4

4-1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소통의 도구로서 디지털 역사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그 비용Digital Histo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Tools of
Communication, and their
Costs

우동현 Donghyun Woo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국문요약

이 글은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의 역사학 연구를 고찰한다. 역사학의 쇠신이라는 취지에서 디지털 역사학이 추구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역사학 연구가 나오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문의 첫 번째 절에서는 2023년 현재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분야의 현황을 개괄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디지털 역사학에 드는 비용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소통의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 디지털 역사학의 방향성에 대해 전망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stud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relation to the theme of communication. Despite the fact that digital history (DHis) is being pursued with the intent of innovating historical studies, why is it difficult to produce qualitatively novel DHis

works that can build consensus among researcher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first section of the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DHis as of 2023, and the second section reviews the costs involved in carrying out DHis. The conclusion forecasts the direction of DHis to enhance the chance of communication.

분과회의 세션 4

4-1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Parallel Session 4

4-1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읽는 사람과 AI시대의 문학 교육 :
인문 커먼즈를 위하여Literary Education and the
Reader in the Age of AI :
Towards a Humanities Commons정서현 Jung, Seohyon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국문요약

인공지능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흔히 AI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져 온 창작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가에 주목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 담론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는 읽는 사람이다. 이 글은 독자들의 감각적 경험을 연결해 사회적 인지의 폭과 깊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문학 교육의 역할을 논한다. 문학 교육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의 습득과 전승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 훈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생활과 직업 환경의 모든 면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시대에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읽기라는 지적 행위의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에 완전히 위탁할 수도 전적으로 개인적일 수도 없는 읽기의 감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감각 훈련이 미래 인류의 공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역설한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 차원에서도 비평 감각의 강화는 디지털 기술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넘어 과학기술의 윤리적

활용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 글은 읽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인문 지식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인문 커먼즈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자원의 공유와 공동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커먼즈 개념은 디지털인문학의 학술 실천이 추구하는 공생의 가치와 일부 맞닿아 있다. 인문 커먼즈의 활성화를 통해 인간 종이 착취적이지 않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낯선 지적 존재와 관계 맺으며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discourse around the interse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terature, a recurring inquiry pertains to the potential of AI to demonstrate creativity, a characteristic historically ascribed solely to human beings. However, in examining the role of literatur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erative to prioritize conversations centered around the reader. This essay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education as an essential instrument for establishing connections among readers and shaping human intellectual involvement in the digital age. The primary emph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social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cognitive process of reading. It asserts that developing aesthetic sensibilities through literary education is pivotal in fostering harmonious human cohabitation and facilitating future prosperity. In the context of digital literacy, which assumes heightened significan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should fully understand the role of tools as purveyors of knowledge while also training the readers for the ethical utilization of their technological functionalities. By embracing the concept of value as a shared resource, this essay advocates for the creation of humanities commons that focus on interconnected readers who collaboratively generate and distribute humanistic knowledge.

분과회의 세션 4

4-1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 연구,
소통의 조건과 연대의 매개를 찾아서

Parallel Session 4

4-1 Humanities Research in the Age of AI : In Search of
Conditions of Communication and Medium of Solidarity

철학과 디지털인문학

Philosophy and Digital
Humanities

김동우 Dongwoo Kim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국문요약

이 글에서 나는 디지털인문학과 철학의 관계에 관하여 논할 것이다. 내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디지털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둘째, 디지털인문학은 철학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나는 디지털인문학을 디지털 기술이 인문학에 가져올 방법론적/실체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모든 인문학적 질문에 대한 탐구로 넓게 이해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인문학을 이처럼 광의로 이해할 때, 그것이 철학을 과학 및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포괄적인 융합학문으로의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I shall discuss some of the relations between digital humanities and philosophy. I am interested in two questions, viz., what digital humanities is, and what its promises are for philosophy. I shall suggest that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digital humanities in the broad sense, so that it encompasses not only researches on the 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changes that digital technologies have brought to the disciplines of humanities but also any investigations into humanistic problems of the digital era. It is on this broad understanding of digital humanities, I shall suggest,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hilosophy.

동시대 한국 소설 속 '일본'과의 마주침 :

'한/일' 관계를 넘어 '개인들'의 유대를 상상하기

Encounter with "Japan" in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

Imagining the bond between "individuals"
beyond "Korea-Japan" relations

정창훈 Jeong Changhoon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동시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타자로서의 '일본'에 주목한다. 최근 주요 문학상 수상작 가운데 일본을 배경으로 삼거나 중심인물로 일본인이 등장하는 작품이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최은영 「쇼코의 미소」(2013), 박민정 「세실, 주희」(2017), 한정현 『줄리아나 도쿄』(2019), 장류진 「도쿄의 마야」(2020)이다. 이 소설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의식은 국경이나 국적을 넘어 타자와의 공감과 유대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젊은 작가들이 공감과 유대의 대상으로서, 다름 아닌 '일본'을 손꼽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양국의 젊은 세대가 다양한 초국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 역사적, 민족적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큰 관점의 차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존재는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다름(역사적 차이)을 실감하게 되고, 반대로 멀어지면 서로의 닮음(문화적 혼종성과 유사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하는 '까다로운 타자'로서 감각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까다로움이야말로 새로운 공감과 유대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소설적, 문제적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특이점에 초점을 두고, 동시대 한국 소설이 그 '까다로운 타자'와 어떻게 소통하고자 했으며, 어떻게 화합적 관계를 모색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존의 윤리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other of "Japan (Japanese)" in contemporary Korean novels. Among the recent major literary award-winning work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Japanese appears as a central character or uses Japan as a locational background, such as Choi Eun-young's "Shoko's Smile" (2013), Park Min-jung's "Cecil, Joo-hee" (2017), and Han Jeong-hyeon's "Juliana Tokyo" (2019), Jang Ryu-jin's "Maya in Tokyo" (2020). The common theme of these novels is to think about empathy and solidarity with the other beyond nationalities.

So why do young Korean writers today choose none other than "Japan" as a partner for empathy and solidarity in their works? This is probably because while the young generations of both countries share much in common culturally through various transnational experiences, they als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pectives on historical and political issues. In short, for the younger generation in Korea, "Japan" is a "tricky other" that makes them realize their differences (differences in histor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when they get closer, but on the contrary, when they get farther away, they realize their similarities (cultural hybridity). And this trickyness is the beginning of a novelistic and problematic event that makes it possible to imagine a new form of empathy and solidarity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Focusing on that point, this article tries to discussing the ethics of coexistence in today's era of hyper-connectivity, by examining how contemporary Korean novels attempted to communicate with the "tricky other" and seek a harmonious relationship.

공감을 통한 경계 너머 :**K-pop 문화 교육에 관한 고찰****Beyond Boundaries through Empathy :****Reflections on Teaching K-pop Culture**

김여근 Yeogeun Kim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전염병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었고, 세계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새롭게 정립되었다. 따라서, 인문학 교육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헌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감능력 배양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활동 및 학습 유형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문화적, 인종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감을 키우는 방법이 K-pop 문화 강좌가 될 것임을 제안한다. 해당 강좌는 글로벌 한국학 분야의 학제 간 학술 조사인 동시에, 강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강좌 자료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에게 3개의 감상문이 주어져, 학습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들의 감상문을 분석한 결과, 이 과정은 '공감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감은 K-pop 팬덤에서 형성된 공동체 의식을 통해, 특히 K-pop 관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중심 가치로서 존중받는 현대 K-pop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는 공감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K-pop 문화 강좌는 기존의 학제에 머물러 있으나, 인문학 교육이 공감을 통해 경계를 넘어 세계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Abstract

The pandemic has impacted various aspects of our life, and our awareness and knowledge of our position as a citizen of the global society has been articulated anew. Humanities education should be thus dedicated more than ever to the improvement of understanding others and in turn the better understanding of ourselves. To this end, cultivation of empathy is essential. Thus, it is imperative to ensure new techniques, activities, and types of learning in order to nurture empathy in a more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I propose a K-pop culture course be a way in which empathy is fostered through proactive communications among students from culturally and ethnically diverse backgrounds. Students as well as an instructor play a leading role in presenting and discussing course materials while it is an interdisciplinary scholarly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global Korean Studies. In this course, three reflection papers were assigned to culturally diverse students where they were given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ir learning experience. My analysis of their reflective writings show that this course offered "the joy of being together through empathy, while acknowledging our differences." It is because the course was designed to facilitate an empathetic approach to the attainment of a comprehensive view of contemporary K-pop culture, where empathy is respected as a central value shared among the audience of K-pop, notably through the sense of community formed in the K-pop fandom. This K-pop culture course, while it remains in the conventional academic setting, is an exemplary case where humanities education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global citizenship beyond boundaries through empathy.

암각화로 본 공감과 소통의 세계관

-중앙아시아 이식쿨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The Worldview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in Rock
Paintings- From Central Asia's Issyk Kul to
Taehwa River in Ulsan

신대곤 Shin Dae Gon

한국암각화학회

Korea Petroglyphs Research Association

국문요약

암각화를 통하여 선사, 고대인들이 서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음에도, 관념을 같이 하고 인간애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세계로 호흡하고 있었음을 암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흑해 연안과 카스피해 일대, 중앙아시아와 파마르고원, 천산산맥과 알타이, 몽골과 북만주, 연해주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고대 교통로를 따라 지역 상호간 교류하고, 공감하였던 선인들의 관념이 유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양신앙, 성애신앙, 성수신앙은 이들 지역에서 공히 확인되는 선사~고대인의 기원적세계관이다. 카자흐스탄 탄발리의 태양머리 신상은 동식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형태로 나타난다. 성애 행위라는 활력적 교접에 의한 번영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태양신앙과 유사하다. 중앙아시아의 암각화에서는 기원전 8~7세기경에 수목의 형상과 의미를 띠는 녹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울산 천전리 암각화에서 보이는 수목형 녹각을 지닌 사슴에도 수목신앙이 내재되어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견갑형동기에는 수목형 녹각을 가진 사슴이 음각되어 있으며, 농경문청동기 중

서조와 수목문에서 그들의 성수신앙에 대한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세계관의 소통과 공유현상은 사회간 상호 유사한 문화요소를 내재적 또는 모방적으로 생성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동체 문화현상은 현대의 이질적이며 자민족 중심주의 시대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라시아적 세계관과 자민족의 주체적 관념이 하나로 어우러진 암각화 신앙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세계 화합의 순기능적 정신세계이다.

Abstract

Through petroglyphs, it can be confirmed through petroglyphs that prehistoric and ancient people were breathing as one world while dividing ideas and sharing humanity, even though they were located far from each other. It can be seen that the ideas of the ancestors who interacted and sympathized with each other were similar along the ancient transportation routes leading to the Black Sea coast and the Caspian Sea, Central Asia and the Pamir Highlands, the Cheonsan Mountains and Altai, Mongolia and North Manju, the Maritime Province and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Sun Faith, Erotic Faith, and Tree of life Faith are the original world views of prehistoric and ancient people that are both identified in these regions. The image of the sun's head in Tanbaly, Kazakhstan, appears in the form of a ritual to pray for the abundance of animals and plants. It is similar to the solar faith in that it wishes for prosperity and abundance through the vital intersection of sexual intercourse. These community cultural phenomena help fundamentally heal the same phenomena that arise in the era of heterogeneous and self-ethnicism in modern times. The rock art faith, which combines the pan-Eurasian worldview and the subjective idea of self-reliance, is a pure functional spiritual world of global harmony that lives and breathes today.

조면호(1803~1887)의 수석

감상과 石交:

교환, 교유, 그리고 교감

Jo Myeonho (1803~1887)
and his Connoisseurship of
Miniature Rocks:A Focus on Multiple Readings of
Stone-exchange

신정수 Shin Jeongsoo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壽石을 매개로 19세기에 조선과 청의 문인 사이에 이루어진 교유를 살펴보면서 공감을 통한 한중 문인의 연대 의식을 고찰한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스트휴머니즘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수석은 향유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자신과 돌을 동일시하는 문인들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돌을 친구에게 선물하고 친구는 그 돌을 선물한 친구의 분신(alter ego)으로 여기며 책상 위에 놓고 항상 그 사람이 옆에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이 돌을 매개로 우정을 나누는 문화는 컬트(cult)에 가까울 정도로 집단적이어서 19세기 서울의 지식인 계층에서 石交가 유행하였다.

변치 않는 우정을 단단한 돌에 비유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며 19세기의 석교의 문화에 관해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돌을 통한 문인들의 交遊에 주로 주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문인들이 실제로 돌을 주고받는 행위, 즉 交換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며 또 문인들간의 우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돌과의 交感, 즉 사람과 돌의 우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교의 의미를 交遊, 交換, 交感으로 해석하면서 19세기 수석 문화의 특징과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본 발표문에서 연구대상은 조선 문인으로 趙冕鎬(1803~1887), 李壽民(몰 1863?) 등이고 중국 문인으로 蔣詩(1768~1829)와 그의 두 아들 蔣鉞, 蔣鈞, 熊昂碧, 曹江 등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ultural exchange that took place between scholars from Joseon and Qing in the 19th century, using "suseok" or collectible stones as a medium, and explores the sense of solidarity among Korean and Chinese literati through this exchange.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post-humanism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between people and objects.

Stones became objects of appreciation, to the extent that some literati even identified themselves with stones. Individuals would gift stones they cherished to their friends, and the recipient would consider the gifted stone as an alter ego of the friend, placing it on their desk and always feeling as if that person was present. This culture of friendships through stones was so collective, almost cult-like, that it became a trend among the intellectual class in 19th-century Seoul.

While previous discussions mainly focused on the interactions among literati through stones, this study will pay attention to two new aspects. It will examine the act of exchanging stones and its social significance, and it will also demonstrate that beyond friendships among literati, there was a deeper sense of connection or "sympathy" between people and stones. Therefore, this study will interpret the meaning of stones as "interaction," "exchange," and "sympathy,"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19th-century scholar culture. The figures of interest in this study include Jo Myeonho (1803~1887), Xiong Angbi, and Cao Jiang, among others.

분과회의 세션 4

4-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Parallel Session 4

4-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and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지구의 한쪽 허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 콩고 생태계에 관한 한국의 역할을 찾아서

Recovering the Planetary-
Ecological System in the
Congo Basin :

Towards Korean-Congolese Cooperation

이종찬 LEE Jongchan

열대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Planetary Tropical Studies

국문요약

콩고 열대우림은 아마존, 말레이와 함께 지구행성의 3대 허파에 속할 정도로,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호모사피엔스와 모든 생물체의 생존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한국인은 이런 사실을 평소에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콩고인들이 지난 150년간 무려 2천만 명 이상이 식민화와 국제전쟁으로 죽었다는 것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본 발표의 이론적 지향점인 행성인문학과 지구자연학의 융합적 사유는 각 학문 사이의 분절화를 극복함으로써, 몸의 항상성, 사회, 생태환경, 생지화학적 에너지 순환 사이의 행성적 관계를 파악한다. 서구 열강, 중국, 러시아에 의한 콩고의 국제전쟁, 식민화, 광물 개발은 빈곤-질병-생태재난의 악순환을 지속시켜왔던 세 가지 주요한 힘이다. 한국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콩고를 비롯한 제3세계=열대의 학자들과 연대를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go Basin rainforests is one of the three lungs of the planet along with the Amazon and Malaya, and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survival of Homo sapiens and all living creatur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not only are Koreans unaware of this fact, but they have almost never heard of the fact that more than 20 million Congolese people have died from colonization and international wars over the past 150 years. The theoretical focus of this presentation lies in an interdisciplinary thinking of planetary humanities and nature studies, thereby investigating the planetary relationship between body homeostasis, society, ecological environment, and biogeochemical energy circulation. International wars, colonization, and mineral exploitation of the Congo by Western, Chinese and Russian powers are three major forces that have perpetuated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disease, and ecological disaster. In order to break this vicious cycle, Korea must form solidarity with scholars from the Congo and the other third world countries.

분과회의 세션 4

4-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Parallel Session 4

4-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and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공존과 상호 번영을 탐구하기 :

아마존의 특징을 통해 인류세의 기원을
추적하고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Exploring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

Tracing the Origins of the Anthropocene
through Amazon's features and
Presenting Alternative Approaches

이태혁 Taeheok LEE

부산외국어대학교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문요약

가까운 미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 여러 지표들은 암울한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 그리고 이와 연계된 담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생태계가 쇠퇴의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지구촌 내부의 연대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은 북쪽의 선진국이 남쪽의 저개발국에 끼친 해악과 그에 따른 다가오는 글로벌 위기를 강조한다. 이는 제3세계 대륙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마존의 역설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를 배출하는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생명기능이 무너지면서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아마존은 결백하다. 문제는 인류다. 본 연구는 생태주의적 사고가 주도하는 담론인 '트랜스아마존'이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개념을 탐구한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의 현실을 상수와 변수를 통해 분석한다. 상수는 식민주의를 초래한 세계 체제 내에서 자급 자족 자본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개발 전략이다. 변수는 인프라 네트워크, 소, 콩 생산에 대한 세계 경제의 의존도다. 역설적이게도, 세계적 맥락에서, 이 논문은

기후 위기를 세계 경제 시스템의 유산으로 돌리는 생태 담론 공동체 내의 'Trans-Amazon'담론에 도전한다. 개별 국가나 지역 주체의 '재산'이 아닌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아마존의 제도적 차원을 성찰하고, 이러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의식의 진화를 고찰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류세 시대가 아닌 자연과 인간, 사회가 완전히 공존하고 상생하는 'Ecocene' 시대를 상상한다.

Abstract

The near future is a reflec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Various indicators point to a bleak outlook. Therefore, the values of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and the discourse associated with them, are more crucial than ever. Solidarity within the global community is urgently needed, as we must prevent the ecosystem from turning into a state of decay. This perspective highlights the harm caused by the Global North to the Global South and the looming global crisis that follows. This i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third world continent, Latin America.

The paradox of the Amazon has begun. The vital function of the Amazon rainforest, often referred to as the 'Lungs of the Earth,' which absorbs carbon dioxide emitted by human activities and releases oxygen, is collapsing, exacerbating the climate crisis. The Amazon is innocent; it is humanity that is the problem.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cept of 'Trans-Amazon,' a discourse driven by ecological thinking, as an alternative to capitalism.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reality of Brazilian Amazon, which occupies about two-thirds of the Amazon rainforest, through constants and variables. The constants are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self-sustaining capitalism and nationalism within the global system that caused colonialism. The variables are the global economy's reliance on infrastructure networks, cattle, and soybean production. Paradoxically, within the global context, this article challenges the discourse of 'Trans-Amazon' within the ecological discourse community, which attributes the climate crisis to the legacy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It reflects on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the Amazon as a 'global asset,' rather than the 'property' of individual nations or regional entities and contemplates the evolution of consciousness that can establish this idea.

Hence, this article imagines an 'Ecocene' era, a time of full coexistence and mutual prosperity among nature, humans, and society, rather than the Anthropocene era.

분과회의 세션 4

4-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Parallel Session 4

4-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and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식민주의의 영향 :

동남아시아의 빈곤화와 환경 파괴

Impacts of Colonialism :

Impoverishment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Southeast Asia

조흥국 Cho Hungguk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근대 시기 동남아시아에 대한 서구 식민주의는 전통적인 경제 활동, 특히 무역을 위축시켜 이 지역의 빈곤화를 초래했다. 또 최근 도서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삼림 파괴와 연무 등 심각한 환경 파괴도 식민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 동남아시아에서는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 이 문제는 서구 식민 통치를 통한 빈곤화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특히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중국의 팽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측면과 관련하여 중국이 최근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해 식민주의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륙부건 도서부건 동남아시아 도처에서 확인되는 폐기물 공해도 이른바 '폐기물 식민주의(waste colonialism)'의 소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근대 시기 서구 식민주의와 최근 중국의 팽창이 동남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고찰될 것이다. 특히 서구 식민주의의 영향은 동남아시아의 빈곤화와 산림 벌목·팜오일 플랜테이션·폐기물 생산

등에서 나타나는 환경 파괴의 측면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은 인도차이나 국가들에서 무엇보다도 댐 건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될 것이다.

Abstract

During the modern era, Western colonialism in Southeast Asia undermined traditional economic activities, especially trade, leading to impoverishment in the region. Furthermore, recent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Southeast Asia, such as deforestation and haze, can also be traced back to colonialism. In Mainland Southeast Asia,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dam construction is severe. While the root of this issue can be found in Western colonial rule and the resulting impoverishment, a more direct cause can be attributed to China's expansion, particularly in Indochina. It should be noted that China is currently adopting a colonialist stance towards countries in this region. The pollution caused by waste, which can be observed throughout mainland and insular Southeast Asia, can also be understood as a product of 'waste colonialism.'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Western colonialism during the modern era and China's recent expansion have affected Southeast Asia. In particular, the impact of Western colonialism will b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evident in Southeast Asia, such as deforestation, palm oil plantations, and waste production, while China's expansion will b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occurring primarily through dam construction in Indochinese countries.

분과회의 세션 4

4-3 제3세계(Global South)의 기후위기, 빈곤, 생태 재난 : '행성적 인문학'(planetary humanities)의 도전, 역할, 과제

Parallel Session 4

4-3 Climate Crisis, Poverty, and Ecological Disasters and the Global South : Challenges, Roles, and Tasks of 'Planetary Humanities'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조리 에너지, 빈곤 및 기후 변화 : 말라위의 경험을 통하여

Cooking Energy, Poverty and Climate Change in Sub-Saharan Africa : Experiences from Malawi

Leo Zulu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문요약

깨끗한 환경에서의 요리에 대한 열악한 접근은 개발도상국,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SSA)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4억 명에 달하는 9억 2천 3백만 명의 사람들이 청정에너지에 접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 열악한 접근은 식민지 이후의 환경 유산의 맥락에서 삼림 벌채, 기후 변화, 빈곤, 성별을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 SSA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을 요구하는 가정 대기 오염과 같은 관련 문제와 관련이 있다. 국가 및 세계 환경 거버넌스 정책 및 조약은 이러한 과제의 상호 연관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빈곤 (SDG1), 기후 변화 (SDG 13), 여성과 어린 여자 아이의 임파워먼트 (SDG 5),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에너지 접근 (SDG 7) 그리고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SDG 15), 등을 다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SSA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이러한 목표는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문제의 성격, 단순한 여겨지는 가정들, 구역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 해결책, 그리고 여전히 식민지 정책을 반영하는 권력의 근본적인 차별적 관계 때문에 달성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상호 연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무시되는 조리 에너지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불안을 조사한다. SDGs를 출발점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정 조리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주요 정책 접근법을 검토하고, 남부 아프리카의 말라위 사례를 사용하여 탈식민지 정책에서 맥락, 정책 가정 및 연속성의 중요성,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조사한다. 필자는 이러한 그러한 복잡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체론적 접근의 한 예로서 말라위를 위한 국가 숲 전략을 개발한 경험을 검토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과 효율성의 주요 측면의 정통 청정 에너지로서의 LPG 또는 전기의 지혜보다는, 상호 연결된 에너지/빈곤/기후 해결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으로서, 고체 바이오매스 연료를 포함, 보다 현실적인 중간 결과를 고려할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로써, SSA 지역과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함의로 결론짓는다.

Abstract

Poor access to clean cooking remains a major problem in the developing world, particularly Sub-Saharan Africa (SSA) where as many as 923 million people (of 2.4 billion globally) lack clean energy access. The poor access is interlinked with related problems including deforestation, climate change, poverty, social inequity including gender, and household air pollution that claims half a million people in SSA, in the context of adverse post-colonial environmental legacies. National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policies and initiatives have tended to neglect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se challenges. Thu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dealing with poverty (SDG1), climate change (SDG 13), women and girl empowerment (SDG 5), access to reliable and efficient energy (SDG 7),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SDG 15) have laudable lofty goals to be reached by 2030, but for many SSA African countries these goals are unrealistic to achieve partly because of the complex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problems, simplistic underlying assumptions, solutions that tend to be sectoral, and underlying differential relations of power that still reflect colonial policie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often-neglected importance of cooking energy and associated insecurity in addressing interconnected problem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climate change. I examine major policy approaches to dealing with clean cooking energy issues in the developing world using the SDGs as a starting point and use the case of Malawi in southern Africa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context, policy assumptions and continuities in postcolonial policies, and links to climate change. I examine the experience of developing a national charcoal strategy for Malawi as an example of a holistic approach to deal with such complex challenges and the need to consider more realistic intermediate outcomes that include solid biomass as sustainable solutions to the interconnected energy/poverty/climate solutions rather than the received wisdom of LPG or electricity as the orthodox clean energies drawing on work on demand side dynamics of energy use and efficiency. I conclude with implications for the SSA regional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일제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디아스포라 :

캘리포니아 한인 가정의 정착과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1910~1923)

Korean Diaspora during Japanese Occupation : A Study on Settlement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1910~1923)

김지원 Jiwon Kim

대진대학교

Daejin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10년부터 1923년까지 북캘리포니아에 정착한 한인가족의 농업활동과 적응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조선의 농업과는 매우 달랐던 대규모 벼농사에 성공적으로 종사한 1세대의 적응 노력을 분석한다. 이어서, 북캘리포니아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1913년, 1920년, 1923년의 외국인 토지법이 한국 가정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제도적, 역사적으로 들여다본다. 본 연구는 카운티 기록, 특별 소장품, 구술 역사, 미국 정부 문서, 현대 연구 및 신문을 기반으로 캘리포니아의 한인 가정이 제 1차 세계 대전 쌀 호황의 영향을 받아, 20 세기 초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개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인의 농업방식, 재배면적, 작물의 종류, 투자와 수익, 파트너십, 자금확보, 미국계 은행대출, 등을 참고하여 서술할 것이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 이민 온 한인 이민자들은 주로 미국 대륙의 초기 한인 사회의 사회 경제적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기 전에 하와이로 처음 이주한 한인 이민자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1952년까지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었다. 1912년경, 캘리포니아에서 성공적인 벼농사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농업 개발은, 한국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농장 노동자에서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외적인 충성심을 키우기보다는 한국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한국 독립에 기여한 예외적인 한국 가정들의 독특한 적응 패턴을 제시한다. 한인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것은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시민권을 부정하는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한인의 신분 상승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합친 결과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gricultural activities and adaptations of Korean families who settled in Northern California from 1910 to 1923. It analyzes the adaptation efforts of the first generation who successfully engaged in large-scale rice farming,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the agriculture of Joseon. Also it examines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Northern California and examine institutionally and historically how the Alien Land Acts of 1913, 1920, and 1923 affected the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families. Based on county archives, special collections, oral histories, U.S. government documents, contemporary studies, and newspaper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Korean families in California were influenced by the World War I rice boom and made efforts to develop Korean diaspora in California at the start of the twentieth century. Also this study will refer to Koreans' agricultural methods, cultivation area, types of crops, investment and profits, partnerships, securing funds, and American bank loans.

Since the early twentieth century, Korean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have resided predominantly in California, where they have represented the socioeconomic center of the early Korean community 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Korean immigrants who had first migrated to Hawaii before settling in California formed a new Korean community there. Until 1952,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were classified as "aliens ineligible for citizenship." Successful rice cultivation started in California around 1912 and this new agricultural development provided opportunities for Korean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igratory farm laborers to rice farmers. This study presents the unique adjustment pattern of exceptional Korean families who made significant efforts to adjust to Californian society and improve their socioeconomic status; however, in this process, they continued to strongly express their Korean identity and contributed to Korean independence rather than develop an outward loyalty to the United States. Korean immigrants' successful adjustment to California resulted from their combined efforts to maintain their Korean identity, overcome racial discrimination that denied them citizenship rights, and promote the upward mobility of ethnic Koreans.

난민·이주 쟁점에서 어휘 전이 경로 연구의 인문학적 의의

Humanities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Meaning Shift of Vocabulary Words in Refugee and Migration Issues

최은주 Eunjoo Choi
건국대학교
Konkuk University

국문요약

내전·전쟁에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가뭄·태풍 등으로 이재이주 현상이 초국가적인 것이 되었다. 이 논문은 hospitality(환대)처럼 난민과 인접해 있는 어휘들의 전이 경로 추적 연구와 난민 수식의 (신)조어 발명과 수집이 인문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논한다. migration(이주)과 borders(경계)의 의미 변화로부터 hospitality, immunity(면역) 분석에 이어, 생물지리학 용어 *réfugia* (레푸기아)의 인문학 분야의 사용은 인간에게 절대적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언어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체계를 구축하지만, 완전히 견고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국제 난민법은 국가 차원의 난민 수용을 권고하지만, 비강제적이기 때문에 법의 강제적 성질과는 다르게 국제 정세, 국내 정치 등과 얽혀있다. 그러나 어원은 인간의 숙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스어 기원의 치료와 독을 의미하는 *phármakon*(약/독)에서 나온 *pharmacon*(약), 손님/주인의 역할에서 나온 hospitality처럼 한 어휘는 상반되지만 그만큼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다. hospitality의 라틴어 어원 *hospes*는 인간의 의식, 경험, 윤리의 역사성을 포함한 어휘이다. 그밖에 강과 산의 형세를 따라 형성되었던 비강제적인 borders는 강화된 국민 국가에 기초한 법적 개념이 되었으며, 마침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Abstract

Besides crises of wars, the refugee phenomenon has become transnational due to sea level rise, drought, and typhoons involving climate change. This paper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research on the meaning shift of vocabulary words adjacent to refugees, such as hospitality, and protolanguage for refugee modifiers. From the changes in the meaning of migration and borders to the analysis of hospitality and immunity, bringing the biogeographic term *réfugia* to the humanities highlights language issues. Language builds human thought systems, but it is not static. For example, international refugee law urges the implementation of refugee acceptance at the national level, but because it is non-mandatory, it is associated with world status and domestic politics. However, the etymology contains the fateful stories of humanity. Words such as *pharmacon* from the Greek source term *phármakon*(remedy/poison) and hospitality, which is from the role of guest/host, contain conflicting yet rich meanings. The Latin etymology of hospitality, *hospes*, is a term that includes the history of human consciousness, experience, and ethics. On the other hand, non-coercive borders, formed along the lines of rivers and mountains, became a legal concept based on strengthened nation-states, and migration, therefore, acquired a negative connotation.

다문화 학생과 소통, 공감, 공존하기 :

다문화 학교 STEM 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Communicating, Empathizing, and Coexisting with Multicultural Students : Reflections on STEM Education Needs in Multicultural Schools

하민수 Minsu Ha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우리나라로 다문화 학생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다문화 교육의 중심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적응 교육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언어와 문화 적응 중심의 다문화 교육을 비판하고, 소통, 공감,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수학, 과학, 공학(STEM) 교육의 가치를 논의한다. STEM 교육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학습으로, 문화권과 상관없이 공통적인 속성이 강하여 소통하기에 적절하다.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수업은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학습법이 될 수 있다. STEM 교육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이며 다양한 진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문화 학생이 STEM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면 한국 사회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의 장애 요인인 편견이다. 최근 생명과학교육을 통해 인종과 고정관념 편향을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과 소통, 공존, 공감하기 위하여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STEM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inflow of multicultural students into our country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heart of multicultural education lies the teaching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This study critiques the current focus on language and cultura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education, discussing the value of mathematics, science, and engineering (STEM) education from perspectives of communication, empathy, and coexistence. STEM education, which helps in understanding natural phenomena, has universal attributes that make it suitable for communication regardless of cultural background. Lessons that use simple language to explain natural phenomena can b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not just for multicultural students but for everyone. STEM education is at the core of high-value-added industries and offers a wide range of career opportunities. If multicultural students can leverage their capabilities through STEM education, and in the process elevate their personal sense of achievement and self-esteem, they can adapt more quickly to Korean society. Lastly, there is the obstacle of prejudice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cent findings suggest that life science education can reduce racial and stereotyping biases. The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STEM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students to promote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with them.

한국문학은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How Does Korean Literature Understand Dementia

김은정 Kim Eunjung

경남대학교

Kyungnam University

국문요약

치매를 모티프로 하는 한국의 치매서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서술의 초점이 주변인에 가 있는 유형, 서사의 중심이 치매인 당사자로 옮겨간 유형, 치매인 자신이 직접 서술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박완서) 등 첫째 유형에서 치매인은 관찰적 대상에 머무는 데 반해, <달걀> (조경란), <눈이 부시게> (JTBC 드라마) 등 둘째, 셋째 유형에서는 삶의 주체로서 치매인의 이야기 정체성이 주목되고, 특히 셋째 유형은 치매인이 직접 서술하는 기법을 통해 그의 내면세계에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한다. 한국문학은 이와 같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치매인의 삶을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근 정책적 제도로 치매인의 의사결정권을 중시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치매인을 고유의 이야기 정체성을 지니는 존엄한 '주체'로서 인식하는 문학의 정신이 결합함으로써 공감과 공존의 사회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In Korean literature, the dementia narratives with dementia as a motif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se are the type in which the focus of description is on the guardians, the type in which the focus has shifted to the dementia patient himself, and the type in which the person with dementia describes his own story. In the first type, such as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Housekeeping is over* (Park Wan-Seo), dementia patients remain in observational objects, while in the second and third types, such as <달걀> *Egg* (Jo Kyung-Ran) and <눈이 부시게> *Dazzling* (JTBC's drama), the narrative identity of dementia patient as subject of his life is noted. In particular, the works of third type approach his inner world more directly through the technique of the patient describing directly. In this way, Korean literature has continued to explore the lives of people with dementia while expanding its scope. Recently, the dementia policy has also shown a change that values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dementia patient, and the spirit of literature that recognizes dementia patient as dignified 'subject' with their own narrative identity can help form a society of empathy and coexistence.

분과회의 세션 4

4-5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세션 :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제도 현황

Parallel Session 4

4-5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HSS)]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인문학 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A Review of the Problems of
Support Policy for Humanities

김승욱 Kim, Seungwook

충북대학교,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Humanities Association of Korea

인문학 지원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김승욱 (충북대 교수 / 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인문학 지원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목차

01. 문제 인식
02.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3. 불균등한 학술 투자
04. 전문법령 제정의 필요성
05. 결론

문제 인식

● 인문학

- 인간 존재와 그 표현이 가진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그 문화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
- 어문학, 역사학, 철학, 예술 등 학제 분야
-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활동의 시각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척도 제공. 인간 존재와 공동체를 지탱하고 지적 발전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학문 분야
-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존속될 수밖에 없는 학문

문제 인식

● 곤경에 놓인 인문학

- 반복 제기되는 인문학의 '위기'
 - 시대의 전환: 탈근대 시기의 인문학 위기
 - 구조적 압박: 시장경제와 '지식의 환금성'
 - ※ A.I. 등 지능기술의 진화 속 가속화된 위협
 - 한국적 맥락: "추격형 발전 전략" 속 인문학
- 불안정한 학술생태계
 - 소극적인 학술 지원 속에서 악화된 생태계
 - 학문 세계와 자원 배분 면에서의 '주변화'

문제 인식

● 인문학 지원 정책?

- 인문학 위상, 역할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의 반영으로서 지원 정책
- 인문학 지원 정책, 특히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의 현황에 대한 검토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 **학술생태계**: 학술 세계의 여러 주체와 해당 주체들의 학술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제 요인들을 포괄하는 전체 체계 → 주체들의 학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
- 연구자/ 교수자, 학생 및 학문후속세대
대학, 연구소, 학회 등
연구지원기관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연구자, 교수자 현황

- 전임교원 수의 정제와 비전임교원 비율의 증가 추세

연도	고등교육기관							일반대학		
	합계	전임	비전임				합계	전임	비전임	
			승진	겸임	초빙	강사				기타
2022	231,671	89,257 (38.5%)	142,414 (61.5%)	23,654 (10.2%)	8,288 (3.6%)	67,509 (29.1%)	42,963 (18.5%)	177,634	72,752 (41.0%)	104,882 (59.0%)
2021	227,241	90,464 (39.8%)	136,777 (60.2%)	23,290 (10.2%)	8,017 (3.5%)	65,378 (28.8%)	40,092 (17.6%)	173,791	73,588 (42.3%)	100,203 (57.7%)
2020	221,107	89,475 (40.5%)	131,632 (59.5%)	24,116 (10.9%)	8,051 (3.6%)	60,987 (27.6%)	38,478 (17.4%)	168,439	72,500 (43.0%)	95,939 (57.0%)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1

02

03

04

05

● 인문·사회 계열 비전임교원 비율의 집중 증가: 이공 계열과의 편차

		2020년				2021년				2022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전임		비전임	
인문·사회 계열	교육	5,389	34%	10,456	66%	5,283	33%	10,728	67%	5,106	31%	11,225	69%
	예술 및 인문학	15,257	29%	37,319	71%	15,383	28%	38,803	72%	15,002	27%	40,586	73%
	사회과학, 인문 및 정보학	4,265	39%	6,683	61%	4,300	38%	7,035	62%	4,258	36%	7,506	64%
	경영, 행정 및 법	8,437	41%	11,913	59%	8,336	40%	12,452	60%	7,999	39%	12,595	61%
	합계	33,348	33%	66,371	67%	33,302	33%	69,018	67%	32,365	31%	71,912	69%
이공계열	자연과학, 수학 및 공학	6,215	54%	5,352	46%	6,255	54%	5,361	46%	6,183	53%	5,402	47%
	정보통신 기술	4,088	54%	3,459	46%	4,253	54%	3,571	46%	4,126	52%	3,808	48%
	공학, 재료 및 건설	16,200	49%	16,552	51%	16,415	49%	16,839	51%	16,273	48%	17,251	52%
	공공기술 및 수의학	1,349	48%	1,449	52%	1,395	47%	1,572	53%	1,456	46%	1,702	54%
	보건 및 복식	21,851	51%	20,651	49%	22,311	51%	21,648	49%	22,497	50%	22,844	50%
합계		49,703	51%	47,463	49%	50,629	51%	48,991	49%	50,535	50%	51,007	50%
총계		89,053	42%	125,238	58%	90,040	41%	129,720	59%	88,832	40%	135,107	60%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사회) 계열 비전임교원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교육 비용을 절감하려는 대학의 재정 운영 방식이 반영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임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수준으로 안정적인 연구,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움 전임교원 역시 학술·비학술 면에서 학생 지도의 부담이 증가 결과적으로 연구,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교원과 학생 간의 상호 관계를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시키고 있음 										
03											
04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분야의 현 연구자, 교수자 구성과 변화 양상을 보면 학술 주체들의 부담이 연구, 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과중해지고 있으며 이는 학술생태계를 유지해가는 데 압박을 주고 있음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과 체제,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 										
03											
04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현재, 인문대학 설치 대학은 국공립대 16개, 사립대 총 28개, 사회과학대학 설치 대학은 국공립대 17개, 사립대 47개 인문학(사회과학) 분야 단과대학, 학과의 병합, 폐지 등을 통한 편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과대학 체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상이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편제를 시도하고 있는 대학 증가 융합 성격의 단과대학은 특히 지방 소재의 사립대에 상대적으로 집중 학문 간의 융합 실험은 인문·사회 분야 학문의 재구성에서 필요한 시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 존속과 정체성 위기를 약화시키고 있음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의 성장과 잠복된 위험 										
03											
04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연구소는 안정적인 거점과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문 특성상 대학 부설 연구소가 다수를 점함 단과대학, 학과에 속하지 않는 상당수의 연구자, 교수자는 연구소를 거점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 대학 부설 연구소는 인문학(HK)사업 등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대형 연구지원사업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으며, 연구 성과 면에서도 큰 진척을 거둠. 부설 연구소의 수는 2017년 4,968개에서 2021년 5,494개로 증가했고, 해당 기간 전임연구원의 수도 3,815명에서 5,140명으로 증가. 부설 연구소는 외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교육부 등의 학술지원 정도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 안정적 지원 필요.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 인문학 인재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의 어려움

- 인문·사회 인재: 진출할 사회적 공간이 제한적. 다수 대학이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총남대	총북대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	조선대	동아대	영남대
학과 수	12	9	8	11	12	10	11	8	6	8
4대수 이하	2	2	0	5	2	7	2	3	5	4

주요 대학의 인문대학 학과 수 및 학부 총원

- 대학원생: 수도권/지방, 전공에 따라 편중. 학문후속세대로서 향후 연구자, 교수자로서 전환되는 인력이니만큼, 비전임교원의 증가 등 학술활동 환경의 악화는 이들에게도 압력으로 작용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현황											
0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이 직면한 학술생태계의 위기 										
03											
04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의 재구성 "지식의 환금성" 요구의 압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안정한 인문학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과 학문 권력과 학문 학문 간의 위계 구도 										

불균등한 학술 투자

● 학술지원 편중 속 인문·사회 분야 지원의 부족

- 2017~21년 5년간 R&D 예산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에 투입된 예산 비중 감소 경향: 전체 R&D 예산이 8.9% 증가하는 가운데 1.3% 증가
- 자원 배분 측면에서 여타 학문 분야, 특히 과학기술 분야와 비교해 크게 부족함

< 최근 5년간 정부 R&D 및 인문사회 분야 순수 R&D 예산 현황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증가율
정부 R&D 예산(A)	18조4819억원	19조9881억원	20조5029억원	24조1989억원	27조4009억원	8.90%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B)	3064억원	2880억원	3540억원	3203억원	3226억원	1.30%
비율(B/A)	1.6%	1.5%	1.6%	1.3%	1.2%	

*자료: 비인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년 고등교육학문발전보고서', 이강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전연구본부장 발표 자료 발췌

불균등한 학술 투자

01

02

03

04

05

< 2017~2020년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 >
(단위: 명, 개,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제기수	인문사회	과제기수	인문사회	과제기수	인문사회	과제기수	인문사회
교원(A)	41,017	33,173	41,010	32,450	41,332	32,430	42,145	32,668
연구 책임자(B)	18,134	4,655	18,344	4,482	19,205	4,281	19,448	4,184
과제수	35,197	6,426	34,343	6,031	37,715	5,854	38,485	5,967
연구비(C)	3,945,667	437,997	3,997,494	428,248	4,301,411	453,858	4,838,147	467,181
과제수혜율 (B/A*100)	44.2%	14%	44.7%	13.8%	46.4%	13.2%	42.1%	13.1%
연구비 점유율	90%	10%	90.3%	9.7%	90.5%	9.5%	91.2%	8.8%
1인당 연구비 (C/A)	96.1	13.2	97.4	13.1	104	13.9	114.7	14.3

*자료: 한국연구재단, '2018~2021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재편집

불균등한 학술 투자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적절한 학술 투자 필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학술 투자 비중: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연구위원회 예산의 9% 이상, 미국 국립과학재단, 국립인문기금 연구지원 예산의 약 7%가 인문·사회 분야에 할당. 타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5배 이상 적은 규모 “선도형” 발전 노선으로의 전환 요구 속에서 R&D예산 규모를 늘려가고 그 속에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학술 투자 비중을 회복할 필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자각과 학술 투자를 제고하는 결단 필요
02	
03	
04	
05	

전문법령 제정의 필요성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 투자와 전문법령에 의한 지원 체계 「학술진흥법」 아래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부터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이 의거해 시행되어 옴 1980년 10월 「학술진흥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 설립 학술진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정 학문 분야에 특화된 법률은 아님. 과학기술 분야는 2001년 「과학기술기초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기구(한국과학창의재단)을 구성 교육부는 2009년 「학술진흥법」을 보완하기 위한 ‘훈령’으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제정하고 주관 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을 설립, 지정.
02	
03	
04	
05	

전문법령 제정의 필요성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2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에 제정(6월 시행). 12월 제1회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통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17~’21)」이 심의, 확정 인문학 분야에 대한 유일한 전문 법률 관련 부서는 교육부(학술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로 양자가 각기 “인문학”, “인문정신” 분야를 나누어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기 수립한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교육부, 2017),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문화부, 2017)에 마련되었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문화부(한국출판산업진흥원)의 협력으로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의 분산, 분절과 결과적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을 지원해온 교육부의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
02	
03	
04	
05	


전문법령 제정의 필요성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분야의 지원법령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사회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 지원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적 지원을 배분하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 2001년 「과학기술기초법」 제정 이후 개별 분야 및 의제에 따라 법률적 지원체계 구축. 25개 이상의 지원 법령 법률 체계를 바탕으로 학술 지원 안정적으로 확보: 단적인 예로 2010년부터 「과학기술기초법」의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항을 신설되어 “<u>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u>”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직속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 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이러한 지원법령 체계는 R&D 예산 등 국가 자원 분배에서 인문·사회 분야와 격차를 벌리게 된 하나의 배경
02	
03	
04	
05	

전문법령 제정의 필요성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학문’으로 위축된 인문학(사회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연구재단 등 학술진흥 기관 운영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발취하는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하게 된 구도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함에 따라, “연구노트” 등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과제 관리 방식을 인문·사회 분야에 적용하려는 조치가 시도됨 2021년 3월 발의된 「기초학술기초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제시: ‘기초학술’이 이미 「학술진흥법」, 「과학기술기초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 제정 불필요 인문학, 사회과학의 학문적 영역이 ‘기초학문’으로 축소되어 취급되는 경향
02	
03	
04	
05	

결론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 지원 정책, 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 지원에서 국가의 역할 인문학의 위상에 대한 자각: 科學立國? 그렇다면 人文頌圖은? 인문학 지원 정책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학의 학문 특성에 대한 이해 전제 지원 정책 수립에서 권력과 학계의 상호 소통
02	
03	
04	
05	

— The research

Whether it's basic or applied research, CNRS.



JOIN US

- Recruitment by competition
- Recruitment without competition

YOUR BENEFITS

- Training
- Work environment
- Social Policy

○ 고용 개방성

- 모든 학술 영역에서 매년 채용 시험을 통한 신입연구원 선발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 선발
- 국제 불문 연구원직과 연구 총괄직에 응시 개방

고용개방성과 연구독립성 보장이 질 높은 실적으로 직결

- 오랜 연구 전통을 가진 국가와 과학적으로 떠오르는 국가의 과학 커뮤니케이션과 교류를 위해 International Research Laboratory (IRL) 운영
- 유럽의회 및 외부와 함께 해외 프랑스 연구 기관의 공동 연구 단위 네트워킹(Unifire)을 공동 시범 운영
- International Emerging Action (IEA) / Actions émergentes à l'international
-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IRN) / Réseaux de recherche internationaux
-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IRP) / Projets de recherche internationaux
- 예·뇌, 인지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생물과학연구소(INSB)와 공동 개발, 생태환경연구소(INEE)와 함께 인간과 환경 간의 관계 연구

- 연구원 구성 : 9,799명 (CNRS 소속 연구원 1,679명)
- 엔지니어 및 기술 인력 : 2,568명 (CNRS 소속 인력 : 1,288명)
- 박사 과정 및 박사 과정 이후 과정생 : 11,700명
- 연구 및 서비스 단위 : 293건
- 연구 그룹 : 11건 (서비스 그룹 : 1건)
- 학문 연구 성과 협업 : 15건
- 국제 연구 네트워크 : 35건, 국제연구프로젝트
- 공동연구 프로젝트 7건
- 산학연구 12건
- 스타트업 기업 42건, 학사 29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앱 46건, 특허 22건
- 예산 : 1,800만 유로 (운영비 1,200만 유로 별도)

INSHS 2021-2022지원

- 연구비 구성: 3,799명 (CNRs 소속 연구원 1,679명)
- 연구지역 및 활동 영역: 2,568명 (CNRs 소속 연구: 1,288명)
- 박사 과정 및 박사 과정 이후 과정생: 11,700명
- 연구 및 서비스 인원: 293건
- 연구 그룹: 11건
- 서비스 그룹: 1건
- 학문 연구 성과 및 협업: 15건
- 국제 연구 네트워크: 35건, 국제연구프로젝트 14건
- 공동연구 프로젝트 7건
- 신학연구 12건
- 스터디원 42건, 학사 29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46건, 학사 22건
- 예산: 1,800만 유로 (운영비 1,200만 유로 별도)

INSHS의 2021년 지원과제

NRRF 15년간 지원과제

한국연구재단

NRRF 한국연구재단 2009~현재 까지 15년간 인문사회지원

연구 분야	연구 인원	연구 예산 (억 원)
인문학	21,646명	4,004.90
사회과학	20,506명	5,604.93
융합학	11,850명	3,224.73
예술체육	5,430명	1,040.00


연구원의 독립성

CNRS 연구원 선정과정


- 연구원 모두 CNRS 소속

NRF 연구원 선정 과정

- 학술연구교수 A유형 (대학소속)
- 학술연구교수 B유형 (일부 대학 소속, 일부 NRF소속)



INSHS



한국연구재단

사례)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p>☆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p> <p>[학술·인문사회사업 > 계면연구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5년까지 지원 · 강의와 병행시 출돌점 발생 	<p>☆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p> <p>[학술·인문사회사업 > 계면연구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분류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 강의와 병행

사례)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 학부-석사과정에 대학 자율 모델 지원
- 인문학과 타학문을 접목한 융합전공 모델 개발 다수
- 3년만에 종료
- 2016년 3월 11개 대학 선정, 2019년 2월 종료
- 사업 초기, 최대 10년 정도 계획
- 인문학 연구 확대

- 2007년~2017년까지 진행
- 2018년부터 HK+ 사업으로 진행
- HK, HK+는 28개 대학 41개 연구단에서 진행중
- 성균·학술대회 9천19회, 저역서4천46권, 논문1만3천404편, 시민인문강좌6천172회, 교양총서 331편
- 2024년부터는 신규신청 종료
- 더 발전적인 연구지원사업이 발굴되지 않는 상태로 현행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

재정 관련 국제 현황 – OECD의 지표/한국

- 한국 정부 2024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1조 5천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A)	193,668억원	205,538억원	248,200억원	275,200억원	262,778억원	10.9%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예산(B)	3,285억원	3,365억원	3,584억원	3,668억원	3,629억원	2.5%
비율(B/A)	1.7%	1.6%	1.5%	1.3%	1.2%	

2023년

21조 5천억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OECD국가들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

- 학문연구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에 비해 한국은 학문연구의 역사가 짧음
- 한국은 단지 한 해의 R&D 투자비율에 연연해서는 안되, 300여년의 역사가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연구의 역사가 70여년일 뿐임
- 1990년대는 수입안에 투입되지 못했음

R&D 100조원 시대...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 정책뉴스 ...

※ 2022년 12월 21일 -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

국가별 R&D 투자 순위(% of GDP) 1990

국가별 R&D 투자 순위(% of GDP) 2000

국가별 R&D 투자 순위(% of GDP) 2010

국가별 R&D 투자 순위(% of GDP) 2018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 비율

- 법제면에서 견고하게 제도화 됨
- 연구지원의 개혁에 성공함. 인문학 별도 기구의 성공적 안착
- 개별연구자의 독립성 보장

한국 NRF

NRF 한국연구재단

- ‘인문학법’ 2016제정, 구체성 결여
- 연구지원 개혁에 방향성 없이 예산만 삭감
- 각 대학에 연구자를 위임함으로써 개별연구자의 독립성
- 재정면에서 이공계와의 불균형이 가장 심함.
- 단발적 연구결과를 요구하는 행태로 인해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어려움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연구지원에 대한 제언

- 인문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 긴 호흡의 연구지원 필요(다년과제의 연구지원 확대,)
- 과학기술연구에 대등한 예산지원 필요

NRF 한국연구재단

- ‘인문학법’ 2016제정, 구체성 결여
- 연구지원 개혁에 방향성 없이 예산만 삭감
- 각 대학에 연구자를 위임함으로써 개별연구자의 독립성
- 재정면에서 이공계와의 불균형이 가장 심함.
- 단발적 연구결과를 요구하는 행태로 인해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가 어려움

감사합니다

Q&A

분과회의 세션 4

4-5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세션 : '인문사회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제도 현황

Parallel Session 4

4-5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KHSS)] Current Status
of Support System for 'Academic Research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인문사회 학술진흥의 필요성과
대책Necessity and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위행복 Wee, Hangbok

한양대학교,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

Hanyang University,

The Korean Federa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Societies인문사회 학술진흥의
필요성과 대책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이사장)

한국인의 삶의 질

한국 자살률, OECD 1위...2위와도 압도적 격차 '쏟아'

한국은 2020년 통계 결과, 인구(연령표준화값) 10만명당 24.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는 OECD 평균 자살률 11.1명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 OECD 자살률 부문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단 2개 연도(2016, 2017)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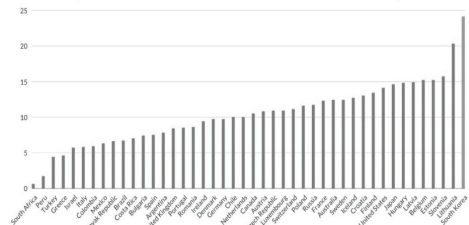
<머니투데이> 2023.05.28

한국의 자살률 추이

연도	인구	자살률	연령표준화	자살률	순위
2009년	15,413명	31.0	+5.0%	42.2명	1위
2008년	12,858명	26.0	+1.2%	35.2명	1위
2007년	12,174명	24.8	+3.0%	33.4명	1위
2006년	10,653명	21.8	-2.9%	29.2명	1위
2005년	12,011명	24.7	+1.0%	32.9명	1위
2004년	11,492명	23.7	+1.1%	31.5명	1위
2003년	10,898명	22.6	+4.7%	29.9명	1위 ^{[10][16]}
2002년	8,612명	17.9	+3.8%	23.6명	-
2001년	6,911명	14.1	+0.5%	18.9명	-
2000년	6,444명	13.6	-	17.7명	-
1999년	7,056명	15.0	-	19.3명	-
1998년	8,622명	18.4	-	23.6명	-
1997년	6,068명	13.1	-	16.6명	-
1996년	5,959명	12.9	-	16.3명	-
1995년	4,930명	10.8	-	13.5명	-
1994년	4,277명	9.5	-	11.7명	-
1993년	4,208명	9.4	-	11.5명	-

SUICIDE IN OECD
COUNTRIES

(MOST RECENT DATA AVAILABLE FOR EACH COUNTRY)



연령별 자살자 수

연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연령미상
2017	12,463	1	254	1,106	1,812	2,408	2,568	1,641	1,598	1,073	2
2018	13,670	1	300	1,192	1,998	2,676	2,812	1,880	1,664	1,147	0
2019	13,799	2	298	1,306	1,914	2,588	2,837	2,035	1,620	1,193	6
2020	13,195	2	315	1,471	1,874	2,405	2,606	1,937	1,398	1,187	0
2021	13,352	1	338	1,579	1,842	2,298	2,569	1,951	1,535	1,239	0

연령별 자살률

세대	인구수	자살률	자살자 수
10-19세	4,709,316	7.1	334
20-29세	6,655,923	23.5	1,564
30-39세	6,723,435	27.3	1,835
40-49세	8,166,792	28.2	2,303
50-59세	8,635,211	30.1	2,599
60-69세	7,164,712	28.4	2,035
70-79세	3,715,084	41.8	1,553
80 이상	2,107,986	61.3	1,292

사회안전망 회복이 절실하다

- 자살률 OECD 1위
- 노인빈곤률 OECD 1위
- 노인사망 원인의 1위 요인은 자살
 - 남녀 임금 격차 OECD 1위
 - 출산률 OECD 최하위
- 2022년 UN보고서 행복지수 순위 59위
 - 확대되고 있는 갈등과 반목과 혐오
- 사회의 정글화 : 학교폭력, 교권유린

인문학,사회과학이 백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 한국사회를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늪에서 건져내야 한다.
- 법이 아닌 도덕과 상식의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중흥을 국가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 진입하면서 대학의 원천지식 창출과 확산 기능 그리고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
- 과학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을 기반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발전시켜 가야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존엄한 삶을 지키면서 인간과 과학기술의 공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과 제도를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산업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처할 역량을 창출함

대학밖으로부터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 적정수준의 연구역량을 상시적으로 유지 -

- 산업구조나 생활방식의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대학의 각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양상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대학의 학생모집 규모 역시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함
- 그러나 대학의 연구와 교육 역량은 늘 적절한 규모로 유지해야만 사회적, 산업적 변화로 인한 요구에 대학이 탄력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연구역량을 적절한 규모로 유지해야만 대학이 지식창출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기초학술 분야는 그 성과의 생명력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투입되어야 발전과 성과의 산출이 가능함. 인문사회 분야의 급속한 위축을 더는 방치하지 않아야 함

학문분야 간 실효적인 협업과 협력을 위해

- 소통과 협업의 선결 요건은 학문 각 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수월성 확보
-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협력과 협업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생태계 회복이 선행돼야 함
- 인문사회 분야의 독자성과 특수성 자율성을 지키고 발전시켜가야 함
- '협력'과 '협업'이 '간섭'과 '지배'의 빌미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함
- 스스로 공고한 위상을 확보함으로써 과도한 배척 혹은 무기력한 투항을 피할 수 있어야 함

디지털 시대의 소양 함양을 위해

-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개인들을 폐쇄적인 가상공간으로 불러들이면서 소통과 토론이 약화되고 편향이 강화되고 있음
- 넘쳐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재구성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해악을 막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을 증진해야 함
- 교양수준과 문해력의 편차가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불평등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기본소양을 함양해야 함

인문사회 공부부 디지털 시대 문해력의 공간

인문사회 기반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 2006년부터 2020년까지 K콘텐츠의 수출액과 소비재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1.8억 달러가 동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K콘텐츠 1억달러 수출하면 소비재 수출 1.8억달러 증가',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 2022.5.1.)
-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HOT 100 차트 1위 곡 '다이너마이트'는 직접적 매출 2,457억원을 발생시켰으며, 막대한 생산 유발 효과(1조 2,324억 원), 고용 유발 효과(총 7,928명)를 창출했음('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 경제적 효과 1조 7천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9.7.)
-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연구에 의하면, 국제사회에서 높은 호응을 받은 드라마의 경우, 그 인기 요인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31.6%)와 '배우의 매력적인 외모'(27.4%), '한국 문화 간접 경험'(24.7%) 등이었음

소프트 파워 신장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 2016년 10월 2일 영국의 보수당 회의(Conservative Party Conference)에서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소프트파워 강화로 인해 1%의 긍정적 영향이 증가할 때 수출이 0.8% 증가하는 상업적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다.
- 한국은 경제력이나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10위권 내외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프트 파워 평가에 있어서는 20위 권에 머무르고 있음
- 새뮤얼 헌팅턴은 전통적으로 축적해 온 문화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는데, 한국은 소프트파워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문사회적 자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인문사회 분야의 중흥을 통해 이를 발전해야 함

성숙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 대한민국은 '과학입국(科學立國)'의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적 고도 성장에 성공했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 남녀임금 격차 등이 수위를 달리고 있고 사회갈등지수가 매우 높은 국가
- 한국의 사회문제(출산율, 부의 양극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자살률, 학교폭력, 교권문제 등등)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면 대학 인문사회 연구와 교육역량을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 '평등' '배려' '상생' '연대' 등등의 보편가치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인문사회 발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함

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고, 여가가 늘어나고 있음. 일자리를 나누고 새로운 분배구조를 창출해야 함
- 늘어나는 여가의 선용에 기여해야 한다. 창작자에게 있어서도 원천소재로서의 인간과 자연계에 대한 이해력, 상상력, 심미적 감수성은 사전에 충분히 습득해야 하는 필수적인 소양임계업산업의 경우, 주요 사용계층이 초·중등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논리적 사고력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협응 능력 그리고 시민의식 형성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논의 등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상기후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
- 지구적 범위의 감염병 확산
- 재난의 교통과 희생이 약자층에게 전가되는 현상
- 재난을 이용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자본의 행태

인류의 미래를 끌어갈

새로운 이념과 제도의 수립과 문명대전환이 요청되고 있음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증진을 달성하려면 공적지원의 차별을 직시하고 학계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함

- 2023년 R&D 예산 총액은 30.7조원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예산은 3,200억원 정도로서 전체 R&D 예산 1%를 약간 넘는 금액

2020년도 4년제 대학 중앙정부연구비 수혜율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교원수 (a)	연구책임자 (b)	과제수	연구비	수혜율 (b/a * 100)	연구비 점유율	1인당 연구비
자연과학	7,570	4,313	7,659	1,020,430	57.0%	19.2%	134.80
공학	16,291	8,605	19,663	2,560,934	52.8%	48.3%	157.20
의약학	16,521	5,442	8,634	1,003,031	32.9%	18.9%	60.71
농수해양학	1,763	1,088	2,529	253,752	61.7%	4.8%	143.93
사회과학	17,169	2,597	3,937	281,958	15.1%	5.3%	16.42
인문학	9,051	926	1,078	92,178	10.2%	1.7%	10.18
예술체육학	5,918	472	619	47,403	8.0%	0.9%	8.01
복합학	530	189	333	45,642	35.7%	0.9%	86.12
합계	74,813	23,632	44,452	5,305,327	31.6%	100%	70.91

< 2017~2020년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 >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과학기술	인문사회
교원(A)	41,017	33,173	41,010	32,450	41,332	32,430	42,145	32,668
연구 책임자(B)	18,134	4,655	18,344	4,482	19,205	4,281	19,448	4,184
과제수	35,197	6,426	34,343	6,031	37,715	5,854	38,485	5,967
연구비(C)	3,945,667	437,997	3,997,494	428,248	4,301,411	453,858	4,838,147	467,181
과제수혜율(B/A*100)	44.2%	14%	44.7%	13.8%	46.4%	13.2%	42.1%	13.1%
연구비 점유율	90%	10%	90.3%	9.7%	90.5%	9.5%	91.2%	8.8%
1인당 연구비(C/A)	96.1	13.2	97.4	13.1	104	13.9	114.7	14.3

*자료 : 한국연구재단, '2018~2021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재편집

교원신규채용을 기피하거나,

전임교원 채용을 기피하면서 비정년트랙 교원으로 충원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으며,

교수채용 기피 현상이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 집중되고 있어서, 현재의 상황이 방치된다면 기초학문 분야는 빠르게 붕괴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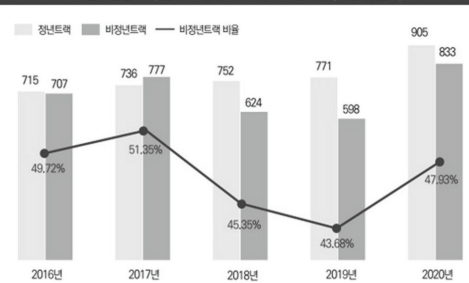
- 전국 사립 일반대 88곳 중 51곳, 사립 전문대 94곳 중 42곳이 최근 5년간 전임교원을 정년트랙보다 비정년트랙을 더 많이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만 뽑은 대학은 사립 일반대(이하 '일반대') 4곳, 사립 전문대(이하 '전문대') 9곳이었다.

- 지난해 일반대 86곳이 새로 뽑은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이 47.9%였다. 최근 5년간은 47.7%였다.

<최근 5년간 신입교수 절반은 비정년트랙>
교수신문, 2021.11.16

최근 5년간 비정년트랙 신입교수 얼마나 뽑았나(사립 일반대)



※ 출처=2016~202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전국 사립 일반대 157곳 중 88곳 현황.

전체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사립 일반대)



신진학자 배양 시스템의 붕괴

- 「인문학 박사 37%가 임시직...42%는 연봉 2000만원 미만」, 2016년 2월 7일자 『머니투데이』
- 「'문송' 넘어 '문망'...인문학 박사 37%, 연봉 2000만원도 못 번다」, 2022년 3월 4일자 『중앙일보』

<p>후속세대도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지급기준이 월 100만원, 180만원, 250만이 기준으로 설정돼 있음 • 과학기술 분야의 박사과정 재학생은 월 250만 원 이상을 받지만,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 재학생은 2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없음 • 실제로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부, 석사, 박사과정 평균 학생인건비는 몇 십만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함 	<p>‘연구의 자유’를 확보해야 함</p> <p>독일 연방정부는 인문학의 위축과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7년을 “인문학의 해”로 선정하고 인문학부흥을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연방정부 교육연구부(BMBF)는 독일의 인문학이 새로운 대학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인문학 연구의 자유”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대학의 연구와 개발을 경제적 가치와 밀접하게 결부시키는 풍조 속에서 인문학이 본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학문적 업적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었다.</p> <p>박찬길 『미국과 독일의 인문학 지원정책 연구』(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11)</p>
<p>인문사회 분야의 장기적 발전 기반을 학계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함</p>	<p>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정비 현황</p> <p>「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기술사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치안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가나다 순 25종)</p>
<p>과학기술 분야의 법률을 통한 우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에 「한국연구재단법」을 제정함으로써, 학술진흥법(1979년 제정)에 근거해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한국과학재단과 통합시켜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했고, 현재도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20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장의 내용을 구체화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대한 간여를 시도했음 	<p>대한민국헌법 127조</p> <p>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p> <p>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연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7 헌법 개정(설치 근거 신설) • 198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한시적 운영기구조출발 • 199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상설기구화) • 2004 법률 개정(대통령을 의장으로 위상 강화) • 2008 법률개정(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13년 법률개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개편) • 2018년 자문회의의 개편(국가과학기술심의회 통합) 	<p>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 <p>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본 조항은 2010년에 신설)</p>	<p>기초학술기본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3월에 「기초학술기본법안」이 발의되었음(대표발의자: 정청래) • 2021년 4월에 이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 법령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과기정통부 측은 “본 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절차가 더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기초학술기본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 동 법에서 진흥하고자 하는 기초학술의 범위는 '학술진흥법(교육부)', '과학기술기본법(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기정통부)' 등 법률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동 법에서 기초학술은 학술지원법상 '학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대학의 학술활동은 이미 '학술진흥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기초학문에 '자연'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 및 기초연구진흥법 상 기초연구와 범위가 중복됨
- 인문사회분야의 학술활동은 '학술진흥법',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법' 등을 통해 분야별 진흥을 위한 지원, 기반조성 등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기존 법률과의 유사중복 및 연구현장의 우려 방지, 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은 불필요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기반 위에서
기초학문의 중흥을 모색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2019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수는 2만 7784명으로 같은 해 하버드대 학생 수 1만 8802명보다 1만 명 가까이 많았지만 전임교수 수는 서울대가 2130명, 하버드대가 2310명으로 더 적었다. 예산 역시 서울대는 약 8290억 원, 하버드대는 52억 달러(약 6조 2400억 원)로 극명한 차이가 났다. 일본의 도쿄대는 학생 수, 전임교수 수에서 서울대와 비슷한 규모였음에도 예산은 크게 차이가 났다. 2020년 도쿄대의 학생은 2만 8675명이었고 전임교수는 2198명이었으나 1년 예산은 2599억 엔(약 2조 8100억 원)이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표 고등교육기관으로 꼽히는 서울대는 해외 유명 대학의 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났다.

<고등교육 예산 지원의 시각 달리해야...“대학 투자는 일자리 확충이자 복지정책”>, <한국대학신문>, 입력 2022.02.23 18:09

* 한국거버넌스학회 등 주최로 '대학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에서 임도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행정학회 회장)의 발표 내용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교육에 대해 대폭적인 재정지원 확대가 시급함

- 한국의 초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2,535
- 중등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4,978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290
-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초·중·고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보다 낮은 기형적 구조
- 한국 초·중·고 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회원국 평균치 \$17,065의 66%에 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4년에 처음 발의되었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2년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 보고서에 포함되었음
- 2004년에 박찬석 의원 등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음
- 2009년 11월 민주당 김우남의원(2009.11.13)과 한나라당 임해규의원(2009.11.23)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음

송기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논의」,
『고등교육재정연구』제19권 제2호, 2010, 127-128쪽)

20년 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거론 초기의 논의

2004년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약 3조 3천억 원으로 GDP 대비 약 0.43%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병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전망과 과제」,
『대학교육』, 2005 3·4, 9쪽)

2016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발의 이유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이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
- 학생과 학부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은 기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재정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
- 초·중·고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국회는, 20년 동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하고 있음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발의연월일 : 2016. 12. 26.
발 의 자 : 서영교 의원 등 10인
2.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개정안)
발의연월일 : 2021. 10. 27.
발 의 자 : 서동용 의원 등 10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칙 <제19202호, 2022. 12. 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등교육재정 확대가 달성되더라도,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체계와 연구역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함

- 인문사회 분야의 각 전공영역이 적절한 연구역량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발전계획의 토대 위에서 고유의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부여할 수 있는 공적지원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함
- 학생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학문 각 분야의 학과와 연구소들이 안정적으로 인력과 설비를 확충하고, 소신과 비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임할 환경을 부여해야 한다.

인문사회학술연구 예산을 4배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저조
- (우리나라) '19년 예산 기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교육부)은 정부 R&D 예산의 1.5%에 불과
-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비 수혜율은 자연과학/공학 분야의 ¼에 불과
- (주요국 인문·사회과학 지원) 영국은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이상 (('16,'17)9.6%→('18)9.4%), 미국은 국립과학재단·국립인문기금 연구지원 예산의 약 7% (('15)6.9%→('16,'17)6.8%)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안)>, 2019.4.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추후의 R&D 예산 배정에서는 학문의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민간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야인 인문사회 분야의 보호·육성을 위해 공적지원이 충분히 제공돼야 함
- 추후 정부의 R&D 예산 확대에 있어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의 배정 확대와 학문 분야 간 형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을 4배이상 증액함으로써 학문분야 간 연구비 선정율의 형평을 기해야 함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2826

제안일자 : 2023-06-22
 발 의 자 : 유기홍 의원
 제 안 자 : 유기홍의원 등 11인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의 내용

- 학문의 균형 발전과 인문사회학술 진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 조성과 실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 (제1조)
-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사회학술 관련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사회학술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제7조)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10조부터 제12조)
-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제16조)

기본법 제정 이후 추진 사항

- 인문사회 분야의 네트워크 강화와 역량 결집
- 학술정책연구기관 설립
- 국가 학술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 기구 설립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과 같은 기구 설립
- 인문사회 분야의 유공자에 대한 서훈제도 수립
 -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은 이미 존재
-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규모

- 과학기술진흥기금회계 : 130억 수준
- 과총운영회계 : 45억 수준
- 회관운영회계 : 60억 수준
- * 상근 직원 50명 수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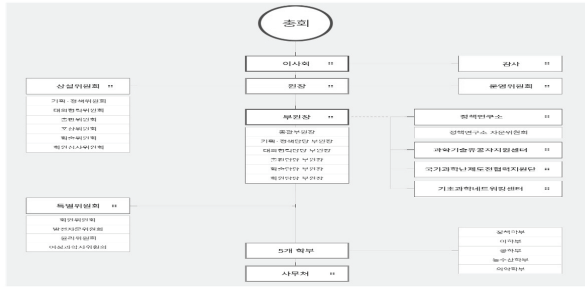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정책연구 기관 현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과학기술기본법」은 KISTEP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400명이 넘는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500명 상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200명 상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200명 상회

KISTEP 조직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과학기술한림원 조직도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 표출

- 1996년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들의 「인문학 제주 선언」
- 2001년 국공립대인문대학협의회 「2001 인문학 선언」
- 2006년 고려대 문과대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문」과 80여개 인문대 학장의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
- 2012년 10월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인문학 선언문」
- 2020년 8월 4,500 명에 육박하는 참여자들의 서명을 첨부한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청원서」
- 2021년 3월에는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의 「인문사회 선언문」
- 2023년 8월에는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의 「2023 인문사회 선언문」

국회와 정부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의 정상화를 더는 미루지 않아야 함

- 미국은 1965년에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를 설립
- 한국은 당시 '과학입국(科學立國)'을 선언
 - 1962년에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
 - 1965년 미국 백악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한국의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 발표
 - 1966년 9월 24일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창립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조직도



- 하나, 인문정신 함양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존엄한 삶을 누리는 성숙사회 구현을 선도할 것이다.
- 하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할 것이다.
- 하나, 인문사회학술정책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연구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다.
- 하나, 미래지향적이고 공정하며 실효적인 정책 수립을 관철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할 것이다.
- 하나, 대학 인문사회 분야의 전임교원 채용을 정상화하고 연구와 교육 역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
- 하나,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써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가 임무인 대학 강사들에게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수준 높은 학술활동을 보장할 것이다.
- 하나, 인문사회 분야의 후속세대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으며 포부와 희망을 품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학문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 2023 인문사회 선언문>, 2023. 8.28

투항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확립해야 함

- 인문사회 분야의 본령은 '존엄한 삶' '질 높은 삶'이어야 함. 본령 수호에 가장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학술연구의 공공성을 함께 돌아봄으로써, 인문사회 발전시킬 제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제도적·사회적 실천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학술생태계 회복의 당위성과 인문사회분야 지원 확대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사회에 제시
- 시대적 여건에 적극적 대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전시켜 갈 수 있어야만 인문사회 분야의 위상이 확보되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당한 몰대'의 결과로만 보는 관점을 극복할 수 있고, 투항해버리는 오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임
- 학계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지향적 아젠다와 방법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에 대한 수요와 지원의 확대를 스스로 창출

감 사 합 니 다.

21세기 부산, 이민자 도시의 문화적 비전

Immigrant City Busan : New Cultural Vision of 21th century

강 혁 Khang Hyuk

경성대학교

Kyungseung University

국문요약

메트로폴리스 부산은 한국의 압축적 근대가 배태한 특별한 도시이다. 개항과 일제 강점기, 6. 25 전쟁, 산업화를 거치며 형성된 부산은 외부의 '타자'들을 받아들여 성장한 메트로폴리스로 관용과 환대의 도시이다. 외부로 열린 도시, 이동과 교환의 도시 부산은 최근 진행된 지구화와 탈산업사회, 지식 정보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산업구조의 개편과 도시 경제의 쇠락, 인구 구조의 변동과 노령화, 청년 세대의 유출, 도심 공동화와 공간의 양극화는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결안의 하나로 불가피하게 도래할 '이민자 도시' 부산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많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이민자 도시의 현실은 간단치 않으며 심각한 사회 문화적 갈등으로 귀결되곤 한다. 차이보다 동일성을 존중해온 한국 사회에서 '타자'의 유입은 더욱 심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 부산만의 독특한 도시 역사와 도시 문화의 관점에서

타자의 유입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공존과 공생의 담론을 어떻게 제시할까 고민해보고자 한다. 부산 도시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자를 도시의 재활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차원적 입장을 벗어나 도시적 삶과 문화를 재구축하는 일임을 깨닫고 그 가능성과 한계, 그 안에 도사린 문제와 위험을 직시하고자 한다. 도시 문제의 심화라는 위기 가능성과 진정한 다문화가 꽃피는 국제적 메트로폴리스의 생성이라는 긍정적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민자 도시 부산이 진정한 관용과 환대의 도시, 다양성과 다문화의 도시가 되어야 할 기회임을 공론화하는 것이 인문적 관점에서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Essay is on a cultural vision of 'immigrant city' as a future of Metropolis Busan. Busan, which was formed by accepting external 'others' through modernization of Korea, can be called as a city of tolerance and hospitality. Busan now faces various kind of social economic, urban problems due to globalization and post-industrial, information society. Inevitably Busan needs to allow immigrants for responding current crisis. It raises the issue of the identity and difference, the problem of the other. With the unique urban history of Busan we need a new imaginary perspective and invention of discourse to be a genuine open city for others and to be a multi-cultural metropolis.

부산과 해외도시의 초국경 협력 사례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Sea Port Cities Networks of Busan and Foreign Cities

우양호 Woo Yang Ho

한국해양대학교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해항도시 부산과 해외의 '초국경 협력과 네트워크', 즉 바다와 국경을 넘어서는 도시의 협력과 공생의 논리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초국경 네트워크를 통한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사례와 증거를 다루고, 해외 도시의 성공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부산이 추구할 모델의 일반화의 요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발표문은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의 과거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의 성공적인 사례와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채워보는 목적을 가진다. 부산을 비롯한 세계의 글로벌 해항도시는 국경으로 단절된 체제와 바다를 넘어, 저마다의 광역적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과 해외의 3가지 네트워크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장 먼저는 '부산과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의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연결지대'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럽에서는 북유럽 '덴마크 말뚝와 스웨덴 코펜하겐 사이의 외레순'과 '페마른 초국경 지역 벨트' 사례를 소개하였다. 부산과 해외 성공사례에 대한 소개와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는 부산의 21세기 초국경 협력과 국제적인 도시 네트워크 모델과 발전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cases of cross-border networks in Busa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is study deals with examples and evidence from other cities about Busan's future vision. By comparing and studying the success of Busan and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the conditions for Busan's future network model are derived. Therefore, the presentation examine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Busan, Korea, and Fukuoka, Japan, and discusse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ree cases of cross-border networks in Busan and other countries. In this presentation, we introduced the case of Southeast Asia's "Connection Zone of the Malacca-Singapore Strait", Northern Europe's "Øresund between Denmark and Sweden", and Germany's Fehmarn Belt Region. In conclusion, this presentation proposed Busan's cross-border cooperation model and development plan in the 21st century.

해역네트워크속의 부산, 그出入의 역사

Busan in the Sea Region Network, The History of Its Incoming and Outgoing

서광덕 Seo Kwang Deok

부경대학교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부산은 해안에 위치한 해양도시로서, 바다는 부산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이후 과거 어촌에 지나지 않았던 부산(포)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성장한 것은 바로 바다를 두고 배를 이용한 교통망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근대 이후 해운을 비롯한 해상교통망 건설에 있어서 일본에 의해 주도권이 뺏긴 점이 있지만, 이 해상 교통로를 따라 많은 사람·정보·문화가 유통되면서 부산은 한반도의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은 해방이후 귀환의 물결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난이란 이동과 해외원조가 전개된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남해안가 경제 특구의 건설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은 수출입품의 물류항구로서 성장했다. 현재 부산은 2030엑스포 유치를 목표로 하면서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새로운 하늘교통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교통로는 이동을 가능케하는 요인이자 그 자체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모빌리티의 주요한 대상이다. 이 글은 근대이후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통망 건설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동과 전환의 부산'을 살펴보았다.

Abstract

Busan is a marine city located on the coast, and the sea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defining Busan. Busan (Po), which had been nothing more than a fishing village in the past since modern times, has grown into a representative marine city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a transportation network using ships was built over the sea. Although Japan has taken the initiative in the construc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networks, including shipping, since modern times, Busan has gained its status as a gateway city to the Korean Peninsula as many people, information, and culture are circulating along this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This characteristic appeared as a wave of return after liberation and a place where evacuation and overseas aid were developed after the Korean War.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by the construction of a special economic zone on the southeast coast, Busan grew as a logistics port for imports and exports. Currently, Busan aims to host the 2030 Expo and plans to build a new air transportation route called Gadeokdo New Airport. Transportation routes are a factor that enables movement and themselves are a major object of mobility that has recently been in the spotlight. This article examines "Busan of Movement and Transition," focusing on the history of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transportation network centered on Busan since modern times.

일제강점기 인구 이동에 따른 부산 부의 성장과 도시 문제 :

중일전쟁 이전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도항
문제와 그 대응책

Korean labor's emmigration to Japan and the urban problems in Busa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era

홍순권 Hong, Soon Kwon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노동자의 누적으로 인한 실업 문제의 발생과 인구 압력은 부산부의 행정구역 확장, 항만 매축, 시구개정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그리고 도시 공업화 추진 등 식민지 도시정책의 중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국문요약

일제강점기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목할만한 현상의 하나는 조선인의 일본 도항('내지도항')이었다. 1920년대 들어서 일본 도항을 위해서 부산에 몰려든 노동자, 불경기로 인해 실직하고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실업자들로 부산은 들끓었다. 만성적인 과잉인구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업이었다. 이 때문에 1924년 부산청년회는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부와 당국이 도항 제한을 풀고 노동자들의 도항을 전면적으로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부는 도항 문제로 발생한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직업소개소의 기능 확대와 국영화를 시도했으며, 조선인 도항자의 기착지인 일본 서부의 여러 도시들과 공동 협력을 꾀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도항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몰려든 출가노동자들과 도항 제한으로 인한 불법 밀항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만성적인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각종 사회사업 방안이 모색되거나 실시된 것은 부산부의 근대 도시로의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도항 저지와 일본으로부터의 귀환

Abstract

This is an abstract of "Korean labors's emmigration to Japan and the urban problems attendant upon the population influx into Busan under the Japanese rule"

Busan increased fast in population during the 1920s~1930s under the Japanese rule. One of the population growth factors in Busan was the influx of Korean labours into Busan to emigrate to Japan. At that time Busan was the only port for Koreans to emigrate legally to Japan. Busan was overcrowded with labors who wanted to migrate for job to Japan, and returnees from Japan who lost their jobs when business was depressed in Japan. The population growth resulted from the influx of Korean labors into Busan gave the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fraud, stowing away, and other urban problems. The Busan citizens held the great mass meeting in 1924 and demanded that Busan and Japanese government should withdraw the restraining migration policy.

Busan government steadily carried out various projects such as strengthening or nationalize the Busan employment agency, restraining labors' migration, controlling the stowing away as wll as the cooperation for the solution of the unemployment between Busan and the Japanese cities including Osaka in the west part of Japan, and so on. It is not easy to say that those projects bore their full fruits. But the overcrowding resulted from the influx of Korean labors affected the urban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e enlargement of th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urban industrialization, and so on.

분과회의 세션 5

Parallel Session

- 5-1 신진연구자세션 :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모색
321호 [Young Researchers Session] Multifaceted Explor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 5-2 신진연구자세션 :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
322호 [Young Researchers Sessi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KEYNOTE LECTURE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SECTION 6

분과회의 세션 5

5-1 신진연구자세션 :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모색

Parallel Session 5

5-1 [Young Researchers Session] Multifaceted Explor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사회통합관점에서 시민인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 : 인문학강사의 활동 중심으로

A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 and role of citizen human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humanities instructors

최금희 Choi guemhee

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다문화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인문학이 지향해야 할 사회통합적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정부의 인문학관련 정책과 사회통합관련 정책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사회통합대상인 동시에 사회 통합의 주체로 살아가는 연구자의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시민인문학은 1990년대 인문학의 위기와 열풍속에 태동기를 거쳐 2004년부터 정부의 인문진흥 기본계획을 통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시공간과 강좌의 다양성 확대 등 대중화로 발전하였다. 시민인문학이 대중에게 깊이 침투된 성과는 있으나 관련정책이나 인문학강좌에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여전히 문·사·철 위주라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 동시대 동일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에게 발생하는 낯선 문화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하여 다문화배경의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교육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다양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인문학 강좌로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is a summary of the consider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function and role that civic humanities should pursue as Korea's multicultural population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study, civic humanities went through its embryonic period in the early 2000s amidst the crisis and craze of the humanities in the 1990s and penetrated deeply into the public in the mid-to-late 2000s.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social integration humanities education targeting various members of society was very insufficient.

* 본 발표자료는 아직 미완성 논문의 일부를 반영하였으니 인용이나 기타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과회의 세션 5

5-1 신진연구자세션 : 소통과 공존을 위한 다각적 모색

Parallel Session 5

5-1 [Young Researchers Session] Multifaceted Exploration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에 관한 고찰 - 미하일 바흐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rotesque in the Movie "Guardians of the Galaxy 3"

- Centered on Mikhail Bakhtin

백우인 Baek Woo In

감리교신학대학교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국문요약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3』(Guardians of the Galaxy)은 타자에 관한, 타자를 위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인간 중심주의적인 시선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에 있으면서 모험과 미션에 행위자로 참여한다. 이는 최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 (Symbiosis), 함께 만들어 가는 공산(Sympoiesis), 사물들의 동등한 존재론적 행위자를 말하는 코스모폴리틱스(Cosmopolitics)의 개념과도 맞닿는다. 주체와 타자가 단절되었을 때의 윤리는 타자와 격리된 채 주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성의 윤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이 영화는 타자의 얼굴에서 출발하여 손에 관한 이야기로 끝맺으면서 주체와 타자를 겹쳐놓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공감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이 연구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보여지는 타자성을, 공감을 통한 공존Coeexistence 과 상생Epigyny의 논의로 확장한다. 미하일 바흐친 (Mikhail Bakhtin) 의 '그로테스크'Grotesque 관점에서 가오갤3의 내용을 살피되, 카니발, 웃음, 광장, 언어, 민중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간을 염두에 둔 타자성 범주를 넘어

동물과 자연과 사물까지 아우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타자성 인식과 실천 윤리로 '생태적Ecological 공존과 상생'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movie "Guardians of the Galaxy 3" begins as a story about others, for and about others. The protagonists of the movie engage in adventures and missions not from a human-centric perspective, but by recognizing the existential equality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This concept aligns with recent discussions of symbiosis, sympoiesis, and cosmopolitics, which emphasize coexistence, co-creation, and the equal agency of entities.

Ethics in a situation where subject and other are disconnected becomes an ethics of singularity, where each entity must bear the burden in isolation. However, this movie not onl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but also concludes with a story about hands, thereby overlapping subject and other and exerting its power through solidarity and empathy.

This research extends the discussion of otherness, empathy, coexistence, and epigyny as portrayed in "Guardians of the Galaxy 3." It examines the content of "Guardians of the Galaxy 3"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otesque as proposed by Mikhail Bakhtin, analyzing it in the dimensions of carnival, laughter, the square, language, and the dimension of the masses. Beyond the category of otherness focused on humans, it takes a step further towards recognizing and practicing an ethics of otherness that encompasses animals, nature, and objects, proposing an "ecological coexistence and epigyny."

시대에 따른 가족 대화의 변화 양상:**1990년대와 2020년대의 드라마 비교를 중심으로*****Changes in family conversations over time****- Focusing on comparison of k-dramas in the 1990s and 2020s**

정희재·신지영 Heejae Jeong·Shin Ji Young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의 구성이 양적·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핌으로써 가족 공동체가 변화해 온 양상을 밝힌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성별의 관점으로 대화의 참여자 간 대화량을 비교하였으나, 동일한 관계에서 지위 차이가 나타날 때의 대화의 실현 양상에 주목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1990년대의 드라마와 2020년대의 드라마 자료를 통해 말차례당 발화 수와 음절 수, 문장 유형과 의문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의 부부는 말차례당 발화 수와 음절 수의 차이가 컸다. 또, 권위주의적 분위기의 가정에서는 남편이 평서문보다 의문문을 쓰는 경향이 강했으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2020년대의 부부들은 상호 간 대화량의 차이가 적었으며 남편들이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 민주화되고 수평적이게 변화하면서 부부가 서로를 온전한 대화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tructure of dyadic conversations among family members has chang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reby investigating how the different use of language reflects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communities.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compared the amount of conversation between participants from a gender perspective, but they did not focus on the realization patterns of conversation when differences in status appear within the same relationship.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status differences among participants on the structure of Korean speakers' conversations, we analyzed dyadic conversations between married couples from different time periods. This study analyzed the number of utterances per turn, syllables per turn, sentence types, and types of interrogative sentences using drama data from the 1990s and 2020s. The results showed tha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utterances per turn and syllables per turn among marriage partners were relatively higher in the 1990s. Moreover, in authoritarian family atmospheres, husbands tended to use interrogative sentences more than declarative sentences and used interrogative sentences that did not demand a response more frequently. On the other hand, in the 2020s, there was less difference in the amount of conversation between couples, and husbands used interrogative sentences that demanded a response more frequently. This can be seen as stemming from the greater democratization and leveling of Korean society. By considering the wife not as the recipient of information but as a participant in the conversation, one can interpret that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urn-taking have gradually changed to be more equal.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2A03053537).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한혜원 Hyewon Han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요약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토리텔링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관련된 법적, 윤리적, 미학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솔루션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인문학적 가치와 스토리텔링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이화여대 디지털스토리텔링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중점 연구 주제로 채택하고 다양한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점은 크게 제도적 관점, 도구적 관점, 상호협업의 관점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본 논문은 특히 상호협업의 관점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개념,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 스토리텔링의 주체성과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 인공지능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의는 창작 결과물의 평가 중심의 논의에서,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 중심의 논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인간-기계, 인문학-공학, 가상-현실을 가로지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Generative AI is becoming important in various art fields. Ewha Womans University's Digital Storytelling R&D Center has adopted "Digital Storytelling in the Age of AI" as its main research topic and is conducting research on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AI in the process of creating various types of content. This paper particularly focus on the perspective of mutual collaboration and suggest the concept of digital storytelling suitable for the AI era,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AI storytelling, and the concept and direction of the subjectivity and creativity of AI.

웹소설 창작에서의 인간

- 기계 협력

Human-Machine Cooperation in Web Fiction Creation

정은혜 Eunhye Chung

단국대학교

Dankook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외 웹소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야기 창작의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급변하는 콘텐츠 창작 환경과 이야기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고찰한다. 콘텐츠마다 매체, 사용자 등 다양한 환경에 따른 차별화된 특징이 이야기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콘텐츠별 이야기 구조와 특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기술의 접목은 일회적 현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술과 이야기 창작이 접목될 수 있는 지점을 디지털 콘텐츠, 그 중에서도 웹소설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국 웹소설의 이야기 환경과 이야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의 가능성을 디지털 서사 이론과 웹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웹소설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매체성과 서사성을 동시에 내재한다. 이를 웹소설의 이야기 데이터베이스적 구조와 멀티모드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간-

기계의 이야기 창작의 이론적 논거를 제안한다.

3장에서는 앞서 살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웹소설에서의 인공지능과의 협업적 창작 모델을 제안한다. 캐릭터 기반의 사건과 배치와 대사 및 행위 제안, 분절화된 서사(narrative) 전개를 중점으로 인간 창작자(creator)와 기계 작가(writer)의 협업적 작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대중 콘텐츠 창작에 적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과 한계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centers its investigation on the applica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domain of narrative constructio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b novel platforms. It aims to scrutinize the potentia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thin the swiftly evolving landscape of content creation and storytelling. Varied contextual aspects, such as media platforms and user dynamics, exert a discernible influence on the narrative elements of each distinct piece of content. Consequently, the indiscriminate integration of technology devoid of due consideration for the unique structural and qualitative attributes of individual narratives is destined to yield only transient results. Thus, this study endeavors to discern the juncture at which AI technology and storytelling can be effectively harmonized, with a specific focus on digital content, especially web novels.

To this end, Chapter 2 delves into the prospects of AI-driven narrative generation, with a keen focus on the narrative milieu and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inherent to Korean web novels. This examination is underpinned by digital narrative theory and the idiosyncrasies of web novels. As a form of digital content, web novels inherently occupy the realms of medium and narrative concurrently. We presen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human-machine narrative creation, anchored in the narrative database structure and multimodal attributes that typify web novels.

In Chapter 3, we propose a collaborative creation model involving AI within the context of web novels, building upon the theoretical foundations previously elucidated. Our proposal is centered on character-driven events and placements, dialog and action suggestions, and segmented narrative progression. It delineates the trajectory of collaborative writing between human authors and AI-generated content. Through this, we endeavor to explore the prospective avenues and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to the creation of popular content in the future.

낭만적 해프닝과 오토피아

-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NPC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Romantic Happening and Autopia

서재인 Jane Seo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방법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자가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기대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의 성취가 아닌 챗봇의 다양한 반응을 경험하는 해프닝의 수집이라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NPC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르는 시뮬레이션임을 제안한다. 플레이어는 프롬프트로 게임 세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동화된 게임 세계를 관조하면서 해프닝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경험이라 기대한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게임 콘텐츠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게임 콘텐츠 개발의 가능성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그 중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임 객체는 NPC로, 게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캐릭터이자 플레이어에게 퀘스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체에서 사람과 같은 반응을 하는 NPC는 몰입을 증대시킬 것이라 예상하나,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 이론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플레이어가 AI NPC와 상호작용하여 경험하는 것은 몰입의 증대가 아닌 다양한 사건을 발생하는 해프닝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생성형 AI가 게임 콘텐츠에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적 경험을 NPC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AI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게임에서 나타나는 시뮬레이션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챗봇과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과 비교하여 AI NPC와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tential and implications of employing generative AI in the development of game content,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non-player character(NPC). NPC, which represent entities with whom players engage directly, serve as pivotal elements in conveying the game narrative and assigning quests to players. Within the gaming industry, there is a prevalent anticipation that NPC endowed with human-like responses will augment player immersion. However, grounded in player experience theory, this study posits that player interactions with AI NPC do not intensify immersion; rather, they often result in the discovery of unexpected occurrences. This article will discuss the new gaming experiences that can emerge when generative AI is applied to game content, focusing on interactions with NPC.

In Chapter 2, focus on interactions with AI chatbots as a means to elucidate the dynamics of simulated gameplay within video gam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In pursuit of this objective, we conduct an analysis comparing the potential for shaping interactions with AI NPCs to that of AI chatbots and dating simulation games. Our findings suggest that users' expectations from interactions with chatbots are not primarily geared towards achieving a predetermined outcome. Instead, users seek to accumulate a spectrum of experiences stemming from the varied responses elicited from the chatbot.

In Chapter 3, we advance the proposition that the simulation genre is ideally suited to maximize the impact of integrating generative AI as NPC. Players will build a game world through prompts, and it is our conjecture that the future gaming experience will revolve around the serendipitous discovery of new and unforeseen events while observing the automated game world that evolves in response to these prompts.

물질화 과정으로서의 인공지능

글쓰기 :

<뤼튼>의 톨, 챗봇 만들기 기능을 중심으로

AI Writing as a Materializ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Tools and Chatbot Creation of <wrtn>

박한하 Hanha Park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versity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인공지능 글쓰기 플랫폼인 <뤼튼(wrtn)>의 톨 만들기, 챗봇 만들기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도와 기계의 물리적 실재가 만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인공지능 글쓰기는 인간인 사용자의 의미화 전략과 기계인 인공지능 모델이 만나 복수의 인과관계를 발생시키는 창발적 과정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글쓰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종적인 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에 적용될 수 있는 지능형 계산 기계의 물질적 특성을 정리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적 오해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물질세계를 초월한다는 것이며, 이는 사이버네틱스 초창기 이론의 추상적인 정보 개념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앨런 튜링의 논문과 캐서린 헤일스의 물질성 개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튜링에 따르면 지능을 가진 계산 기계는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초임계적 관념을 생성한다.

3장에서는 계산 기계이자 글쓰기 기계인 <뤼튼>의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에서 발현되는 물질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한다. <뤼튼>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신만의 인공지능 글쓰기 기계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하다. 사용자는 톨과 챗봇을 만들며 명확한 지시문을 통해 원칙을 정립하고, 지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예제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행위성과 기계적 신체의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창발적 프로세스이며 물질화의 과정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where human intention and the physical reality of a machine meet, focusing on the tool creation and chatbot creation functions of <wrtn>, a domestic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platform.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is an emergent process that generates multiple causal relationships by intersecting the semantic strategies of a human user an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of a machine. Therefor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writing, it is essential to specifically reveal the aspects of interplay between heterogeneous subjects.

To this end, Chapter 2 summarize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intelligent computation machine that can be applied to AI writing machines. A common misunderstanding about AI is that its algorithms transcend the material world, and this originates from the abstract concept of information by early cybernetics theory. Therefore, this study begins its discussion with the thesis of Alan Turing, who is called the fath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ncept of materiality by N. Katherine Hayles. According to Turing, intelligent computation machine creates super-critical ideas through the teaching process.

In Chapter 3, this study identifies specific aspects of materiality expressed in AI writing machines through the case of <wrtn>, which is both a computation machine and a writing machine. <wrtn> is unique in that it provides the function for users to create their own AI writing machine. Users experienc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rinciples through clear instructions and learning various examples that match the content of the instructions while creating tool and chatbot. This process is an emergent process and a process of materialization in that it goes beyond the dichotomous paradigm of human action and mechanical bodies.

분과회의 세션 6

Parallel Session

- 6-1 신진연구자세션 : 포스트휴먼 시대의 예술 철학
321호 [Young Researchers Session] Philosophy of Art in the Posthuman Age
- 6-2 신진연구자세션 : 역사 낯설게 보기
322호 [Young Researchers Session] Refreshed Perspectives into History
- 6-3 연대하는 '외부'들 : '바깥'에서 만난 그들
323호 The 'Outsiders' in Solidarity : Those Who Met on the 'Outside'
- 6-4 공감과 상상력
324호 Empathy and Imagination
-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325호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 6-6 냉전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연대 : 재역사화에서 평화운동으로
326호 Cold War Memories and Post-memorial Solidarity : From Rehistoricization to Peace Movements

인공지능은 예술 감상자가 될 수 있는가?

-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

Can AI Appreciate Art?

윤주한 Yoon, Juhan

대구대학교

Deagu University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산물이 우연한 맥락과 사후적 인정에 따라 예술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인공지능 자체가 예술적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아서, 인공지능이 예술적 창조 능력을 갖는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주장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공지능이 적절하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탐구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적절한 예술 감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 혹은 준-신체와 '신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인공지능은 예술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 연구가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예술적 가능성에 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예술 창조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공지능이 '예술 감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보통 인공지능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물을 산출해낼 수 있으며, 그 산물이 인간 예술가의 것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아름답거나 참신하다는 사실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산물이 어떤 인과적인 내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지를

Abstract

Can AI adequately 'appreciate' art? This is the central question that this study seeks to answer. Academic discussions about the artistic potential of AI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whether AI can "create" art. However, this study begins with the hypothesis that to explore AI's capacity as a creator of art, we must first ascertain whether AI can be an appreciator of art.

Advocates for AI's artistic creativity often point to how well aesthetically refined or how novel AI-generated products are, comparable to those produced by human artists. Yet, to assert that AI genuinely creates art, it is imperative to scrutinize the underlying causal internal processes through which AI products are generated. Merely classifying AI products as art within specific contexts or through retrospective recognition does not inherently establish that AI possesses the intrinsic ability to create art.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is crucial point and scrutinize whether AI truly possesses the capacity to create art.

To this end, this study advances two main arguments. First, in order to genuinely assess AI's creative potential, we must initially investigate its ability to genuinely appreciate art. Second, for an AI to properly engage with art, it must first possess a body, or a functional equivalent, along with a 'body monitoring system'.

가상현실은 공감 기계인가?

Is Virtual Reality an Empathy Machine?

이다민 Yee, Dami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본고에서 나는 가상현실이 공감 기계라는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가상현실이 전통적 매체와 달리 가지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관점을 취할 수 있게 해주므로, 전통적 매체에 비해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널리 퍼져 있다.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원격현전'이나 '몰입'의 경험이 분명 가상현실을 전통적 매체와 구분해주며, 감상자를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승격시켜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점'과 '공감'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한다면, 가상현실이 그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공감 기계가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나의 제안이다. 가상현실이 분명 생생한 상상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공감에 관련되는 종류의 상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나는 가상현실 경험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생생한 지각적 상상을 허용하는가에서 우선 발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critically scrutinize the widely held belief that virtual reality is an 'empathy machine'. This belief stems from the technical capabilities unique to virtual reality, which enable one to adopt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a more straightforward way compared to traditional media. The experiences of 'telepresence' or 'immersion' offered by virtual reality unquestionably set it apart from traditional media, transforming the spectator from a passive observer into an active participant. However, through a more circumspective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erspective' and 'empathy', I suggest that the idea that virtual reality is an empathy machine due to its technological features is not necessarily evident. While virtual reality undeniably allows vivid and intricate imaginative experiences, this type of imagining is not necessarily what we need for empathy. Consequently, I argue that the value of virtual reality experience lies not so much in how deep empathy it evokes, but rather in how rich and vivid perceptual imagining it allows.

창의성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덕으로서의 창의성 비판

How can Creativity be Defined? :

A Criticism on Creativity as a Virtue

임수영 Suyeong, Lim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의 목표는 키이란의 덕으로서의 창의성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창의적인 산물이 '창의성의 정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탐구하는 철학자들 사이에는, 어떻게든 새롭고 가치 있는 산물을 만든다고 해서, 그 생산 주체를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사고실험들을 소개한 후, 이 사고실험의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키이란의 창의성에 대한 설명을 검토할 것이다. 키이란은 창의성이 덕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창의적인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들이 가진 특성들, 행위의 이유를 인식하며, 내재적인 이유로 동기부여되는 경향성을 안정적으로 지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고 말한다. 나는 창의성을 덕으로 이해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을 설명한 후,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산물을 중심으로 창의성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사고실험의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않은 이유를 창의적인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정의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critically examine Kieran's account of creativity as a virtue, and to suggest that creativity should be defined in terms of creative product. Philosophers exploring creativity have a widely shared concern that merely making a new and valuable product does not make the producer creative. I will illustrate thought experiments that show this concern, and then review Kieran's account of creativity, which is designed to explain why the people in these thought experiments are not creative. Kieran argues that creativity is a kind of virtue, and that creative people are praiseworthy because they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virtuous people, such as recognizing the reasons of their actions, and reliably being motivated by intrinsic reasons. After outlining the problems of Kieran's view, I will argue that creativity should be defined in terms of creative products, not creative people. After that I will show that a definition centered on creative products can also explain why the people in above thought experiments are not creative.

상상과 떠올리기

Imagining and Entertaining

항현동 Hyuendong Hwang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20세기 철학의 이른바 '언어적 전회' 이후 많은 철학자들은 명제적 상상(propositional imagination)을 떠올리기(entertaining)의 일종, 즉 어떤 명제에 의식적으로 주목하는 심적 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다. 어떤 명제를 믿을 때와 달리 어떤 명제를 순전히 떠올리기만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참인 명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떠올리기는 비개입적(non-committed) 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떠올리기가 무언가를 궁금해하거나 가설로 세우는 등 다양한 비개입적 사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비개입적 사고의 하나인 상상 또한 떠올리기의 일종이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상상에 관한 근래의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월튼(Kendall Walton)은 이것이 "유망하지만 실은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평가한다. 그에 의하면, i) 떠올리기가 본질적으로 현행적인(occurrent) 데 반해 상상은 비현행적일(non-occurrent)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ii) 현행적 상상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떠올리기의 본질적인 논리적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상은 떠올리기의 일종이 아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상상이 떠올리기 "이상"의 무언가라는 월튼의 철학적 동기는 인정할 만하지만 그의 논변들 자체는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내 생각에 첫 번째 논변은 선결문제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논변은 논리적 타당성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Abstract

Following the "linguistic turn" in 20th-century philosophy, propositional imagination—where we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a given proposition is the case—has often been construed as a kind of entertaining, a mental activity of consciously attending to a proposition. Entertaining is a non-committed thought, as the subject doesn't consider the content of her thought as being true when she merely entertains it, unlike when she believes it. Given that entertaining is quite integral to various non-committed thoughts such as wondering, hypothesizing, and the like, it seems highly intuitive to regard imagination, which also lacks commitment, as a kind of entertaining.

However, Walton(1990),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eorists in the philosophical literature on imagination, challenges this conception of imagination. He suggests that it is "one promising but inadequate way of understanding imagining". According to him, imagination is not a kind of entertaining, in that (a) imagination can be non-occurrent, whereas entertaining is necessarily occurrent; and (b) even in its occurrent form, imagination doesn't share the essential logical feature of entertaining.

In this paper, I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these arguments and show that none of them are successful, without entirely dismissing Walton's philosophical motivation behind them—that imagination "involves more than just entertaining". Specifically, Walton's first argument hinges on what I call *the fictional scenario thesis*, which precludes the notion that imagining is a kind of entertaining, and by this begs the very question. His second argument, despite its being logically valid, lacks sufficient plausibility, due to its reliance on an unjustified interpretation of the essential feature of entertaining.

권력 집단의 확대 양상 :**순조대(1800~1834) 정경(正卿)·아경(亞卿)
발탁 관행****The Expansion of the Core
Power Group :****Appointing Public Officials to the Positions
of Jeonggyeong and A-gyeong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 (1800~1834)**

황유나 HWANG YOUNA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조선 후기 순조대 전후 시기에 확인되는 현상으로서 정경(正卿)·아경(亞卿) 발탁 관행에 주목하고 그 특징과 변화상을 분석한다. 정경과 아경은 본래 각각 정2품과 종2품의 관원 혹은 관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활용되었으며 국가 운영의 중책을 함께 맡은 핵심 지배층으로서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그런데 순조대 사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실시 양상으로 볼 때 정경·아경의 발탁이란 당상관인 관원 개인에 부여되는 관계[資級·散官·官品]를 상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둔 독특한 인사 행위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경의 발탁은 당상 정3품인 통정대부를 종2품 하계인 가선대부로, 정경의 발탁은 종2품 관원을 정2품 하계인 자헌대부로 올려 발탁하는 관행이었으며 모두 비변사의 요청을 국왕이 허락하는 양식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순조대에 관행화한 이후 고종대까지 지속되었다.

정경·아경을 발탁하는 인사 관행의 실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특히 비변사에 의해 정경·아경이라는 고위 당상관의 모집단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practice of appointing public officials to the positions of Jeonggyeong(正卿) and A-gyeong(亞卿)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specific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Sunjo(1800~1834),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ractice. Originally, Jeonggyeong and A-gyeong were pronouns used to refer to officials or positions of Senior grade of second rank(正二品) and Junior grade of second rank(從二品), respectively.

Examining the specific patterns found in historical records from the time of King Sunjo, however, it appeared that the appointment of Jeonggyeong and A-gyeong was a unique personnel action that elevated the rank of individual officials who were current members of the court, Dangsang-kwan(堂上官). The practice of appointing A-gyeong involved promoting officials holding the position of Dangsang Senior grade of third rank, to the lower level of Junior grade of second rank, known as Ga-seon Daebu(嘉善大夫). Similarly, the appointment of Jeong-gyeong involved promoting officials holding the position of Junior grade of second rank to the lower level of Senior grade of second rank, known as Ja-heon Daebu(資憲大夫). Both of these appointments were carried out in a formal manner that the King approved Bibyeon-sa's request. This practice became formalized from the reign of King Sunjo and persisted into the reign of King Gojo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nel practice of appointing Jeonggyeong and A-gyeong can be subject to various interpretations. This study, in particular,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this practice in that it involved the continuous replenishment of a high-ranking Dangsang group known as Jeonggyeong and A-gyeong, which was orchestrated by the powerful political organization of the time, the Bibyeon-sa.

“力道朝鮮”의 명암 :

일제강점기 역도의 발전과 力의 주체 전환

The Dual Nature of

“Weightlifting Joseon” :

The Development of Weightlifting and the Shift in the Agent of Pow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이희재 Lee Hee Jae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일제강점기 역도의 도입과 발전을 살펴보고 그 양면성을 분석했다. 한국 근대스포츠의 성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의 영향력뿐 아니라 식민권력과 연관성 속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조선의 역도는 건강한 체력의 지향을 공유했던 민족주의와 일제 식민통치의 상호 공존 속에서 성장했다. 본래 역도는 민족주의적 지향을 품은 조선인 엘리트들에 의해 도입·장려되었다. 일제 식민통치 속에서 조선인들은 역도를 매개로 삼아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는 다시 역도의 발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역도의 발전은 그것이 표상하는 힘(力)의 주체가 점차 전환되면서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 먼저 역도는 조선인의 신체단련을 통하여 민족의 힘을 기르는 방책으로 소개되었지만,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체위 향상’이라는 국책에 부응하는 쪽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은 본래의 민족주의적 지향이 일제 식민권력의 지향과 일치하는 지점이 발생하면서 형성되었다.

또한 조선인 역도선수들의 성적은 민족적 자긍심을 확대시켰으나, ‘내선일체’ 구호 아래 그것이 함의하는 민족성은 탈각되어 갔다. 조선인 선각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 위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식민통치는 조·일간 역도경기에 민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선수 역량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였다. 그러나 조선인 선수들의 성취는 일본제국에 귀속되었다. 이들이 보여준 힘, 즉 체력의 주체는 대외적으로 ‘조선인’이 아니라 ‘제국민’으로 표상되었다. 결국 “역도조선”은 민족적 승리감을 역이용하여 민족성을 거세하는 양면성을 지닌 캐치프레이즈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weightlift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nalyzed its dual nature. The growth of modern Korean sports needs to be understood not only in the context of nationalist influence but also in its multidimensional relationship with colonial authority. Weightlifting in colonial Korea grew within the coexistence of nationalist aspirations and Japanese colonial rule, as both inadvertently emphasized the goal of promoting robust physical health. It was originally introduced and encouraged by Korean elites with a nationalist orien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used it as a means to communicate and unite with each other. This solidarity, in turn, propelled the development of weightlifting.

As weightlifting developed, it acquired a dual nature as the agent of power (力) gradually shifted. Initially, weightlift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introduced as a means to cultivate the strength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physical training. However, as it transitioned into the wartime regime, it ultimately aligned with the national policy of ‘improving the physical fitness of the populace.’ The pursuit of robust physical health was a common thread connecting the potential growth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fitness of the Japanese populace. This duality emerged as the original nationalist orientation converged with the goals of Japanese colonial authority.

Furthermore, the achievements of Korean weightlifting athletes amplified national pride, but its national characteristic gradually eroded under the slogan of *Naeseon Ilche* or “Japan and Korea are one.” Korean elite originally intended to showcase the prowess of the Korean nation to Japan and the world through sports, especially weightlifting. Paradoxically, colonial rule induced interest among the populace in matche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athletes and acted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athlete capabilities. Nevertheless, the accomplishments of Korean athletes belonged to the Japanese Empire. The power they exhibited, namely the agent of physical prowess, was externally represented not as ‘Korean’ but as ‘imperial subjects.’ In the end, *Yeokdo Joseon* or “Weightlifting Joseon” was a catchphrase that encompassed duality, leveraging a sense of national victory to subdue national identity.

친일경찰과 민주경찰 사이 :**해방 직후 여자경찰(女子警察)의 재현 양상****Between 'Pro-Japanese Police' and 'Democratic Police' :****Perceptions of Female Police Officer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송하연 Hayeon Son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1947년 창설된 여자경찰 제도가 대중매체에서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여자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출발은 어떠한지 고찰하였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남성으로 대변되는 미군정과 한국 경찰이 생산한 매체에서 여자경찰은 미국형 민주주의 보급 정책의 중요한 업적으로 홍보되고, '친일경찰'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쇄신할 '친절한 보호자' 형상을 만드는 데 동원됐다.

여자경찰의 임무였던 노인, 아동,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은 친절한 보호자 형상을 만드는 배경이 됐다. 여자경찰의 고문으로 참여한 미국인 여성들은 여자경찰의 보호자 역할이 여자경찰만의 고유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미국의 여성경찰관 제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여자경찰이 남자 경찰관의 보조 역할이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여자경찰서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여자경찰의 임무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 한정되고 있지만, 여자경찰 당사자는 자신에게 친일경찰과 구분되는 민주경찰의 표상 역할을 부여하였다. 남성의 시선에서 여자경찰은 친절한 보호자로 재현되었던 것과 달리, 이들은 민주경찰이라는 가치를 활용하여 나름의 소통 창구와 주체성을 확립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establishment of the female police system in 1947 was portrayed in mass media and how societal perceptions of female police officers began to take shape. At first, female police officers, portrayed as benevolent guardians, were mobilized in the media produc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Korean police, representing a significant achievement of American-style democratic dissemination policy and aiming to overhaul the negative image associated with 'Pro-Japanese Police.'

The role of female police officers, which was to protect the elderly, children, and women, became the background for creating the image of benevolent guardians. American women who participated as advisors to female police officers believed that the role of protector of female police officers could become the unique duty of female police officer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operating the female police office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y argued that female police officers in Korea should take on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role rather than an auxiliary role to male police officers, which led to the independence of women's police stations.

In this situation, although the duties of female police officers are limited to traditional gender norms, female police officers have given themselves the role of representing democratic police officers, distinguishing them from pro-Japanese police officers. In contrast to the benevolent guardian image viewed from the male perspective, they established their own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agency by utilizing the banner of 'Democratic Police'.

갈등의 시기, 평화통일의 추진 :**국회의 통일문제 연구기관 설립 논의와
국토통일원 창립(1964~1969)****Advocating for Peaceful
Unification in the Period of
Conflict :****Discussions of the Korean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1964-1969)**

남기정 Nam Gi Joun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1964~1969년 국회의 통일연구기관 설립 추진 및 평화통일의 공론화 과정을 살펴본다. 해당 시기 남북한 무력충돌로 인한 안보위기를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던 모습을 보인다.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의 통일 연구 논의 이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통일이라는 주제는 금기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국제정세의 변화, 4·19, 5·16 등을 경험하며, 한국 사회는 통일문제를 직시하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었으며 그 주된 장은 국회였다. 이 시기 국회는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동일하게 여전히 강력한 반공주의를 '국시'로 삼았고 '선발전 후통일'이라는 승공을 목표로 한 통일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더 이상 전쟁에 의한 통일은 선택지가 아니었고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은 폐기되었다.

국회의 통일연구기관 설립 논의는 이전 시기와 다르게 여론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통일언급과 논의에 대한 금기를 타파하였고 통일연구를 넘어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북한정책의 변화 가능성, 한국의 대응방안, 남북교류와 서신교환 논의까지 통일 관련 주제의 반경을 넓혀갔다. 국토 통일원은 당시 반공연구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기관의 설립으로 평화통일 추진의 출발점이 확립되었다. 대립과 갈등의 시기에 국회의 통일연구기관 논의, 국토통일원 설립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한 학문적·외교적인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a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ion and public discourse on peaceful unific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1964 to 1969. Despite the security crisis caused by inter-Korean military conflicts during this period, Korean society consistently affirmed the principles of peaceful unification, which was clearly demonstrated i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e 1950s, the topic of unification was considered taboo in Korea. However, in the mid-1960s, amids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events like the April 19th Revolution and May 16th Coup, Korean society began to face and discuss the issue of unificatio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were brought into the public discourse, with the National Assembly being the main arena. During this period, the National Assembly, like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till strongly emphasized anti-communism as the 'national-ideology' and insisted on a unification principle focused on Seung Gong(victory against communism) through 'development first, unification later'. However, war as a means of unification became no longer an option, and President Syngman Rhee's policy of advancing northward for unification was abandoned.

The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reflected public opinion differently compared to previous times. The National Assembly broke the taboo surrounding the mention and discussion of unification. The scope of unification-related topics expanded beyond unification research to include reflections on changes in North Korean policy based o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ies, inter-Korean exchanges, and discussions on official communications. While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 had limitations as a research institution with anti-communist tendencies at the time, its establishment mark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promotion of peaceful unification. During a period of opposition and conflict, the discussions on a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oard of National Unification began to explore academic and diplomatic methods for overcoming Korean division.

<배비장전>의 낮은 목소리 :**혜절의 이면에 숨어 있는 소통과 연대의 가치****Baebijangjeon's low voice :****The value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hidden behind getting into trouble**

엄태웅 Eom Tae-ung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국문요약

지금까지 <배비장전>은 양반의 허위의식과 위선을 풍자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연구되었다. 물론 제주목사, 애랑, 방자 등이 배비장을 곤경에 빠뜨리는 장면에서는 풍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과연 이 작품이 양반에 대한 풍자를 궁극적 목적 혹은 주제로 삼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풍자라는 것은 신분 차이나 빈부 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상정하기 때문에, 풍자 대상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풍자 대상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런데 배비장전에서는 결말에 배비장이 제주 정의현감에 부임하고 제주 사람들과 이를 함께 기뻐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즉 이 작품은 양반을 풍자한다기보다, 서울 양반/남성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들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다름 아닌 제주의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배비장에게 계속해서 무례함을 지적하고 예의엄치를 차릴 것을 촉구한다. 그들은 비록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어 양반인 배비장을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그들은 양반을 적대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이는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터득한 소통과 연대의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Until now, "Baebijangjeon" has been studied as a representative work satirizing the false consciousness and hypocrisy of the yangban. Of course, the scene where Jeju Governor, Ae-rang, and Bang-ja put Bae in trouble reveals the aspect of satire. However, there is room for reconsideration as to whether this work really made satire of the yangban the ultimate purpose or theme. Because satire assumes structural inequality in society, such as status differences and gap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t does not require change from the satirical object and does not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satirical object. However, in Baebijangjeon, there is a situation in which Baebijang is appointed to Jeonguihyeongam in Jeju at the end and rejoices with Jeju people. In other words, rather than satirizing the yangban, this work aims to induce their change by pointing out the behaviors and attitudes of Seoul yangban/men.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se changes are made by none other than Jeju's low status people. They urge the captain to continue to point out disrespect and be polite. Although they do not have power, they pointed out Baebijang, a nobleman, and urged change for reasons that would be understandable to anyone. They did not see the aristocracy as hostile. I think this is a way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that people of low status have learned themselves from their relationships with people of high status. In that respect, the value of this work should be re-examined.

최척의 꿈, 김영철의 현실* :

혐오를 넘어서는 소통과 연대의 디아스포라

Choi Cheok's Dream, Kim Young-chul's Reality :**Diaspora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beyond hatred**

정제호 Jeong, Jeho

한국교통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국문요약

전쟁으로 인한 표류와 이산을 다룬 작품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최척전>과 <김영철전>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최척과 김영철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머나먼 타국을 떠도는 삶을 반복한다. 그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하며 타국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이들은 끝끝내 고향으로의 귀환만을 꿈꾼다. 그리고 돌아온 고향에서 최척과 김영철은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한다. 고향으로의 귀환에 큰 상을 받은 최척과 달리 김영철은 노병으로의 쓸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난민으로 떠돌며 모든 어려움과 수모를 극복한 이들에게 꿈과 현실이라는 서로 다른 결말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꿈과 현실의 부조화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전쟁 등으로 인해 난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세계는 이들을 보호나 수용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현재 양산되는 난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는 사실 그런 난민을 양산했던 나라였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고향을 떠나 만주에 정착했던 흔히 '조선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중동포가 아닌 타자의 언어인 조선족으로 불리며,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이면서도 또 혐오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다. 즉, 고국을 다시 찾은 동포들에게 우리는 '김영철의 현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로 떠나게 한 동포들에게 '최척의 꿈'을 함께 꾸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Abstract

Among the works dealing with drift and separation caused by war, *Choicheokjeon* and *Kimyoungcheoljeon* are the most well-known. Choi and Kim lose their families in the war and drift far away to another country. They experience different cultures there and acquire the identity of other countries, but they only dream of returning to their hometowns. And in their hometowns, Choi and Kim have different endings. Choi won big award for return to hometown. On the other hand, Kim was only waiting for a lonely death from an old soldier. Different endings of dream and reality were presented to those who were drifting as refugees.

This dissonance between dreams and reality is still repeated. In fact, the number of refugees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war. However, the world regards them only as objects of hatred, not objects of protection or acceptance. We, who are contemplating whether to accept refugees currently being mass-produced, were actually a country that had mass-produced such refugees not so long ago. A case in point is people commonly referred to as 'joseonjok'. They are called joseonjok, the language of others, not Koreans in China, and remain both objects of use and hatred to us. In other words, we are only providing 'Kim Young-chul's reality' to compatriots who have visited their homeland again. We need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ose who let us leave, even if we can't show 'Choi cheok's dream'. It will be essential to see our own identity right away.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삼공본풀이>와 현대의 서사학 :

타자, 폭력, 포용의 관점에서

"Samgong-bonpuri" and the Narrative of Hospitality : In terms of Other, Violence, and Embrace

신호림 Shin, Horim

안동대학교

Andong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본고는 제주도의 무속신화 <삼공본풀이>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삼공본풀이>는 제주도의 큰굿 중 '삼공본풀이' 제차(祭次)에서 심방에 의해 구연되며, '전상'과 관련된 신을 다룬다. 전상에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전상과 긍정적인 전상이 있는데, <삼공본풀이>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전상은 쫓아내고 긍정적인 전상은 받아들인다는 제의적 인식을 보여준다. 즉, 전상신이라는 대타자(大他者)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뮈토스(mythos)라는 서사적 지식형태를 통해 풀어낸 것으로, 이는 결국 전상신으로 좌정하는 '가문장아기'라는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자의 신화'라고 할 수 있다.

가문장아기의 부모는 본래 거지였지만, 세 명의 딸이 태어나면서 천하의 거부가 된다. 가문장아기라는 타자의 등장은 이런 발복(發福)의 근원을 묻는 부모의 물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가문장아기는 발복의 근원을 자신의 선공에서 찾음으로써 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공동체의 체계를 위협한다. 가문장아기는 불효녀로 호명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부모와 두 언니가 가문장아기를 위협하는

장면은 '타자의 출현' 또는 '타자성의 발견'을 의미하며, 가문장아기라는 타자는 가족공동체로 다시 포용되지 못하고 이방인의 형상을 띤 상태로 쫓겨나게 된다. 타자를 축출한 가족공동체의 폭력은 결국 가족의 와해로 이어지게 되는데, 두 언니는 가문장아기에 의해 지내와 버섯으로 변하게 되고, 부모는 눈이 멀고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타자에 대한 적대의 태도가 '부정적인 전상'을 불러들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집을 떠난 가문장아기는 마통이 가족이 사는 초막에 도착한다. 자신의 가족이 그러했듯이, 첫째 마통이와 둘째 마통이는 가문장아기를 경계하고 적대하지만, 셋째 마통이는 가문장아기를 환대한다. 그 현대의 방식은 손님과 주인의 자리바꿈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마통이는 가문장아기에게 기꺼이 주인의 자리를 내줌으로써,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언제든지 해체되고 자리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에 따른 가문장아기에 대한 판단은 중지되고,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가문장아기의 타자성은 적극적으로 수용된다. 가문장아기에 대한 셋째 마통이의 환대는 잠시 집단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지만, 금의 획득을 통한 부의 축적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족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타자에 대한 현대의 태도가 '긍정적인 전상'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대의 서사는 거지잔치로까지 이어지며,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버렸던 부모를 다시 포용하기에 이른다. 부모에 대한 환대는 부모가 다시 눈을 뜨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현대는 절대적 현대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타자에 모든 우선권을 양보하는 일방향적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현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성을 강조함으로써 현대를 수행하는 인간의 윤리적 태도 또한 강조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상호성 또는 인간의 윤리적 태도는 <삼공본풀이>의 서사에서 타인에 대한 증여 행위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마을공동체가 거지였던 가문장아기의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삼공본풀이>의 초반부 서사는 후반부 서사에서 가문장아기가 천 명이 넘는 거지를 먹여 살리는 거지잔치로 이어짐으로써 타인에 대한 증여는 상호 증여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국, <삼공본풀이>는 전상의 신에 대해 다루면서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개인과 마을공동체의 관계, 개인과 만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 현대의 서사를 강조한다. <삼공본풀이>에서 제시하는 현대의 서사학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현대가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상호간의 윤리적 태도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Samgong-bonpuri," the shamanistic myth of Jeju Island. "Samgong-bonpuri" is sung by the shaman of Jeju Island called 'shimbang' in the ritual procedure 'Samgongbonpuri' of the great 'gut(Korean shamanistic ceremony),'

and deals with the god related to 'Jeonsang' which means a fortune or fate. 'Jeonsang' is an ambivalent invisible power to humans, and "Samgong-bonpuri" shows a ritual perception that negative power are expelled from humans and positive power are accepted. In other words, "Samgong-bonpuri" can be said to be a 'myth of the other' that pays attention to the human attitude toward the god, 'Gameunjang-agi.'

Gameunjang-agi is the female character in "Samgong-bonpuri." Her parents were originally beggars, but when three daughters were born, they suddenly became super rich. One day Gameunjang-agi's parents ask their daughters of the origin of good fortune. Unlike her sisters, Gameunjang-agi answers the origin of good fortune came from herself instead of her parents, which means Gameunjang-agi threatens the system of a family community composed around parents. Gameunjang-agi is called an undutiful daughter and abandoned by her family. The scene in which parents and two older sisters threaten Gameunjang-agi means 'the emergence of others' or 'discovery of otherness,' and Gameunjang-agi is not re-embraced as a family community and expelled in the form of a stranger. Violence in the family community, which ousted the other, eventually leads to the breakdown of the family, with the two older sisters turning into centipedes and mushrooms by Gameunjang-agi, and their parents become blind and lose all their property. It is a symbolic scene showing that the hostile attitude toward the other brought about a 'negative effect.'

Gameunjang-agi leaves home and arrives at the beginning where Matung's family lives. As his family did, the first and second Matungs are wary and hostile to Gameunjang-agi, but the third Matung welcomes the baby. The way of hospitality is achieved through a dynamic process of changing the place of a guest and host. The third Matung shows that the boundary between the host and the guest can be dissolved and changed at any time by willingly giving up the host's seat to Gameunjang-agi. Judgment of Gameunjang-agi with a existing conventions or norms is stopped, and the otherness of Gameunjang-agi with unfamiliar and foreign feature is actively accepted. The third Matung's hospitality to Gameunjang-agi in the family makes the group's identity shake for a while, but the family community is further enriched through the event of wealth accumulation through the acquisition of gold. The attitude of hospitality toward the other brought about a 'positive effect.' And this narrative of hospitality leads to a huge party for beggar, and Gameunjang-agi begins to embrace the parents who abandoned her once. Hospitality to parents leads to a scene where parents recover their eyesight again.

The hospitality reflected in "Samgong-bonpuri" shows an absolute hospitality, but does not mean an one-side aspects of giving up all priority to others. This is because it also emphasizes the ethical attitude of humans to carry out hospitality by emphasizing reciprocity that appears in the process of hospitality. The reciprocity of hospitality or human ethical attitude is embodied in the narrative of "Samgong-bonpuri" as an act of giving to others. The beginning part of "Samgong-bonpuri" narrative, in which the village community fed the beggar family of a Gameunjang-agi, leads to a charity event for more than a thousand beggars in the last part of the narrative, leading to mutual gifts to others. In the end, "Samgong-bonpuri" deals with the god in the foreground and basically tal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umans, but emphasizes the narrative of mutual hospit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etween husband and wife, between individuals and village communities, and between individuals and all. The narrative of hospitality presented in "Samgong-bonpuri" shows that mutual hospitality in various human relationships is possible when a sense of solidarity is formed and mutual ethical attitudes are supported in it.

소화(笑話)의 웃음, 그들만의 유대와 공감의 기록

Laughter in humorous stories, A record of their own bonds and empathy

이승은 Lee Seung-eun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국문요약

본고는 조선시대 소화(笑話)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웃음이 지니고 있는 배타성에 주목한다. 인간은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거나 타자를 배척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웃음을 활용해 왔으며, 이는 조선전기 사대부 필기·소화류의 웃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태평한화골계전』, 『용재총화』, 『촌담해이』, 『어면순』과 같은 조선전기 필기·소화의 웃음 산출 기제를 검토해보았다. 이들 작품에서 웃음의 주체는 대체로 사대부 남성 동류집단이며, 웃음의 대상은 그러한 동류집단으로 포괄되지 않는 승려, 무인, 여성, 장애를 지닌 사람이거나 동류집단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사대부답지 못한 사대부 등이었다. 이는 조선전기 소화가 차별적 시선을 통해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자기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는 담론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파한(破閑)을 위한 웃음의 기록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은 사 계층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집단의 결속과 연대의식을 굳건히 하고, 이를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정황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Joseon dynasty sohwa(笑話; humorous stories) that focuses on the exclusivity of laughter. Humans have utilized laughter to confirm group homogeneity, to exclude others, or to demonstrate dominance, which is prominent in Pilgi(筆記) and sohwa(笑話) of the Joseon Dynasty. From this perspective, I examine the mechanisms of laughter in Pilgi(筆記) and sohwa(笑話) such as *Taepyeonghanhwagolgejeon*(『太平閑話滑稽傳』) and *Yongjaechonghwa*(『慵齋叢話』), etc. In these works, the subjects of laughter are usually the male peer group of administrators and noble man, and the objects of laughter are monks, military,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dministrators and noble man who are not included in the peer group or who are not like administrators and noble man even if they belong to the peer group. This means that the sohwa functioned as a discourse that distinguished us from them through discriminatory gazes and, in doing so, reinforced self-group cohesion. On the surface, it is a record of laughter to eliminate boredom, but in reality, it is characterized by a strong sense of group cohesion and solidarity based on the self-consciousness and identity of the noble classes, and the attempt to disguise it with laughter.

이상한 나라의 데카르트 :**공감 없는 철학의 탄생****Descartes in Wonderland :****The Birth of Philosophy without Sympathy**

이무영 Lee Muyoung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본 발표는 서유럽 르네상스에서 나타났던 지나간 과거의 공감 담론을 통해 현대적 공감 이해의 저변을 넓혀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후기중세에 공감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달리,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라는 원천에서 비롯된 공감 개념을 재전유함으로써 다양한 분야들에 이를 적용한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소설가 라블레나 의사 프라카스토로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공감 이론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대표적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데카르트는 자연의 물리적 이해를 통해 기존의 공감 개념을 신비나 기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들과 차별화되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태도 변화는, 르네상시기 자연의 공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근대적인 인간의 공감을 향한 최초의 모색으로 평가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pand the base of modern understanding through a discourse on sympathy in the Western European Renaissance. Contrary to the historical fact that there was no discussion of sympathy in the late Middle Ages, the Renaissance reappropriated the concept of sympathy which originated from ancient Greece. Descarte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igures who implicitly agreed with the Renaissance sympathy. Nevertheless Descartes differentiates himself from others in that he defined a sympathy as a mystery or miracle through his particle physics of nature and further denied it. This change in Descartes' attitude can be evaluated as the first search for a so-called human sympathy, breaking away from the natural sympathy during the Renaissance.

감정 이입과 의미 결정의 과정 :

퍼스의 관점에서

The Process of Empathy and Meaning :**A Peircean Eerspective**

이청호 Tim Cheongho Lee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국문요약

퍼스의 범주론과 결정이론(theory of determination)은 인식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퍼스의 삼원적 범주론과 기호론을 통해 의미작용 및 해석에 나타나는 결정의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일성의 범주로부터 제이성, 그리고 제삼성에 이르는 범주론적 결정 과정은 퍼스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의미 결정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상, 기호, 해석항의 삼원적 기호론은 능동성과 수동성의 이원적 결정의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의미의 결정에 안주하는 것은 선입견과 같은 편향된 시각에 안주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급의식(retroconsciousness)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Charles Peirce's theory of determination and the theory of categories offer a helpful theoretical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how cognition is determined. Looking at the components of determination in meaning-determination and interpretation using Peirce's triadic categories and semiotics. In Peirce's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dimensions, the process of successfully producing meaning is outlined by the categorical determination process, which moves from a Firstness to a Secondness and finally to a Thirdness. Furthermore, a binary determinate process of active and passive is proposed by the triadic semiotics of object, sign, and interpretant. Nevertheless, in cases of successful meaning-determination, there lies the risk of producing prejudiced perspectives, such as predetermined biases. In order to get around this, one must accept the potential for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nd take the retroactive position of viewing th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K-Culture에서 소통으로 :**한류와 함께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From K-Culture to
Communication :****On Students who Learned Korean
with Korean Wave****윤종숙 Jong Sook Yun****홍콩중문대학교****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문화 즉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한 10명의 같은 대학교 학생들의 언어습득과 관련한 특징을 살펴보고 그들의 학습 방법의 성공 요인을 규명한다. 그들의 언어습득과 관련한 특징은 1) 그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했다. 2)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접했다. 3) 부족한 어휘나 문법적 지식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4) 그들은 타문화에 매우 개방적이다. 그리고 5) 그렇게 습득한 한국어는 교실 학습자와 다르게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들의 핵심은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성공 요인을 규명한다. 첫째, 그들은 책인 아닌 미디어를 통한 한국 사회에 대한 가상 경험이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것이고, 둘째, 문화적 개방성과 공감능력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한류의 역사가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시기를 같이한 바, 미디어 기술과 알고리즘 등의 영향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접해 왔다는 것이다. 통속적 대중문화라고

치부되기도 하는 한류 영향이 예상치 않았던 한국어의 보급과 습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으로 많은 학생들이 타문화를 향해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언어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열 없는 다양성의 유익을 인식하며 앞으로의 변혁에도 주저함이 없기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ccess factors behind the language acquisition of 10 students at the same university who have effectively acquired the Korean language while enjoying Korean popular culture—that is, various entertainment programs.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ir language acquisition are as follows: 1) The students learned autonomously and independently, 2) They had been exposed to cultural content steadily and continuously for years, 3) They did not focus on studying to improve vocabulary or grammatical knowledge, 4) They are very open to other cultures, and 5) The Korean language that they learned is very natural, unlike that of classroom learners. The result of these characteristics is that they have become truly communicative.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ree major success factors are identified. First, through the virtual experience of Korean society through media rather than books, they have greatly improved communicative competence. Second, one's cultural openness and empathy play an important role in learning new languages. Third, as the history of the Korean Wave coincides with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technology and algorithms of YouTube have helped learners watch programs of interest continuously until they improved their language skills. Therefor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which tends to be regarded as 'low culture', has resulted in the acquisition of the Korean language by informing the world of the utility of Hangul. Just a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open their minds to other cultures and delve into them, it is suggested that teachers open up a new perspective and the future transformation for the benefits to diversifying language acquisition methods.

**공감의 본성과 성숙한 시민사회 :
맹자와 흄의 논의를 중심으로****The Nature of Empathy and
a More Civil Society**김병재 Byoungjae Kim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국문요약**

서구의 주류 사상가들은 공통적으로 (1)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하는 “동등성 전제”에서 출발하여, (2)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우해야만 한다고 하는 “공평성의 원칙”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도출된 도덕적 원리를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다. 이들은 동등성 전제에서 공평성의 원칙을 도출해 내는 이성적 추론의 과정에서 해답을 찾고 있으며, 이성적 준거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성숙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맹자와 흄은 순수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도덕 원칙들을 구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들은 인간의 본성에는 근본적으로 공평성의 원칙과 상충하는 편파적 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순수 이성적 사유의 귀결로서 부과되는 추상적 도덕적 원칙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편파적 본성 앞에 무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맹자와

흄은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모든 인간에 내재한 이 편파적 본성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목하는 인간의 편파적 본성이란 바로 인간의 공감능력이다. 편파성이라고 하는 제한된 형식으로 작동하는 타고난 공감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고, 제한된 공감 능력이 가지고 있 편파적 속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데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이 “제한된 공감”을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확장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확장된 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Mainstream Western thinkers commonly start with (1) the “assumption of equality”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they derive (2)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that all human beings ought to be treated impartially. They present this moral principle as the solution to the issue of how to move toward a mature civil society. It is through the rational process of reasoning that they derive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from the “assumption of equality,” and they believe that a mature society can be realized by imposing moral obligations on the members of society according to the rational process. However, Both Mencius and Hume believed that the construction of moral principles through purely rational process does not in itself impose any moral obligations on citizens. Because human nature is inherently partial, which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impartiality,” they believed that abstract moral principles imposed as a corollary of pure rational thought are fundamentally inert in the face of human partiality. For this reason, they insist on a proper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that the discussion should begin with this partiality inherent in all human beings. They recognize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nate sympathy (or empathy), which operates in a limited form called partiality, and argue that discussion should focus on finding ways to overcome the partiality of “limited sympathy.” They all believe that through reflection, this “limited sympathy” can be continuously corrected and expanded to achieve the “extensive sympathy” required by a mature civil society.

분과회의 세션 6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Parallel Session 6

6-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미국 민권운동의 산실 하이랜더

포크스쿨 :

1930~40년대를 중심으로

Highlander Folk School, The Cradl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30s~1940s.

김진희 Jin Hee Kim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국문요약

20세기 미국의 역사에서 남부는 개혁의 걸림돌로 작동하며 미국 정치와 인종 관계의 규칙을 부정적 방향으로 재설정하는 역할을 했다. 사회변혁을 꿈꾸는 이들은 남부를 통해 미국사회의 변화를 모색했다. 냉전 시기 인종분리정책이 시행된 남부에서 흑인과 백인, 활동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연대하며 서로를 통해 배워나갔던 소수의 거점 중 하나가 '하이랜더 포크스쿨 (Highlander Folk School, 1932~1961)'이었다.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 몬트이글에 위치한 하이랜더 포크스쿨은 인종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의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흑인 민권과 리더십을 일깨웠던 소규모 비영리 시민단체이자 교육기관이었다. 규모는 작았고 30여년의 존속 이후 정부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으나 하이랜더 포크스쿨은 미국 민권운동의 중심에 섰다. 본 연구는 1930~40년대에 초점을 맞추어 '인 민권운동'의 뿌리를 확인하고 민권운동가들의 본래적 지향성과 가치를 점검함으로써 남부 노동운동-민권운동의 관계를 재고하고 '민권'으로 한정될 수 없는 미완의 과제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Abstract

In the 20th century American history, the South acted as an obstacle to reform and played a role in resetting the rules of American politics and race relations in a negative direction. Therefore, those who dreamed of transforming America sought to change the South. In the Jim Crow South, 'Highlander Folk School was one of the few bases where blacks and whites, activists and citizens communicated, formed solidarity, and learned from each other. Highlander Folk School, located in Monteagle, a small town in Tennessee, was a small non-profit civic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sought to fight against racial and class inequality while also awakening black civil rights and leadership. Although it was small in scale and was forced to close by the government after 30 years of existence, Highland Folk School stood at the center of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sought fundamental change and had significant legacy. This study, focusing on the 1930s and 1940s, identifies the roots of the 'long civil rights movement' and examines the original intentions and values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truggle at the Highlander Folk School and thereby attempt to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ern labor movement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expand the understanding the area of the 'civil rights' history.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remind of the unfinished tasks that are still unresolved in the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분과회의 세션 6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Parallel Session 6

6-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역사와 인권 :

‘역사 없는 사람들’의 역사를 위한 이론

**History and Human Rights :
A Historical Theory of the “People
Without History”**

전진성 Chun, Jin-Sung

부산교육대학교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국문요약

역사가 국민국가의 기억과 자기정체성의 회로 안에 폐쇄되는 한, 국민, 시민, 여성, 노동자, 민중, 혹은 코즈모폴리탄 등과 같은 역사의 ‘주체’들에게 부여된 어떠한 집단 정체성도 갖지 못한 여분의 존재들은 그야말로 ‘역사 없는 사람들’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것인 바로 새로운 ‘인권’의 이념이다. 1970년대 중반 이래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어온 ‘인권 혁명’은 국가권력에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맞서는 초국적 단위의 시민 단체들에 의해, 정치인이나 법률가들보다는 이른바 사회적 주변인, 이방인, 혹은 공공적 폭력의 피해자들에 의해 촉진되어 왔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사람들, 정치에 대한 권리 자체를 아예 결여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해 소속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출생의 자격을 공유하는 미지의 타자에게 부여된 권리다. 본 발표는 ‘인간(모두)의 권리’에는 마땅히 역사의 권리도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역사를 국민국가의 기억으로 환원했던 종래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This is an abstract of the paper “History and Human Rights: A Theory for the History of ‘People Without History’.” As long as history is closed within the circuit of the memory and self-identity of the nation-state, the extra beings who have none of the collective identities granted to the “subjects” of history, such as people, citizens, women, workers, folk, or cosmopolitans, can only remain “people without history.” It is this new idea of “human rights” that provides an outlet for reflection on these issues. The global “human rights revolution” that has been underway since the mid-1970s has been fueled by transnational NGOs that challenge rather than appeal to state power, and by people on the margins of society, strangers, or victims of public violence rather than politicians and lawyers. Human rights are the last appeal of those who have no rights beyond the fact of being human, those who have no right to politics at all: rights granted to unknown others who share the birthright of being human, whether they belong or not. Starting from the premise that the rights of (all) human beings include the right to history,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various theories that critique the conventional view of history, which reduces history to the memory of nation-states, and offer new perspectives.

분과회의 세션 6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Parallel Session 6

6-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1970년대 한국에서의

인권 문제와 글로벌 연대 :

조지 오글 목사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

구명운동을 중심으로

Human Rights Issues and
Global Solidarity in South
Korea in 1970s

이상록 Sang rok Lee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국문요약

1974년 12월 14일 한국 정부는 조지 오글 목사를 국외로 강제 추방시켰다. 유신 체제 하에서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편에 서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지 오글 목사는 목요기도회에서 이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한국 정부가 오글 목사를 강제 출국시킨 배경에는 미 행정부 등에 한국의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선교사 집단의 초국적 활동이 놓여있었다.

강제 추방으로 미국에 간 오글 목사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철회해야 주장했다. 한국 중앙정보부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인혁당 사건과 한국의 인권 현실에 대해 설교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당선 이후 그는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인혁당사건의 부당함을 환기시키는 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썼다. 오글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택했고, 냉전반공주의의 '타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초국적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Abstract

On December 14, 1974,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ced pastor George Ogle out of the country. In a situation where no one could speak on the side of those sentenced to death for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under the Yushin regime, Pastor George Ogle publicly prayed for them at a Thursday prayer meeting. The reason behind the Korean government's forced departure of Pastor Ogle was the result of the transnational activities of a group of missionaries who reported human rights issues in Korea to the U.S. administration and others.

Once in the U.S., Ogle testified at a human rights hearing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aising awarenes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advocating for the U.S. government to withdraw its economic and military suppor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terred by sabotage efforts by South Korea'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Ogle traveled across the United States preaching about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election of President Jimmy Carter in 1977, Ogle wrote several letters to Carter urging the U.S. government to respond to human rights issues in South Korea and highlighting the injustices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Pastor Ogle chose to participate in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of the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out of his religious beliefs, and carried out transnational solidarity activities to save the 'others' of Cold War anti-communism.

분과회의 세션 6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Parallel Session 6

6-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해방 이후 민권과 인권의 정치적 상상력

Political Imagination of Civil and Human Rights after Liberation

황병주 Hwang, Byoungjoo

국사편찬위원회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국문요약

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 이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상상은 근대사회의 기본적 특징이 되었다. 1948년에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주지하듯이 해방 이후 국가 형성과정은 이러한 담론적 토대에 기반 했다. 특히 국제연합과 세계인권선언은 주권의 초국적 정당성과 보편적 인권의 근거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국제연합이라는 초국적 기구를 통해 정당성이 부여된 국민국가 한국의 형성과정은 곧 이러한 보편적 규범이 형식적 수준에서 관철된 결과로 상상되었다.

유신체제를 전후해 인권이 저항의 새로운 대표 기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고문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고 양심수가 새로운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지배질서가 내세운 자유주의적 가치와 인권의 형식적 압력이 저항 운동의 담론 자원으로 전환된 셈이었다.

여기서 민권과 인권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 이후 인권과 민권은 혼용되는 양상이었지만 1970년대 들어 인권과 민권의 빈도수는 현격한 차이를 노정해 인권이 민권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민권은 사실상 사회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개념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약화되었으며 인권이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근대의 보편적 표상체계를 부정할 수 없는 박정희 체제는 국민국가의 민권적 주체(권리와 의무의 복합체인 호모 사케르)를 구성하고자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자연상태에 내던져진 개체들 사이에 상상의 국민적-민족적 통합을 추구한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초국가적 보편 가치에 기반한 저항운동은 급속하게 인권의 문제설정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Abstract

Since the French Revolu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and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idea of universal human rights has been a fundamental feature of modern society.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published in 1948. As we will see, the process of state formation in the post-emancipation era built on these discursive foundations.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ere highly influential as a basis for the transnational legitimacy of sovereign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In other words, the formation of the Korean state, a nation-state whose legitimacy was granted through the transnation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was imagined as the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se universal norms on a formal level.

Human rights began to emerge as a new signifier of resistance around the time of the Yusin regime. The fact that state violence such as torture was challenged in earnest and prisoners of conscience began to be used as a new term illustrates this change.

This is wher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civil rights and human rights comes into play. While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have been used interchangeably since the opening of the port, the frequency of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becam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1970s, with human rights overwhelming civil right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which cannot deny the universal representation system of modernity, sought to construct a civil rights subject of the nation-state. This means that a project of imagined national and ethnic unity was set in motion among individuals left to the natural state of the market. Resistance movements based on transnational universal values, on the other hand, rapidly began to move to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분과회의 세션 6

6-5 권리없는 자들의 민권, 역사없는 자들의 인권 : 소통과 연대로 보는 민권과 인권의 역사

Parallel Session 6

6-5 Civil Rights of the Disenfranchised and Human Rights of Those without History: The History of Civil and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종전/해방 직후 남한과 인민의 경쟁 그리고 그 폐색(閉塞)

The Competitions among Inmin(인민) and Their Closures in Post-War and -Liberation South Korea

임종명 Chongmyong IM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인민’은 전통시대 탈권적(奪權的) 대상적 존재였던 ‘민인’(民人)과는 달리 근대 시기 주권적(sovverign) 주체로 상상·구성된 역사적 실체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승리로 종식된 2차 대전 직후 인민은 전쟁 승리자의 이념·담론이었던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아가 자각적·자주적·자결적인, 요컨대 주권적 주체로서 전성(全盛)을 구가하였다.

전성기 인민은, 최소한, 자유주의적인 개인의 추상적 집합체와, 제(諸)계급 연합·통일의 집합체 내지는 최소한 ‘반파쇼 민주주의’의 정치적 주체들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구성된 인민이 담론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정치·사회 영역에서 호명되면서, 그것들은 종전/해방 직후 상호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쟁 상황과 해방 공간의 ‘무정형성’ 등을 표현하면서 인민은 당대 ‘문제적 기표’였다. 즉 인민 개념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실체성은 물론이고 개념 또한 분명히 하지 못하였던 문제적 기표였다. 현실적인 문제는 주권적 주체로서의 인민은 국가의 주체성을 물론이고 위협하면서 국가를 탈(脫)

주체화하고 인민에 대해서 수단화·객체화·대상화하고 종속적 존재로 위치 지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서, 당대 엘리트들은 인민을 순치(馴致)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그 노력이 진행되면서, ‘인민’은 ‘정치권’과 ‘인민권’ 보유와 그것들의 행사 주체인 정치적 주체로 정체화되었다. 나아가, 인민은 인민 주권성이라는 개념 조작 속에서 정부의 통치 대상으로 대상화·탈주체화되었다. 되었다. 이로써 인민의 주권성은 박탈되고, 인민의 시대는 폐색(閉塞)되었다.

Abstract

The post-colonial nationalist agenda combined with post-War discourse of democracy identified inmin as the subject of building and running the democratic state, and as the sovereign of the state. The discursive space of post-liberation South Korea witnessed the flooding of inmin(people) which transformed the post-liberation space and time into the era of inmin. The era of inmin in post-colonial South Korea testified to the history of post-colonial Korea and the post-War globe, in which nationalism and democracy gave the cultural, ideological and discursive support to each other.

Nevertheless, inmin was a problematic signifier with no clear meaning to the extent that it was confused with its rival appellations and entities such as the nation. Also, it was a product of ideation rather than a historical reality nor an empirical one. Moreover, inmin culturally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nd inmin existing in the real world contradicted each other. Most crucially, the national subjectivization of inmin could threaten the independent subjectivity of the state and its embodiment, the government while relegating them to the object of, or the means to, inmin constructed as a sovereign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ubjectivization could de-legitimize the leading authority of contemporary ruling elites.

This problematic situation led South Korean elites to domesticate people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instituting the democracy of popular sovereignty. Also, the elites excluded and separated inmin not only from power politics but also from the politics of everyday life. It was this dual progress that testified to the post-colonial South Korean history which evolved around inmin.

서발턴의 한국전쟁 기억과

포스트기억

일본군 '위안부'의 한국전쟁 기억을 중심으로

Subaltern's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Postmemory :Focusing on the memories of the
Comfort Women

김려실 Ryeosil Kim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이 글은 '위안부'의 한국전쟁 기억을 재현한 포스트기억 예술을 통해 국사의 공식 기억이 배제해온 서발턴 타자의 기억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동안 수집된 위안부의 증언은 생존자의 일생을 두고 보면 짧은 시기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또 다른 전쟁, 가령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김복동의 증언이 담긴 증언-소설, 해방 이후 기지촌에서 연명했던 김순악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이 글은 위안부를 둘러싼 재현의 위계질서와 기억 정치의 변화를 살펴본다. 위안부 운동이 대중화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사회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위안부는 매춘부일 뿐이라는 역사 수정주의의 주장에 노출되면서 '피해자다움'의 틀을 벗어난 위안부 재현은 회피되어 왔다. 국사를 초과하는 위안부의 기억, 피해자다움에 걸맞지 않은 기억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둘러싼 현재의 폭력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위안부 운동이 여성인권을 추구하는 초국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운동의 국가화와 동화, 운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분석이 '위안부학(學)'의 본격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how to historicize the memories of the subaltern others, which have been ruled out by the official memory of national history through postmemory arts that represent the Korean War memorie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testimonies of them collected so far have focused on the painful past, which was quite short period in the lives of them. We know, therefore, little about how they survived other wars, such as the Korean War. This paper examines the hierarchy in the representation of come forte women and a change in memory politics around them, analyzing a testimony-novel referring to Kim Bok-dong's testimony about the massacre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and a documentary film based on the testimony of Kim Soon-ak who managed to survive in a U.S. military base village after the war. In the process of popularizing the comfort women movement, the social identity required for the victims has been created and they were also exposed to historical revisionists claiming that they were only prostitutes and therefore the representation of comfort women outside the framework of "victimhood" has been avoided. The reason why we cannot hear memories of comfort women that exceed national history and those that are unsuitable for victimhood is that we disregard the current violence surrounding them. In order to move toward a transnational peace movement in pursuit of women's rights, the nationalization and assimilation of the comfort women movement and analysis of conflicts and divisions within the movement must be dealt with as a full-fledged agenda of "comfort women" studies.

대구 10월항쟁의 포스트기억 생산의 조건

The Conditions of Post- Memory Production in Daegu October Uprising

이시성 Siseong Lee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10월항쟁은 해방기 미군정의 실정에 대해 일어난 민중봉기의 성격을 지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폭동으로 여겨져 왔다. 10월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은 유족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60년의 경북피학살자유족회, 80년대 민주화 이후 결성된 대구유족회와 10월항쟁유족회는 각각 그 성격과 활동의 방향은 달랐지만 10월항쟁의 진상규명과 기억 운동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더불어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10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려는 학계의 노력이 이어져 오늘날은 '폭동'이 아닌 '항쟁'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시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월항쟁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법적·제도적 토대를 갖는 것과 별개로 기억이 소실되는 것은 사건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포스트기억 생산의 활성화에서 찾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10월항쟁의 기억을 다루는 많지 않은 작품 중 하나인 『도동 사람』

(안삼환, 2021)을 분석해보았다. 이 작품은 10월항쟁을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재현하면서도 이 사건이 가지는 지역적 맥락은 결핍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이 포스트기억으로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사건의 기억을 전달하는 매개로서의 포스트기억의 생성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Abstract

Although the October Uprising was a popular uprising against the mismanagement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t has long been viewed as a riot in South Korea. Efforts to uncover the truth and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of the October Uprising have been made by bereaved families, civil society, and academia. In particular, the Gyeongbuk Genocide Bereaved Family Association in 1960, the Daegu Bereaved Family Association and the October Uprising Bereaved Family Association form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the 80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October Uprising truth and memory movement, although the nature and direction of their activities are different. In addition, since the late 80s, scholarly efforts have been made to reevaluat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October Uprising, and it is now referred to as a "protest" rather than a "riot" in Korean society.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public awareness of the October Uprising, and the loss of memory, apart from hav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could lead to a crisis of the event itself. Therefore, I hope to find a solution to this by activating post-memory production. As part of this, I analyze 『Do-dong People』 (Ahn, Samhwan, 2021), one of the few works dealing with the memory of the October Uprising. The work recreates the October Uprising as a traumatic memory, but lacks the local context of the event. From this perspective, I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artworks as postmemories. And I also thought about w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e creation of postmemory as a medium to convey the memory of an event.

부산 입국 베트남 난민 기억의

한계와 가능성 :

비공식 기록과 문학을 통한 기억 재현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Vietnamese Refugees
entering Busan- Reproduction of Memory through
Unofficial Records and Works of
Literature

류영욱 Ryu, Young-wook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이 논의는 한국 사회가 베트남 난민을 최초로 받아들인 1975년 5월, 부산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 베트남 난민의 구출과 수용은 인도주의적인 구호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나 이후 정치와 외교 상황에 따라 동원되고 소외되는 냉전의 산물이 되었다. 동떨어진 섬 같은 존재였던 난민들의 모습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잊은 한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했다. 난민들은 입국 이후 보호소에서 폐쇄적인 생활을 했고 때때로 반공주의의 증언자로 동원되기도 했다. 주변인들의 기억에 난민들은 담 너머의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난민 정책에 따라 공식 기록은 난민들을 망각해 가고 있었다. 망각된 기억들이 재현된 것은 지역민의 구술이나 문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인 선박이 베트남 난민을 구조했던 이야기인 『만선』과 『흔들리며 피는 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만 불편한 기억 재현의 장으로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기억 연대의 가능성으로 비공식 기록과 문학의 영역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iscussion begins with the memory of Busan in May 1975, when Korean society first accepted Vietnamese refugees. The rescue and acceptance of Vietnamese refugees was recognized as a humanitarian relief activity, but it later became the product of the Cold War, which was mobilized and marginalized according to political and diplomatic situations. The refugees, who were like distant islands, gave them a critical look back on Korean society, which accepted and forgotten them. After entering the country, the refugees lived closed lives in shelters and were sometimes mobilized as testifiers of anti-communism. In the memory of those around them, refugees were nothing but strangers over the wall. Due to the Korean government's dual refugee policy, official records were forgetting refugees. Refugees who thought they had settled on land after a life-or-death voyage were becoming such a remote island. The reproduction of forgotten memories was made in the oral or literary realm of locals. The story of a Korean ship rescuing Vietnamese refugees, 『a ship full ship』 and 『All flowers bloom as they shake』 have certain limitations but have meaning as a place for uncomfortable memory reproduction. In addition, 『JAESONG』, the result of oral records containing the memories of Jaesong-dong, where the shelter was located, shows the possibility of informal records and surrounding memories at a time when even the memories of the refugee parties are difficult to restore. It also ideally embodied the life on board where Korean sailors and refugees coexist. This means that the place in contrast to the closed life of the Busan shelter and the space of possibility of true acceptance and hospitality for others was completed with a literary investigation. Furthermore, the domain of informal records and literature should be expanded with the possibility of memory solidarity.

분과회의 세션 6

6-6 냉전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연대 : 재역사화에서 평화운동으로

Parallel Session 6

6-6 Cold War Memories and Post-memorial Solidarity : From Rehistoricization to Peace Movements

베트남전쟁과 포스트기억 생산*

-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
(이길보라, 2020)을 중심으로Vietnam War and Post-Memory Production -
Focusing on the documentary
"The War of Memory" (Lee Gil Bora, 2020)

양수민 Yang sumin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국문요약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에 놓여 있다. 진보 시민단체가 해온 작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과서, 기념의 정치, 기록의 부재, 공문서의 은폐라는 냉전과 독재의 시대착오적인 유산이 기억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기억 세대의 작업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이고 치열한 투쟁에 있어 중요한 실천이자 참조점이 된다. <기억의 전쟁>은 참전군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둔 손주 세대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베트남전쟁을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젠더와 세대의 차원에서 전유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화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증언 활동을 해온 인물의 동행자로서 프레임의 안과 밖, 과거와 현재, 체험세대와 미체험 세대를 연루시킴으로써 학살을 경험한 사람과 학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시차Time difference를 줄이고 학살 이전과 이후로 분절되는 시간과 장소들을 이어준다. 따라서 이 글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한 포스트기억 세대의 활동을 분석하여 이 작업이 어떻게 베트남전쟁의 포스트 기억을 생산하며, '교차점intersection'을 마련해내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Issues regarding Vietnamese civilian massacred by South Korean soldiers have not yet been resolved. Now that anachronistic heritages emanating from the cold war and despotism spanning textbooks which do not contain contributions thus far made by progressive civic groups, politics of commemoration, lack of record and concealment of official documents are deeply intertwined with matters of memories, tasks of Post-Memory Production serve as a pivotal practice and reference for political, intensive struggle on the matter of "how to remember." *A War of Memories* is a documentary film directed by the grandchildren generation whose grandfathers joined the Vietnam War. This film presents a novel viewpoint in a way that sees the Vietnam War not as a inter-state issue, but as gender and generational matters. By following a survivor who presented his testimonies between Vietnam and South Korea from 2015 until 2018, this documentary narrows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experienced massacre and those do not, and links the time and places split before and after the massacre by interlinking the inner and outer of frames,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generations who went through the massacre and those who did not. This paper thus intends to provide an analysis of practices of post-memory production based upon retrospect and contemplation over the historical fact and examine how such works bring about the post-memories of the Vietnam War and lay out the intersection accordingly.

* 피에르 마슈레Pierre Macherey는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에서 문학작품이 독립적인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시기에 따른 이데올로기에 매개되어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다큐멘터리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주도의 기념 정치에 길항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감독 개인의 천재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사상의 조건 속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점에서 <기억의 전쟁>은 이 시대의 변화를 촉발하는 움직임의 하나이자 동시에 그 변화된 증거인 셈이다.(피에르 마슈레, 『문학생산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 1부 참조.).

MEMO

MEMO

MEMO

MEMO
